언론사: 한국일보-3-400.txt

제목: 유방암, 치료 후 5년 지나도 재발 가능성 높아  
날짜: 2017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15050847003  
ID: 01101101.20170515050847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9년 지나도 재발률 2.3%…10년 정도 치료해야<br/><br/>유방암은 5년 생존율이 92.0%(국가암정보센터ㆍ2014년 기준)에 달하는 ‘착한’ 암이다. 암은 대개 수술 등 치료 후 5년간 생존하면 재발하지 않기에 완치로 판정한다.<br/>하지만 유방암은 다른 암과 달리 치료 후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재발 가능성이 높아 10년 정도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 국내 유방암 재발률이 6~20%인데, 이 중 25%가 수술 5년 뒤에 다시 암이 발병했기 때문이다.<br/>한국유방암학회 ‘유방암 백서’는 유방암 재발이 수술 2년 뒤(5.6%)에 가장 높았다가 8년 뒤(1.2%)까지 점점 줄었다가 9년 뒤(2.3%)에 다시 늘었다. 송병주 부천성모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은 수술 후 9년 뒤에도 재발하는 비율이 높아지기에 10년 정도 치료해야 한다</span>”고 했다.<br/>유방암 치료기간을 수술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유방암의 70% 정도(한국인의 60% 정도)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인데, 이 암은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호르몬 수용체 활동을 막는 타목시펜(항호르몬제) 등을 먹는 항호르몬(내분비) 요법을 쓴다. <br/>그런데 이 요법을 수술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2년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진은 타목시펜을 5년 먹는 것보다 10년 복용하면 유방암 재발률과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미국 임상암학회는 2014년 유방암 항호르몬 요법 치료기간을 10년으로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따르고 있다.<br/>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유방암 수술 5년 뒤에 항호르몬 요법을 중단하면 재발과 전이 가능성이 높아 10년 정도 약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말했다. <br/>정소연 국립암센터 유방외과 전문의는 유방암 수술 환자의 25%정도가 수술 5년 뒤 재발하므로 항호르몬 요법이 가능하다면 10년까지 치료 받은 것이 좋다”며 “다만 항호르몬 요법의 건강보험이 수술 후 5년까지만 인정돼 그 이상 치료하려면 환자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게 문제”라고 했다. 정 전문의는 “호르몬제를 10년 정도 먹으면 자궁내막암 등에 걸릴 수 있어 정기적으로 부인과 검사를 받아야 2차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br/><br/><유방암 재발률><br/><자료: 한국유방암학회 ‘유방암 백서’>

언론사: 한국일보-3-401.txt

제목: 주사 두 번 맞으면 95% 넘게 예방하는 자궁경부암… 성 접촉 전 접종하면 더 효과  
날짜: 2017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15050846001  
ID: 01101101.2017051505084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자궁경부암은 자궁 입구(경부)에 생기는 암이다. 성 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가 주 원인이다. HPV는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의 10%가 감염될 정도로 흔한 바이러스이지만 80~90%는 자연히 사라진다. 하지만 일부 사라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 하지만 두 차례 백신 예방 접종만 하면 자궁경부암을 거의 예방할 수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10대 예방 접종, 20대 정기 검진’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마침 5월 셋째 주(14~20일)는 자궁경부암 예방 주간이다.<br/>20~30대 자궁경부암 발병↑<br/>20년 전만 해도 자궁경부암은 여성암 1위였다. 최근 자궁경부암 검사(자궁경부세포검사)가 보편화되면서 ‘전암 단계’에서 많이 발견돼 치료된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여전히 매년 3,600여명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으며, 하루 2~3명이 이로 인해 사망한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과도한 질 분비물과 출혈, 통증 등이 생길 때면 이미 전이된 상태여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br/>게다가 20~30대 젊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병이 늘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암 가운데 7%(2015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20, 30대에서는 각각 11.9%, 14.9%로 2배 가량 많다. 주웅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빨라진 성 경험, 건강 무관심과 방심이 자궁경부암을 키우고 있다</span>”고 했다.<br/>자궁경부암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9~13세 여아에게 백신 2회 접종하기 ▦30세 이상 여성의 HPV 검진 받기 ▦자궁경부암 예방 메시지 확산을 통해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위험ㆍ예방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기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br/>하지만 초기 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으면 발견이 늦어진다. 이재관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전암 단계에서 발견돼도 자궁을 일부 잘라내야 하고, 암이 많이 퍼졌다면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span>”고 했다.<br/><br/>성 접촉 전 접종하면 면역 더 높아<br/> 자궁경부암 환자의 92%에서 HPV가 발견된다. HPV는 종류가 150개가 넘지만 이 가운데 16형, 18형 두 가지가 일으키는 자궁경부암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따라서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면 95% 이상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예방접종은 HPV에 노출되기 전 청소년기에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백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4가지 타입의 HPV를 예방하는 ‘가다실’과 2가지 타입을 예방하는 ‘서바릭스’가 나와 있다.<br/>WHO도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을 권고해 세계 65개국,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9개 회원국(2016년 기준)이 수용했다. 우리 정부도 만 12세 여아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 예방접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접종률이 50% 정도에 그쳤다.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은 당장 효과 나타나지 않는데다 지난해 부작용에 대한 루머가 퍼져서다.<br/>하지만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1'>백신 접종은 실보다 득이 많다</span>”고 강조한다. 엄중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모든 백신엔 부작용이 있지만, 질병 예방 효과가 훨씬 크다</span>”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일부 부작용 사례로 인해 백신 불안감이 지나치다</span>”며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백신 예방 접종은 세계적 추세고 대체로 안전하다고 보고되고 있어 접종을 권한다</span>”고 했다.<br/>특히 HPV는 성 접촉으로 감염되므로 성 경험 전에 예방 접종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다. 9∼15세에 접종하면 나이가 들어 접종하는 것보다 면역반응이 더 높기 때문이다.<br/>그렇다고 성인이 돼 예방 접종하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성인 여성이 접종해도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게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영국 암 저널(British Journal of Cancer)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및 관련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 효과를 연구한 결과 HPV 6, 11, 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 상피 내 종양을 94% 막았다. 다만 임신부에게는 접종을 권하지 않으며 1차 또는 2차 접종 후 임신인줄 알았다면 분만 후 접종하기를 권장된다. 수유 여성에게는 접종해도 된다.<br/><br/>20세 넘어 접종했다면 정기 검진을<br/>예방 접종을 했어도 자궁경부암에서 100% 해방될 수 없다. HPV 종류가 150가지가 넘는데다 주 원인이 되는 16과 18형 외에도 다른 번호의 바이러스로 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들은 본격적으로 암이 진행되기까지 10~15년 정도 걸리는 자궁경부암의 특성상 예방 접종과 정확한 정기 검진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br/>하지만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검진율은 낮은 게 현실이다. 국립암센터의 암 검진 수검행태 조사 결과(2015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비율이 65.6%로 미국(78.5%), 영국(78.4%) 등과 비교해 낮았다. <br/>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발표한 국가암검진 권고안은 20세 이상 여성이면 증상이 없어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3년마다 받도록 권했다. 자궁경부암 단초가 되는 상피이형성증 등 병변을 조기 발견하면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암 진행을 막을 수 있어서다.<br/>이런 추세를 감안해 지난해부터 자궁경부암의 국가암검진 연령이 낮춰졌다. 20대의 자궁경부암과 상피내암이 늘고 있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대폭 낮췄다. 성인 여성은 2년마다 무료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는 자궁 경부를 솔로 문질러 떨어진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암세포를 가려내는 것이다. 다만 검사 정확도가 75~85%여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정확도를 높이려고 HPV 검사나 자궁경부확대촬영 등을 같이 시행할 수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02.txt

제목: “스트레스 심했다”… 동네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날짜: 201705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11050810002  
ID: 01101101.20170511050810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동네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br/>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쯤 성북구 길거리에서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인근 편의점 앞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2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br/>경찰에 따르면 범행 현장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귀가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몸을 한 차례 찔린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흉기를 휘두르는 김씨를 제지하다가 오른손을 심하게 다쳤다. 김씨는 A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br/>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span class='quot0'>가족과 헤어지고, 암 수술까지 받아 스트레스가 심했다</span>”며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김씨는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span>”고 말했다.<br/><br/>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03.txt

제목: 고려대 ‘중이온 가속기’ 통해 기초과학연구 요람으로  
날짜: 201705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11050807002  
ID: 01101101.20170511050807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고려대가 중이온가속기 실험동을 건립하고, 관련 기업들을 가족기업으로 맞아들이는 등 중이온가속기 선도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중이온가속기는 핵물리ㆍ생명과학분야 첨단 연구장비로, 고려대는 중이온가속기 분야를 특화해 기초과학연구의 산실이 되겠다는 의지다.<br/> 11일 고려대에 따르면 전날 세종캠퍼스에서 중이온가속기 실험동 준공식을 가졌다. <br/> 실험동은 중이온가속기 핵심 장치ㆍ설비 개발과 활용 연구에 특화된 대형 연구기반시설이다. 고려대 실험동에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건설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의 주요 가속기 장치와 실험 연구시설 일부가 들어온다. 이를 통해 가속기사업단의 ‘라온’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본격 참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절대 부족한 가속기 분야 석ㆍ박스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IBS는 라온 구축을 위한 핵심 장치 국산화와 신기술 개발부터 모든 과학기술 분야의 라온 활용 연구까지 고려대와의 공동연구와 협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 고려대는 앞서 2014년 세계 최초로 가속기과학과를 일반대학원 정규학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 도쿄공업대로부터 기증받아 운용 중인 소형 가속기도 실험동으로 이전 설치해 다양한 연구에 활용키로 했다. 더불어 최첨단 융복합의료센터 구축사업(KU-MAGIC 프로젝트)와 연계해 암치료용 가속기 개발에도 나설 참이다.<br/> 고려대 세종협력단은 이날 준공식에 앞서 중이온가속기 관련 업체들과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신규 지정된 초전도 선재 제조업체 K.A.T㈜ ▦핵융합 등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전원장치와 전자유도가열장치를 제작하는 ㈜다원시스 ▦포항 가속기연구소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 주축이 돼 설립한 ㈜에이엠티 등이 참여했다. 국내외 가속기연구소와 원자력연구소,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초고진공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벡트론, 고자기장 전자석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는 ㈜금룡테크 등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들도 고려대와 가족기업이 됐다.<br/> 해당 기업들은 고려대, IBS와 신뢰를 바탕으로 가속기 핵심 장치 국산화와 신기술 개발에 의기투합할 계획이다.<br/> 고려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실험동은 과학벨트의 핵심인 라온 중이온가속기 구축과 국가 가속기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세종시와는 과학벨트 세종기능지구 활성화 정책과 밀접한 만큼 다양한 협력을 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br/><br/>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04.txt

제목: 중국 과학계의 여신 중국 떠나 미국으로 가는 까닭은  
날짜: 2017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09050710002  
ID: 01101101.20170509050710002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중국 과학계의 여신으로 불리는 위엔닝(顔寧ㆍ40)이 10여 년간의 중국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되돌아간다고 밝혀 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br/>9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위엔닝은 중국 명문 칭화대의 교수생활을 청산하고 올 가을부터 미국 명문 프린스턴대 분자생물학 정교수로 부임할 예정이다. 탁월한 연구업적에 빼어난 미모도 갖춰 중국 SNS에선 ‘과학계의 여신’으로 불리는 그가 중국 과학계의 관료주의를 견디지 못하고 고국을 떠난다는 소식에 논란이 인 것이다.<br/>SCMP는 중국의 하이꾸이(海歸) 정책이 관료주의와 열악한 펀딩 환경 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위엔닝 사례가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이꾸이는 수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 출신 인재들을 높은 연봉과 애국심에 호소해 고국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뜻한다.<br/>위엔닝은 2007년 프린스턴대 포닥 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와 30세에 칭화대 역사상 최연소 교수 중 한 명으로 정교수가 됐다. 연구업적도 뛰어나 세계 최초로 암과 당뇨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물리 구조를 규명했다.<br/>그는 그러나 2014년 자신의 블로그에 당국이 프로젝트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과학계 연구 환경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시작했다. 그는 1년 후에도 정부가 연구 프로젝트 성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학계의 관료주의가 성공가능성이 적은 연구에 연구비 지급을 지연시킨다며 성공 가능성이 낮아도 기초 연구는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br/>SCMP는 위엔닝이 당국의 거듭된 연구비 지급 거부 등으로 관료주의에 지칠 때쯤 받은 프린스턴 대학의 영입 제의를 수락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칭화대 대변인은 “<span class='quot0'>프린스턴대 교수 발탁은 중국 과학계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간 것</span>”이라는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반응을 내놓았다.<br/>SCMP는 “<span class='quot1'>중국세계화센터 조사 결과 중국 귀환 과학자 중 70%는 외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심각한 공기오염과 더불어 자녀교육, 문화갈등, 높은 집값 등이 요인</span>”이라고 밝혔다.<br/><br/>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05.txt

제목: [애니팩트] 반려동물용 가짜 암 치료제가 적발됐다  
날짜: 2017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09050622002  
ID: 01101101.20170509050622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가짜 암 치료제'를 판매하는 회사를 적발하면서 반려동물용 '가짜 암 치료제'도 유통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웹사이트나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던 약품들인데요. 국내 반려인 중에서도 이 약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br/><br/>▶ 동그람이 페이스북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애니팩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한국일보-3-406.txt

제목: 에스프레소 커피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전립선암 발병↓  
날짜: 2017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08050718001  
ID: 01101101.2017050805071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이탈리아 연구팀, 50세 이상 남성 6,989명 추적 조사<br/><br/>이탈리아인들은 매년 평균 600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다. 이탈리아인들은 대개 카푸치노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이후 카페 마키아토를 점심에, 저녁에는 에스프레소를 마신다. <br/>이처럼 에스프레소 등 이탈리아식 커피를 매일 세 잔 이상 마시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리시아 라코비엘로 이탈리아 인스브리아대 교수가 이탈리아 몰리세에 사는 50세 이상 남성 6,989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에서다. 연구결과는 국제암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최신 호에 실렸다.<br/>연구결과, 매일 이탈리아식으로 매일 커피를 세 잔 이상 마시면 이보다 적게 마시는 사람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53% 낮아졌다. <br/>연구팀이 커피의 항암 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카페인 이탈리아식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추출물을 분석한 결과. 카페인 커피 추출물이 암 세포 증식을 줄이고 전이성도 떨어뜨렸다.<br/>2개의 인간 전립선암 세포주 PC-3 및 DU145에 카페인 농도를 증가시킨 시험결과도 전립선암 세포주 증식과 전이성이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카페인 커피 추출물은 이 같은 작용이 없었다.<br/>라코비엘로 교수는 “<span class='quot0'>연구결과 커피 속 카페인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지만 커피를 고압과 초고온 물을 쓰고 필터로 거르지 않고 제조해 마시는 이탈리아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다른 종류의 커피를 즐기는 사람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올지 추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07.txt

제목: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좋다? 과다섭취땐 아이 키 안 클 수도  
날짜: 2017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08050716002  
ID: 01101101.20170508050716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제6 영양소 각광 건강식품 봇물<br/>소아청소년 60만명이 과잉 섭취<br/>과다섭취땐 빈혈ㆍ골다공증 위험<br/>특히 어린이들 성장발육 악영향<br/>무조건 많이보단 균형섭취 중요<br/>유아 경우 식사만으로도 충분량<br/><br/> 섬유질 혹은 섬유소로 불리는 식이섬유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식이섬유의 흡착 능력이 뛰어나 ‘몸 속의 청소부’로 불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식이섬유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에 이은 ‘제6의 영양소’로 부른다. 시중에는 ‘고식이섬유ㆍ식이섬유 풍부’ 등으로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 쏟아지고 있다.<br/>하지만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1'>식이섬유를 과다 섭취하면 지나친 가스 생산ㆍ복통 유발이나 악화, 비타민ㆍ미네랄ㆍ단백질 흡수 저해 등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span>”고 경고한다. 식이섬유를 무분별하게 많이 먹기보다 적절한 식단을 통해 식이섬유의 균형 잡힌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br/><br/>“<span class='quot2'>소아청소년 60만명, 과잉 섭취</span>” <br/>현재 국내에서 식이섬유는 권장량 기준없이 충분섭취량만 설정돼 있다. ‘이 정도 먹으면 충분하다고 여겨지므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식이섬유 1일 충분섭취량은 1~2세 최대 10g, 3~5세 최대 15g, 6세 이상 20~25g이다. 열량을 1,000㎉ 섭취할 때마다 식이섬유를 12g씩 추가 섭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br/>문진수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팀이 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의 ‘2015년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가운데 식이섬유를 충분섭취량 이상 먹는 사람이 60만명이었다. 적게는 3.7%에서 많게는 8.6%나 됐다. 문 교수는 “<span class='quot3'>특히 2세 미만 유아는 일반적인 유아식과 식사에 포함된 식이섬유 양만으로도 충분하다</span>”며 “<span class='quot3'>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span>”고 했다.<br/>성인에서는 식이섬유의 과다 섭취비율이 더 높았다. 충분섭취량 이상 섭취율은 50~64세가 37.8%로 가장 높았고, 65~74세 이상 33.5%, 75세 이상 31.0%, 30~40대 21.0%, 20대 10.8% 순이었다. 이동호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4'>소화기능과 장내 유산균총이 확립되기 전인 영ㆍ유아기에 식이섬유를 과다 섭취하면 설사ㆍ복통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span>”고 했다.<br/><br/>“<span class='quot2'>성장 장애ㆍ빈혈ㆍ골다공증 등 유발</span>”<br/>식이섬유의 효능은 흡착력에서 나온다. 물과 지방,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몸 밖으로 배설함으로써 다이어트, 이상지질혈증 등의 개선을 돕는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경련성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가스 생성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br/>김영성 신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5'>식이섬유의 흡착력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아 철분ㆍ칼슘 등 소중한 미네랄까지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빈혈과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span>”고 했다.<br/> 게다가 성장기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6'>식이섬유를 과다 섭취하면 철분 아연 칼슘 등 필수 미네랄과 지용성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이 낮아진다</span>”고 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5'>특히 어린이가 식이섬유를 과다하게 먹으면 성장 장애, 설사, 복부 팽만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br/> 식이섬유 섭취가 대장암 예방에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세계적인 영양학자인 콜린 캠벨은 자신의 책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 섬유소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적게 섭취한 사람들보다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43%나 낮았다고 했다. <br/>이에 대해 김 교수는 “<span class='quot5'>식이섬유 섭취가 대장암 예방에 도울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5'>유방암 등 다른 암 예방 효과는 학계에서 인정 받지 못했다</span>”고 덧붙였다.<br/> 의료계에서는 일부 소화기계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식이섬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동호 교수는 “<span class='quot0'>급성 게실염(憩室炎)이 있거나 크론병ㆍ궤양성 대장염이 급격히 악화됐거나 대장암 또는 수술 후 장 유착 등으로 장폐색이 우려될 때는 식이섬유 섭취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span>”고 했다.<br/> 과민성 장중후군 환자도 식이섬유의 과다섭취는 손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식이섬유가 풍부한 밀기울(밀에서 가루를 빼고 남은 찌꺼기)은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55%에서 증상을 악화시키며, 10%에서만 호전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밀기울을 먹은 뒤 복통과 가스가 찬 느낌도 더 많이 호소했다</span>”고 했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식이섬유 적정 섭취 예시표><br/>\*19세 이상 남자의 충분섭취량 ‘25g/일’을 충족할 수 있는 각 급원식품의 섭취 횟수 <br/><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연구원>

언론사: 한국일보-3-408.txt

제목: ‘이글 두 방’ 이상희, GS칼텍스 매경오픈 역전 우승  
날짜: 201705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07050523003  
ID: 01101101.20170507050523003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이상희(25ㆍ호반건설)가 GS칼텍스 매경오픈(총상금 10억원ㆍ우승상금 2억원) 최종라운드에서 짜릿한 이글 두 방으로 파차라 콩왓마이 (18ㆍ태국)의 돌풍을 잠재우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br/>이상희는 7일 경기 성남 남서울 골프장(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8언더파 276타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SK텔레콤오픈 우승에 이어 1년 만에 거둔 투어 통산 4승째다. 특히 이상희는 통산 4승 가운데 3승을 메이저급 대회에서 올려 큰 대회에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다. <br/><br/><br/>올해로 36회째를 맞은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대회는 메이저대회가 없는 한국프로골프투어(KGT)에서 ‘메이저급 대회’로 통한다. 2011년 NH 농협오픈에서 첫 우승을 거둔 이상희는 이듬해 메이저급 대회 한국프로골프(KPGA)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고 지난해 3승째도 메이저급 SK 텔레콤오픈에서 따냈다. 우승 상금 2억원을 받은 이상희는 단숨에 한국프로골프투어 상금랭킹 1위로 올라섰다.<br/>콩왓마이에 3타차, 지난해 우승자 박상현(34ㆍ동아제약)에 1타차?3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이상희는 4번홀(파5)에서 5ｍ 이글 퍼트를 집어넣어 추격에 나선 뒤, 9번홀(파5) 이글로 역전극의 물꼬를 텄다. 두번째샷을 그린 앞까지 보낸 이상희가 30ｍ를 남기고 웨지로 올린 세번째샷이 그대로 홀에 빨려 들어갔다. 1타차 선두로 나선 이상희는 10번홀(파4)에서 박상현이 더블보기, 콩왓마이가 보기를 적어낸 틈을 타 2타차로 앞서나갔다. 이어 15번홀(파4)에서 10ｍ가 넘는 장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7번홀(파3)에서 그린을 놓친 바람에 1타를 잃었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다.<br/>몇 해 전 암 투병을 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부모님에게 어버이날에 우승을 선물하고 싶다. 카네이션도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다”라고 했던 이상희는 마지막 18번홀(파4) 챔피언 퍼트를 넣으며 미소를 지었다.<br/>한편 2015년 이 대회 우승자 문경준(35ㆍ휴셈)은 버디 4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3타를 줄인 끝에 1타차 준우승(6언더파 278타)을 차지했다. 박상현은 2타를 잃어 공동 3위(4언더파 280타)로 대회를 마쳤다. 14세였던 2013년?아세안 PGA 투어 싱하 후아힌오픈에서 우승해?전 세계 남녀를 통틀어 프로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운 18세 영건 콩왓마이는 5오버파 76타를 치는 부진 끝에 공동6위(3언더파 281타)로 대회를 마쳤다.<br/>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09.txt

제목: [브리핑] 한미약품 수출 표적항암제 임상 승인  
날짜: 201705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05050420002  
ID: 01101101.20170505050420002  
카테고리: 경제>무역  
본문: 한미약품 수출 표적항암제 임상 승인 <br/>한미약품이 지난해 9월 다국적제약사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에 1조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1상을 승인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 물질은 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작용한다. 이번 임상시험은 이 단백질이 변형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수출 계약에 따라 이 물질의 개발 및 상업화 권리는 한국에선 한미약품이, 나머지 나라에선 제넨텍이 갖고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3-410.txt

제목: 뒤태 여신이 되고 싶다면? 간단 코어운동 세 가지  
날짜: 201705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04050522002  
ID: 01101101.20170504050522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예쁜 뒤태의 필수죠? 척추 기립근과 힙! 여기에 복근까지 탄탄하면 완벽한 몸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예쁜 뒤태와 비대칭 교정의 기본인 코어 운동 중 효과 좋은 운동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br/><br/><br/>모든 운동의 기본이자 아름다운 자세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코어근육!그 코어 근육을 탄탄하게 하는 운동들을 알려드립니다.<br/><br/>1. 포어 암 플랙크 락스 (Forearm Plank Rocks)<br/><br/><br/>1)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팔은 11자로 맞춰 바닥에 딛는다.<br/>2) 팔로 지지한 상태에서 발 끝을 밀어 몸 전체를 앞으로 움직인다.<br/>3) 다시 내려가며 앞 뒤로 반복한다.<br/><br/><br/>기존 플랭크의 업그레이드 버전! 플랭크가 전신의 근육을 자극한다면 이 운동은 코어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br/><br/>2. 코어 브릿지 (Core Bridge)<br/><br/><br/>1) 무릎을 세워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뒤, 발 끝은 45도로 바깥을 향해 둔다.<br/>2) 손은 바닥에 두고 이 상태로 엉덩이를 든다.<br/>3) 바닥에 내려올 때,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br/><br/><br/>올라 올 때 힙에 긴장을 유지해야 복근과 힙에 자극이 가요!<br/><br/>3. 러시안 트위스트 (Russian Twist)<br/><br/><br/>1) 무릎을 세워 다리를 어깨너비만큼 벌린 후, 양 손을 앞으로 뻗는다.<br/>2) 그대로 상체를 올려 좌우로 팔을 비튼다.<br/>3) 동작을 반복한다.<br/><br/><br/>올라와서 좌우로 몸을 비틀 때 복근과 기립근이 자극해주세요.<br/><br/><br/>복근, 척추 기립근, 힙까지 대표 코어근을 단련해주는 운동 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오늘 밤 자기 전 5분만 투자해 다가올 여름 탄탄한 몸매를 뽐내세요!쉐어하우스 제공 (필자: 랭킹닭컴) ▶ 원문보기

언론사: 한국일보-3-411.txt

제목: 층간소음보다 더 괴로운 엘리베이터 소음  
날짜: 201705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04050754002  
ID: 01101101.20170504050754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하루종일 도르래 소리, 진동 고통<br/>“방음벽ㆍ커튼도 무용지물” 소송전<br/>층간소음과 달리 타협대상도 없어<br/>피해 증명할 법적 기준 마련해야<br/><br/><br/>서울 강서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이모(50)씨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날을 반복하고 있다. 암 진단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일이 대부분인 그를 엘리베이터 소음이 괴롭히고 있는 것. 벽을 타고 전해 오는 엘리베이터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소리를 견디지 못해 방에 방음벽까지 설치했지만, 소용없었다. 관리사무소에 항의하자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며 이상한 사람 취급만 받았다. 심지어 서울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엘리베이터 소음에 법적 기준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br/>벽과 바닥이 얇은 노후 아파트의 주민들이 층간소음에 이어 엘리베이터 소음에도 시달리고 있다. 특히 몸이 아파 감각이 유난히 예민해진 사람이나 직업상 낮에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벽을 타고 전달되는 엘리베이터 도르래 소리와 진동 등이 노이로제 수준이라고까지 하소연하고 있다.<br/>소음의 원인은 다양하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오래된 기계장치 부품이 닳으면서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승강기 모델이나 아파트 구조 등을 따지면 원인을 하나로 꼽을 수 없다</span>”고 밝혔다. 일부는 측정되는 소리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유난히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는 소음과 진동을 구성하는 저주파가 본인과 맞지 않을 경우로 당사자에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br/>게다가 신고를 통해 소음 원인 제공자와 타협 및 조정이 가능한 층간소음과 달리, 엘리베이터 소음은 스스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지은 지 19년 된 아파트 최상층에 사는 주부 장모(55)씨는 “<span class='quot1'>엘리베이터 통로와 맞닿은 작은방의 소음이 너무 심해 창문도 없는 벽에 두꺼운 커튼을 달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span>”고 했다. 급기야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올해 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r/>주민들의 1차 항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대표회의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소음에 민감한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쓰는 엘리베이터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토로한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span class='quot2'>한두 가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수백만원을 들여 몇 개월 동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냐</span>”며 “<span class='quot2'>공사를 마친 뒤에도 시끄럽다고 하면 그때는 어쩔 거냐</span>”라는 반응을 보였다.<br/>전문가들은 건물 설계 단계부터 소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영수 한국승강기대학 교수는 “<span class='quot3'>처음부터 엘리베이터와 가구를 분리해서 설계하는 게 제일 좋다</span>”며 “<span class='quot3'>그게 아니라면 엘리베이터의 속도 등을 조정하거나, 통로 벽을 두껍게 만들어 최대한 소음과 진동을 덜 발생시키도록 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br/>엘리베이터 소음 관련, 객관적인 피해 정도를 증명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층간소음의 경우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은 43데시벨(dB), 야간은 38dB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 이보다 높으면 항의를 하거나 피해를 주장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4'>대부분 건설회사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맡길 때 주거공간 내 소음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4'>법적으로 실내에 미치는 소음까지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br/>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12.txt

제목: 암투병 소녀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다  
날짜: 201705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03050727002  
ID: 01101101.20170503050727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span class='quot0'>많은 사람들의 카드 받고 싶다</span>”<br/>SNS 글 게재 후 3만톤 카드 받아<br/><br/>말기 뇌종양 진단을 받은 네덜란드 10대 소녀에게 전 세계 수만 명이 회복을 기원하는 카드를 보내고 있다.<br/>AF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희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사빈 보르텔베어(15)는 미국 휴스턴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소화기관에 염증이 발생해 더 이상 약물을 복용할 수 없게 됐다. 사빈은 이후 암이 재발했고, 지난 주 페이스북에 “MRI 검사 결과가 무척 나빴다”며 “약물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카드를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자신의 주소를 남겼다.<br/>그러자 지난 2일까지 약 3만3,000톤의 카드가 사빈에게 배달됐다.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카드가 가득 담긴 상자가 속속 배달되는 모습이 담겼다. 네덜란드 방송사에 따르면 우체국은 카드를 따로 분류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팀을 꾸렸다.<br/>사빈의 어머니는 현지 매체에 “딸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며 “딸이 대부분의 시간을 수면으로 보내고 있지만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고 깨어있을 때 정신이 또렷하다"고 사빈의 현재 상태를 전달했다.<br/>사빈은 블로그 마지막 게시물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고 남겼다.<br/><br/>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13.txt

제목: '살아남아서' 강한 도회적 배우 윤여정  
날짜: 201705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03050732001  
ID: 01101101.20170503050732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서른 넘으면 제아무리 갈채 받던 배우라도 서서히 주연 자리에서 물러나고, 마흔이 되면 누군가의 이모나 고모로 역할이 한정되기 일쑤다. 지천명을 넘으면 독살스러운 시어머니나, 자애로운 할머니 연기가 주어진다. 하지만 윤여정은 여자 배우에게 유난히 가혹한 한국 연예계의 현실에서 비켜서있다. 카메라 앞에 설 기회조차 얻기 힘들 고희 나이에 예능프로그램과 영화와 드라마를 가로지르며 활약하고 있다.<br/><br/>나이 따지지 않는 쿨한 인텔리 여성<br/>생물학적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윤여정은 화면 속에서 할머니가 아니라 후배들과 놀 줄 아는 ‘언니’다. “살림을 놓은 지 오래”라 ‘윤식당’의 조리대 앞에서 쩔쩔 매다가도, 물만두를 튀겨 새 메뉴를 개발하거나 시식용 햄버거로 길거리 마케팅에 나서는 등 매사 적극적이다. 나이를 벼슬로 삼지 않으며 후배와 수평적으로 소통한다. 젊은 세대가 부러워할 영어실력을 뽐내며 노년 인텔리의 면모도 풍긴다. 그의 매력은 시청률이라는 수치로 드러난다. 윤여정을 중심에 둔 tvN 예능프로그램 ‘윤식당’은 첫 회 시청률 6.2%(닐슨코리아 유료 플랫폼 기준)를 기록하더니 지난 28일 6회 방송에서 14.2%에 이르렀다. ‘윤식당’의 이진주 PD는 “<span class='quot0'>윤여정은 생각이 젊고 말도 재미있게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오래 서 있어서 발목이 부어도 ‘쉬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젊은 출연자와 같이 움직이니 시청자도 일하는 윤여정을 편하게 보는 게 아닌가 싶다</span>”고 말했다.<br/><br/>윤여정은 2030세대에게 거부감이 없는 노년 스타다. 방송에서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나 젊은이에게 훈계를 늘어놓곤 하는 여느 노년 연예인과 달리 개방적이다. 그의 열린 사고는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누나’(2013)에서 특히 빛을 발했다. 그는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 67살 처음이야. 아쉬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계획을 할 수가 없어”라는 말로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을 얻었다.<br/><br/><br/>“이렇게 늙고 싶다”… 여배우의 롤모델<br/>윤여정의 행보는 배우 초년시절부터 남달랐다. 1966년 동양방송(TBC) 탤런트로 연예계에 발을 디딜 때부터 칼칼한 목소리와 전통적인 미녀상과 다른 외모 때문에 개성파 배우로 분류됐다. 김기영(1919~1998) 감독의 눈에 띄어 출연한 영화 ‘화녀’(1971)로 그의 개성은 도드라졌다. 가정부로 입주한 집 남자와 관계를 맺고 남자의 아들을 살해하는 명자 역은 기괴하고도 섬뜩했다. 윤여정은 비슷한 시기 데뷔해 ‘여배우 트로이카’로 전성기를 누렸던 윤정희와 문희 남정임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최고 배우 또는 충무로 간판이라는 수식을 얻은 적은 없으나 그처럼 51년 동안 꾸준히 다채롭게 연기 활동을 이어온 배우도 드물다. ‘강한 배우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배우가 강하다’는 격언이 있다면 윤여정에게 알맞다.<br/>카메라 밖 개인사는 모던하면서도 쿨한 윤여정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윤여정은 당대 청춘을 사로잡던 가수 조영남과 1972년 부부가 됐고 바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15년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른 뒤 브라운관에 복귀할 때 윤여정은 높은 사회적 장애물과 마주해야 했다. 전통사회의 고지식함이 강했던 1980년대 ‘이혼녀’의 텔레비전 출연은 암묵적인 금기였다. 여의도를 쥐락펴락했던 김수현 작가의 지원이 없었다면 그의 복귀는 쉽지 않았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br/>평탄치 않은 삶은 까다롭고 꼼꼼하면서도 세태에 휘둘리지 않는 도회적 이미지를 구축했고 이는 말기암에 시달리는 늙은 남편을 두고 새 사랑을 도모하는 노부인 홍병한(‘바람난 가족’·2003), 세상에 거칠 것 없는 재벌 2세 백금옥(‘돈의 맛’·2012)으로 활용된다. 10·26 사건을 소재로 한 정치 풍자 영화 ‘그때 그사람들’(2005)의 냉소적이면서도 퉁명스러운 내레이션도 이런 이미지에 기댄다. 홍상수 감독이 ‘하하하’(2010)와 ‘다른 나라에서’(2012)에 윤여정을 캐스팅한 것도 도회적 면모와 무관치 않다.<br/><br/><br/>도회적이고 세련된, 그러나 무정형의 연기<br/>세계의 명우 이사벨 위페르와 연기 호흡을 맞추고 한 해 두 편의 영화로 60대 중반에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 레드카펫을 밟은 윤여정의 이미지는 이후 영화와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재생산된다. 윤여정이 출연한 ‘여배우들’(2009)과 ‘죽여주는 여자’(2016)의 이재용 감독은 “<span class='quot1'>중년이 되면서 포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윤여정은 그걸 놓지 않고 여성으로서 품위를 지키려고 한다</span>”고 말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외적인 부분까지 관리하니 그런 성향이 작품에도 묻어난다는 것이다.<br/>그렇다고 윤여정의 연기를 모던이나 쿨 또는 도회라는 한정적인 단어로 단정지을 수 없다. 그의 연기는 무정형에 가깝다. ‘하녀’(2010)에서 나이 든 하녀 병식을 연기했고, ‘계춘할망’(2016)에서는 가출 뒤 돌아온 손녀에게 갖은 정성을 쏟는 해녀로 변했다. ‘죽여주는 여자’에서는 남자들에게 몸을 팔다 늙어버린, 그러나 여전히 몸을 팔아 여생을 지탱할 수 밖에 없는, 그러다 노인들의 안락사를 도와주는 ‘박카스 할머니’를 맡았다. KBS2 ‘넝쿨째 굴러온 당신’(2012)에서 그는 한 많은 어머니 엄청애가 됐다. 제작 중인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는 복싱선수 아들과 지체장애 아들을 둔 여인을 맡아 부산 사투리를 배우고 있다. 정석희 대중문화평론가는 “<span class='quot2'>윤여정은 파격적인 팜므파탈부터 헌신적인 어머니까지 모든 성격의 역할이 소화 가능한 듯하다</span>”며 “<span class='quot2'>평소 패션 감각이나 사고방식이 세련됐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로 변신해도 대중에게 부담이 없는 것</span>”이라고 분석했다.<br/>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14.txt

제목: “C형 간염, 3개월만 치료하면 95% 이상 완치 가능”  
날짜: 2017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01050909001  
ID: 01101101.2017050105090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병률 1% C형 간염 방치하면 간암 위험 높아<br/>간은 심각히 손상돼도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간의 침묵 때문에 간암은 국내 암 사망률 2위나 된다. <br/>간암 발병 경로를 거꾸로 추적하면 대부분 그 시작은 간염이다. 특히 지난해 집단 감염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성 간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아주 높다. 만성화된 간염이 간경변과 간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간염 관리와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br/><br/>C형 간염, 증상 나타나면 이미 늦어<br/>간염은 간세포나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A B C D E형 간염으로 구분되고,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된다. 만성 간염은 간염이 6개월 이상 낫지 않고 지속될 때를 말한다.<br/>C형 간염 유병률은 1%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대한간학회). 다른 간염보다 유병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만성화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게다가 만성 C형 간염은 간경변증을 거쳐 간암으로 악화할 수 있다. 윤승규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C형 간염은 감염 후 대부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80%에서 만성으로 악화한다</span>”며 “<span class='quot0'>20년 정도 경과하면 만성 C형 간염 환자의 20% 정도는 간경변증으로 이어지고 이 가운데 연간 1~5%에서 간암이 생긴다</span>”고 했다.<br/>C형 간염은 AㆍB형 간염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다는 게 문제다. 철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 C형 간염 바이러스(HCV)는 최소 6개 유전자형과 50개 정도의 RNA 바이러스 아형(亞形)이 있어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와 달리 불안정하고 돌연변이가 많아 예방 항체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일부 유전자만 적용할 수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변이돼 항체 형성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br/>따라서 생활하면서 C형 간염 감염 경로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 C형 간염은 주로 혈액이나 주사기, 면도기, 칫솔, 손톱깎기 등으로 감염된다. 수혈로 감염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 문신이나 피어싱, 반영구 화장, 침 시술, 정맥주사 등이 늘면서 비위생적인 경로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br/>C형 간염은 평균 7~8주 잠복기를 거치는데 대부분 증상이 없다. 드물게 황달이 생기거나 피로감, 소화불량,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지만 아주 경미한 수준이다. 때문에 증상만으로 C형 간염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수십 년 지나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악화된 뒤에야 알아챈다.<br/><br/>정기검진으로 ‘완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br/>지난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는 6월부터 C형 간염을 표본 감시 대상에서 전수 감시 대상(제3군 감염병)으로 바꾸기로 했다.<br/>그 동안 C형 간염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만 C형 간염 환자를 보고했을 뿐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없었다. 앞으론 C형 간염 환자를 진단한 모든 의료기관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 보건소에 신고된 C형 간염 환자가 유독 많으면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해 원인 분석해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br/>뿐만 아니라 C형 간염 진단율을 높이려고 올 1년간 만 40세와 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C형 간염 국가 검진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 포털 사이트(sis.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해 C형 간염 검사의 국가검진 도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br/>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아니어도 C형 간염 검사는 필요하다. 낮은 유병률(1%)에도 불구하고 주로 검진을 통해 뒤늦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C형 간염률이 높아지는 40대 이상은 정기적인 C형 간염 검사가 필요하다.<br/><br/>효과 좋아진 먹는 약으로 완치 가능<br/>검진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빨리 치료해야 한다. 빨리 치료할수록 효과는 더 좋아서다. 최근 치료 효과가 크게 좋아진 C형 간염 치료제들이 속속 개발돼 조기 발견하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악화하기 전에 완치할 수 있다.<br/>실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유전자형 1b형 간염을 95% 이상 고치는 경구용 치료제들이 나왔다. 지난 3월에는 한국인을 포함한 연구나 글로벌 연구에서 간경변이나 인터페론 등 기존 치료 경험과 관계없이 12주 치료로 유전자형 1b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대상 100% 완치 효과를 입증한 C형 간염 치료제가 판매 허가를 받았다. 불과 몇 년 전 주사제와 먹는 약을 병용했을 때 완치율이 60% 정도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발전이다.<br/>특히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약값 부담도 크게 줄었다. 하지만 급여 혜택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구용 치료제로도 실패하면 이후 명확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없어 치료제 선택 시 효과 높은 약을 택해야 한다.<br/>이연재 부산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 3개월 정도만 치료하면 95% 이상 C형 간염을 완치하는 먹는 약들이 나왔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15.txt

제목: [태블릿+]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날짜: 2017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01050906001  
ID: 01101101.2017050105090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초기 치료부터 면역항암제 투여 가능<br/>투여 앞서 면역항암제 효과ㆍ안전성 확인위해 동반진단 기본 검사 <br/><br/>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소(非小)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 면역항암제가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지 1년 만이다. 항암 치료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br/>국내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의 80%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신 쓸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옵션이 생겼다는 점에서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 학계의 기대가 크다.<br/>폐암은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중에 하나이자, 지난 10년간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악명 높은 암이다. 별다른 증상이 없어 암이 진행된 말기에 첫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 치료도 제한적이었다. 항암화학요법이나 표적항암요법을 1차로 쓸 수 있다. 하지만 항암화학요법은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해 탈모ㆍ구토 등 부작용이, 표적항암요법은 내성 발현이라는 한계가 있다. <br/>제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는 적은 부작용과 개선된 치료 효과로 인해 출시와 동시에 기존 치료제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 신약으로 주목 받은 바 있다. 한번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다, 인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새로운 기전으로 과학적 혁신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다.<br/>이런 가운데 면역항암제 MSD의 ‘키트루다’가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로 치료 받을 수 있게 됐다. EGFR 혹은 ALK 변이가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라도 곧바로 면역항암제 치료를 통해 일상적인 생활과 치료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br/>또한 기존에는 비소세포폐암 1차 항암 치료 이후 사망, 부작용, 체력저하 등으로 2차 항암 치료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았는데, 키트루다가 1차 치료제로 승인 받으면서 환자는 더 장기적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br/>1차 치료부터 키트루다를 투여하려면 효과를 예측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PD-L1(암세포 표면 단백질) 동반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면역항암제는 모든 폐암 환자에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일수록 치료효과가 더 높다.<br/>실제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면역항암제와 항암화학요법을 비교한 연구결과, 면역항암제 투여군에서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이면 암 진행과 사망 위험을 50% 줄었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40% 감소시켰다. PD-L1 발현율은 키트루다의 PD-L1 동반진단검사로 확인이 가능하다. 키트루다는 1차 치료에서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일 때, 2차 치료는 PD-L1 발현율이 1% 이상이라면 투여할 수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16.txt

제목: 30년간 하루 한 갑… 8000명에 무료 폐암검진  
날짜: 2017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01050856001  
ID: 01101101.20170501050856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보건복지부는 1일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 흡연) 이상의 흡연자 등 8,000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무료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은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및 전국 9개 지역암센터(강원대병원ㆍ아주대병원ㆍ칠곡경북대병원ㆍ충남대병원ㆍ부산대병원ㆍ울산대병원ㆍ가천의대 길병원ㆍ화순전남대병원ㆍ제주대병원)에서 실시된다. <br/>대상자는 만 55~74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금연한지 15년 이내의 과거흡연자(30갑년 이상 흡연력) 등이다. 대상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5대암 검진을 받은 이 중 폐암 발생 위험 요인을 평가해 선정된다. 폐암 검진은 방사선 피폭량이 적은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을 활용하며, 흡연자의 경우 금연 진료상담을 조건으로 검진 결과를 제공한다.<br/>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17.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KB국민 탄탄대로 비즈 카드 外  
날짜: 2017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01050750001  
ID: 01101101.201705010507500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KB국민카드, 소상공인 특화 ‘탄탄대로 비즈 카드’ 출시<br/><br/>KB국민카드가 개인사업자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선호 업종에 포인트 적립 혜택을 강화한 'KB국민 탄탄대로 비즈 카드'를 출시했다. 개인사업자 가맹점주의 이용 패턴에 맞춰 주유소와 대형할인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포인트를 차등 적립해 준다. '운송 지원 강화형 서비스'를 선택하면 주유소에서 포인트 적립에 유리하고 '구매 지원 강화형 서비스'를 고르면 대형할인점에서 포인트 쌓기가 좋다. 또 전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가세 환급대상 자동 분류를 통한 환급 예상액 조회, 국세청 세금신고용 전자파일 자동 생성 등 각종 세무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br/><br/>신한은행, 청소년 용돈관리 ‘신한 포니 패키지’ 출시<br/>신한은행이 청소년을 위한 용돈관리 애플리케이션(앱)과 체크카드, 적금을 묶은 '신한 포니 패키지'를 내 놨다. 신한은행 계좌가 있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에 '신한 포니' 앱을 깔면 이용할 수 있다. 부모는 앱으로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하고 용돈 잔액과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자녀는 본인 계좌가 없어도 앱을 통해 용돈을 받고 가족 체크카드를 발급해 결제 및 현금 출금을 할 수 있다. 또 앱에서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 상품권 구입, 회원간 송금, 저축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용돈관리 포니 적금'과 티머니 교통카드, 영화 할인, 놀이공원 할인 등의 혜택을 담은 '신한 틴스 플러스 포니 체크카드'도 패키지로 내놨다.<br/><br/>새마을금고, ‘무배당 MG 간편 가입 보장공제’ 출시<br/>새마을금고가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무배당 MG 간편 가입 보장공제'를 출시했다. 사망뿐 아니라 수술, 입원 일당과 3대 질병 진단(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한다. 3개월 내 의사의 입원ㆍ수술ㆍ추가 검사 소견이 없거나 2년 내 입원 또는 수술 경험, 5년 내 암 진단 또는 암 치료 경험이 없으면 서류제출이나 건강진단 없이 가입할 수 있다. 40∼75세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만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3-418.txt

제목: [아침을 열며] 균형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이유  
날짜: 2017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30050425002  
ID: 01101101.20170430050425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우리 사회를 둘러싼 모든 것이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다. 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살피다 보면 하나의 중요한 동기이자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바로 ‘균형’이다. <br/>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것의 한 예로 최근 한반도에서 군사적 변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우리 해역으로 향하고 있으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논의되고 있다. 사드도 배치되어 가동을 앞두고 있다. 북핵에 맞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br/>국내적으로는 선거정국에 나타난 많은 이슈들이 균형이라는 시각으로 설명 가능하다. 최근 후보들의 공약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내용은 국민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로 귀결된다. 비과세감면 축소, 세원 발굴을 이야기 하지만 증세를 피할 수 없으며, 조세형평이 화두로 등장한다. 며칠 전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발표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법인세 인하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 법인세에 비해 월급 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컸던 터라 그 선택에서 균형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br/>규제완화도 주요한 이슈이다. 모든 정부가 정부출범 초기에 하는 것이 규제개선이다. ‘대못’이나 ‘규제는 암’ 모두 같은 맥락이다. 규제개선의 주된 목적은 경기활성화이다. 하지만, 규제완화를 두고 이익을 보는 기업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커지는 시민들의 입장이 대립하여 왔다. 이 역시 이익과 위험 사이에 균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br/>검찰, 국정원, 공정위 등 권력기관의 구조 개편도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주요내용이다. 권한이 오·남용되었음에도 일상적인 시스템 내에서 이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균형적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경우 권한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일부 정치검사들로 인하여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불러오면서 그 방법이 무엇이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정서가 되었다. <br/>복지예산은 우리 예산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어떻게 돈을 써야 가장 잘 쓰는 것인지 고민스럽다. 청년실업과 노령화라는 두 가지 상황에 모두 직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묘수마저 필요하다. 의견도 분분하다. 노령층에 지원하면 복지이고, 청년층에 지원하면 포퓰리즘인가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영유아 보육문제까지 포함하면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세대간 균형이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과 중앙간의 권한배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국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r/>공약으로 제시된 정책들은 입법으로 완성된다. 따라서 정책이 균형을 잃으면 균형을 잃은 법이 만들어진다. ‘타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도덕의 최소한으로 부르는 이러한 자연법은 ‘법은 정의’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여기에서 균형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는 정언명령이기 때문이다. <br/>그러나 오늘날처럼 이익과 부담의 합의점을 제도화는 것이 주된 목적인 대부분 법률에서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마저 생소한 수많은 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법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법률의 정당성은 도덕이 아닌 균형에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균형을 잃은 정책이 입법화될 경우 불균형의 제도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불균형은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새로운 균형점으로 가기 위해 불가피한 혼란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 선거에 즈음해 흔하고 평범해 보이는 ‘균형’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는 이유이다.<br/><br/>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3-419.txt

제목: 홍준표 “집권하면 전교조 손 보겠다”  
날짜: 2017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28050558001  
ID: 01101101.20170428050558001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2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총,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보수 결집 행보에 나섰다.<br/>홍 후보는 이날 오전 보수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해 “<span class='quot0'>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친북정권을 수립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기독교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역전을 하는 계기가 된다</span>”고 말했다.<br/>홍 후보는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청 교육정책간담회에 참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전교조와 강성귀족노조는 암적인 적폐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홍 후보는 이 날도 “전교조가 교육 현장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상대로 친북 좌파 이념을 심어줘 나라 전체가 좌경화됐다”며 “집권하면 전교조를 꼭 손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br/>홍 후보는 전날 경북 구미 방문에 이어 이날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찾아 “<span class='quot0'>집권하면 박 대통령 기념관을 새롭게 사업하겠다</span>”며 친박(친박근혜) 표심 잡기에 힘썼다.<br/>홍 후보는 29일 열리는 차남 정현(34)씨의 결혼식에 불참하고 부산?경남에서 선거 유세를 한다.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데다 괜한 잡음을 만들 수 있어 참석하는 대신 축하 영상 메시지를 식장에서 틀기로 했다.<br/><br/>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20.txt

제목: 정현, 즈베레프 꺾으면 나달과 맞대결?  
날짜: 201704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27050800001  
ID: 01101101.20170427050800001  
카테고리: 스포츠>스포츠일반  
본문: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94위ㆍ삼성증권 후원)이 세계 랭킹 31위 필리프 콜슈라이버(31위ㆍ독일)를 물리쳤다. <br/>정현은 27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500시리즈 바르셀로나 오픈(총 상금 232만4,905 유로) 사흘째 단식 2회전에서 콜슈라이버를 2-0(6-3 6-4)으로 제압했다. 정현은 27일 오후 예정된 3회전에서 알렉산더 즈베레프(21위ㆍ독일)를 상대한다. <br/>콜슈라이버는 정현이 지금까지 이겨본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다. 지금은 31위지만 2012년 한 때 16위까지 오르기도 했던 강자다. 이 대회 전까지 정현이 이긴 상대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았던 선수는 지난해 2월 ATP 투어 ABN 암로 월드토너먼트 1회전의 기예르모 가르시아 로페스(스페인)로 당시 순위는 34위였다. <br/>이날 경기는 비 때문에 예정보다 약 4시간 늦게 시작됐다. <br/>정현은 초반부터 침착하게 상대를 공략했다. 자신의 서브 게임을 한 번밖에 내주지 않을 만큼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1시간 9분 만에 승리를 확정했다. <br/>정현의 16강 상대인 즈베레프는 정현보다 1살 어린 1997년생이지만 이미 투어 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한 경력이 있는 강호다. 키 198㎝로 정현보다 13㎝나 더 크다. 둘은 이번에 처음 맞대결을 벌인다. 정현이 이길 경우 20위권 선수를 처음 꺾게 된다. <br/>정현과 라파엘 나달(5위ㆍ스페인)이 16강에서 나란히 이기면 준준결승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br/><br/>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21.txt

제목: 2.9% 확정금리 적용 종신보험  
날짜: 201704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27050741002  
ID: 01101101.20170427050741002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동양생명이 2.9% 확정금리를 적용 하는 ‘(무)수호천사디딤돌유니버셜종신보험’을 출시했다.<br/><br/>‘(무)수호천사디딤돌유니버셜종신보험’은 기본보장 중심의 1형(기본형)과 사망보험금이 5년(10년, 15년) 경과시점 이후 매년 체증하는 2형(트리플체증형)으로 구성됐다. ‘트리플체증형’은 3단계 체증형으로 경과시점 이후 10년간 2%, 10년간 4%, 10년간 6% 총 30년간 매년 보험금 체증으로 최대 2.2배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br/>이 상품은 사망뿐 아니라 입원, 수술, 암진단, LTC 등을 주보험과 특약을 통해 다양하게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연금설계옵션’ 및 ‘플러스연금 전환특약’을 활용해 은퇴 이후의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종신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을 더해 자산현황에 따라 중도 인출이나 추가 납입이 가능해 자산관리에도 용이하다.<br/>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5천만원 이상의 고액계약자는 가입액에 따라 1.5~5%의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보험료 61회 이상 납입하면 납입회차별로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가 적립 가능한 장기납입보너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병 및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br/>동양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객가치 극대화 목적으로 경쟁력 높은 보장성 상품을 개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상대적으로 높은 이율과 고액할인 및 장기납보너스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효과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span>”이라고 말했다.<br/>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yangel.co.kr)나 고객서비스센터(1577-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3-422.txt

제목: “복어독 암에 좋아” 환자 30명에 2000만원대 판매  
날짜: 201704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26050727002  
ID: 01101101.20170426050727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암에 특효약”이라며 암환자들을 상대로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의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든 ‘복어환’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권모(62)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br/>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있는 맹독성 신경 물질로, 독성이 청산칼륨(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한다. 성인에게는 0.5㎎이 치사량이다. <br/>식약처에 따르면 권씨는 2012년 12월~지난 해 6월 인터넷에 ‘복어독의 신비’라는 카페를 개설, 복어환이 난치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암환자 30명에게 100㎏(2,13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권씨가 제조한 복어환을 분석한 결과 1개(0.8ｇ)당 테트로도톡신 0.0351㎎이 검출됐고, 환 14개를 한 번에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br/>권씨는 2010년에도 2억원 상당의 복어환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복어환 판매를 재개한 것이다. 권씨는 복어환을 구매한 환자들에게 한두 알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봐가며 점차 양을 늘려나가라고 알려줬다. <br/>권씨는 조사에서 “<span class='quot0'>복어환을 구매한 사람 중 3명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을 먹어서인지 앓고 있던 암 때문인지는 모른다</span>”고 진술했다. 식약처는 그러나 기록이나 증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권씨가 판매 대상이나 양 등 관련 자료를 거의 남기지 않아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span>”며 “<span class='quot1'>실제 판매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span>”고 전했다. <br/>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23.txt

제목: 2004년생 여성청소년 47%,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날짜: 2017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25050711001  
ID: 01101101.20170425050711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2004년생 여성청소년 2명 중 1명이 정부의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사업에 따라 백신을 맞을 것으로 조사됐다. <br/>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4년에 태어난 여성청소년 22만8,000명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1차 접종 기준)은 46.6%다. 전국 255개 보건소 관할 지역의 접종률을 비교하면, 전남 곡성군이 86.3%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전남 신안군 79.7%, 강원 양양군 79.2%, 충북 단양군 75.9%, 경북 군위군 71.4% 순이다. 접종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제주시(동부) 28.9%, 경북 영덕군 29.9%, 경남 거창군 30.2%, 전북 정읍시 31.4% 등이다.<br/> 자궁경부암은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다. 국내에서 한해 4,000여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900여명이 사망하는데 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암이다. 이에 정부는 매년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2회)을 맞도록 하는 정책을 작년 6월에 시작했다.<br/>지난해에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2003∼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이 1차 접종 대상이었고, 올해는 2004∼2005년생이 대상이다. 1차 접종에 응한 청소년은 6개월 뒤 2차 접종을 하면 된다. 무료로 1차 접종을 받을 수 기간은 출생연도별로 2년씩이다. 다만, 사업의 첫 대상이었던 2003년생의 경우에는 무료 기간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불과했다. 따라서 작년에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2003년생은 올해 접종을 받을 수 없다.<br/>질병관리본부는 "<span class='quot0'>무료 접종 기간이 짧았던 2003년생을 제외하고 2004년생을 기준으로 접종률을 집계했다</span>"며 "<span class='quot0'>2004년생은 12월까지 접종을 받을 수 있어 연말에는 접종률이 더 높아질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만 13세까지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2회 예방접종만으로 효과가 충분하지만, 만 14세 이후에 접종하면 3회 이상 맞아야 하며 비용도 1회당 15만∼18만원으로 높은 편이므로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br/>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span class='quot1'>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암 예방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데다 작년에 부작용에 대한 루머가 퍼지면서 접종률이 50% 정도에 그쳤다</span>"며 "<span class='quot1'>올해는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접종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겠다</span>"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청소년들이 5월 연휴 기간에 접종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접종 가능 기관을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br/>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24.txt

제목: “회진 때만큼은 느림보… 환자 불만 듣는 것도 치료 일부분”  
날짜: 2017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24064008001  
ID: 01101101.2017042406400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환자 1명 당 의사 7명이 상의<br/>폐암센터 협진은 국내 최고<br/><br/>“수술 후 멀쩡하다 잘못될 수도<br/>늘 이상 징후에 유의해야”<br/><br/><br/>“폐암은 참 무서운 암입니다. 조기에 발견해도 재발할 확률도 높고, 약물치료 효과도 좋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폐암진단=사망선고’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죠.”<br/> 김영두(47)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폐암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외과의사다. 이상적인 폐암 치료는 암을 조기에 발견해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다. 하지만 폐암은 암이 진행되기까지 증상의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 폐암의 5년 생존율은 25.1%(2010~2014년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췌장암(10.1%) 다음으로 낮다. 불행하게도 폐암환자 4명 중 3명은 5년 내 숨진다.<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폐암 3, 4기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폐암 1, 2기 환자는 수술로 완치 가능하기에 조기에 암을 발견해야 된다</span>”고 말했다.<br/> 김 교수는 폐암이 재발하는 원인을 찾아 환자 고통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조기에 폐암을 발견해 힘들게 수술을 받았는데 폐암이 재발해 고통 받는 환자를 수없이 봐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폐암 수술 후 재발인자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br/><br/>환자 1명 위해 의사 7명이 모여… 폐암센터, 협진 자부심<br/> 어느 병원이나 ‘협진’을 한다고 강조하지만 부천성모병원 폐암센터의 협진에 대한 자부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권순석 부천성모병원 병원장이 “<span class='quot1'>우리병원 폐암센터 협진은 국내 최고</span>”라고 말할 정도다.<br/> 폐암센터는 ‘환자중심 진료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치료한다. 환자 1명의 진단과 수술을 위해 매주 화요일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7개 진료과 전문의가 한자리에 모인다. <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한 명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7개 진료과 전문의가 한 자리에 모이는 협진시스템은 국내 굴지 대학병원에서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2012년 폐암센터를 열 때 각과 진료교수들과 각 과 이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신뢰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자고 합의를 봤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각 과 전문의들이 다양한 논문과 치료법을 확인하고 협진회의에 참석하다 보니 치료성과가 날 수밖에 없다</span>”고 덧붙였다.<br/> 외과의사, 특히 흉부외과 의사의 하루는 긴장의 연속이다. 언제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 교수도 흉부외과 전문의로 산 20년간 긴장을 푼 적이 없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수술할 때마다 가파른 절벽에 매달려 있는 느낌</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흉부외과 전문의를 택한 업보</span>”라고 말했다.<br/> 학부시절, 흉부외과 강의를 들으면서 생사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사다운 의사가 되고 싶어 흉부외과를 택했다는 김 교수. 그는 “<span class='quot0'>지금도 의대 시절 교수님께서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열정적으로 수술과 관련된 수업을 했을 때가 생각난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업을 듣고 감명을 받았던 친구들이 실습, 인턴을 거치면서 흉부외과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참 순진했던 것 같다</span>”며 미소를 지었다.<br/> 김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X선 촬영을 통해 결핵 유무를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결핵이 발병 없이 자연 치유가 돼도 후유증 때문에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등에 노출돼 가벼운 감기에 걸려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급성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감기에 걸렸을 때 누런 가래가 나오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br/><br/>스마일 서전 “환자 불만이 치료의 결정적 단서”<br/> 김 교수는 병원에서 ‘침착하고 친절한 흉부외과 의사’로 유명하다. 병원에서는 그를 ‘스마일 서전(smile surgeon)’으로 부른다. 실제 김 교수는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임했다.<br/>그와 함께 일하는 진료진과 간호사들은 수술방에서 그가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수술방에서 외과의사는 독재자처럼 군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나를 돕는 진료진과 간호사들이 진심으로 나를 돕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늘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김 교수는 후배 의사들에게 “<span class='quot0'>환자의 불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span>”고 강조한다. 환자의 작은 불만이 향후 환자치료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span class='quot0'>폐암 환자 중에는 수술 후 아무 문제없이 병실로 이동했다가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span>”라며 “<span class='quot0'>회진 시 환자에게서 이상 징조가 느껴지면 발걸음을 옮겨 다시 진찰하거나, 추가 검사를 지시한다</span>”고 말했다.<br/>최근 평생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는데도 폐암에 걸린 여성 환자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립암센터가 지난 4년간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성 환자가 10명 중 3명이었다. 여성 환자의 88%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비흡연자였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린 여성 환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폐암치료 전문가인 김 교수의 답변은 그야말로 ‘쿨’했다.<br/>“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린 여성 환자들은 ‘죽도록 고생해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는데 억울하다. 원인을 밝혀 달라’고 합니다. 원인이요? 저도 아직 모릅니다. 물론 억울하죠. 하지만 폐암에 걸린 것을 인정하고 빨리 치료를 해야 완치가 가능합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25.txt

제목: 日 “민간 위성 손실 지원” 우주사업 키우기  
날짜: 2017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24063948001  
ID: 01101101.2017042406394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중국과 우주개발 주도권 경쟁에<br/>민간기업 성장 방식으로 차별화<br/>위성 충돌 사고까지 보상 검토<br/>유망 벤처 발굴·발사장 신설키로<br/>中은 내년 달 뒷면 착륙 도전하고<br/>2022년엔 우주정거장 구축 목표<br/><br/><br/><br/>‘우주 굴기(堀起ㆍ우뚝 일어섬)’를 표방하며 신흥 우주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자극 받은 일본이 민간부문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서며 맞불을 놓고 있다. 자칫 우주개발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막대한 물량투자로 밀어 붙이는 중국의 기세와 달리 일본은 기업들의 우주 비즈니스를 전면에 내세우는 형태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어 일본의 다양한 우주 비즈니스 민간지원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일본 정부는 새로 부상하는 우주 관련 비즈니스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민간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주공간으로 발사한 인공위성이 사고가 나 손해배상이 필요할 경우 일정액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부터 검토키로 했다. 우주공간에선 민간기업이 쏘아 올린 위성이 의도치 않게 다른 위성에 부딪힐 수 있고, 상대 측으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br/>이에 대비해 현재 일본에선 위성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민간보험에 일부 정부보조가 가능하지만 이 구조를 우주공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내달쯤 정부 차원에서 법안 정비와 기업 참여방안을 포함한 ‘일본 우주산업 비전’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또 우주관련 유망 벤처기업 발굴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연내 ‘우주 비즈니스 컨테스트’를 열고 금융기관 및 산업혁신기구를 통해 ‘실탄’을 지원받도록 중개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소형 로켓 부문에선 민간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운영 중인 가고시마(鹿兒島)현 다네가시마(種子島)우주센터나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 외에 새로운 발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br/><br/><br/>일본 정부가 우주 비즈니스 지원에 몰두하는 것은 전 세계 시장규모가 2,000억달러(약 227조원)로 추정될 만큼 성장분야로 주목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우주분야 발전이 두드러지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중국은 지난 20일 자체 개발한 첫 화물우주선 ‘톈저우(天丹) 1호’를 발사했다. 중국은 구소련,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5번째 인공위성 발사국이지만, 내년엔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도전하고 2022년까지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구축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br/>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도 뒤질세라 올해 초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기종의 로켓 8기를 쏘아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중국이 최초로 화성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해 경쟁하는 것과 달리 비교적 소규모이며 실용적인 우주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다. JAXA가 우주에 쏘아 올린 위성들은 지구 지각의 움직임을 추적해 화산활동이나 지진발생에 대비한다거나, 생명공학 연구를 통해 암 치료제 개발을 돕는 식이다. <br/>최근 일본에선 죽은 사람의 유골을 우주로 쏘아 보내는 ‘우주장(葬) 전용위성’ 서비스도 등장했다. 망인을 화장하고 남은 재를 담은 캡슐을 위성에 480개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한다. 발사된 위성은 지구 주위를 수개월에서 수년간 돌다가 대기권에 돌입하면서 타 없어진다. 유족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고인의 화장재를 탑재한 위성이 지구상공 어느 지점을 비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발업체는 연내 첫 발사에 나설 계획이다. <br/>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26.txt

제목: [뒤끝뉴스] 외국인 주식보유 500조원 돌파, OK?  
날짜: 201704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22050129001  
ID: 01101101.20170422050129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한국경제ㆍ증시 신뢰와 위상 높아졌다는 신호<br/>대형주 쏠림에 증시 왜곡, 외환시장 변동성도 키워<br/>“<span class='quot0'>국내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ㆍ우량 중기 육성해야</span>”<br/>국내 유가증권 시장(코스피)에서 외국인 보유 잔액이 5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011년 400조원을 돌파한 지 6년 만입니다. 국내증시 및 기업들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금 500조원 시대의 명과 암을 들여다 봅니다. <br/> 2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주식보유잔액은 2011년 4월 400조원을 상회한 이후 6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가 작년 2월 이후 지금까지 21조원 가량 순매수가 이뤄지면서 지난달 15일 5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간 국내증시가 박스피(박스권+코스피)에 갇히면서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지난해 코스피 지수 상승에 힘입어 외국인 자본이 급격히 유입된 영향입니다. <br/>실제 작년 2월말 1,910 포인트 안팎이던 코스피는 2,100 포인트대에 진입하면서 15% 안팎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2월말 기준 387조원이던 외국인 주식보유액은 1년 사이 120조원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br/> 외국인 주식보유잔액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국내 증시와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의미여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보유액 규모(4,500억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11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아시아 신흥국 중에는 중국(5,860억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많아 국내증시가 ‘외국인의 대표증시’로 부상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조4,000억달러(국제통화기금 기준)입니다. 이는 세계경제에서 1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보유액 규모와 같습니다.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주식시장 수준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수준과 비슷한 것입니다. <br/> 그러나 외국인 주식보유잔액 500조원 시대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은행주 등 대형종목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외국인 보유액이 200조원이던 2009년 5월 국내증시에서 상위 외국인 보유액 10대 종목이 전체 보유액에서 차지한 비율은 47.3%였으나 현재는 54.7%로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대형 종목에서 악재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매도에 따른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증시가 휘청거리는 것은 물론,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는 종목은 내국인 투자자의 추종매수를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형주 쏠림 현상은 증시를 왜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보유액 증가는 원ㆍ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br/> 외국인 보유액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국내 증시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항세력인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중 증대 ▦중소형 우량기업 육성 ▦개인투자자 교육 강화 ▦개별 기업의 시장영향력 축소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27.txt

제목: 심각한 미군 기지 오염  
날짜: 201704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22050607001  
ID: 01101101.20170422050607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4월 20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br/><br/>Pollution of groundwater beneath the U.S. army base in central Seoul is far more serious than expected, according to a belatedly disclosed report. It is alarming that even the Han River as well as Yongsan Garrison’s adjacent areas may have been contaminated.<br/>용산 미군 기지 지하수의 오염도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뒤늦게 공개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용산 기지 주변 지역은 물론 한강까지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니 놀라울 수밖에 없다. <br/> <br/>According to the report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uesday, benzene, a cancer-causing substance, was found in 10 out of 14 sample wells. At one monitoring well, the level of benzene was 2.44 milligrams per liter, 162 times above the permissible level. Other chemicals detected at levels in excess of their safety limits included toluene, ethylbenzene and xylene.<br/>환경부가 화요일 배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암 유발 물질인 벤젠이 우물 14개 중 10곳에서 발견됐다. 한 우물에서는 벤젠이 1리터 당 2.44mg 발견되었는데, 이는 허용치의 162배에 달한다.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다른 화학 물질도 기준치 이상 발견됐다. <br/> <br/>This underground water contamination may be natural, considering that oil leaks have occurred frequently inside the Yongsan base. A report authored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obtained by a Seoul-based environment group, showed earlier this month that the base suffered at least 84 oil leaks between 1990 and 2015. The figure is much more than the five cases reported to the environment ministry so far.<br/>이 같은 지하수 오염은 용산 기지 내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최근 한 환경단체가 미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 기지에서는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적어도 84건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환경부가 통보 받은 5건을 훨씬 넘어선다. <br/><br/>That’s because U.S. Forces Korea covered up most of the oil leaks under some perfunctory environmental clauses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that governs the treatment of American soldiers here. Our government deserves harsh criticism for failing to confirm such oil leaks properly.<br/>이는 주한미군이 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형식적인 환경 규정에 근거해 대부분의 기름 유출 사고를 은폐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br/>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언론사: 한국일보-3-428.txt

제목: 건강보험 20조 흑자에도 보장률은 제자리  
날짜: 2017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20050832001  
ID: 01101101.2017042005083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재작년 기준 63.4%로 소폭 상승<br/>OECD 평균 80%에 한참 못 미쳐<br/>4대 중증질환은 80% 달하지만<br/>약제 등에 선별급여 적용돼<br/>본인부담률 높고 보장률 떨어져<br/><br/>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했지만 적절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로 이어지지 못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62,63%가량을 오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 <br/>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에 따르면 건보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를 기록했다. 전년 63.2%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2009년(65.0%) 이후 하락하다가 2014년(63.2%)부터 2년간 소폭 오르는 추세다. <br/>건보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책임지는 금액의 비율이다. 보장률이 높아지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은 낮아진다.<br/><br/><br/>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 난치성 질환)만 보면 건보 보장률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7.7%에서 2015년 79.9%로 2.2%포인트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고비용 약제ㆍ검사ㆍ치료법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등을 통해 4대 질환 비급여 부담을 줄여왔다. 중증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건보 보장률이 더 크게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병원급 이상 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8%에서 61.3%로 0.5%포인트 증가했고,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60.5%에서 61.8%로 1.3%포인트 증가했다. <br/>1인당 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건보 보장률도 77.4%에서 77.9%로, 상위 50위 질환 보장률은 75.6%에서 76.6%로 각각 0.5%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다.<br/>중증질환 보장률이 증가했는데도 보장률 상승이 미미했던 것은 선별급여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선별급여는 비용 효과성이 미흡하고 필수적 의료로 볼 수 없는 약제, 검사, 치료법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환자가 내는 돈의 비율을 50~80% 수준으로 높여 3년마다 재평가하는 제도다. 건보 적용은 되지만 본인부담률이 높게 책정돼 보장률은 떨어지는 것이다. <br/>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선별급여 등 본인 부담률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해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과 같은 비급여 부담이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2016년의 자료를 보면 보장률이 더 늘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br/>한편 2016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0조656억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5조7,195억 원, 총지출은 52조6,339억 원, 당기 흑자 3조856억원이다.<br/>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29.txt

제목: 한국ㆍEU, 직장암 방사선 치료 바이오마커 공동 개발키로  
날짜: 2017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20050830002  
ID: 01101101.20170420050830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진행선 직장암의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요법의 치료반응을 예측, 맞춤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바이오마커가 한국ㆍ유럽 공동 연구진에 의해 개발될 전망이다.<br/>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국내 병원 가운데서는 최초로 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인 ‘유로스타2’의 지원을 받아 진행성 직장암 바이오마커 연구개발 과제를 향후 3년 간 진행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br/>서울아산병원은 맞춤형 암 치료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바이오벤처 씨비에스바이오사이언스, 분자진단 전문 기업인 프랑스 벤처 프레스티지아와 협력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br/>씨비에스바이오사이언스사는 직장암 환자 조직으로부터 환자별 항암 방사선 치료 효과 유무를 미리 알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프레스티지아사는 환자 혈액을 이용한 바이오마커를 각각 개발해 서울아산병원의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 받는다.<br/>바이오마커란 혈액이나 조직 내 존재하는 단백질이나 유전물질(DNA) 등을 이용해 특정 약물이나 칠에 대한 반응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뜻한다. <br/>대장 맨 끝 부분인 직장에 암이 생기는 직장암의 경우 수술 시 항문을 보존하는 일이 쉽지 않아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를 통해 암의 크기를 줄이는 치료가 선행되면 더 좋다는 게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br/>다만 환자의 약 절반 가량에게는 항암·방사선 치료 효과가 적게 나타나거나 거의 없다는 사실이 걸림돌이다. 효과가 없을 경우 환자가 구토, 식욕 저하 등 치료 부작용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암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br/>유창식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장(대장항문외과 교수)은 “<span class='quot0'>바이오마커가 개발되면 조직검사나 혈액검사를 통해서 미리 치료 효과 유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많은 환자가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는 등 진정한 의미의 맞춤 치료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했다. 유 병원장은 “<span class='quot1'>바이오마커 개발이 끝나면 국내는 물론 유럽에 인허가 신청을 한 후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span>”이라고 덧붙였다.<br/>유로스타2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범유럽 공동 연구개발 네트워크인 유레카 사무국이 운영하는 국제 공동기술 개발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30.txt

제목: “노인 암환자, 가족에 짐 될까 걱정”  
날짜: 2017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20050826001  
ID: 01101101.2017042005082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립암센터 등, 노인 암환자 삶의 질 분석ㆍ평가척도 개발<br/><br/>고령화로 2020년에 암환자의 3분의 2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연구팀이 노인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했다.<br/>박기호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은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구애진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와 함께 국립암센터 등 10개 병원에서 2014년에 치료받은 60세 이상의 위암ㆍ대장암ㆍ폐암 환자 439명에게 설문 조사했다. <br/>그 결과, 노인들은 가족과 병에 대해 의사소통 문제(45%), 삶의 목적 고민(40%), 가족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30%), 주변 사람들 걱정(25%), 미래 걱정(약 25%), 거동장애(20%), 관절 경직 문제(15%) 등을 호소했다.<br/>특히, 병기(病期)가 진행될수록 주변 사람 걱정이 많았고, 거동에 장애가 있을수록 질병부담감이 높고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br/>연구팀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암환자 대상의 한국어판 삶의 질 척도’를 개발했다. <br/>박 과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가 통합적 지지의료 측면에서 노인 암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규명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이번 연구는 노인종양학회지(Journal of Geriatric Oncology) 최신호에 실렸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31.txt

제목: 국민 43.7% “건강보험료 더 내고, 혜택 더 받겠다.”  
날짜: 2017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20050816002  
ID: 01101101.2017042005081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ㆍ뇌졸중 등 중중질환 보장 강화 혜택 원해<br/><br/>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정도(47.7%)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br/>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지난 3월 16~23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보험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3.9%, 현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4%였다.<br/>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보험혜택을 더 받겠다고 응답한 이들의 32.8%는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의 최대 10~20%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었다. 평균 추가지불의향 비율은 현재 납부금액의 18.7%였다. 2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제도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최대 지불의향 비율이 높았다.<br/> 건강보험 의료보장 혜택이 강화되면 암, 뇌졸중 등 중증질환 보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았다.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수준 항상(31,3%), 입원 시 간병비 지원(23.9%) 등이 뒤를 이었다.<br/>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는 43.3%였다. ‘불만족’ ‘보통’이란 응답은 각각 22,4%, 33.3%를 기록했다. 사업단은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수준은 100점 평균 점수로 55.6점”이라고 밝혔다.<br/> 응답자의 76.0%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중증질환 입원 및 간병, 소아청소년 진료 등에 무상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공립병원 지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83.4%에 달했다.<br/> 김연수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span class='quot0'>국민의 대다수가 국공립병원 지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32.txt

제목: 암 치료 AI ‘왓슨’에 궁금한 네 가지  
날짜: 2017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20051005001  
ID: 01101101.2017042005100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요즘 국내 의료계의 화두는 단연 왓슨(Watson)이다. 왓슨은 IBM의 암 치료용 인공지능(AI) 솔루션. 가천대길병원 등 벌써 국내 대형병원 5곳이 들여와 이용 중이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왓슨의 ‘족집게 진료’에 암 환자들이 매료되고 있다는 평가가 쏟아지면서 암 환자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빅5’ 병원의 독주도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치료의 책임 소재, 환자 정보누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상당하다. 왓슨 열풍이 의료계에 던지고 있는 4가지 질문을 짚어봤다. <br/><br/>질문1. 왓슨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br/> 왓슨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다. 왓슨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추천하는 역할을 할 뿐, 치료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인간 의사의 몫이다. 이는 IBM이 가천대 길병원에 제공한 ‘왓슨 학습방법’을 봐도 알 수 있다. 학습방법은 왓슨에 대해 ‘의사가 환자 치료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하는 진료지원 시스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주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0'>왓슨이 인간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span>”이라고 말했다.<br/>왓슨은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의료기기도 아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span class='quot1'>왓슨은 치료 장비가 아닌 진단 장비에 포함 된다</span>”고 했다. <br/>그러나 이건 지금까지의 상황일 뿐이다. 왓슨의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뀐다면 미래엔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다. 지난해 말 IBM 관계자는 미국의 한 학회에 참석해 “<span class='quot2'>몇 년 뒤에는 기술적으로 왓슨이 미국 의사면허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span>”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span class='quot3'>언젠가 왓슨 같은 AI 기기가 의사 지위를 인정받아 의사 면허를 받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span>”고 내다봤다. <br/><br/>질문2. 왓슨의 진단은 정확한가<br/> 왓슨의 진단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선 인간 의사 진단과의 ‘일치율’이 유일하다. 왓슨을 도입한 인도 마니팔 병원이 최근 3년간 유방암ㆍ대장암ㆍ직장암ㆍ폐암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간과 왓슨의 진단이 일치할 확률은 78%였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왓슨을 도입한 가천대 길병원 이언 AI 정밀의료추진단 단장은 “<span class='quot4'>길병원의 경우 인간의사와 왓슨의 진단 일치율이 75%였다</span>”며 “<span class='quot4'>왓슨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 의사들에게 최상의 치료법을 제시할 것이라 믿고 있다</span>”고 말했다.<br/>하지만 일치율이 곧 정확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br/>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5'>왓슨의 정확성을 어디에 근거해 판단할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5'>국내 의료기관들이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고 왓슨을 사용하고 있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6'>임상에서 인간 의사가 선택한 치료법과 왓슨이 선택한 치료법의 차이와 결과를 재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왓슨의 성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span>”는 견해를 밝혔다. <br/>일치율 역시 아직은 암종별로 차이가 크다. 마니팔 병원의 경우 직장암은 85%에 달했던 반면, 폐암은 17.8%에 불과했다. <br/><br/>질문3. 왓슨 진단 책임 소재는? <br/>길병원의 경우 의사와 왓슨의 진단이 달랐을 때 환자 80%가 왓슨의 진단을 따랐다고 한다. 그런데 왓슨이 제안한 진단을 따랐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 <br/>왓슨이 의사가 아닌 만큼 문제 발생 시 왓슨 진단을 따랐다고 해도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최종 책임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간단치는 않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인 이인재 변호사는 “<span class='quot7'>왓슨이 제공한 치료법을 사용했다 치료에 실패해도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7'>반대로 왓슨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의사 소신대로 치료했다가 문제가 발생해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했다면 과실이 될 수 없다</span>”고 말했다.<br/>하지만 왓슨의 기술이 더 발전하면 왓슨이 의사들의 책임회피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의 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span class='quot8'>왓슨의 진단을 마치 ‘신이 내린 진단’처럼 믿는 환자에게 당당하게 의사 소신대로 치료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span>”며 “<span class='quot8'>왓슨이 하자는 대로 하면 적어도 책임소재는 피할 수 있어 왓슨의 결정에 따를 의사들이 많아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질문4. 왓슨, 의료정보 빼간다? <br/> 왓슨을 도입한 국내 의료기관들은 IBM이 운영하고 있는 ‘왓슨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 환자정보를 입력해야 왓슨의 치료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왓슨에게 유방암 환자 치료법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성별 ▦나이 ▦몸무게 ▦생리여부 ▦과거수술여부 ▦조직ㆍ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입력해야 된다. 이 때문에 의료정보는 물론 개인정보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br/> 이와 관련, 가천대 길병원 이언 단장은 “<span class='quot9'>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길병원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고, 왓슨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증상, 나이 등 비식별 정보만 입력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9'>환자 동의를 받아 진행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하지만 국내 환자정보 축적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김민섭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은 “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왓슨 서비스 이용 시 환자정보를 비식별화해 송부한다 해도 재식별이 가능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암 환자들에게 형식적으로 동의를 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의료정보 해외 제공에 대한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br/><br/>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33.txt

제목: ‘빅5’ 병원은 왜 왓슨을 도입하지 않나  
날짜: 2017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20051000001  
ID: 01101101.2017042005100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인력ㆍ장비 풍부 “필요 없다”<br/>‘한국형 왓슨’ 개발 나설 듯<br/><br/><br/> IBM의 암 치료용 인공지능(AI) ‘왓슨’을 도입한 국내 병원은 현재까지 다섯 곳이다. 지난해 12월 가천대 길병원을 시작으로 부산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대전 건양대병원 등 모두 지방병원이다. 이들은 왓슨 도입으로 이른바 ‘빅5’ 병원과 동일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진단은 지방 병원이, 치료는 ‘빅5’ 병원에서 행해지는 ‘기울어진 의료 환경’을 왓슨을 통해 극복하려는 측면이 강하다.<br/> 하지만 서울아산병원ㆍ신촌세브란스병원ㆍ서울대병원ㆍ삼성서울병원ㆍ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은 “왓슨 도입과 관련 내부 논의조차 없다”며 왓슨 도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암 치료 인력과 장비에 대한 자신감이다. 김주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0'>왓슨은 의사가 암 치료를 할 때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수준</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암 치료에 있어 특화된 전문의와 장비를 갖춘 대형병원들은 왓슨을 도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한다</span>”고 말했다. <br/> 여기엔 왓슨 도입의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익명의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암센터ㆍ암병원 시스템을 허물고 왓슨을 도입할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치료성과 등 검증이 끝나지 않은 왓슨을 도입하는 것 보다 독자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말했다. 이들 병원은 “암 치료와 관련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며 “시간과 예산을 투여하면 왓슨과 같은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이 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br/> 지난달 29일 연세의료원이 ‘한국형 왓슨’ 시스템 개발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판단 에서다. 장혁재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 실장은 “<span class='quot2'>현재 왓슨이 한국인의 특성과 의료제도, 사회적 환경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국내 의료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한국형 인공지능 개발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34.txt

제목: “아침에 일어나 곧바로 흡연하면 두경부암 발병 59%↑”  
날짜: 2017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8050830003  
ID: 01101101.20170418050830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기상 1시간 이후 흡연보다 더 위험…조기 발견하면 완치율 90% 넘어<br/>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면 두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59%나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경부암은 입 코 목 혀 등 머리에 생기는 암을 총칭한다.<br/>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의대 연구팀이 '미국암학회저널'(2011)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상직후 30분 이내 흡연하는 사람은 1시간 이후 흡연하는 사람보다 두경부암 발생률이 59%나 더 높았다. 실제로 잠에서 깨어 곧바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30분 이상 지난 뒤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 인체 내 니코틴 수치가 높았다.<br/>기상 직후 담배 피는 사람은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 담배 연기를 다량으로 깊이 흡입해 일반 흡연자보다 혈중니코틴과 다른 독소가 더 많아 두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br/> 두경부암은 치료하기 매우 까다롭지만 조기 진단하면 완치율이 아주 높다. 하지만 두경부암을 첫 진단받은 환자 중 3분의 2는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됐거나 전이돼 대부분 예후가 좋지 않다.<br/>이세영 중앙대병원 두경부종양클리닉 이비인후과 교수는 "두경부암은 조기 진단하면 80~90% 완치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5년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다. 이 교수는 "두경부암의 90% 정도는 음주와 흡연이 주 원인인 만큼 평소 술ㆍ담배를 즐기는 사람, 특히 아침 애연가들은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후두내시경 검사를 통한 조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br/>후두내시경검사는 후두경을 목이나 코 안쪽으로 넣어 후두를 관찰하는 검사법이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처럼 마취하거나 약을 사전에 먹을 필요도 없이 간편히 검사할 수 있다. 두경부암이 의심되면 조직검사로 확진한다.<br/>두경부암이 의심되는 초기 증상으로는 목소리가 갑자기 쉬거나, 입안 염증이나 혓바늘이 계속 생길 때, 한쪽 코가 막히거나, 콧물에 피가 섞일 때, 연하곤란, 목 통증 등 증상 가운데 1가지 이상이 3주 이상 지속될 때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35.txt

제목: 다온건강검진센터,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내 개소  
날짜: 2017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8050759002  
ID: 01101101.2017041805075900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다온건강검진센터 17일 서울 송파구 동남권 유통단지 내에 위치한 미래형 복합단지인 송파파크 하비오에 단일층으로는 국내 최대규모인 건강검진센터(사진)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br/> 연면적 7,269m²(2,199평) 규모로, 단일 층에 모든 검진 시설을 갖춘 이 검진센터에선 건강검진 수검자들이 외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통한 이동 없이 모든 검진을 같은 층에서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또한 남성구역과 여성구역을 분리시켜 운영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br/> 다온건강검진센터는 국민건강보험지정병원으로 일반 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5대 암 검진 등 기본건강검진은 물론 기업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비부부용 검진 프로그램과 부모님을 위한 효도검진 프로그램 등 특화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br/> 다온건강검진센터에선 내과, 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피부과 등의 전문의들도 만나볼 수 있다.<br/> 한편 송파 파크 하비오에 들어선 다온건강검진센터는 최대 1,500대까지 가능한 넓고 쾌적한 주차공간도 마련됐다.

언론사: 한국일보-3-436.txt

제목: “갑상선암 과잉 진단, 한국인에게는 예외?”  
날짜: 2017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7050818001  
ID: 01101101.2017041705081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경계성 갑상선 종양’, 한국은 미국의 10% 미만<br/><br/>갑상선암으로 분류됐던 ‘암 경계성 갑상선 종양’이 한국에서는 외국보다 훨씬 적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는 2011년 4만 명 정도로 인구 10만 명당 81명꼴로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다. 일부에서는 과잉 진단을 원인으로 들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br/>지난해 4월 미국 국립암연구소 의뢰로 구성된 국제전문가위원회는 “<span class='quot0'>갑상선암의 10~20%는 종양 절제만하면 완치할 수 있어 암이라고 부르지 말고, 추가 수술이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불필요하다</span>”고 발표, 갑상선암 과잉 진단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전문가위원회는 이 질환을 ‘갑상선유두암’이라는 진단명 대신 ‘유두암종 세포핵을 지닌 비침습 갑상선 소포 종양(NIFTP)’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다음 달 개정ㆍ발표될 ‘제4판 WHO 종양 분류법’에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br/>그런데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정찬권(병리과)ㆍ배자성(유방갑상선외과) 서울성모병원 교수팀은 “<span class='quot1'>2008~2014년 서울성모병원에서 갑상선유두암 진단 받은 환자 6,269명을 대상으로 NIFTP 발병률을 확인한 결과, 105명(2%)만 해당됐다</span>”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북미 병리학회 공식학술지(Modern Pathology) 온라인판에 실렸다.<br/>정 교수는 “<span class='quot2'>이번 연구결과, 한국인 발병률이 세계 평균 발생률(10~20%)보다 훨씬 낮은 비율(2%)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2'>연구에서 보듯이 서양인과 다른 한국인만의 갑상선암 특성을 고려한 진단 기준을 진료현장에 적용해야 한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정확히 진단되지 않은 NIFTP는 림프절 전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치료하기 쉬운 종양으로만 취급해선 안 된다</span>”고 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2'>이번 연구결과로 암이 있는데도 필요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새로운 진단ㆍ치료 기준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span>”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br/>배 교수는 “<span class='quot3'>대한갑상선학회 진료권고안에 따라 초음파 검사로 확인된 갑상선 결절(혹)의 크기가 1㎝ 이상일 때 세침흡인세포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면 수술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3'>갑상선 결절이 발견됐다고 무조건 수술할 게 아니라 크기가 작고 예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면 지켜볼 수도 있다</span>”고 했다.<br/>NIFTP는 갑상선유두암과 세포 모양이 유사하지만, 섬유조직 캡슐(주머니)로 둘러 싸여 있고, 혈관 침습이 없어 전이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암 경계성 갑상선 종양’이다. 일반 갑상선유두암과 성질이 달라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세포핵 모양 때문에 세침흡인세포검사로는 갑상선유두암과 구별되지 않고, 수술 후에만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37.txt

제목: “항문 제거 없이 직장암 환자 완치시켜 보람”  
날짜: 2017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7050815002  
ID: 01101101.20170417050815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항암ㆍ방사선치료로 종양 줄이고<br/>복강경 절제술로 환자 95% 항문 보존<br/>“환자가 스승이자 발전 원동력 <br/>외과의사는 24시간 봉사해야”<br/><br/> 대장은 섭취한 음식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을 담당하고 있다. 인간은 배설하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대장이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br/>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된다. 암이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이다. 대장암은 결장암과 직장암을 통칭한 말이다.<br/> 조현민(51)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대장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외과의사다. 특히 직장암 치료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항문과 연결된 직장에 암이 생기면 항문을 제거해야 하는 등 환자의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br/> “결장암은 수술부위가 넓고 단순하지만 직장암은 수술부위가 좁고, 배설은 물론 성기능과 관련된 신경이 많아 수술이 까다롭습니다. 암세포가 항문조임근(항문괄약근)까지 침범하면 항문을 제거해야 합니다. 수술을 해도 재발가능성이 높은 예후가 나쁜 악성 암 질환입니다.”<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4차 대장암 적정성 평가결과(2014년)’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의 89.6%가 50대 이상 중ㆍ노년층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5배 많았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직장암 수술을 하면 직장을 제거하기 때문에 제대로 소변 보기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0'>남성 환자의 경우 발기가 되지 않는 등 이중고에 시달린다</span>”고 말했다.<br/> 직장암은 참 고약한 암이다. 종양이 항문 가까이에 발생하면 모든 직장과 항문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말이 좋아 인공항문(장루)이지, 항문이 사라진 환자의 삶은 비참하다. 직장암 환자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조 교수는 그래서 환자의 항문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br/><br/>항문보존술로 직장암 수술환자 95% 항문유지<br/> 성빈센트병원 대장암센터에서는 직장암 2, 3기로 진단된 환자를 치료할 때 수술 전 항암ㆍ방사선치료를 병행해 종양 크기를 줄인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수술 전 항암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하면 항문보존은 물론 수술부위 주변에 다시 암이 재발하는 ‘국소재발’도 줄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 항암과 방사선치료를 통해 종양 크기가 줄면 복강경 직장절제술로 치료를 마무리한다. 대장암센터에서 복강경 직장절제술로 수술 받은 95%의 환자가 항문을 보존하고 있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직장암 수술을 할 때 항문조임근이 1㎝는 돼야 항문보존술을 사용하지만 우리 센터에서는 항문조임근이 5㎜ 정도만 돼도 항문을 보존할 수 있다</span>”고 했다. <br/>항문보존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방귀나 대변이 자의로 조절되지 않아 새 나오는 ‘변실금’ 이 되기 쉽다. 이에 대장암센터에서는 항문기능검사,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줄이고 있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항문조임근, 인공항문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둬 수술 후 환자의 생활까지 책임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사이에서 성빈센트병원은 ‘대장암 치료 전진 기지’로 통한다. 1994년부터 복강경으로 대장절제술을 실시하는 등 국내 대장암 치료를 선도했기 때문이다. <br/>조 교수가 성빈센트병원에 둥지를 튼 것도 이 때문이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90년대 중반까지 무조건 개복해서 항문을 제거하는 것이 직장암 수술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새로운 술기(術技)를 익혀 직장암을 정복하려고 외과의사가 됐다</span>”고 했다.<br/> 최근 다른 병원에서 직장암 4기 진단을 받은 P(58)씨가 조 교수를 찾아왔다. 환자 상태가 심각해 항문을 보존하기 힘들어 보였다. 환자는 “항문을 제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br/>환자를 겨우 설득해 항암ㆍ방사선치료를 시행했다. 결과를 낙관할 수 없었지만 조 교수는 수술방으로 향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환자는 항문을 제거하지 않고 직장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환자는 조 교수에게 “내 목숨과 항문을 살려준 교수님의 은혜를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살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수술이 잘 돼 얼굴이 밝아진 환자를 보면 외과의사로서 보람을 느낀다</span>”며 “<span class='quot0'>나를 찾아준 환자들이 스승이자 발전의 원동력</span>”이라고 말했다.<br/> 환자 명줄을 쥐고 있는 외과의사는 단 1초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평소 소신이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외과의사는 오직 환자를 위해 24시간 내내 봉사하고 희생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 조 교수는 ‘일복’이 많다. 환자치료는 물론 병원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기획조정실장까지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span class='quot0'>매출규모로 따지면 성빈센트병원이 전국 20위권 안에 들지만 저평가된 부분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속적으로 병원구성원들과 소통해 변화와 발전을 꾀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38.txt

제목: 폐암치료병원 89곳 중 3곳 낙제점  
날짜: 2017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7050734002  
ID: 01101101.2017041705073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을 치료하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3곳은 낙제점을 받았다.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전국 89개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폐암 진단 및 진료를 잘 하는 곳을 가리는 '2016년 3차 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br/>의료기관의 평균 종합점수는 97.47점(상급종합병원 99.16점, 종합병원 95.96점)으로 비교적 높았고 1등급 80곳(89.9%), 3등급 2곳(2.2%), 4등급 4곳(4.5%), 5등급 3곳(3.4%)이었다.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ㆍ동국대의대경주병원ㆍ청주성모병원이 5등급의 낙제점을 받았다. 이는 각 의료기관별로 ▦전문인력 구성(구조) ▦치료 과정 ▦평균 입원일 및 입원비(결과) 등 3개 영역(21개 지표)을 평가, 종합 점수를 매겨 1~5등급으로 나눈 결과다. <br/><br/>지역별로 보면 강원권이 다소 부진했다. 강원 지역 4곳의 병원 중 1등급은 2곳에 불과했고, 4등급(한림대부속춘천성심병원) 1곳, 3등급(강원대병원) 1곳이 있었다. 조사 대상 기관의 영역별 점수를 보면 진료 영역(각 치료법 시행률)은 94~99점으로 점수가 높았지만 전문인력 구성을 뜻하는 구조 영역은 86.1점으로 낮았다.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병리과, 방사선 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 7개 전문 과목의 상근 전문의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r/> 폐암은 암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세가 거의 없는 ‘조용한 암’으로 불린다. 실제로 조사 대상 중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43.7%는 전이가 진행된 4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70.3%는 확장병기에 진단을 받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폐암은 암 발생에 따른 5년 상대 생존율이 25.1%로 매우 낮다</span>”며 “<span class='quot0'>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최선</span>”이라고 말했다. <br/>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39.txt

제목: [영상] '프랑스 감성' 자동차 회사가 만든 전동식 킥보드  
날짜: 2017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7050657002  
ID: 01101101.20170417050657002  
카테고리: 경제>자동차  
본문: 푸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형 ‘3008’의 이동성 확장을 목적으로 개발된 고급 전동식 스쿠터가 세계 3대 디자인 상인 '레드닷 어워드'에서 제품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br/>스케이트보드에 긴 손잡이가 달린 모양의 '킥보드'를 연상시키는 해당 제품은 '푸조 e-Kick 스쿠터'라는 이름이 붙었다. <br/>푸조 디자인 랩(Peugeot Design Lab)이 설계 및 디자인을 담당하고 마이크로(MICRO)가 제작했다. 신형 푸조 3008 SUV의 이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돼 차량이 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이나 복잡한 도심까지 쉽고 간편하게 갈수 있다. <br/><br/><br/>속도는 10km/h와 20km/h, 그리고 25km/h까지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1회 충전으로 12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1시간이면 완전히 충전할 수 있다. <br/>무게는 8.5kg으로 가볍고, 푸조 디자인 랩에서 설계한 독창적인 ‘암 핸들 바(Arm-Handlebar)’방식을 도입해 불과 몇 초 내에 휴대하기 편한 사이즈로 접을 수 있다.<br/>무엇보다 푸조 e-Kick 스쿠터는 함께 출시한 뉴 3008 SUV와 탁월한 조화를 이룬다. 뉴 3008 SUV의 트렁크에 푸조 e-Kick 스쿠터 도킹 스테이션을 설치하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 푸조 e-Kick 스쿠터를 충전할 수 있다.<br/><br/><br/>한편 ‘레드닷 어워드’는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더불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디자인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세계 최고의 디자인 어워드 답게 유명 디자이너와 건축가, 그리고 전문교수 등 39명의 전문가가 심사위원단의 참여로 이뤄진다. <br/>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40.txt

제목: '그림 없는 아우성'... 요즘 책 표지 유행 예감  
날짜: 201704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6050507001  
ID: 01101101.20170416050507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span class='quot0'>요즘 책들이 전부 파스텔톤으로 ‘분홍 분홍’한 표지들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해독제 같아서 좋아요.</span>” 회사원 김영롱(34ㆍ여)씨의 말에 신혜원(37ㆍ여)씨는 곧바로 반론을 펼쳤다. “<span class='quot0'>표지가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니 좋긴 한데, 이러면 책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지지 않나요?</span>”<br/>16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만난 독자 의견은 엇갈렸다. 요즘 출판계에 자주 보이는 ‘텍스트 표지’ 때문이다. 함축적인 제목에다 느낌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날 것 그대로 줄줄 써놓은 글 자체를 책 표지에다 올리는 방식이다. 낱글자를 풀어 쓰는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음절 단위로 한데 모아 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알파벳에 비해 우리 글이 글자 자체로 디자인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글자 자체를 유려하게 활용하는 책 디자인이 외국에 비해 드문 까닭이다. 그러나 요즘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br/>동아시아 출판사는 물리학자 이종필의 시사평론집 ‘과학자가 나라를 걱정합니다’를 내면서 표지에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낭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문을 빽빽하게 실었다. 하명성 동아시아 편집자는 “내부적으로 ‘너무 세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자 위주 책 표지가 흔하지 않으니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고, 책 자체가 시사평론집이니 오히려 ‘신문 사설’ 같은 느낌을 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br/>요즘 파격적 편집으로 종종 화제를 모으는 알마출판사(알마)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다룬 ‘기억하겠습니다’를 내면서 표지에다 돌아가신 할머니들 20명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안지미 알마 대표는 “<span class='quot1'>위안부를 주제로 한 책은 대개 감성적인 문구나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책들과 차별화를 하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 책 제목 그대로 위안부 할머니들 한 분 한 분을 절대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름 배치가 ‘묘비’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했다. <br/>페미니스트 주디스 버틀러의 대담집 ‘박탈’(자음과모음)은 표지에다 대담 주제 21가지를 아예 적어뒀다. 속지에 있을 ‘차례’를 밖에다 꺼내놓은 셈이다. 자음과모음의 임채혁 편집자는 “저자나 책 자체가 가지는 무게감이 상당하고, 일정한 방향의 정치적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br/>텍스트를 고스란히 표지 위에 올리는 작업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안지미 대표는 “<span class='quot1'>글자만으로 표지를 만들면 쉽다고들 생각하는데, 거꾸로 ‘글자 덩어리’만으로 어떤 이미지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글자 모양과 자간을 일일이 다 조정하는 등 더 어렵게 작업했다</span>”고 말했다. ‘북막일기’ 등을 작업한 글항아리의 채정윤 편집자도 “표지에 글자들이 빽빽하게 배치되면 아무래도 제목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독자의 시선을 제목 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br/>텍스트 표지의 유행은 현 시국의 특이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출판계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아무래도 글자 그 자체로만 디자인하는 건 쉽게 눈에 띄지 않고 딱딱한 느낌이어서 잘 택하지 않는 방법</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촛불에서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급박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색다른 시도가 나오는 듯 하다</span>”고 말했다. 표지들이 목청 높여 메시지를 웅변하고 있다는 것이다.<br/>그러나 표지에 문장을 앞세운 책이 시국하고만 관련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다출판사(바다)는 30년간 암환자 50인을 밀착 취재한 야나기다 구니오의 책 ‘암, 50인의 용기’를 내면서 저자의 메시지를 책 전면에 배치해뒀다. 고통과 죽음을 주제로 한 책인 만큼 너무 어두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글자는 핑크색으로 했고, ‘순수’를 상징하는 하얀 장미까지 함께 놔뒀다. 덕분에 책은 화사한 느낌이다. 박소현 바다 편집자는 “암 환자나 그 주변 분들이 책을 보셨을 때 책의 메시지를 가장 절제된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주장 아닌 배려도 표지에 글자를 불러낸다.<br/>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br/>김도엽 인턴기자(경희대 정외3)

언론사: 한국일보-3-441.txt

제목: “새카만 먼지 날아와 창문도 못 열고 365일 감옥살이”  
날짜: 2017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4050841002  
ID: 01101101.20170414050841002  
카테고리: 지역>충남  
본문: [지금 이곳에선] <43> 화력발전소로 몸살 앓는 충남 서해안<br/>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9기가<br/>충남 태안ㆍ당진ㆍ보령ㆍ서천에 밀집<br/><br/><br/>11일 오전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당진석탄화력발전소 굴뚝은 진한 연기를 계속 토해 내고 있었다. 바로 뒤 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건립 예정부지에는 ‘공익사업 예정부지로 사전 동의 없는 자산침해 행위를 하면 법적 책임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서 있었다. 이 곳에 건립될 화력발전시설은 2기로, 현재 가동 중인 당진화력(10기·6,040㎿)까지 더하면 석탄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이 한 곳에 12기나 돌아가게 된다.<br/>교로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주민 A(44)씨는 “바람이 많이 불면 야외 테이블에 화력발전소 야적장에서 날아온 새카만 먼지가 쌓여 아무리 닦아 내도 소용 없다. 새카만 먼지를 보면 내 속도 새카맣게 탄다”며 “화력발전소를 더 건립하는 건 안 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교로리에는 다른 지역보다 암 환자가 많다는 말이 파다하다. 아토피와 비염,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도 많다. 전부 다 (당진화력) 발전소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8기(4,000㎿)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마을 주민들도 당진 교로리 주민들과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 B(56)씨는 “먼지 때문에 빨래를 널지 못하고, 일 년 내내 문을 닫고 지내야 할 정도”라며 “내 집에서 감옥살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푸념했다. <br/> 보령화력 측은 오는 7월 설비용량 1,000㎿ 규모의 신보령화력 2기 완공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령화력에서 나오는 먼지가 주민들의 암 발생 원인이라는 명확한 조사결과 등의 근거가 없다 보니 주민들은 답답한 가슴만 치고 있다.<br/> 충남 서해안 주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유해 먼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화력발전 증설 허가를 내 주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br/>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태안과 당진, 보령, 서천 등 4개 시·군에서 총 29기(시설용량 1만5,310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57기)의 절반 이상이 충남에 있는 것이다.<br/>가스ㆍ먼지 등 유해물질 다량 배출<br/>다른 지역보다 암 환자 많아<br/>10기 가동 당진에 2기 추가 예정<br/>충남도ㆍ주민들 재검토 요구에도<br/>정부는 “7년 전 결정” 강행 의지<br/><br/>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다 보니 해당 지역의 오염도를 확인하는 각종 조사 결과 충남은 상위권에서 늘 빠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2013년 기준 시·군·구별 대기오염물 배출량조사(2013년 기준)를 보면 당진군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세먼지도 포항 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2016년 같은 조사 결과에선 대기오염 다량 배출 사업장 소재지 상위 5곳이 모두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이었다. 이 가운데 충남에선 태안(2위), 보령(3위), 당진(4위) 등 3곳이 포함됐다.<br/> 윤여명 충남도 에너지전환팀장은 “충남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유해 먼지를 내뿜으며 생산한 전력의 50% 이상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먼지도 모자라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과 송전탑까지 설치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br/> 반면 정부는 이미 10기가 가동 중인 당진에 2기(에코파워·시설용량 1,160㎿)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원개발사업추진심의위가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을 가결했다. 가결 사실을 뒤늦게 안 충남도와 당진시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에코파워 예정지 바로 옆에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전국적 관광지인 왜목마을이 있고, 마리나 항만까지 계획돼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당진시 등 23개 기초단체가 참여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거듭 촉구했지만 산자부는 증설 방침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br/> 산자부는 서천에도 화력발전을 증설한다. 산자부는 기존의 2기를 폐쇄하는 대신 1기를 설치한다는 논리지만 사실상 증설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폐쇄하는 시설의 총 용량은 400㎿(2기)인 반면, 신설하는 발전소 1기의 총 용량은 1,000㎿이다.<br/> 정부가 화력발전 증설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결정과정에 사실상 아무 영향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충남도 고일환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전원개발법에는 해당 기초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실제 의결과정에 참여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아무 근거도,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br/>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0'>당진에서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이 나온 것은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span>”며 “<span class='quot0'>더 이상 산업계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윤추구를 위해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없어야 한다</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 <br/>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현재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증설은 이미 7년 전 5차 전력계획 수급안에서 결정한 사안</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당진의 경우 에코파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당진 전체 화력발전의 4% 정도에 불과한 만큼 기존 당진화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50%를 감축하면 전체적으로는 크게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해명했다.당진=최두선 기자<br/>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42.txt

제목: 부산시의료원, ‘위암 수술 잘하는 병원’  
날짜: 2017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3050812003  
ID: 01101101.20170413050812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부산시의료원(원장 최창화)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국 2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위암 적정성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아 ‘위암 수술 잘하는 병원’에 꼽혔다고 13일 밝혔다.<br/>이번 적정성 평가에서 부산시의료원은 전체평균 95.77점 보다 높은 종합점수 96.53점을 받았다. 특히 총 19개 평가지표 중 전문인력 구성, 위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비율 등 11개 항목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았다.<br/>부산지역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고신대복음병원이, 종합병원급에서는 부산시의료원을 비롯해 인제대해운대백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br/>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며 암사망률은 폐암, 간암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위암 치료 시 치료과정의 적절성과 위암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위암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br/>한편 부산시의료원은 지난해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폐렴적정성평가 지표개선활동’에서 최우수상, ‘복강경 담낭 절제술 표준진료 지침 개발 및 진료효율성 증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br/>서병수 부산시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도 부산시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최상의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시민의 보건향상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span>”이라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43.txt

제목: [브리핑]한화생명, 용돈드리는 효보험 출시 등  
날짜: 2017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3050805001  
ID: 01101101.20170413050805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우리은행, 5월 황금연휴 환전 이벤트 실시<br/>우리은행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1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5월 황금연휴를 잡아라!’ 환전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간 중 미화 300달러 이상을 환전하는 고객이 대상이며, 주요통화(달러, 엔, 유로) 기준 최대 75% 환율우대를 제공한다. 여행 뒤 남은 금액을 다시 환전할 때도 이벤트 기간 중이면 동일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환전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불카드 5만~50만원권도 지급한다. <br/><br/>신한은행,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외국인 재학생에 장학금 전달<br/>신한은행은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국립암센터 산하 국제암대학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아시아 유일의 암연구ㆍ암정책 특화 전문대학원이다. 신한은행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향후 암연구와 관리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장학금 전달식을 마련했다. <br/><br/>한화생명, 용돈 드리는 효보험 출시<br/>‘고객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라이프플러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한화생명은 13일 라이프플러스 용돈 드리는 효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1,000만원 가입 시 가입 후 3년째부터 일정기간(5년, 7년, 10년 중 선택) 매년 24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여행자금 형태로 선택해 가입 3년째부터 5회에 걸쳐 3년 간격으로 500만원씩 받을 수도 있다. <br/><br/>동부대우전자 '공기방울 4D 마이크로' 세탁기 출시<br/>동부대우전자가 ‘공기방울 4D 마이크로’ 세탁기를 출시했다. 2015년 출시돼 누적 판매량 10만대를 기록한 공기방울 4D 세탁기 후속 제품으로, 초미세기포 발생장치를 탑재해 0.05㎜ 공기방울을 내뿜어 세탁력을 향상시킨 게 특징이다. 용량은 15㎏, 가격은 60만원대다.<br/><br/>LGU+, 반도건설에 홈IoT 구축…제휴 건설사 20개로<br/>LG유플러스는 반도건설과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협약을 맺고 반도 유보라 아파트에 홈 IoT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입주 시 설치된 조명ㆍ가스ㆍ난방뿐 아니라 에어컨ㆍ세탁기 등 개별 구매하는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 이로써 LG유플러스와 홈 IoT 서비스 구축 협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20곳으로 늘었다.<br/><br/>LG전자 G6, 러시아ㆍCIS 17일 출시<br/>LG전자가 17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6개국에서 전략 스마트폰 G6를 출시한다. LG전자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가젯 스튜디오에서 G6 출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60여개 매체의 취재진 200여명이 참석해 G6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언론사: 한국일보-3-444.txt

제목: 다이어트의 적, 식욕은 어디서 나오나… “장내 세균에 문제 있을 때 허기 생긴다”  
날짜: 2017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3050718001  
ID: 01101101.2017041305071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별명이 ‘빵순이’다. 밥과 면이 메뉴에 있으면 늘 면을 고를 정도로 실은 밀가루 마니아다. 밀가루 음식은 행복을 준다. 과하게 먹을 경우 아토피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만 빼면. 신은 나에게 왜 아토피를 주셨나, 먹을 때마다 고민하는 나에게 들려온 희소식이 있으니, 아토피가 있는 사람은 후에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단다.<br/>아토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인간이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독성 물질을 피하기 위한 생존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어떤 독성을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아토피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면 그 음식을 먹지 않게 되지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혹은 착각)하며 계속 먹게 되기 때문이다. 읽고 보니 어쨌든 밀가루는 끊어야겠다.<br/>진화의학자인 권용철 박사의 ‘우리 몸은 아직 원시시대’는 인간이 어떻게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해 왔는지를 바탕으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우리의 유전자는 변하지 않지만 음식, 환경,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받아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책의 골자다. 저자에 따르면 인간의 유전자는 원시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반면 현대화 된 생활방식에 의해 비롯되는 건강문제가 만만치 않다. 책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장내세균이다. 현대의 항생제로 인해 우리 몸에 필요한 세균들까지 모조리 사라져 면역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토피다.<br/>또다른 재미있는 구절은 “식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장내세균 불균형의 문제”라는 시각이다. 피르미쿠테스라는 세균은 숙주의 호르몬을 조절해 에너지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도록 조장한다. 대뇌에 특정 물질을 분비해 저혈당 상태라고 생각하게 만든 뒤 당분섭취를 유도하는 미생물도 있다. 그러니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식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너무 좌절하지 말고 장 속의 세균들을 살펴보자.<br/>비슷한 얘기는 ‘탄수화물’ 관련 부분에도 나온다. 탄수화물은 사실 허기져서가 아니라 추가적인 만족감을 위해 먹는 것이다. 탄수화물은 체내에 흡수되면 포도당으로 바뀌고 대뇌에서 만족 중추를 자극한다. 삼겹살을 배불리 먹은 후 된장찌개나 냉면을 먹는 이유는 탄수화물 공급이 완전하지 않아 대뇌 만족 중추 자극이 일어나지 않은 탓이다. 우리는 탄수화물을 조심해야 한다. 탄수화물은 도파민에 의해 일어나는 일반적인 중독에 버금가는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밀가루를 먹고 싶다는 생각은 장내세균 혹은 탄수화물 중독 증세 때문일지 모른다. 저자의 다이어트 조언을 더 소개하자면 ‘물만 먹어도 살 찌는 사람’은 차가운 음료를 많이 먹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찬 음식은 저체온증을 유발하고 체온유지를 위해 몸은 지방을 축적한다.<br/>결국 사람마다 건강관리 방법이 다르다는 결론에 이를 것 같지만 모두에게 통용되는 이야기도 있다. 노화를 막고 암 발병을 줄이기 위해선 “적게 먹고 일찍 자라”는 조언이다. 손상된 유전자를 수리하는 ‘시르투인’의 생산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배고픈 상태에서 잠을 자야 한다. 반면 한꺼번에 운동을 몰아서 하면 과도한 활성산소가 발생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br/>이쯤 되면 ‘어쩌란 말인가!’라고 외치고 싶어질 수도 있다. 사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에서부터 밝히고 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건강에 대한 확장된 안목을 갖고 올바른 정보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br/><br/>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45.txt

제목: '빵점짜리 아빠' 최태웅 감독이 말하는 '너는 내 운명'  
날짜: 2017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3050711001  
ID: 01101101.20170413050711001  
카테고리: 스포츠>스포츠일반  
본문: ▲ 인터뷰 도중 환하게 웃고 있는 최태웅 감독/천안=이호형기자 leemario@sporbiz.co.kr <br/>[천안=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누군가의 성공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동반된다. 스스로 표현처럼 최태웅(42) 현대캐피탈 감독이 배구에 '미칠' 수 있는 건 아내의 한없는 내조 덕분이다.<br/> <br/>최 감독의 뇌 구조는 '배구와 가족' 두 단어로만 구성돼 있다. 배구 외에 가장 소중한 걸 꼽아달라고 묻자 "가족"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특별한 취미조차 사치인 그에게서 배구를 빼면 남는 것은 가족뿐인 삶이었다.<br/> <br/>최 감독에게 '너는 내 운명'이 찾아든 건 지난 2002년이다. 배구장을 찾았던 팬인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이다. 최 감독은 "<span class='quot0'>배구 팬이라기보다는 스포츠팬으로서 배구를 보러 온 관중이었다</span>"고 아내를 소개하며 "<span class='quot0'>처음엔 얼굴만 알고 지내다가 우연찮게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됐다</span>"고 회상했다.<br/> <br/>그렇게 2003년 결혼해 든든한 아들 둘이 생겼다. 숙소에서 밤늦게까지 배구 고민에 빠져 있을 때쯤 아들들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사랑해요"라고 한다. 그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힘을 얻는 여느 40대 초반의 가장과 다르지 않다.<br/> <br/>그러면서도 "정말 빵점짜리 아빠다. 가장으로서 솔직히 한 게 없다"며 "딴 데서 노는 게 아니라 밤에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한다.<br/> <br/>2010년 인생 최대의 시련기가 닥쳤을 때 역시 아내가 큰 버팀목이 됐다. 현대캐피탈로 이적하던 시점인 그 해 메디컬 테스트 결과 림프암 진단을 받았다. 오전에 항암치료를 받은 뒤 오후에 훈련을 했다. 경기에도 출전했다. 그렇게 1년여의 땀방울 속에 암은 치유됐다. 최 감독은 "아내가 오히려 더 덤덤했다"며 "<span class='quot0'>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힘을 불어넣다</span>"고 했다.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최 감독에게 전달돼 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br/> <br/>결혼 10년 차를 훌쩍 넘겼지만 둘이 함께 보낸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여서 아내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마저 다 감수하고 남편 입장에서 남편만을 위하는 아내다.<br/> <br/>최 감독은 "옛날부터 그랬는데 감독이 되고는 집에 거의 못 들어가고 있다"면서 "가족들과 있으면서도 머릿속엔 배구 생각뿐"이라면서 "지도자가 되고 나서 집과 가정에 더 소홀하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해해주고 짜증내고 할 때도 다 받아주는 집사람이 너무 고맙다. 와이프는 내 말에 토를 안 단다. 그냥 믿고 따라준다. 이제 집에 가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다. 이때만큼은 내가 다 받아줘야 된다"고 감사했다.<br/> <br/>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못 했던 것들 한 번에 다 털어낼 수 있게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집사람에게 너무 고맙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여자를 만날 수가 없다"고 진심을 담았다.<br/><br/><br/>천안=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언론사: 한국일보-3-446.txt

제목: 피 한 방울로 순식간에 질병 진단하는 바이오센서 개발  
날짜: 2017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3050708003  
ID: 01101101.20170413050708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거미집 모양 자성패턴 이용<br/>기존센서보다 감지속도 20배<br/>암 등 조기ㆍ재발 진단 활용<br/><br/><br/><br/>피 한 방울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진단하고 원인까지 밝혀낸다. 공상과학소설에서나 볼 수 있던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바이오센서가 있다. 짠맛 단맛 등 맛을 감지하는 것부터 몸 속 질병의 종류와 원인까지 밝혀내는 의료용센서까지 바이오센서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나노소재 개발을 통해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느린 속도 문제는 과학계의 숙제로 남아 있었다. 이 같은 난제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디지스트)이 해결했다.<br/>디지스트는 이 대학 신물질과학전공 김철기 교수 연구팀이 거미집을 모방한 자성(磁性) 패턴을 활용해 기존의 바이오센서보다 감지속도가 20배나 빠른 바이오센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br/>바이오 진단 센서의 감지 능력은 센서의 분해능(식별능력)과 진단 대상 분자의 이동ㆍ반응 결합속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동안 나노소재 개발을 통해 분해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됐지만 센서에 진단대상 분자가 도달하는 속도가 느려 전체 센서 성능향상을 제약해 왔다.<br/>김 교수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분자에 단백질, DNA 등 바이오 분자의 이동이 느리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장을 이용했다. 바이오 분자에 초상자성(超常磁性) 입자 라벨을 부착하고, 외부자기장을 사용해 바이오 분자의 이동을 제어해 초고감도 자기센서로 감지할 수 있게 했다. 초상자성은 산화철 등을 20나노 가량의 초미립자로 만들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통 때는 자석 성질이 없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자성을 띠게 돼 이동 등을 제어할 수 있다.<br/>연구팀은 거미집 모양의 미세 자성 패턴을 활용한 새로운 바이오센서 플랫폼을 개발해 초상자성입자가 부착된 저밀도의 바이오분자를 외부 자기장을 가해 빠르게 한곳으로 모은 뒤 센서가 감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이오센서의 전체 감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br/>논문의 제1저자로 참여한 디지스트 신물질과학전공 임병화(박사과정)씨는 “<span class='quot0'>초상자성입자가 바이오센서의 중심을 향해 움직이도록 설계된 거미집 형태의 미세 자성 패턴과 고감도 바이오센서를 플랫폼에 배열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거미집 모양의 자성 패턴에 회전자기장을 가하면 초상자성입자가 부착된 바이오 분자가 센서로 빨리 모이게 할 수 있는데, 그 이동 속도가 빨라 기존의 확산에 의한 방법보다 20배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또 이 플랫폼을 이용해 감지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초상자성입자 결합 바이오 분자를 모니터링하는데도 성공했다.<br/>김철기 교수는 “<span class='quot1'>기존의 바이오센서는 확산에만 의존해 감지 대상 분자의 밀도가 낮으면 감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이 떨어졌다</span>”며 “<span class='quot1'>자기장 기반 바이오센서 플랫폼은 바이오 분자의 포집 능력을 향상시키고, 바이오 분자 이동 속도와 감도를 증가시켜 암과 같은 질병의 조기 진단과 재발 진단에 큰 도움을 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엔피지 아시아 머티리얼즈(NPG Asia Materials)’ 3월 31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언론사: 한국일보-3-447.txt

제목: 故김영애씨 치아 신경치료 때문에 암 걸렸다?  
날짜: 2017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2050944003  
ID: 01101101.20170412050944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 S치과 원장 “신경치료 원인 돼 암 발생” 주장<br/>치과의사협회 “학문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 유포” 반발<br/><br/> 한 치과의사가 최근 췌장암으로 사망한 배우 김영애씨가 치아 신경치료(근관치료)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기하자 치과계가 공식 반박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br/>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S치과 원장 황모씨는 지난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김영애씨가 췌장암에 걸린 이유가 과거 치아 신경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김영애씨 사진과 함께 올렸다. 황씨는 “<span class='quot0'>김영애씨의 사진을 보니 왼쪽 치아는 모두 신경치료를 받은 게 확실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서식하는 진지발리스균은 소화기암을 일으킨다</span>”고 주장했다. <br/> 황씨는 자신의 주장이 외국논문 등에 근거했기에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span class='quot0'>진지발리스균이 각종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치과의사 중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span>”이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span class='quot0'>치협에서 공개토론을 열면 응할 자신이 있다</span>”고 말하기도 했다.<br/> 진지발리스균은 치주염 등 잇몸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으로 의학계 일각에서는 이 균이 소화기암을 유발한다는 설이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검증된 바 없다.<br/> 논란이 커지자 치협과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황씨가 학문적 근거는 물론이고 암 발생과 상관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했다며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br/> 치협 측은 “진지발리스균은 신경치료를 받은 후 해당 부위에 발생하는 세균이 아니라 잇몸병 등 치주질환 부위에 상주하는 세균”이라며 “황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br/>치협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황씨를 치협 산하 서울시치과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span>"이라고 전했다. 황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br/> 보건복지부도 “치협에서 황씨와 관련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48.txt

제목: [애니꿀팁] 반려동물 비만, 귀엽다고 지나쳐선 안돼요  
날짜: 2017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2050858001  
ID: 01101101.2017041205085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미국의 경우 개는 54%, 고양이는 59%가 비만 또는 과체중 상태라고 한다. 2016년 미국의 반려동물비만방지연합(APOP·Association for Pet Obesity Prevention)이 발표한 수지다. 선진국 통계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비만 비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br/>개와 고양이의 비만은 신체충실지수(BCS·Body Condition Score)로 평가한다. BCS는 1~5까지 분류하는데 BCS1= 매우 마름, BCS 2 =마름, BCS 3 =정상, BCS 4 =과체중, BCS 5 =비만으로 구분된다.<br/>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동물병원 이리온이 SK텔레콤과 함께 반려견 건강관리 체험단 500여 마리를 모집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검사 결과 40%의 반려견이 과체중(BCS4)이거나 비만(BCS5) 상태였다. 반려견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보호자가 참석했는데도 비만율이 40%의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비만이 이미 심각해져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br/>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만은 반려동물의 삶의 질과 양적인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질병이다. 퇴행성 관절염, 당뇨병, 췌장염, 호흡기 질환, 여러 종류의 암 등이 과체중, 비만과 연관되어 있다. 비만이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수명까지 단축시키는 것이다.<br/>비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영양소를 과다 섭취할 경우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 유발된다. 또한 특정 질병(갑상선기능저하증, 부신피질기능항진증, 당뇨병 등) 때문에도 비만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비만인 개와 고양이는 먼저 특정 질병이 있는지 종합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br/><br/><br/>과체중, 비만인 반려동물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 하고 다시 주저앉는다. 만사가 귀찮아 보이고 잠만 자는 것이다. 이런 행동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반려동물에게는 고통 그 자체일 수 있다. <br/>개와 고양이의 비만을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섭취 칼로리는 낮추고 포만감은 충족시켜줘야 한다. 개와 고양이가 적당한 양의 사료를 먹고 포만감을 느낀다면 더 섭취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br/>사료를 먹고도 더 달라고 보채는 행동을 하는 반려동물들은 사료를 통해 포만감이 충족되지 않아서이다. 따라서 포만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료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개와 고양이 비만 개선용 처방식 사료 중에 기호성과 포만감을 충족시켜주는 제품을 먹인다면 비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br/>생활 패턴 및 습관의 변화와 운동도 비만 개선에 필요하다. 사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한번에 주는 것보다 여러 장소에서 소량씩 준다. 또 기능성 장난감 등을 이용해서 놀이를 통해 사료를 먹게 하면 스트레스는 줄고 운동량은 늘고 먹는 즐거움을 채워줄 수 있다. 운동은 체중이 줄어든 후 다시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하루 30분 정도의 운동이면 적당하다. <br/><br/><br/>비만으로 고생하던 반려동물들이 체중 감량에 성공해서 병원 대기실 여기저기를 냄새 맡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 동안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비만한 고양이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서 캣타워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양이와 새로운 교감을 한다는 보호자의 훈훈한 얘기도 종종 듣는다.<br/>비만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될 질병이다. 비만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비만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부족한 면도 있다.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귀엽다고만 여기지 말고 비만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br/><br/><br/>문재봉 수의사(이리온 동물병원 원장) <br/><br/>▶ 동그람이 페이스북 바로가기<br/><br/>▶ 동그람이 카카오채널 바로가기

언론사: 한국일보-3-449.txt

제목: “조율이 필요한 상태일 뿐, 고장 난 게 아닙니다”  
날짜: 2017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2050813001  
ID: 01101101.20170412050813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인터뷰] 마인드링크센터장 김성완 전남대 정신의학과 교수<br/><br/><br/>“조현병의 조현(調絃)은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입니다. 조율하면 다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현악기처럼, 초기에 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br/>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만난 김성완 마인드링크센터장(전남대 정신의학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조현병은 불치병이 아닐뿐더러 잠재적 범죄자는 더더욱 아니다</span>”라고 강조했다. ‘조현병 환자는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조절할 수 없어 범죄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1'>병의 원인은 유전이나 태아 시기 바이러스 감염, 아동기 사회적 스트레스 등 다양하다</span>”면서 “당뇨나 암처럼 누구나 앓을 수 있는 병의 일종“이라고 했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성 역시 단기적인 증상에 불과하고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br/>조현병은 한마디로 ‘외부 자극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상태’다. 뇌신경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서, 지나가는 소음과 의미 없는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신만 쳐다보는 것 같고, 자신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공격을 하려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인들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심해지죠.”<br/>그는 “오해와 의심이 누적돼 발생하는 망상과 환각이 조현병의 주된 증상”이라고 말했다. 뇌에 강한 자극이 계속 가해지다 보면 실재하지 않는 자극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때가 있는데, 조현병 환자들은 특히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도 자신이 공격 당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식이다. 지난해 5월 지하철2호선 강남역 인근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34)씨가 “여성들이 내 앞에서 의도적으로 천천히 걸어서 나의 출근을 늦게 한다”고 말한 것이 망상의 대표적 예시로 꼽힌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망상 등도 결국은 호르몬(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기 때문”이라며 “치료를 통해 정상 분비를 하게 하면 얼마든지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br/>특히 김 교수는 경찰이 범죄자의 조현병 병력을 쉽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사람들의 편견이 강해질수록 조현병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br/>“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와 최대한 빨리 접촉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웃이고, 나를 포함해 누구나 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격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김 교수의 조언이다.<br/>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50.txt

제목: 담배연기 발암물질, 표시 성분이 다가 아니다  
날짜: 2017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1050651002  
ID: 01101101.20170411050651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식약처 조사결과 12종 검출… 이중 9개는 담뱃갑 표시 없어 <br/><br/>국내에서 판매되는 궐련(연초) 담배 연기에서 발암물질이 12종이나 검출됐다.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 2종이 나왔다. 발암물질 흡입량은 흡연 방식에 따라 2~4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r/>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궐련 담배 연기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이 대거 검출됐다. 정부 차원에서 담배 연기에 포함된 각종 발암물질을 실험을 통해 직접 검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IARC는 발암물질을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1군, 발암 추정 물질인 2A군,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 등으로 분류한다.<br/>궐련에서 검출된 1군 물질은 ▦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다티엔 ▦4-아미노비페닐 ▦벤조피렌 등 7종이다. 2B군으로는 아세트알데히드, 카테콜, 스티렌, 이소프렌, 아크릴로니트릴 등 5종이 나왔고, 2A군은 없었다. 담뱃갑 경고문구에 적시된 발암물질 7종 가운데 비닐크롤라이드와 비소, 카드뮴, 니켈 등 4종은 이번 연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표시되지 않은 발암물질 9종이 새로 검출된 것이다. <br/>포름알데히드는 단열제나 접착제 등에 사용되며 피부나 점막을 자극하고 인두염이나 기관지염, 현기증,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염료나 플라스틱 제조 등에 사용되며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현기증, 구토, 두통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플라스틱 원료 등으로 쓰이는 벤젠은 노출시 두통과 현기증을 유발하며, 합성고무와 같은 화학제품의 원료인 1,3-부다티엔은 눈이나 피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다.<br/>궐련에서는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로 인정되는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등 20개 성분도 검출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유해물질 등의 흡입량이 흡입 방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담배 필터를 깊게 문 채 1분에 2회 꼴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경우 담배를 얕게 문 채 분당 1회 꼴로 빨아들일 때보다 각종 유해물질이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더 인체에 흡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궐련 담배 대용품으로 이용 인구가 늘고 있는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액상 상태에서는 미미한 양이지만 가열과 산화를 거친 연기 상태에서는 이런 발암물질 함량이 최대 19배 증가했다. 또 니코틴,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등 비 발암성 유해성분도 나왔다. 이런 유해성분은 폐암뿐 아니라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관상동맥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0'>전자담배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의 양은 전반적으로 궐련 담배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개인의 담배 피우는 습관에 따라 실제 흡입량은 달라질 수 있다</span>”고 밝혔다.<br/>2015년부터 2년간 실시된 이번 연구에는 전국 7개 권역 담배판매점 20곳에서 수거한 5개 제품(디스플러스, 에쎄프라임, 던힐,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팔리아먼트 아쿠아5) 8,000갑이 활용됐다.<br/>식약처는 앞으로 궐련과 전자담배에 대해 분석할 유해성분을 확대하는 한편,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양이 인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추가로 연구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br/>세종=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br/>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51.txt

제목: 임상시험대상자 권리 보호, 해외에서는…  
날짜: 2017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1050826001  
ID: 01101101.2017041105082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미국, 암환자가 참여땐 일반 진료비도 지원<br/><br/>임상시험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임상시험대상자 권리 증진이 화두 중 하나다. 의학 발전을 위해 부작용까지 감수하며 실시하는 것이 임상시험이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br/>신약 개발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종양내과의들이 모인 미국임상학회(ASCO)가 환자 권리 보호에도 목소리를 낸다. 미국임상학회는 임상시험 참여자 관리, 데이터 관리, 임상시험 설계 및 방법, 환자들을 위한 자료 등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암 질환 임상시험 참여 환자의 정기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결과 미국 내 38개 주에서 보험사 측이 임상시험과 관련해 환자 정기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법령과 협동협약을 갖추게 됐다. 미국은 국가건강보험 제도가 취약해 민간보험이 발달해 있다.<br/>일본은 일본의사회 소속 임상시험센터(JMACCT)에서 임상시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 결과 공개를 장려하고 있다. 임상시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임상시험이 무엇인지, 연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지에 대해 웹사이트 등에서 자세히 소개하는 인식 개선 교육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br/>임상시험 업계 종사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그에 걸맞은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순억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소장은 “<span class='quot0'>임상시험 관리 규정이 선진화되면서 종사자 교육도 의무화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미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확보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일반인들에게는 무차별적인 유혹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마지막 기댈 방안을 찾는 말기암 환자 등에게는 참여형평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span class='quot1'>말기 암 환자에게 임상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현재는 임상시험을 많이 수행하는 병원에 다니는 환자일수록 정보 접근권이 높을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누구나 임상시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임상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52.txt

제목: [태블릿+] 전이성유방암 단일요법 치료제, ‘할라벤’  
날짜: 2017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0050820001  
ID: 01101101.2017041005082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암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여성암이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예후가 좋은 ‘느린 암’이다. 하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생존율이 30%대로 줄어들 정도로 치명적이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치료기간이 길어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단순한 생존기간 연장이 아닌 부작용 관리와 환자 삶의 질까지 고려한 치료전략이 중요한 이유다.<br/>이전에는 암세포를 빨리 없애려고 2~3가지 항암제를 동시에 투약하는 복합요법이 많이 쓰였다. 하지만 최근 항암제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고 투약이 간편한 단일항암화학요법이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전략으로 주목 받고 있다.<br/> 글로벌제약사 에자이의 ‘할라벤(성분명 에리불린메실산염)’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린 유일한 단일항암요법 치료제다. 대규모 3상 임상연구를 통해 대조군 대비 생존기간을 2.7개월 연장하는 치료효과를 보였다. 2차 이상의 치료제로도 생존기간 연장을 입증해 국내에서도 2014년 12월부터 2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br/>무엇보다 할라벤은 치료효과와 함께 편의성은 높으면서 독성은 적은 치료제로 평가 받고 있다. 예비투약과 배합과정이 없어 투약이 간편하며, 투약시간도 2~5분으로 짧아 환자 편의성도 높였다. 또, 할라벤만의 독특한 메커니즘으로 다른 약보다 부작용도 적다. <br/>최근 에자이가 시행한 할라벤 복용 환자의 삶의 질 조사 연구에서도 할라벤이 국소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해 주고, 구토 메스꺼움 설사 등 소화기계 부작용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r/>할라벤은 혁신 신약으로 인정받아 201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속 허가승인을 받았다. 현재 60여 개 나라에서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전이성 유방암에 이어 전이성 지방육종에서도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인정받아 두 번째 적응증을 추가했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53.txt

제목: [강남세브란스와 함께 하는 건강 Tip] 암도 내시경으로 치료한다  
날짜: 2017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0050819001  
ID: 01101101.2017041005081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내시경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진단에 주로 쓰였다. 최근 의ㆍ과학 발전으로 내시경은 다양한 소화기질환에서 외과 수술을 대신해 간단히 치료하는 길을 열고 있다.<br/><br/>Q 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나.<br/>“내시경으로 위암 치료는 완치 목적 치료와 증상 완화 치료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완치 목적의 내시경 치료는 대표적으�� 조기 위암의 내시경점막하박리술을 들 수 있다. 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하면서 암 부위를 도려내는 시술이다. 조기 위암 가운데 림프절을 포함한 다른 부위 전이가 없으면 시행한다. 완전히 절제하면 수술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적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입원 기간이 짧아 치료비도 적게 들고, 특히 치료 후 위를 고스란히 보존하므로 삶의 질이 매우 높다. 대장내시경 중 많이 시행되는 용종절제술도 대장암 예방 치료로 매우 효과적이다. 일부 조기 대장암에서도 내시경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다.<br/>또한 위장관이 암에 의해 막혀 음식을 못 먹으면 전에는 수술로 소장을 위에 연결했지만, 지금은 내시경으로 스텐트 도관을 넣어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이밖에 위암에서 출혈이 많으면 내시경으로 전기응고나 클립결찰, 지혈제 주입 등을 통해 지혈할 수 있다.”<br/><br/>Q 조기 위암이면 모두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나.<br/> “조기 위암 가운데 주변 전이가 없고 침윤 정도가 깊지 않으면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내시경초음파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통해 내시경적 절제로 치료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내시경으로 자른 조기 위암은 자른 조직을 자세히 분석해 완전 절제 여부를 판단한다. 내시경적으로 완전히 잘라낸 조기 위암은 완치ㆍ재발률에서 수술에 버금간다.” <br/><br/>Q 소화기내시경 기술이나 영역이 넓어졌다는데.<br/>“캡슐 형태 내시경을 알약처럼 먹으면 일반 위, 대장내시경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소장부위도 평가할 수 있고, 병변의 점막구조와 혈관 등 미세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확대/협대역 내시경, 세포도 살펴볼 수 있는 공초점내시경도 개발됐다. 또한, 악성 종양에 광(光)과민제를 축적해 내시경으로 레이저를 쬐는 광역동치료법도 시행되고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김지현 강남세브란스암병원 위식도암센터 소화기내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3-454.txt

제목: 뚱뚱한데 담배피면, 염증발생 위험↑  
날짜: 2017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10050618001  
ID: 01101101.2017041005061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염증 축적되면 암ㆍ심혈관질환 유발… 금연 필수 <br/>비만한 흡연자는 정상체중의 비흡연자보다 몸에 염증이 생길 위험도가 2,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조아라ㆍ이용제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 참여한 30세 이상 성인 41만6,065명(남 10만5,505명, 여 30만9,560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비만이 몸 속 백혈구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br/> 백혈구 수치는 우리 몸에 염증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염증지표 중 하나다. 염증은 감염성질병이나 외상으로 바이러스 및 세균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백혈구가 이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백혈구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은 염증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염증이 장기간에 걸쳐 장기와 혈관에 쌓이면 암이나 심혈관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br/> 연구결과, 남녀 모두 정상체중 비흡연자보다 비만한 흡연자에게서 혈중 백혈구 수가 증가할 위험도가 2.4배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2.36배, 여성 2.35배로 차이가 없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 비만할 경우 백혈구 수가 증가할 위험도는 남성 1.09배, 여성 1.16배였다. 흡연이 비만보다 백혈구 수치를 높이는 요인인 것이다.<br/> 연구팀은 “흡연이 백혈구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생활습관이자 대사요인”이라며 금연을 권고했다. 이용제 교수는 “<span class='quot0'>금연과 함께 평상시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체중을 조절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백혈구 수치 증가를 조기에 발견하면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3월호에 발표됐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55.txt

제목: “잔소리 금지 법안 만들 수 없나요?”  
날짜: 201704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08050720001  
ID: 01101101.20170408050720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span class='quot0'>잔소리 금지 법안 만들 수 없나요?</span>”<br/>무한도전 (MBC, 오후 6.20)<br/>지난주에 이어 국민의원 200명과 국회의원 5인, ‘무한도전’ 멤버들이 모여 입법 과정을 알아보고, 2017년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 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주 환경노동 분야에 이어 여성가족, 국토교통,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법안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펼친다. 맞벌이 부부, 참정권을 원하는 학생, 주차장이 불편한 임산부 등 각기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참정권 보호, 잔소리 금지 법안, 국회의원 미팅제 등 국민의원의 신선한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출연해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br/><br/>암 투병 손자 완쾌가 꿈인 할머니<br/>나눔0700 (EBS1, 오후 2.30)<br/>무균병동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신누리씨. 고등학교 1학년 때 발병 이후 벌써 4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 매주 항암 치료를 받기에 사이버 수업을 들으며 올 2월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누리 씨 곁에서 병간호를 하는 이는 어렸을 때부터 누리씨를 키워 온 할머니다. 할머니는 보조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병원에서 손자와 함께 생활한다. 손자가 나을 수 있다면 자신이 힘든 건 얼마든지 괜찮다는 할머니. 얼마 전 폐 수술을 받은 누리씨는 퇴원을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원주에 있는 할머니 집은 지은 지 오래돼 곰팡이가 벽을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할머니는 연락이 끊긴 누리씨 친엄마를 찾아 나섰다. 다행히 검사 결과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1,000여만원에 이르는 수술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걱정이다.

언론사: 한국일보-3-456.txt

제목: 유상무, 대장암 3기 판정 “10일 수술 예정”  
날짜: 2017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07050657002  
ID: 01101101.2017040705065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개그맨 유상무(37)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br/>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의 한 관계자는 7일 “<span class='quot0'>유상무가 최근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아 8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 입원한 뒤 10일 수술에 들어갈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본인이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니 수술이 잘 되면 회복이 가능하다</span>”고 밝혔다. <br/>대장암은 대장 안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동물성 지방 섭취가 과도하거나 섬유질 섭취 부족,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발병된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암이 진행된 후 복통,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나 직장 출혈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br/>유상무는 친한 지인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린 채 조용히 치료에 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무는 발병 사실을 안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별 다른 티를 내지 않았다. 발병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야 “웃음을 드리고 싶어서 개그맨이 됐는데 걱정만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꼭 웃겨드리겠다”는 글을 올려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br/>코엔스타즈의 또 다른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유상무가 그 동안 소송 때문에 심적 부담이 컸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span>”고 말했다. 유상무는 지난해 성폭행 미수 혐의로 피소된 후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반성의 의미로 자숙해왔다. <br/>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57.txt

제목: 조던 스피스 쿼드러플 보기 악몽 속 53위…호프먼 깜짝 선두  
날짜: 2017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07050625002  
ID: 01101101.20170407050625002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조던 스피스(24ㆍ미국)가 ‘명인 열전’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2년 연속 쿼드러플 보기로 주저 앉았다.<br/>스피스는 7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제81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1라운드에서 전반 9홀에 이븐파를 기록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지난해 마지막 라운드에서 쿼드러플 보기를 저지른 12번홀(파3)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파로 홀아웃했다. 7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그린에 올린 스피스는 2번의 퍼팅으로 공을 홀 안으로 깔끔하게 집어넣었다. 그러나 문제의 15번홀(파5)에서 악몽이 재현됐다. 홀까지 98야드를 남기고 지(G)클럽으로 친 세 번째 샷이 그린에 도달하지 못하고 워터해저드에 빠졌다. 대회 전날 파3 콘테스트까지 취소시킨 악천후의 영향인 강한 바람 탓이었다. 스피스는 벌타를 받고 드롭을 한 뒤 다섯 번째 샷 날렸지만 이번엔 샷이 그린을 넘어섰다. 이어 칩샷도 너무 강해 공이 홀컵을 10ｍ나 넘어갔다. 스피스는 세 번의 퍼팅 끝에 간신히 홀아웃하는 데 성공했지만 스코어카드에 적은 스코어는 쿼드러플 보기를 뜻하는 ‘9’였다. 결국 1라운드에서 스피스는 3오버파 75타에 그쳤다. 7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인 찰리 호프먼(41ㆍ미국)과는 무려 10타 차다. 아직 3라운드가 더 남았지만 지난해까지 이 대회에 세 번 출전해 우승 한번과 준우승 두 차례를 기록한 스피스는 최악의 출발이다. 그는 “우승자의 최종기록은 한 자릿수 언더파가 될 것 같다"라며 "나도 아직 한 자릿수 언더파를 칠 기회가 있다"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br/>한편 세계랭킹 52위 호프먼이 단독 선두로 나섰다. 호프먼은 보기 2개와 버디 9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를 쳐 2위 윌리엄 맥거트(38ㆍ미국)에게 4타 앞섰다. 호프먼은 전반 9홀을 2언더파로 마친 뒤 후반 9홀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낚는 맹타를 휘둘렀다. 호프먼은 지난해 발레로 텍사스 오픈에서 우승하는 등 2006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출전권을 딴 뒤 통산 4승을 올린 선수다. 메이저 대회에서 거둔 가장 좋은 성적은 2년 전 마스터스에서 기록한 공동 9위다.<br/><br/>반면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랭킹 1위 더스틴 존슨(33ㆍ미국)은 허리 부상으로 결국 기권했다. 존슨은 전날 대회장 인근 숙소에서 차고에 둔 차를 빼기 위해 양말만 신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졌다. 급히 부상 부위를 치료하며 출전 의지를 보였지만 연습 도중 통증이 도져 중단했다. 존슨은 "평소 스윙의 80%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골프채를 휘두를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나 화가 난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존슨은 최근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절정의 감각을 보였고, 이번 대회에서 우승했다면 2002년 타이거 우즈(42ㆍ미국) 이후 15년 만에 세계 1위가 마스터스까지 제패하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br/>이번 대회 출전 선수 가운데 마스터스 최다 우승자(3회)인 필 미켈슨(47ㆍ미국)은 1언더파 71타로 공동 4위에 오르면서 노장의 관록을 과시했다. 미켈슨은 이번 대회에서 잭 니클라우스의 최고령 우승기록(46세 2개월) 경신에 도전한다. 공동 4위 그룹엔 미켈슨 외에도 셸 휴스턴오픈 우승자 러셀 헨리(28ㆍ미국)와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저스틴 로즈(37ㆍ잉글랜드), 세르히오 가르시아(37ㆍ스페인) 등이 포진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노리는 로리 매킬로이(28ㆍ북아일랜드)는 이븐파 72타로 공동 12위에 올랐다. 암 수술을 받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다가 대회에 출전한 제이슨 데이(30ㆍ호주)는 2오버파 74타로 공동 27위를 기록했다.<br/>김시우(22)는 공동 42위, 안병훈(26)은 4오버파 76타로 공동 54위에 랭크됐다. 6오버파 76타를 친 왕정훈(22)은 공동 75위로 처졌다.<br/>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58.txt

제목: 대기오염, 유방암 위험 높여  
날짜: 2017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07050607003  
ID: 01101101.20170407050607003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유선조직 촘촘한 ‘치밀유방’ 대기오염 취약<br/>국내 여성 절반 이상 ‘치밀유방’ 경각심 필요 <br/>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살면 유방암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치밀유방’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다. <br/>치밀유방은 유선조직이 조밀해 X선 촬영을 하면 유방 전체가 하얗게 보여 암 발견이 쉽지 않다. 치밀유방은 서양인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여성에게 많다. 한국 여성 중 절반가량이 이에 해당된다.<br/> 7일 국제학술지 '유방암 연구(Breast Cancer Research)’ 최신호에 따르면 루진 야히얀(Lusine Yaghjyan) 미국 플로리다대학 의과대학 역학과 박사팀은 미국인 여성 27만9,967명(평균나이 57세)을 대상으로 치밀유방과 대기오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br/>연구팀은 노출된 미세먼지(PM2.5) 농도가 10㎍/㎥씩 증가할 때마다 여성이 치밀 유방을 가질 위험이 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방 치밀도가 높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많은 양의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20%가량 더 높았다.<br/>연구팀은 미세먼지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 중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성질을 갖는 오염물질이 유방 내 세포성장을 방해하고, 섬유질 조직의 상대적 양을 증가시켜 치밀유방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br/> 이와 관련, 송병주 부천성모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여성의 대부분이 치밀유방이지만 나이가 들면 지방이 많아지는 유방으로 변하기 때문에 논문결과를 그대로 임상에 반영하기 힘들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만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만큼 유방 X선 촬영과 함께 유방초음파 검사를 병행하면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해 치료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59.txt

제목: 유전자를 잘 안다고? 우린 이제 문턱만 넘은 꼴  
날짜: 2017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07050852001  
ID: 01101101.2017040705085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당신은 유전자(gene)와 유전체(genome)를 구별할 수 있는가? 유전체와 염색체는? DNA와 RNA는? 이런 용어들은 막상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질문을 해보면 부모 세대로부터 자식 세대로 무엇인가가 전해져 내려온다는 ‘유전(닮음)’ 현상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답하기 무척 어렵다. 사전을 참조하거나 구글로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막상 이 용어들을 위키백과 같은 데서 찾아보면 더 큰 낭패에 빠지는데, 더 알기 힘든 용어를 동원해 그나마 알듯 말듯한 우리 자신감을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br/>유전자라는 용어가 한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자리잡는 데는 올해 한국을 방문한 리처드 도킨스와 그의 베스트셀러 저작 ‘이기적 유전자’(1976)의 기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책 때문인지 유전자란 용어가 ‘이기적’이라는 수식어와 한 쌍으로 돌아다닌다는 경우가 많다. 스티븐 핑커는 이에 대해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란 ‘동물들은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 이론을 정확히 이해한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동물들은 유전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쏘아 붙인 바 있다. 애초부터 알기도 쉽지 않고,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서 출발하기 쉬운 분야가 바로 유전자 담론, 생명 과학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세계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다소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다.<br/>역사를 돌아보면 유전과 생물학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그 해악이 너무나 크다. 1920~30년대 독일 나치에 의해 저질러진 우생학적 인종청소는 인류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도 우생학에 바탕을 둔 여성에 대한 강제적 불임시술은 그 야만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이 다르지 않다. 한편 이 시기 소련에서는 유전학을 ‘부르주아적 변태 학문’으로 규정짓는 ‘리센코주의’가 채택되었는데 그것은 ‘적응이 직접 유전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라마르크주의의 부활이었으며, 밀과 닭과 같은 농축산물마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시키려는 ‘정신승리법’에 지나지 않았다. 소련의 농업생산력은 격감했고 생명과학은 궤멸됐다. 리센코주의를 모방하던 중국 또한 대약진운동 기간 수천만명의 아사자를 내기에 이르렀다. 사이비 과학은 전체주의 체제에 봉사하고, 거꾸로 전체주의 체제가 사이비 과학을 강화한다는 교훈만 얻었을 뿐이다.<br/>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DNA가 유전 현상에서 차지하는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건 인류 역사 전체를 24시간으로 표현할 때, 밤 11시59분 59초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분야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진화의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 찰스 다윈의 1859년이고, 그레고어 멘델이 ‘식물의 잡종에 관한 실험’을 1866년에 발표했지만 사장되어 있다시피 하다가 1900년에 이르러서 휘호 더프리스 등 3인에 의해 겨우 재발견되었다.<br/>1930년대 들어서 자연선택이론과 유전법칙이 종합되어 신다윈주의로 발전하였고 줄리언헉슬리가 1942년에 ‘진화: 현대 종합설’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는데, 유전적 메커니즘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지지한 것이었다. 왓슨과 크리크에 의해 발견된 DNA 이중나선의 구조도가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것은 1953년이며 미국 정부의 주도로 인간 전체 유전자 지도를 그려 낸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1990년에 시작되어 2000년에 끝났다. 이를 통해 유전과 관련해 많은 비밀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더 많은 질문거리를 던졌다는 것이 학계의 평가이고 보면, 유전과 관련해 인류는 겨우 문턱을 넘어선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br/>유전자의 내밀한 역사<br/>싯다르타 무케르지 지음ㆍ이한음 옮김<br/>까치 발행ㆍ685쪽ㆍ2만5,000원<br/><br/>최첨단 연구가 이럴진대 일반인의 무지와 오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2011년 ‘암 : 만병의 황제의 역사’로 퓰리처상을 받은 싯다르타 무케르지의 책 ‘유전자의 내밀한 역사’는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에 적당한 책이다. 저자는 인도 태생의 뉴욕 컬럼비아대 교수로서 암 연구자이자 전문의이며 뛰어난 저술가이기도 하다. 저자는 자신의 가계에 조현병 유전자가 전해오며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삼촌, 할머니와 아버지를 지켜봤던 어릴 적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br/>이 책은 총 5부로 나뉘어 있는데 유전자 연구에 관한 연대기적 기록인 동시에 ‘유전자에 대한 거의 모든 이야기’이다. “<span class='quot0'>이 책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논쟁과 숙고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좋은 책’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된 방대한 자료와 숙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저술된 ‘잘 쓴 책’이며, 쉽고 흥미롭게 서술되어 비전문가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잘 읽히는 책’이다.</span>”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희 교수가 어떤 책의 추천사로 쓴 글이다. 우연히 읽은 이 추천사를 무케르지의 신간에 대한 나의 추천사로 훔쳐올 수 밖에 없다.<br/>‘과학책 읽는 보통사람들’ 운영자

언론사: 한국일보-3-460.txt

제목: “빅데이터 활용해 관리비 부당징수 차단”  
날짜: 2017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04050822002  
ID: 01101101.20170404050822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남양주 IT기술 10대과제 발표<br/><br/>직장 때문에 70세 노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A(35ㆍ여)씨는 매일 밤 안부전화를 해야 했지만 이제 고민이 해결됐다. 남양주시가 집에 활동감지센서를 설치해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A씨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이다.<br/>장애인 B(55)씨는 교육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주 3회 방문하는데 올 때마다 얌체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차지해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시에서 장애인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센서를 설치한 뒤부터는 얌체차량이 감쪽같이 사라졌다.<br/>경기 남양주시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를 행정에 접목시켜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4일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br/>시는 버스노선, 배차간격 조정을 위해 정류장 이용객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택시 500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연계해 도로전광판에 교통상황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암 치매 결핵 등 주요 질환의 발생 현황을 생애ㆍ지역별로 분석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추진한다. <br/>공동주택 관리비리를 막기 위해 인건비 수도비 등 6개 항목의 빅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관리비 부당징수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를 위해 시에서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고도화해 신속한 대민 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br/>이석우 시장은 “<span class='quot0'>시민의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남양주 비전 4.0의 목표</span>”라면서 “<span class='quot0'>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는 남양주를 기대해 달라</span>”고 말했다.<br/>남양주시는 이날 시청 다산홀에서 시민과 공무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양주 4.0 비전 선포식’을 갖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선진 행정 구현을 다짐했다. <br/>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61.txt

제목: [경희의료원과 함께 하는 건강 Tip] ‘침묵의 암’, 간암  
날짜: 2017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03050811001  
ID: 01101101.2017040305081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매년 1만2,000명이 사망하는 간암은 ‘침묵의 암’으로 불린다. 간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간암은 또한 중년 남성을 위협하는 암이다. 환자의 80%가 남성이고, 평균 발병 나이가 56세이기 때문이다.<br/><br/>Q 간암 원인은.<br/>“간암은 만성 간염과 간경화처럼 간세포가 손상되는 오랜 과정 속에서 생긴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간암 환자의 72%는 만성 B형 간염, 12%는 만성 C형 간염, 11%는 알코올성 간경화가 있었다. 세 가지 만성 간질환이 국내 간암 원인의 95%를 차지한다. 특히, 간경화가 발생한 환자와 활동성 B형 간염 환자에서 암 발생 위험이 높다. 여성보다는 남성,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br/><br/>Q 증상이 궁금한데.<br/>“간암은 간이 70% 이상 손상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다. 복부 통증이나 황달, 체중 감소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암으로 악화됐거나 위중한 상태다. 따라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br/>Q 어떤 검사를 받나.<br/>“고위험군(간염 보유자)은 3~6개월에 한 번씩 혈액검사(알파태아단백수치)와 간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 간경변이 심해 초음파 진단이 어려우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최근에는 간암의 조기 진단율을 높이려고 병원을 찾은 환자 가운데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화가 있으면 모두 간암검진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한다.”<br/><br/>Q 어떻게 치료하나.<br/>“간이식, 간절제술, 경동맥화학색전술, 고주파열응고술, 방사선치료 등 다양하다. 이 같은 치료법에 대해 소화기내과,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종양혈액내과, 핵의학과의 6개 진료과 전문의들이 모여 다학제 진료를 통한 환자 개인별 치료법을 논의하고 정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br/><br/>Q 수술은 어떻게 하나.<br/>“수술은 간절제술과 간이식으로 나뉜다. 수술은 현재 가장 효과적인 간암 치료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최근에는 흉터와 출혈, 통증이 적고 회복시간이 빠른 복강경 또는 로봇수술을 시행한다. 간이식은 손상된 간을 100% 제거해 정상인의 간을 옮겨 붙이는 수술이다. 다만 간암의 개수, 크기, 위치, 간 기능 상태, 연령 등을 고려한 환자별 정밀수술이 필수적이다.” <br/><br/>Q 예방법이 있다면.<br/>“간암을 예방하려면 B형 간염 백신을 맞아야 한다. 흡연과 지나친 음주를 삼가고 1주일에 두 번 이상 최소 30분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특히, 간 질환자는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통해 간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심재준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3-462.txt

제목: “암은 업보가 아닌데요”… 2030 암환자의 고충  
날짜: 2017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03050755002  
ID: 01101101.201704030507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가발이 거추장스러워서 모자 쓰고 다녔더니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아 그냥 맨 머리 영상을 찍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어요” <br/><br/>성지인(24)씨는 2년 전 유방암 투병을 기점으로 대인 관계를 정리했다. 항암치료를 하며 머리를 밀었더니 평소 교류가 없던 사람들까지 갑자기 안부를 물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성씨는 ‘내 사람들이나 챙기자’는 생각에 형식적으로 교류하던 사람들과는 연락을 줄여나갔다.<br/><br/><br/> <br/>최근 2030 암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04년 인구 10만명당 43.1명에 불과했던 25~29세 사이의 암 환자 비율은 10년이 지난 2014년 75명으로 1.74배나 껑충 뛰었다. 서구화된 식사, 진단 기술의 발달 등의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20대 여성이 50대에 비해 발병 위험도가 2.4배 높다는 연구결과(2015년 한국유방암학회)도 있다. 그만큼 암은 청년들에게 흔한 질병이 됐다.<br/><br/>하지만 아직까지 암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성씨의 경우처럼 젊은 암환자들 상당수가 투병과 동시에 구설에 오르는 고초까지 감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br/><br/><br/>“젊은 사람이…” 편견에 멍드는 청년 암환자들 <br/><br/>청년 암 환자들은 ‘젊은 사람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라는 사람들의 편견어린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지난해까지 투병생활을 한 장가혜(가명?32)씨는 환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읽고 속이 상했다. 한 환우에게 같은 병실의 노인이 몇 기인지 묻더니 “<span class='quot0'>나는 관리를 잘해서 1기인데 얼마나 관리 안 했으면 젊은 사람이 3기냐</span>”고 핀잔을 줬다는 것. 장씨는 “<span class='quot1'>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펴도 걸리는 게 암인데 같은 처지인 사람조차 저렇게 생각한다는 게 황당하다</span>”고 말했다.<br/>그러다보니 투병 사실을 먼저 밝히길 꺼리는 암 환자들도 있다. 신혼 2개월 무렵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던 한희정(가명?31)씨는 “어른들 모이는 자리에 잘 안 간다. 시부모님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이 투병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 나이에 암에 걸렸었단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 속내를 밝혔다.<br/><br/><br/><br/><br/>친구 관계부터 직장까지...고민 종합세트<br/><br/>항암치료를 하며 다시 일상에 복귀할 준비를 하던 청년 암 환자들은 주변인들의 반응에 큰상처를 받는다. 항암 치료를 받아 살이 빠진 성 씨는 친구가 그의 마른 모습을 부러워하며 무심코 “네가 나중에 머리 기르고 예쁘게 차려 입은 모습을 보면 내가 자극 받을 것 같아”라고 한 말에 충격을 받았다. 성씨는 “처음엔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니겠지 싶다가도 계속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고 말했다.<br/> 한씨는 예전 직장 동료에게 암 투병 사실을 귀띔했다가 전 직장에 소문이 나면서 연락처도 바꿨다. 그는 “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내가 ‘곧 죽을 사람’이 돼 있었다”며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고 말했다. <br/><br/>완치 후 사회 복귀를 한 다음에도 이들의 고민은 계속된다. 암 발병 때와 다름없는 업무 강도와 동료들의 시선 등으로 직장 생활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때문에 환우 커뮤니티에서도 암 투병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암 투병 사실이 채용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기도 한다.<br/><br/><br/><br/>“<span class='quot2'>암 환자들의 경력단절 대처법 등 제도적 보완 필요</span>”<br/><br/>전문가들은 암의 특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환자의 입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삼성서울병원 암 교육센터 조주희 교수는 “환우를 약자로 여기기보단 이들의 사회적 가치?잠재력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며 “암 치료에 대한 정보, 경력 단절 시 대처법 같은 기초적인 정보조차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r/><br/>환자의 용기와 주변의 지지도 중요하다. 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의 상담자원봉사자 주광재(65)씨는 “암은 혼자 감당하기에 버거운 병”이라며 “본인의 치부라고 생각 말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받으면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br/><br/>진은혜 인턴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63.txt

제목: [영상] 영국 전설의 뮤지션, 롤스로이스로 재탄생  
날짜: 2017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03050717001  
ID: 01101101.20170403050717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전설적인 영국 뮤지션들을 기념해 제작된 롤스로이스가 만들어 진다. 롤스로이스모터카는 3일 '레이스 인스파이어드 바이 브리티시 뮤직(Inspired by British Music, 이하 레이스 브리티시 뮤직 에디션)’ 에디션 시리즈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br/>이번 비스포크 에디션 시리즈는 총 9대가 생산될 예정으로 롤스로이스는 이 중 4대를 최근 런던 샌더슨 호텔(Sanderson Hotel)에서 사전 공개했다. <br/><br/><br/><br/><br/>레이스 브리티시 뮤직 에디션은 영국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아티스트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그들의 음악적 업적을 표현했다. <br/>샌더슨 호텔서 공개된 4대는 하드 록의 선구자로 칭송 받는 밴드 ‘더 후(The Who)’의 리드보컬 로저 달트리, 비틀즈와 함께 영국 팝 인기를 견인했던 그룹 ‘킹크스(Kinks)’ 소속 레이 데이비스 경과 작곡가 자일스 마틴이 디자인했다.<br/><br/><br/>특히 로저 달트리는 총 2대의 레이스 제작에 함께했고, 이 중 특별한 한 대는 더 후의 1969년 명반 ‘토미(Tommy)’의 앨범 커버를 그대로 보닛 위에 재현했다. 레이 데이비스 경은 명곡 ‘샹그릴라(Shangri-la)’를 비롯해 ‘드리븐(Drivin)’, ‘써니 애프터눈(Sunny Afternoon)’의 자필 가사를 롤스로이스 실내의 도어 플레이트와 우산, 뒷좌석에는 킹크스를 상징하는 로고를 새겼다.<br/>또한 자일스 마틴은 비틀즈의 다섯 번째 멤버로 불린 그의 아버지, 프로듀서 故 조지 마틴 경(Sir George Martin)을 기리기 위한 모델을 제작했다. 이 모델은 뒷좌석 중앙부에 그가 프로듀싱한 수 많은 곡 중 차트 1위를 차지했던 30곡의 제목을 새겨 놓았다.<br/>레이스 브리티시 뮤직 에디션은 올해 말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으로, 각 차량의 판매 수익 중 일부는 10대 암 환자를 위한 자선단체인 ‘틴에이지 캔서 트러스트(Teenage Cancer Trust)’ 등 각각의 뮤지션들이 선택한 자선 단체에 기부된다. <br/><br/><br/>한편 롤스로이스 레이스는 팬텀, 고스트에 이은 롤스로이스의 세 번째 모델로 파워트레인은 6.6리터 12기통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624마력, 최대토크 81.67kgㆍm의 힘을 발휘한다. 8단 ZF변속기와 짧아진 휠베이스, 넓어진 리어 트랙으로 정지상태에서 100km/h에 이르기까지 4.6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br/>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64.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KB 매일매일적금 출시 外  
날짜: 2017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03050709001  
ID: 01101101.20170403050709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KB국민은행 ‘매일매일적금’ 출시<br/>KB국민은행은 생활금융플랫폼 리브(Liiv) 전용상품 'KB리브와 함께 매일매일적금'을 출시했다. 월 30만원 이내에서 매일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6개월제 단기 적금으로, 우대이율을 포함해 최고 연 2.0% 금리가 적용된다.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규 가입할 수 있고, 간편 송금 기능을 활용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저축할 수 있다. 만기일이 되면 자동 해지된다. 이달 30일까지 신상품 가입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이철헤어커커 상품권, 플래티넘 호텔 뷔페 외식 통합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br/><br/>하나생명 ‘(무)Top3한방치료보험’ 출시<br/>하나생명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3대 질병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후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특정한방물리치료요법 등의 한방치료비를 보장하는 ‘(무)Top3한방치료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양방치료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신체회복과 재활을 돕는 이 상품은 재해골절 및 관절증(엉덩이, 무릎) 수술 후에도 한방치료비를 보장한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한방치료에 해당하는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 한방물리요법 5회를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시에는 200만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기능이 있다. 0세부터 최대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00세까지 보장받는다. <br/><br/>신한카드 ‘신세계 신한카드’ 3종 출시<br/>신한카드는 신세계백화점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신세계 신한카드’ 3종을 출시했다. 할인 서비스가 강점인 일반형과 마일리지 적립형 등 신용카드 2종과 체크카드 1종이다.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신세계백화점 이용 실적에 따라 5% 할인쿠폰 2~5매 제공, 신세계 포인트 백화점 0.2%, 이마트 및 신세계ㆍ이마트몰 0.1% 적립, 백화점 무료 주차권 월 2매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형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사용액의 5%가 할인된다. ‘신세계 신한카드 체크’는 전월 실적에 상관 없이 신세계백화점 입점 영화관에서 토, 일요일에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캐시백 해준다.

언론사: 한국일보-3-465.txt

제목: 폐지수집여성, 현금 7990만원 주워 경찰에 신고  
날짜: 2017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402050515003  
ID: 01101101.20170402050515003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생활고 불구 “주인 찾아달라” 당부<br/><br/><br/>폐지 등을 주워 번 돈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50대 여성이 파지를 수집하다 주운 수 천 만원을 경찰서에 갖다 줬다.<br/>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에 이춘미(50)씨가 찾아왔다. 그는 비닐봉지를 내밀며 경찰관에게 “주인을 꼭 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봉투 안에는 5만원권 1598장, 16개 묶음으로 현금 7,990만원이 담겨 있었다.<br/>이씨는 전날 오후 4시쯤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일대에서 파지를 주워와 정리하다가 파지 안에 있던 거액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이씨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 직접 찾아주려고 나섰다가 여의치 않자 다음날 아침에 바로 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그가 돈을 잃어버리고 낙담할 주인을 먼저 생각한 것이다.<br/>수년 전부터 광주지역에서 남편과 파지를 주우며 생활해 온 이씨는 1년 반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자, 시동생 김모(49)씨와 파지를 주우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br/>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데다 3년여 전 백내장 수술 이후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지만, 한달 30만∼40만원 정도 되는 수입이나마 벌기 위해 거리로 나서 파지를 줍고 있다. 이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들과 생활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돈을 맡기면서 “<span class='quot0'>하루 빨리 주인에게 돌아갔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 <br/>이씨가 경찰에 신고한 돈은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에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인 이씨는 세금 22%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받게 된다.<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현재 경찰서에서 안전하게 보관한 상태로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찾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66.txt

제목: 법원이 입법권까지 장악하겠다는 베네수엘라  
날짜: 2017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31050734001  
ID: 01101101.20170331050734001  
카테고리: 국제>중남미  
본문: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난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대법원이 야권이 장악한 의회를 해산시킨 뒤 스스로 입법권을 대행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1인체제가 공고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br/>베네수엘라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span class='quot0'>법원에 대한 의회의 경멸이 있는 한 입법권은 (대법원 산하) 헌법위원회나 법률 수호를 위해 지정된 기구에 의해 직접 대행된다</span>”고 선고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명분은 지난해 8월 의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정직된 의원 3명을 취임케 해 대법원에 경멸을 보였다는 것. 그러나 이는 지난 2015년말 총선에서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중도우파 성향의 야권연대 민주연합회(MUD)가 좌파 통합사회주의당(PSUV) 소속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 탄핵ㆍ국민소환 등 퇴진을 추진하자 친 마두로 성향인 법원이 방해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br/>판결 직후 훌리오 보르헤스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 판결”이라며 "<span class='quot1'>니콜라스 마두로(대통령)가 쿠데타를 벌였다</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군은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처럼 경제 위기의 어려움을 함께 겪는 군인들이 봉기해야 한다”고까지 호소했다. 야권은 1일부터 가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br/>반면 정부 측은 의회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부결권을 행사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중도 우파 성향인 야권은 극심한 경제난 등을 이유로 좌파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국민소환 투표를 추진했으나 대법원 등이 반대해 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br/>베네수엘라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반미주의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2013년 암으로 사망하자, 당시 부통령이던 마두로가 권력을 승계했다. 그렇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 곧바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고 의회를 장악한 야당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난에 대해 우파인 야권은 좌파 정책을 이어 온 마두로 정권을 그 주범으로 지목한 반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미국이 배후에 있는 야권과 재계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집권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빚을 경우 계속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br/>미 주류 언론들은 베네수엘라가 사실상 '1인 독재' 체제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노골적 독재”라고 비판했다. CNN방송은 “<span class='quot2'>집권당이 3권을 모두 장악한 셈</span>”이라고 해석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경고했으며 브라질 외무부는 “<span class='quot3'>헌법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span>”이라고 비판했다. 한때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가로 주목받았던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4년째 이어지면서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br/>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67.txt

제목: 2시간만 반짝? 결혼식 꽃의 '아주 특별한 변신'  
날짜: 2017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30050959002  
ID: 01101101.20170330050959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3월은 겨울 내내 삭막했던 대지에 꽃 소식이 찾아오는 계절이다. 꽃이 만개하는 3~4월과 결혼 시즌은 맞물린다. 최근 결혼식 소식이 늘어나면서 웃음꽃이 피는 봉사단체도 있다. 바로 매년 평균 4억 2,500만 송이로 버려지는 결혼식 꽃을(사회적 기업 '대지를 위한 바느질' 통계ㆍ2014) 재활용해 요양원과 병원의 환자들에게 선물하는 비영리단체 ‘플리’다. <br/><br/>플리에서 1년째 봉사활동 중인 이혜정씨(34)는 “겨울엔 봉사활동을 거의 못했는데 3월부터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본격적인 결혼 시즌이 오면 활동이 늘어날 듯해 벌써부터 설렌다”고 말했다. 결혼식이 끝난 직후부터 꽃을 재가공해 기부하기까지 싱싱한 꽃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플리 기부행사의 숨가쁜 일정을 인턴기자가 지난 25일 하루동안 체험해 봤다.<br/><br/>25일 오후 3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 도착한 봉사자들은 꽃 수거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치뤄진 결혼식에서 사용된 꽃들을 이미 수도회 측에서 싱싱한 가지들만 골라놓은 상태였다. 6종류의 꽃들은 신부의 드레스를 닮은 하얀 색상이 대부분이었다. 플리의 한 봉사자는 “이곳 정동 수도원의 꽃들은 흰색 계열이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가로 50㎝ 플라스틱 가방 3개를 꽉 채운 꽃들은 무려 8kg에 달했다. <br/><br/>꽃들의 다음 목적지는 서울 중구 국립의료원이다. 오후 5시, 국립의료원 별관 2층 힐링룸에서는 결혼식 꽃들이 재탄생하는 꽂꽂이 강좌가 열렸다. 말기 암 환자의 보호자들과 자원봉사자까지 10명이 참가해 꽃바구니를 만드는데 열중했다. 꽃바구니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던 나문경(29)씨는 “전 시드는 꽃을 많이 봤어요. 어머니 직업이 플로리스트라 도와드린 적이 많거든요”라며 “꽃이 금방 시드는 사치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로 거듭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br/><br/><br/><br/><br/>오후 6시, 완성된 꽃바구니를 들고 봉사자들이 암 병동의 병실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꽃 전달식을 시작했다. 화기애애하고 왁자지껄했던 꽂꽂이 시간이 무색하게 봉사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혹시라도 꽃 기부가 불편할 수도 있는 환자를 배려해서다. 꽃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가 없다는 걸 확인한 후 전달식이 진행됐다. 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보호자도 있었지만 한 분을 제외하고 보호자들 모두 함박 웃음을 지으며 꽃을 받았다. 나이 지긋하신 보호자 한 분은 “오빠 꽃이야 꽃, 너무 예쁘지?”라며 의식이 없는 오빠가 마치 꽃바구니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꽃바구니를 눈 앞에 들어올렸다. <br/><br/>한 보호자는 꽃바구니를 들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다. 의식이 희미한 환자가 누운 위치에서 꽃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가 어딜지 탐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민 끝에 창문 앞에 꽃바구니를 놓은 그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 듯 미소를 보였다. 병실에 놓인 꽃바구니의 꽃들 중 유일하게 보라색이었던 아스트로메니아의 꽃말은 ‘어떤 역경도 극복해내는 강인한 사람’이다.<br/><br/><br/>아름다운 꽃바구니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준 것은 의료원의 간호사들이었다. 한 간호사는 “꽃을 놓아드리고 환자 표정이 점점 밝아지시는 거 아세요?” 라며 “투병생활에 활기가 얼마나 중요한대요. 생화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환자와 그 가족에겐 큰 도움이죠”라고 말했다.<br/><br/>‘더 자주 꽃을 전달하러 와 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결혼식 비수기에는 기부 활동도 줄어든다. 플리의 진선미 매니저는 “<span class='quot0'>꾸준한 활동을 위해 고정적인 기부처를 계속 발굴하려 노력 중이다</span>”라며 “<span class='quot0'>꽃을 즐긴다는 것은 정서적 위안이나 치유 효과가 있음에도 사치스럽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런 활동을 통해 꽃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 <br/><br/>글?사진 = 김빛나 인턴기자(숙명여대 경제학부 4)

언론사: 한국일보-3-468.txt

제목: 브렉시트 숨은 난제는 원자력 협상  
날짜: 201703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9051011001  
ID: 01101101.20170329051011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2년내 타결 실패 땐 원자력 산업 정지<br/>獨ㆍ佛 등이 英에 위탁한 플루토늄<br/>소유권ㆍ저장비용 문제도 풀어야<br/><br/><br/><br/>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수면 아래 감춰졌던 난제도 드러나고 있다. 유럽 핵연구의 중심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플루토늄을 비축 중인 영국이 유럽의 원자력 규제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새로운 핵규제 체계 마련이 협상의 최대 고비로 작용할 전망이다.<br/>브렉시트 협상과 동시에 전세계 이목이 쏠리는 곳은 영국 중서부 컴브리아주의 해안도시 시스케일이다. 시스케일에 자리잡은 셀라필드 원자력 단지에는 사용후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 126톤이 저장돼 있다. 이는 민간 차원의 플루토늄 비축량 중 세계 최다 수준으로, 무려 2만개의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 양이다. 문제는 이중 5분의 1이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가 위탁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이란 점. 영국이 더 이상 이를 보유할 명분이 사라짐에 따라 플루토늄 소유권과 더불어 연 8,000만파운드(약1,105억원)의 저장 비용 배분이 가장 부담스러운 협상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br/>플루토늄 처리 외에도 영국과 EU의 핵 관련 문제는 산적해 있다. 브렉시트는 곧 플루토늄 관리와 더불어 안전기준 설정, 핵에너지 연구 등을 총괄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ㆍ유라톰)로부터 영국이 튕겨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유라톰에서 자동 탈퇴되는 영국은 원자력 산업 유지를 위해 핵 물질 이동과 지적 재산권, 서비스 등 규제 법률을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20여개 관련국과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당장 원자력 발전소 운영부터 암 환자를 위한 방사선 치료까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이는 유럽 내 핵 연구를 주도해 온 영국과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결별해야 하는 EU에게도 정밀한 협상이 필요한 지점이다.<br/>전문가들은 원자력 협상을 최종 탈퇴 시한인 2019년 3월 전에 타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영국 런던 소재 법률기업 프로스펙트로의 핵 전문가 루퍼트 카우언은 이달 초 의회 청문회에서 “<span class='quot0'>영국은 몽유병 환자처럼 재앙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핵 보호수단과 국제 규범에 맞는 새로운 기준들을 마련하지 못하면 모든 핵 거래를 중지할 수밖에 없어 산업이 멈춰 설 것</span>”이라고 꼬집었다. <br/>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69.txt

제목: [겨를] 미쉐린가이드 맛집부터 취미까지, 배달 어디까지 해봤니  
날짜: 201703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9051030001  
ID: 01101101.20170329051030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배달이 디지털을 만나 끝없는 진화를 하고 있다. 배달이라는 단어에 치킨과 짜장면, 피자를 떠올리는 건 지난 세기의 이야기다. 2~4인용 음식 재료에서 반찬,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같은 디저트, 굽는 즉시 먹어야 제 맛인 삼겹살, 심지어 줄 서서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유명 맛집의 인기 메뉴까지 음식 배달은 이제 불가능한 품목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다양해졌다. 음식뿐만 아니다. 디지털 시대는 상품은 물론, 취향과 정보까지 배달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의 위치 기반 소프트웨어(앱)는 배달 앱 같은 온라인ㆍ오프라인 연계 사업(O2O, online to offline)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제 스마트폰 앱만 열면 자기가 있는 곳 근처의 배달 가능한 가게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다.<br/>최근에 주목받는 건 취향 배달 서비스다. 꽃이나 책, 다양한 취미거리를 정기적으로 배송 받는 것인데 일반적인 택배와 다른 점은 구매자가 특정 상품을 정해서 배송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배송업체가 직접 큐레이션을 해서 보내준다.<br/>‘취미’를 정기적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하비박스는 건담 프라모델, 레고, 가구 리폼, 드론, 마술 등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직접 마련한 취미거리를 배달해준다. 자신의 성향에 맞게 특정 분야를 정할 수도 있고 무작위로 배송받을 수도 있다. 도현아 하비박스 대표는 “<span class='quot0'>단순히 제품만 배송해주는 것이 아니라 큐레이터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지 알려주고 SNS를 통해 큐레이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반응이 좋다</span>”고 말했다.<br/>플라이북은 정기구독자의 취향에 맞게 매달 책을 배달해준다. 고객의 취향이나 관심사 등은 물론이고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을 선정한 뒤 손편지나 차 같은 소품과 함께 보내준다. 김준현 플라이북 대표는 “<span class='quot1'>우리나라 독서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7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1'>책을 읽고 싶어도 어떤 책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최근의 기분이나 관심사에 맞는 책을 추천해주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플라워 서브스크립션’은 신문 구독처럼 정기적으로 꽃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꾸까, 더꽃장수, 로사드블랑, 떼아블라썸, 에이치블랑, 키마, 원모먼트, 모이플라워 등이 대표적인데 업체마다 다르지만 격주로 1회 2만원 안팎의 꽃다발을 보내주는 곳이 대부분이다. 20~30대 여성들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꽃을 주로 활용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말기암 환자, 취업 준비생들에겐 힘을 주는 위로의 선물이다.<br/> 직원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취미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도 등장했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취미를 배달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다크 초콜릿 만들기, 미니정원 테라리움 만들기, 석고 타블렛 방향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담긴 ‘취미 박스’를 직원의 집으로 배달해준다. 첫 배달 정원이 300명이었는데 500여명이 신청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지역적 한계 때문에 사내 취미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지방 근무 직원들의 반응이 특히 좋았다</span>”고 말했다.<br/>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던 유명 맛집의 음식도 장벽이 허물어졌다. 음식배달 전문업체 푸드플라이는 인도 커리, 그리스 수블라키, 베트남 쌀국수, 랍스터, 케밥, 주꾸미 볶음, 초밥, 타코야키 등 배달과는 거리가 멀었던 메뉴 음식을 가져다 준다. 이태원의 태국식당 부아, 서울시청 인근의 만족오향족발 등 미쉐린가이드가 가성비 좋은 맛집(빕 구르망)으로 선정한 식당의 음식도 줄 설 필요 없이 약간의 배달 비용만 지불하면 집에서 배달해 먹을 수 있다. <br/>주문자와 식당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공유 주방’까지 생겨났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음식 주문건수가 많은 서울 강남 지역 이용자들이 이태원 유명 레스토랑의 음식을 배달해 먹을 수 있도록 강남에 공유 주방 ‘배민키친’을 만들어 ‘라이너스 바비큐’ ‘레프트 코스트 아티잔 버거’ ‘바토스’ ‘챔피 키친’ ‘프레시투고’ 등 5개 식당을 입점시켰다. 이 식당들은 강남에 분점을 내지 않고도 공유 주방에 셰프를 파견해 인근 지역에 더욱 빨리 음식을 배달할 수 있게 됐다.<br/> 이런 추세 때문에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2015년 1월 약 490만건이었던 주문이 올해 1월엔 2배가 넘는 1,100만건으로 늘었다. 주문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배달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케이크, 아이스크림, 커피 등 디저트 음식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br/> 첨단기술이 접목되면서 주문이나 배달 방식도 바뀌고 있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인천 송도에서 한화테크윈과 드론을 이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도해 성공했다. 음성통화에서 스마트폰 앱이나 실시간 문자 서비스로 바뀌고 있는 주문 방식도 조만간 인공지능이 대신해줄지 모른다. 성호경 배달의민족 팀장은 “<span class='quot3'>인공지능으로 주문자의 정보나 취향,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메뉴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이준영 상명대 교수(소비주거학)는 “<span class='quot4'>소비자의 수요가 실시간으로 반영돼 공급받는 ‘온디맨드 O2O 서비스’ 시장은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span>”이라고 내다봤다.<br/>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70.txt

제목: “화물칸 벽 천막으로 돼 물 유입”  
날짜: 2017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8051023001  
ID: 01101101.20170328051023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세월호 조타수의 옥중 편지<br/>징역 2년 복역하다 암 진단 숨져<br/><br/><br/>3년 전 참사 당시 세월호의 조타수였던 고(故) 오용석씨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지적한 옥중 편지가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오씨는 편지에서 “<span class='quot0'>세월호 2층 화물칸 일부가 천막으로 돼 있다</span>”고 주장했다. <br/>편지는 오씨가 광주기독교연합 대표인 장헌권 목사에게 보낸 것이다. 오씨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수난구호법(조난선박 구조)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복역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가석방된 뒤 지난해 4월 숨졌다. <br/>오씨는 2014년 11월 4일 장 목사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직접 세월호 입면도를 그린 뒤 “<span class='quot0'>세월호 선미 2층 화물칸(C데크) 하층부 외벽이 철제가 아닌 천막으로 설치돼 있어 세월호가 기울었을 때 상당한 물이 유입됐을 것으로 본다</span>”고 주장했다. 그는 편지 뒷면에 그린 입면도에서 천막으로 설치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강조하면서 “모든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 배가 처음 기운 것도 기운 것이고, 물이 어디로 유입됐는지 상세히 조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그림으로 보낸다"고 전했다. <br/>오씨는 또 “도면상에 뚫어져 있는지 모형을 제시했으니 검찰은 알고 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씨의 주장은 검찰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ㆍ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해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한 복원성 약화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급변침 ▦화물 고박 불량 등으로 결론 지었다. <br/>세월호가 뭍으로 나오면 본격적인 선체 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오씨의 옥중편지에 대한 진위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오씨가 지목한 부분이 실제 천막으로 돼 있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br/>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71.txt

제목: [애니북스토리] 홍보에만 반짝 활용되는 지자체 동물들  
날짜: 2017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8050903001  
ID: 01101101.20170328050903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동물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동물 얘기만 할 수 있어서 좋다. 어디서든 동물 얘기 좀 길게 할라치면 눈치를 줘서 입을 꾹 닫게 마련이니까. 얼마 전 모임에서는 고양이 역장 '다행이'가 사라진 지 두 달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물은 여전히 홍보수단일 뿐이구나. 하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는 날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강아지 선물도 취임준비위원회가 연출하는 나라이다.<br/>다행이는 2016년 4월에 부천시 역곡역 김행균 역장이 입양하면서 명예역장이 되었다. 김행균 역장은 어린이를 구하다가 다리를 잃었고, 다행이도 길에서 다리를 다쳐서 둘의 만남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다행이는 역 생활에 잘 적응했다. 그런데 김행균 역장이 건강 문제로 자리를 비우자 보호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사라졌다. 홍보에 그렇게 이용하더니 역을 집으로 알았을 아이를 보호소로 보내다니. 코레일, 부천시는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br/>15년 전쯤 강아지를 명예역장으로 임명한 기차역을 취재한 후 다음 해에 그 아이들이 궁금해서 연락했더니 새로운 강아지가 역장이 되어 있었다. 먼저 아이들의 연락처를 물으니 여러 핑계를 대더니 결국 알려주지 않았다. 관공서에서 이런 식으로 동물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항의해도 그게 왜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지금이나 15년 전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br/>우리나라에 동물 역장 바람이 분 건 일본 기시역의 타마 역장 덕이다. 2006년 기시역은 이용객 감소로 폐쇄 위기에 몰리자 매점 아주머니가 챙기던 고양이 타마를 고양이 역장이라며 홍보하기 시작했다. 타마 역장 덕분에 기시역은 외국 여행객도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고 기사회생했다. 고양이 역장은 홍보수단으로 시작했지만 역은 타마가 열 여섯 살에 떠날 때까지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살뜰히 챙기면서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br/>안타까운 이야기는 또 있다. 2014년 11월경 강동구의 한 도서관에 나타난 길고양이 ‘해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도서관 직원과 이용객의 사랑을 받았다. 해리 덕분에 도서관 이용객도 늘었다. 여기까지는 유명한 미국의 도서관 고양이 듀이와 닮았다. 그런데 2016년 1월, 해리가 큰 부상을 입고 나타나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해리는 도서관 근처에 방사됐다. 방사라니. 도서관으로 들인 것도, 집고양이도 아닌 다시 길 위라니. 이후에도 해리의 불행은 이어졌지만, 지금은 다행히 집고양이로 살고 있다고 한다.<br/>다행이와 해리의 이야기는 꽤 유사하다.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책까지 출간되는 등 관공서의 홍보에 이용되었는데 결론은 평범한 고양이보다 못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동물을 홍보에 이용하면 의도치 않은 일도 발생한다. 해리가 큰 부상을 입은 건 시기적으로 TV 동물 프로그램에 소개된 후이다. 안전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벌이는 지나친 홍보는 동물학대자에게 길고양이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br/>같은 도서관 고양이지만 해리와 너무 다른 삶을 살았던 듀이는 어땠을까? ‘도서관 고양이 듀이’의 저자는 도서관 직원이었는데 한겨울에 도서관 반납함에 버려져 꽁꽁 언 새끼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목욕부터 시킨다. 나는 저자가 목욕물 온도가 적당한지 알아보려 팔꿈치로 수온을 체크하는 모습에 뭉클했다. 엄마가 아기 목욕을 시킬 때 하는 행동이 아닌가. 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렇게 다르다.<br/>듀이는 이후 도서관 고양이가 되어서 직원과 이용객의 사랑을 받으며 지낸다. 1988년 당시는 미국의 경제 불황이 심각하던 시기여서 실업자는 넘쳤고, 온종일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어서 부모는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고 놀아주는 상대가 바로 듀이였고, 어느 날 어떤 아이의 엄마가 듀이에게 속삭였다. “듀이야, 고맙다.” 이러니 저자가 듀이를 입양한 건 온 마을이라고 표현하는 게 지나치지 않다.<br/>듀이는 16세에 암으로 떠난다. 저자는 주말, 휴가 때면 듀이를 집으로 데려오곤 했기에 늙은 듀이를 집에서 돌보려 했지만 듀이는 주말을 지내고 도서관에 갈 때면 앞발을 자동차 계기판에 올려놓고 흥분할 정도여서 그러지 못했다. 듀이에게 집은 도서관이었다.<br/>이렇게 온 마음으로 동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면 도서관 고양이, 고양이 역장 등의 홍보놀음은 그만하면 좋겠다. 동물 당사자에게 인간의 반짝 관심은 불행을 가져올 뿐이다.<br/><br/>김보경 책공장더불어 대표<br/>참고한 책 : <도서관 고양이 듀이>, 비키 마이런, 갤리온<br/><br/><br/>▶ 동그람이 페이스북 바로가기<br/><br/>▶ 동그람이 카카오채널 바로가기

언론사: 한국일보-3-472.txt

제목: [경희의료원과 함께 하는 건강 Tip] 유방암  
날짜: 2017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7061000001  
ID: 01101101.2017032706100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암은 국내 여성에게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암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진료인원은 7.9% 늘어날 정도로 증가세다. 유방암은 2기 이내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예후가 좋다. 특히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br/>Q 유방암 원인은. <br/>“유방암은 ▦식사습관ㆍ음주ㆍ호르몬 등과 같은 환경 요인 ▦유전 요인 ▦알 수 없는 원인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한다. 가장 많은 연구되고 의견이 모아진 발병 요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다. 에스트로겐은 유방세포 증식과 분화에 관여해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30세 이후 첫 출산,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모유 수유하지 않은 경우 등을 유방암 고위험 요소로 꼽는다.” <br/><br/>Q 증상이 궁금한데. <br/>“가슴에 멍울이나 혹이 만져지면 양성 종양이나 유방암일 가능성이 있다. 병원을 찾아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유방암은 단단하고 울퉁불퉁하거나 경계가 모호하며 잘 움직여지지 않는 느낌을 준다. 이밖에 유두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방과 겨드랑이 모양과 피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유방암은 가장 먼저 겨드랑이 림프절로 암세포가 퍼지는데 유방보다 겨드랑이의 변화를 먼저 발견해 병원을 찾는 사람도 있다. 겨드랑이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한쪽 팔만 부어도 진료를 받아야 한다.” <br/><br/>Q 가슴을 모두 잘라내야 하나.<br/>“많은 환자가 유방암 수술을 한 뒤 신체변화에 불안해한다. 치료하기 전 상담을 충분히 하는 이유다. 하지만 환자가 모두 유방을 잘라내지는 않는다. 수술에는 유방 전(全)절제술과 부분절제술이 있다. 전절제술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모두 잘라내다 보니 미용ㆍ심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여성 삶의 질을 고려하고자 최근엔 절개부위와 방법 등에 성형외과적 개념이 도입돼 치료와 미용을 고려하고 있다.” <br/><br/>Q 예방법이 있다면.<br/>“안타깝게도 아직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유방암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려면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중 조절, 금연 등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정확한 자가 검진법을 익혀 실천하는 것이 좋다. 정기검진을 받은 뒤 이상이 발견되면 전문의와 즉시 상담해야 한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민선영 경희대의료원 유방외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3-473.txt

제목: 입 속 세균 우습게 보다간 잇몸병뿐만 아니라 뇌졸중까지  
날짜: 2017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7060959001  
ID: 01101101.2017032706095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민의 3명 중 1명꼴 잇몸병 앓아<br/><br/>입 속(구강)을 집에 비유할 수 있다. 생쥐가 기둥을 갉아 먹으면 충치(치아우식증)다. 두더지가 기둥주변 땅을 파서 집이 무너지면 풍치(치주병ㆍ잇몸병)다. 입 속에는 항상 생쥐와 두더지가 있다. 생쥐(충치)는 어린이에게, 두더지(잇몸병)는 어른에게 많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방치해 생기는 잇몸병은 나이 들수록 많아진다.<br/>잇몸병으로 병원을 찾는 이가 2015년 급성상기도염(감기)에 이어 2위에 올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 3명 가운데 1명꼴로 잇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진료비도 1조 원을 훌쩍 넘었다. 3월 24일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잇몸의 날’이다. ‘삼(3)개월마다 잇(2)몸을 사(4)랑하자’는 뜻으로 2009년 대한치주과학회가 정했다.<br/><br/><br/>“<span class='quot0'>잇몸 색깔 변화로 조기 진단</span>”<br/>잇몸병은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뉜다. 치은염은 염증이 치은(齒?ㆍ잇몸)에만 국한된 형태다. 치주염(齒周炎)은 잇몸에 생긴 염증이 치아 뿌리나 치조골(잇몸뼈)까지 퍼진 상태다.<br/>잇몸병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플라크(치태ㆍ齒苔)다. 치아 표면에 붙은 세균덩어리의 얇은 막이다. 플라크를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돌처럼 단단한 치석(齒石)이 된다. 플라크와 치석에 숨어 있는 각종 세균이 잇몸 안쪽으로 손상된 혈관에 들어가 온 몸에 퍼져 다양한 질환을 일으킨다. 관상동맥우회술(바이패스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떼낸 죽상동맥에서 진지발리스균 같은 구강 세균이 발견되기도 한다. <br/>잇몸병 환자는 없는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2배, 심혈관질환 위험이 1.14배, 뇌졸중 위험이 2.11배, 폐질환 위험이 1.75배, 만성 콩팥질환 위험이 1.6배 높다.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끼쳐 미숙아 출생 가능성이 무려 7배나 높다. 암 발생 위험도 1.14배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r/>입 속에 사는 300여 종의 세균은 죽어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세균의 껍데기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민경만 대한치주과학회 홍보이사(서울메이치과 원장)는 “<span class='quot1'>단순히 세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긁어내 없애야 한다</span>”며 “양치질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br/> 잇몸병은 단계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므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초기에는 칫솔질하면 치약 거품 속에 피가 묻어 난다. 잇몸이 건강하면 색깔이 분홍이지만 염증이 생기면 주황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한다. 잇몸병이 생기면 잇몸과 치아 사이에서 고름이 생기고 음식물이 썩어 역한 냄새가 난다. 박준봉 강동경희대병원 치주과 교수는 “<span class='quot2'>평소 잇몸 색깔을 들여다 보는 습관을 들이면 잇몸병을 알아내기 쉽다</span>”고 했다.<br/>찬 음식이나 찬물을 먹을 때나 찬바람을 맞아도 이가 시리게 된다. 즉 잇몸이 부었다 가라앉다 하면서 내려앉아 뿌리가 드러나고 칫솔질에 치아가 닳아서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먹은 뒤 잇몸이 욱신거리면 이미 중증 단계다. 식사할 때마다 치아 사이에 음식이 끼여 이쑤시개를 달고 산다면 말기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잇몸이 가끔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으면서 이가 조금씩 흔들린다. 시간이 지나면 증세가 점점 나빠진다.<br/><br/>칫솔질 잘하면 잇몸병 예방<br/>칫솔질만 잘해도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다. ‘하루 3번, 식사 후 3분 이내, 3분간 칫솔질을 한다’는 ‘333법칙’을 따라야 하지만 칫솔질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br/>성인이나 치주질환자에게는 ‘변형 바스법’이 추천된다. 칫솔모를 45도 기울여 치아와 잇몸 사이에 놓고 전후방으로 2~3㎜ 정도 10초간 왕복하며 가볍게 닦는다. 이후 아래로 쓸어 내리면 잇몸과 치아 사이에 쌓인 플라크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다. 당뇨병 환자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람은 칫솔질만으로 예방하기 어렵다. 치간칫솔ㆍ구강청결제 같은 보조용품을 사용한다.<br/>정기 치과검진과 스케일링도 잇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매일 치간(치아와 치아 사이)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쓰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다(201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br/>심혈관계ㆍ당뇨병ㆍ호흡기질환ㆍ류마티스관절염 환자나 골다공증약 복용자, 호르몬 치료 중인 여성, 잇몸병을 심하게 앓았던 사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잇몸병 고위험군이어서 평소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br/>민 이사는 “<span class='quot3'>잇몸병은 당뇨병ㆍ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치주질환 경험자는 2~3개월에 한 번씩, 구강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br/><br/><br/><잇몸병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br/>-치아를 닦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br/>-치아가 전보다 길어 보이는 곳이 있다.<br/>-치아에 치석이 있는 것 같다.<br/>-나쁜 입 냄새가 난다.<br/>-가끔씩 잇몸이 아프다.<br/>-치아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br/>-잇몸이 자주 붓는다.<br/>-부모 중에 틀니를 한 사람이 있다.<br/>-치아가 시린 적이 있다.<br/>-피곤하면 이가 들뜬다.<br/>-이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낀다.<br/>-딱딱한 음식은 먹기 힘들다.<br/>-당뇨병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한 적이 있다.<br/>-골다공증 치료 중이거나 치료 받은 적이 있다.<br/>-담배를 피우고 있다.<br/>\*(0~4개) 비교적 건강한 편이나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하다.<br/>\*(5~8개) 정밀검사를 받은 뒤 치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br/>\*(9~12개)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br/>\*(13~16개) 중증 잇몸병을 앓고 있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br/><자료: 대한치주과학회><br/><br/><구강 및 잇몸ㆍ치아 건강관리수칙><br/>-양치질은 2분 이상, 치아 양쪽 면과 씹는 면을 꼼꼼히 닦는다.<br/>-칫솔모는 잇몸과 치아 경계면을 대고 45도 각도로 양치질한다.<br/>-구강 전체를 꼼꼼히 칫솔질하고 혀까지 깨끗이 닦는다.<br/>-하루에 2번 이상, 아침ㆍ저녁에는 꼭 양치질한다.<br/>-양치질 이후 입안과 치아 사이까지 잘 헹군다.<br/>-칫솔모가 낡은 칫솔은 곧바로 교체한다.<br/>-치실 사용 습관을 들이고 치간 세정기를 활용한다.<br/>-아침식사 전에 양치질해 잘 때 생긴 플라크를 없앤다.<br/>-음파 칫솔 등을 사용해 플라크를 제거한다.<br/> <자료: 세계치과의사연맹>

언론사: 한국일보-3-474.txt

제목: 말 아닌 행동으로 대장암 치료 ‘전념’  
날짜: 2017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7060958003  
ID: 01101101.20170327060958003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대장암 4기 환자도 수술… 협진 구축해 치료<br/> <br/>항문, 배설 같은 이야기를 하면 ‘저질’ 취급 받기 십상이다. 대장, 항문 등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삶을 유지할 수 없지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20년 넘게 매일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안창혁(54) 부천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다.<br/> “외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다른 의사들이 ‘냄새 난다’ ‘지저분한 것을 어떻게 매일 보고 사느냐’고 기피하더군요. 하지만 희한하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대장암 치질 항문질환 등 다양한 환자군을 치료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죠. 20년 넘게 매일 들여다보니 거부감도 사라졌습니다.”<br/> 대장암은 고위험 암 가운데 가장 ‘핫’한 암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장암 진료환자는 2006년 6만8,240명에서 2015년 13만3,297명으로 6만5,057명(95.3%)으로 증가했다. 대장암은 유전 요인과 함께 포화지방이 많은 동물성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생길 수 있다. 안 교수는 “<span class='quot0'>특히 붉은색을 띈 육류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걸릴 수 있어 평소 동물성 식단을 줄이는 등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 건강검진 대중화로 “대장용종을 제거하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선종성용종 유암종 악성용종 등은 대장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조기 발견해 없애야 한다. 안 교수는 “<span class='quot0'>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대장용종이 많이 생기기에 이들 연령층은 대장내시경검사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용종을 제거했거나, 가족력 있는 사람은 2~3년마다 검사 받아 암이 생겼는지를 점검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 안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내시경검사는 위내시경과 달리 검사 받기 전에 약을 먹어 장을 비워야 하는 등 검사가 까다로워 기피하는 사람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지 않으면 예후가 좋지 않아, 힘들어도 대장검사를 받는 게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span>”이라고 했다.<br/> 최근 부천성모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74세 환자가 대표적 사례다. 그는 평소 술과 담배, 육식을 즐겼지만 한 번도 대장검사를 하지 않았다.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지만 다행히 수술이 잘돼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수술 후 이 환자는 안 교수에게 “젊었을 때 대장검사를 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며 “나 같은 우둔한 사람이 없게 교수님이 신경을 잘 써달라”고 했다. <br/><br/>“나도 대장내시경 검사한다”고 권유<br/> 강원 춘천시에서 자란 안 교수는 처음에 서울대 공대에 들어갔다. 그때만 해도 자신이 의사의 길을 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섬유공학을 전공하면서 공학도가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느껴 의대에 다시 진학했다. 안 교수는 “<span class='quot0'>내 손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외과의사가 천직임을 깨달았다</span>”고 했다.<br/>‘말보다 행동으로 환자 신뢰를 받는 의사’가 되는 게 안 교수의 바람이다. 외래진료할 때 대부분의 환자가 대장내시경검사를 꺼린다. 그럴 때마다 안 교수는 “<span class='quot0'>힘든 것 잘 알지만 나도 10년 전부터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있다</span>”며 검사를 권유한다. 담당 교수가 10년 전부터 검사를 받고 있다는 말에 환자는 순순히 받아 들인다. 안 교수는 “<span class='quot0'>검사 후 대장용종을 제거하거나 암이 발견돼 조기 치료를 통해 완치된 이들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처음에는 환자를 설득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는데 이 때문에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span>”라고 했다.<br/> 대장암 치료는 수술이 기본이다. 안 교수는 “<span class='quot0'>전에는 대장암 3, 4기 환자에게는 수술을 권하지 않았지만 최근 4기 환자도 수술이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대장암 치료 관련 진료과와 협진해 수술은 물론 표적치료 면역치료 항암치료 등도 시행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안 교수는 ‘외과의사=칼잡이’라는 공식을 거부한다. 그는 “<span class='quot0'>외과의사가 수술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대장암 치료는 다른 진료과 전문의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기에 치료 전반의 정보와 지식을 두루 갖춰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 사람은 대화할 때 눈을 보면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다. 안 교수는 인터뷰 내내 기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대화를 이어갔다. 환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참 눈이 선한 외과의사임을 직감했다. 그가 지난해 12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부천성모병원으로 이직했을 때 병원식구들이 “병원에 참 좋은 분이 오셨다”며 반긴 이유를 알 것 같다.<br/> “외과의사는 내 손으로 환자를 살리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잃으면 환자도 의사도 모두 죽습니다.” 처음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 마음을 유지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안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대장항문 치료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믿음이 가는 외과의사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75.txt

제목: 대구 대학병원들, 암 치료에 인공지능 도입  
날짜: 2017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7060906003  
ID: 01101101.20170327060906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구ㆍ경북지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대가 열린다. 구글의 알파고처럼 인공지능인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가 투입된다.<br/>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최근 IBM과 의료용 인공지능인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하기로 계약하고, 내달 중순부터 암 진료에 이용키로 했다. IBM의 왓슨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최적화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로, 초대 회장인 토마스 왓슨의 이름을 붙였다. 2011년 1월 미국의 유명 퀴즈쇼에서 우승하며 유명해졌고, 2012년부터 미국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와의 협업으로 왓슨 포 온콜로지가 개발됐다. 국내에선 지난해 가천대 길병원에 이어 최근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등이 도입했다.<br/>왓슨은 매일 쏟아지는 300개 이상의 의학저널, 200개 이상의 의학교과서, 1,5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정보, 치료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각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제안하여 의사의 진료를 돕는다.<br/>의사가 왓슨 포 온콜로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왓슨이 학습한 방대한 양의 의료서적과 논문, 진료기록 등을 분석ㆍ추론해 암환자별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 제안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의 암 전문의가 모인 다학제팀에서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암 환자의 중요한 결정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br/>동산병원 박건욱(혈액종양내과 교수) 암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왓슨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리며 특히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최신 의학자료를 실시간 업데이트하므로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역 암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법을 찾아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을 전전하는 번거로운 관행도 줄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대구가톨릭대병원도 폐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자궁경부암 6대 암 치료에 왓슨 포 온콜로지를 활용하고, 치료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br/>경북대병원도 지난 1월 인공지능을 장수연구에 적용하는 미국의 인실리코 메디슨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동연구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료모델 표준화와 정규화 등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나섰다.<br/>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76.txt

제목: [나를 키운 8할은] '뉴욕 지성계의 여왕' 수전 손택  
날짜: 2017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5050658002  
ID: 01101101.20170325050658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수전 손택은 ‘뉴욕 지성계의 여왕’이라 불렸던 작가이자 평론가. 1933년생으로 15살 때 버클리대에 입학했을 뿐 아니라 입학 직후부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책을 체계적으로 읽어나가는 학생으로 유명했다. 25살 때 하버드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도 영국 프랑스 등을 돌아다니며 공부를 계속 이어나갔다. 17살 때 결혼해 8년 뒤 이혼했다. <br/>처음엔 미국 대학 강단에 섰는데 이 때 발표한 글들로 문단에서 서서히 주목 받기 시작했다. 손택의 이름을 각인 시킨 건 역시 1966년 책으로 묶어 낸 평론집 ‘해석에 반대한다’다. 책 제목 그대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데 전문가나 평론가의 주석과 해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뿐이며,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감상자의 직관적인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는 문화를 둘러싼 기존 담론의 벽들을 허물어뜨린 계기가 됐고, 1960년대의 분위기 속에서 손택은 새로운 문화의 기수가 됐다. 그런 손택이었던 만큼 언행에 거침이 없었다. “백인은 인류사에서 암적인 존재”라는 극단적 표현을 썼으나,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잘못했다. 암환자를 모독했다”고 맞받아친 건 유명한 일화다.<br/>이런 성향이었던 만큼 손택은 정치적 활동으로도 유명했다. 1960년대 이미 베트남전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1980년대 ‘악마의 시’ 파문 당시 작가 샐먼 루시디 보호운동에도 관여했고, 사라예보 내전, 9ㆍ11테러 등 굵직굵직한 국내외적 이슈에 끊임없이 참여했다.<br/>1988년 국제펜클럽 미국지회장 자격으로 서울을 찾아 김남주 시인 등 구속 문인 석방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0여권의 책을 펴냈고 이 책들은 26개국에 번역 소개됐다. 국내에서는 ‘타인의 고통’ ‘사진에 관하여’ ‘은유로서의 질병’ ‘다시 태어나다’ 등이 인기를 끌었다. 이 때문에 작가보다는 평론가, 에세이스트로 각인되어 있다. 유방암, 자궁암 등과 사투를 벌인 끝에 2004년 12월 골수성 백혈병으로 자택에서 숨졌다.<br/>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77.txt

제목: 지식에도 민주화가 필요하다  
날짜: 2017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3050806002  
ID: 01101101.20170323050806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지민의 탄생<br/>김종영 지음ㆍ휴머니스트 발행<br/>440쪽ㆍ2만원<br/><br/>‘시민들의 힘’이라는 말이 이처럼 와 닿은 건 30년 만에 처음이 아니었을까.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9번 이어 온 촛불집회는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 해이기도 했다.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광고를 믿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br/>국정을 농단한 지배 세력, 뒷돈을 받고 제조업체에 유리하도록 연구결과를 조작한 연구교수 등 부정한 지식 세력에 대항해 온 시민들이 이끌어낸 결과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고한다. “<span class='quot0'>지식인의 시대가 가고 지민(知民)의 시대가 왔다.</span>”<br/>‘지민의 탄생’은 2000년 이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주요 사건을 국가중심의 ‘지배지식동맹’과 시민사회 중심의 ‘시민지식동맹’의 대결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낸 책이다. 삼성 백혈병 사태, 광우병 촛불운동, 황우석 사태, 4대강 사업을 다뤘지만 앞서 제시한 ‘탄핵 촛불’과 가습기 살균제처럼 여전히 진행 중인 한국 사회 적폐를 드러내는 데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저자는 발로 뛰어 책을 썼다. 현장에서 활동했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사건의 직접 개입자 등 다양한 사람을 인터뷰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누가 사건을 움직였고, 누가 대항해 싸웠는지 세세히 적은 10년의 기록이다. <br/>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은 정치인에 자신들의 주권을 위임한다. 그리고 동시에 지식엘리트들에게는 지식과 정보를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 위임으로 지식과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시민들은 그들의 잘잘못을 가려낼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지민’은 이러한 지배지식동맹이 전파하는 지식을 견제하기 위해 ‘공적 이슈와 사회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참여하는 똑똑한 시민’이다. <br/>올해로 어느덧 10년째, 삼성 반도체공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암 등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싸워오고 있는 반올림이 대표적이다. 200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던 6명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압도적 비율로 산재를 기각 당했다. 신중함, 정교함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위험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물질이 질병을 유래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 현장의 위험성, 그 위험성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된 현실도 가혹한데, 자신들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 우려한 기업들은 조사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 반올림은 ‘대항 전문가’들과 함께 삼성에 반하는 지식을 축적해 왔고, 일부 피해자들은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br/>지식시민권이 확장되고 지식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영국의 사상가 존 액튼은 말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지식은 독단적인 경향이 있으며 절대 지식은 절대 독단적이다.’ 촛불집회를 통해 무언가 바꿔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지민들이 많아졌다는 건 희망적인 소식이다.<br/>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78.txt

제목: 호서대생 ‘통 큰’ 사랑실천  
날짜: 2017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3050805001  
ID: 01101101.20170323050805001  
카테고리: 지역>경북  
본문: 헌혈증서 4000장 기증 <br/><br/><br/>호서대(총장 신대철) 학생들이 헌혈증서 4,000장을 모아 소아암환자들에게 기부해 화제다.<br/>23일 호서대에 따르면 학생들이 2년간 모은 헌혈증서 4,000장을 지난 22일 삼성서울병원 소아암센터에 전달했다.<br/>전달식에는 호서대를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와 대학, 병원관계자 등이 참석했다.<br/>호서대 이상국 교수는 “<span class='quot0'>헌혈증서 전달은 학생 수천 명이 표현한 사랑의 실천</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어린 나이에 질병과 힘들게 싸우는 소아혈액암 환아들에게 뜻 깊은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79.txt

제목: 전북대 고은영씨 亞 유일 美온열의학회 발표자 선정  
날짜: 2017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2050826001  
ID: 01101101.2017032205082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아시아 유일 미국온열의학회(STM) 초청발표자(Travel grant)로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교실 석사과정 고은영(28)씨가 선정됐다.<br/>전북대에 따르면 STM은 세계 각국 논문 2,000여건을 심사해 고씨 외 미국 13명, 네덜란드 1명 등 총 15명의 연구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br/>STM은 방사선 전문의와 과학자 등이 소속된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로 올해는 멕시코에서 4월 29일~5월 2일 4일간 열린다. 초청발표자는 학회 등록비와 상금 500달러, 학회 논문 발표 기회를 갖는다.<br/>고씨는 초청발표에서 ‘암 치료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고주파 온열치료용 감작제 개발’ 논문을 통해 기존 암 환자에 사용하는 고주파 온열치료 효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모든 종류의 고형암과 전이암 치료에 사용하는 고주파 온열치료는 효능에 한계가 있어 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감작제 개발이 세계적인 연구과제다.<br/>고씨는 연구 끝에 기존 항암 치료 주사제보다 효능이 뛰어난 고열 치료를 위한 이상적인 온도 감작제를 찾아냈다. 고주파 온열치료용 감작제 개발은 세계 최초로 알려졌다. 고씨의 연구는 현재 동물실험만 완료된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3년 이내 암 치료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치료제가 탄생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br/>고씨는 “<span class='quot0'>치료제 개발을 앞당기려면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span>”고 했다. <br/><br/>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80.txt

제목: 암수술 받았는데, 동네병원에서 또 진료의뢰서 받으라고요?  
날짜: 2017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2050800001  
ID: 01101101.2017032205080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중증환자 두 번 울리는 ‘진료의뢰서’<br/><br/><br/>김모(52)씨는 지난해 9월 혈변 증상이 지속되자 동네 병원을 찾아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받았다. ‘직장암 소견’이라는 날벼락 같은 진단 결과를 받아 든 김씨는 이 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이하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인근 A대학병원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직장암 2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span class='quot0'>일단 방사선 치료로 종양 크기를 줄인 뒤 수술을 하자</span>”고 권했다. 하지만 진단 결과가 정확한지, 다른 치료방법은 없는지 궁금했던 김씨는 CT 결과 등을 들고 B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이곳에서 또다시 진료의뢰서를 요구 받았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인근 동네병원 아무 곳이나 들어가 진찰비 3,000원을 주고 진료의뢰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했다. 김씨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진료를 받았는데 왜 또다시 진료의뢰서를 끊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br/>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형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가려는 환자는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비 폭탄을 맞는다. 진료의뢰서는 의사가 ‘이 환자의 증상은 더 큰 병원에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확인해준 일종의 증명서로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일단 1차(동네의원) 2차(병원과 종합병원) 의료기관부터 들르도록 규제를 둔 것이다. <br/>하지만 적잖은 중증질환자들은 이 제도로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오진 가능성을 줄이고 다양한 치료법을 알아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여러 곳을 다니는 ‘의료 쇼핑’ 때마다 동네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담당 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담당 의사에게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장암에 걸린 부친 때문에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던 박모(46)씨는 “아예 이 병원을 다시 오지 않겠다고 작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담당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끊어달라고 말을 하기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큰 수술을 받고도 다시 진료의뢰서를 받기 위해 동네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r/>더구나 동네병원에서의 진료의뢰서 발급은 요식행위에 가깝다. 이모(48)씨는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급하게 CT를 촬영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고 해 인근에 아무 연관도 없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 의뢰서를 끊어달라고 하니 별 말 없이 끊어주더라”며 “이런 절차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r/>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 쇼핑을 너무 쉽게 하면 안 그래도 위태로운 의료전달체계가 더 문란해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br/>하지만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손질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하는 것이 명백한 중증질환 환자에 한해서는 진료의뢰서를 여러 번 끊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 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81.txt

제목: 위암 위험인자, 40대 이상은 ‘당뇨병ㆍ식습관’  
날짜: 2017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0050818001  
ID: 01101101.2017032005081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김지현ㆍ박유미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br/>6만 여명 건강검진 빅데이터 분석<br/>나이ㆍ성별따라 위험인자 달라<br/><br/>위암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는 장상피화생, 위축성 위염 등 전암병변과 맵고 짠 음식, 헬리코박터균 감염, 비만, 흡연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이ㆍ성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가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김지현(소화기내과)ㆍ박유미(건강검진센터 체크업)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팀은 2008∼2013년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6만261명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암세포 형태별 위암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br/>연구팀은 위암, 전암병변 환자를 병변이 없는 사람과 비교했고, 위암 환자는 장상피화생과 위축성 위염만 의미 있는 위험인자로 분석됐다. <br/>반면 전암병변은 40세 이상, 남성, 비만, 당뇨병, 식습관(맵고 짠 음식),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위험인자가 다양했다. <br/>전암병변은 정상조직에서 암이 발생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 여겨지는 병변으로 의학적으로 다른 상태보다 암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말한다.<br/>특히 나이, 성별, 암세포 형태에 따라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40세 미만에서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유일한 위험인자였고, 40세 이상에서는 당뇨병과 식습관이 추가적인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여성은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함께 비만이 위험인자였다.<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장상피화생 같은 전암병변은 한 번 발생하면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어렵기에 전암병변 발생 전 헬리코박터균, 식생활 습관 등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를 관리해야 한다</span>”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의학(Medicine)’에 게재됐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82.txt

제목: [경희의료원과 함께 하는 건강 Tip]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장암  
날짜: 2017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0050815002  
ID: 01101101.2017032005081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장암은 직장과 결장에 생기는 암이다. 직장암과 결장암으로 구분된다. 국내 암 발생률 3위, 암 사망률 4위를 차지한 정도다. 대장암 환자는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최근 정밀 로봇수술 도입으로 수술한 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크게 만족해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br/><br/>Q 대장암 전조증상은.<br/>“변비나 설사가 잦는 등 달라진 배변 습관, 가는 변, 변비, 복통, 가스 찬 배, 뱃속 불쾌감, 잔변감이나 혈변ㆍ흑변이 생겼다면 대장암 검사를 권한다. 다만 항문 출혈이 있다고 모두 암은 아니다. 치질이나 치열 등일 수 있다.”<br/><br/>Q 진단과 예방은.<br/> “진단에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탁월하다. 최근 30~40대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이 많이 생긴다. 따라서 40대가 넘었다면 3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하기를 권하고 싶다. 정부지침에는 5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 중간에 암이 생기는 사람이 많으므로 3년 마다 검사 받기를 추천한다. 특히, 가족력이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거나 용종이 생긴 적이 있다면 더 이른 나이에 검사 받는 게 좋다.”<br/><br/>Q 직장암은 특히 수술이 어려운데.<br/> “직장암은 정밀수술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수술을 시행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심하면 변실금, 하복부 불편함, 잦은 배변 등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 특히, 하부 직장암은 항문을 동시에 제거하고 배에 장루를 만들어 줘야 했다. 최근 정밀 로봇수술이 도입돼 항문을 95% 이상 보존할 수 있게 됐다. 수술 후 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은 물론이다.” <br/><br/>Q 치료 성적은.<br/> “대장암은 꾸준히 치료성적이 높아지고 있다. 대장암이 말기(4기)라도 고주파, 항암, 방사선 치료와 수술을 병행하면 완치를 4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환자 특성에 따라 다학제 진료팀 중심으로 맞춤치료가 중요하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이길연 경희의료원 대장ㆍ항문외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3-483.txt

제목: “원인 모르는 콩팥암, 조기 발견 위해 복부초음파 중요”  
날짜: 2017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0050814001  
ID: 01101101.2017032005081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메디컬 인사이드] 서성일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교수<br/>‘콩팥 로봇 복강경 부분절제술 500례’ 국내 첫 달성 <br/><br/><br/> 콩팥암(신장암)은 국내 암 발생률 10위 안에 들 정도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지난 10년 새 환자가 4배나 늘었는데도 말이다. 콩팥암은 2013년 4,333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2~3%(한국중앙암등록본부, 2016년)였다. 그런데 콩팥은 혈관과 요로(尿路)계가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장기여서 수술 도중 출혈, 수술 후 요누출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아주 높다. 베테랑 의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다. 로봇을 활용해 콩팥 일부를 잘라내는 ‘콩팥 로봇복강경 부분 절제술’을 국내 처음으로 500례 달성한 이가 나왔다. 서성일(50)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교수다. ‘로봇수술의 대가’인 서 교수를 만났다.<br/><br/>-콩팥암은 어떤 암인가.<br/> “콩팥은 다른 장기보다 우리 몸의 뒤쪽에 위치해 암이 어느 정도 진행돼도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해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혈뇨) 옆구리 통증이 생기거나, 배에 혹이 만져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확률은 10~15%에 불과하죠. 이 때문에 암 진단이 늦어지고 통증이 생길 때면 이미 다른 장기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아 치료시기를 많이 놓치게 되죠.<br/>콩팥암을 늦게 발견하면 정맥혈관이나 림프절 폐 간 뼈 뇌 피부 등 온 몸으로 퍼진 상태여서 치료가 아주 까다롭죠. 다른 부위에 퍼지기 전(1기)일 때 5년 생존율은 90% 이상이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20~30%로 뚝 떨어지죠. 병기(病期)에 따라 5년 생존율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콩팥암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br/><br/>-콩팥암을 조기 발견하려면.<br/> “콩팥암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암의 원인으로 꼽히는 흡연도 콩팥암과 그리 연관되지 않습니다. 유전과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할 뿐이죠. 그래서 콩팥암 예방보다 조기 발견이 무척 중요하죠. 10대 호발암에다, 전이성 암으로 진행된 경우 5년 생존율이 20~30% 밖에 되지 않지만 아직까지 경각심이 부족해 국가 암검진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반드시 복부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암을 조기 발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니까요.”<br/><br/>-어떻게 치료하나.<br/> “전에는 콩팥암을 수술할 때 대개 콩팥 전체를 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콩팥 기능을 보존하려고 모두 잘라내는 전(全)절제술에서 암이 있는 부분만 잘라내는 부분절제술로 수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또 최근에는 의료장비와 수술기법의 발전으로 배를 가르는 수술(개복수술)에서 ‘복강경 부분절제술’이나 ‘로봇 복강경 부분절제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콩팥암 크기가 4㎝ 이하일 때 콩팥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게 원칙이죠. 이 경우 전절제술과 암 재발률 등의 치료결과가 같다는 것이 많은 연구논문을 통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br/>문제는 콩팥엔 혈관과 요로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술 도중 대량 출혈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후복막강을 이용하는 로봇수술은 복강 내 수술보다 좁은 공간에서 수술하다 보니 무척 어렵죠.”<br/><br/>사실 국내에서 이 같은 전문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은 흔치 않다. 서 교수가 ‘로봇수술의 대가’라는 명성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2007년부터 콩팥 전절제술 480례, 콩팥 부분절제술 로봇 500례, 복강경 270례, 개복수술 27례 등을 시행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부분절제술을 한 뒤 국소재발 0례, 원격전이재발률 0.8%의 놀라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br/><br/>-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까닭은.<br/> “비뇨기과에 복강경 수술이 도입될 때 마침 전공의를 시작해 수술 조수로 참여할 기회가 많았죠. 기존 개복수술은 손으로 하기에 손이 크면 수술할 때 시야 확보가 힘들 수 있지만, 복강경 수술은 팔 길이가 길고 힘이 셀수록 기구를 조작하기 좋다는 장점이 제게 잘 맞아떨어졌다고나 할까요. 덧붙이자면 환자들이 병을 치료할 때 낫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긍정적인 의지를 키워주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br/><br/>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말이 있다. 190㎝의 훤칠한 키에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서 교수에게서 겸손의 향기가 은은히 느껴진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br/><br/><서성일 교수에게 물어요><br/>Q. 초음파검사에서 왜 콩팥 크기를 재나.<br/> “콩팥이 커지면 대개 물혹이 생겼기 때문이다. 암이어도 콩팥이 커질 수 있다. 콩팥이 쪼그라들었다면 만성신부전일 수 있다. 콩팥 기능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뜻이다.”<br/>Q. 콩팥에 물혹이 있다면.<br/>“나이 들면 대부분 콩팥에 물혹이 생긴다. 이게 빨리 커지느냐가 문제다. 아무래도 물혹이 커지면 주변 조직을 압박하기에 통증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 초음파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br/>Q. 콩팥암이 콩팥 양쪽 모두 생길 수 있나.<br/> “아주 드물다. 반대편 콩팥으로 전이돼 생길 수도 있고, 동시에 양쪽 콩팥에 발생하기도 한다. 폰히펠-린다우병 같은 유전병이 있으면 양쪽 콩팥에 암이 생긴다. 콩팥암 수술을 한 사람을 추적 관찰해야 하는 이유의 하나다.”<br/>Q. 수술 후 합병증은.<br/> “출혈, 요누출, 장마비 등이 생기지만. 재발이 가장 큰 합병증이다. 20~30%에서 나타난다. 보이는 암은 다 없애도 세포단위로 전이되기 때문에 모두 알 수 없다. 또한 콩팥을 전부 떼내면 만성콩팥병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투석해야 할 수 있다.”<br/>Q. 수술 후 어떻게 하나.<br/> “수술 후 평균 6개월마다 혈액검사, 초음파검사를 하고, 전이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도 하면 좋다. 수술한 뒤 단백질 섭취도 줄여야 한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완전 분해돼 노폐물이 쌓이지 않지만 단백질은 노폐물이 생기기 때문이다.”

언론사: 한국일보-3-484.txt

제목: 윤종신이 신곡 재킷에 김성재 동생을 담은 이유  
날짜: 2017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0050754001  
ID: 01101101.2017032005075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마지막 순간’. 가수 윤종신이 24일 낼 신곡 제목이다. 싱글 앨범 재킷 사진이 특이하다. 모자를 쓴 사내가 한 여성의 사진을 들고 서 있다. 사진 속 남성은 1990년대 인기를 누렸던 남성 듀오 듀스의 멤버였던 고 김성재의 동생 김성욱씨다. 형의 뒤를 이어 가수로도 활동했던 김씨가 들고 있는 사진 속 인물은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다. <br/>윤종신은 왜 아내와 사별한 김씨의 모습을 앨범 재킷 사진으로 썼을까. 20일 윤종신의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윤종신은 형을 잃은 뒤 아내마저 먼저 떠나 보낸 김씨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 사진을 썼다.<br/>김씨는 형의 죽음으로 오랫동안 방황하다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지만, 그의 아내는 지난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두 달 전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지난달 방송된 EBS1 ‘리얼극장-행복’에서 어머니와 함께 서로 마음속에 쌓아뒀던 김성재 관련 아픔과 상처를 털어놔 시청자의 눈시울을 붉힌 바 있다. <br/>윤종신의 ‘마지막 순간’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나의 엄마,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연인에게 건네는 이야기가 담겼다. 윤종신으로부터 곡 주제를 들은 사진 작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를 그에게 소개해줬고, 두 사람이 이번 신곡 작업에 뜻을 모으게 됐다. <br/>이번 신곡은 매달 한 곡씩 신곡을 내는 윤종신의 ‘월간 윤종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윤종신이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JTBC 음악 예능프로그램 ‘팬텀싱어’의 우승팀인 포르테 디 콰트로와 함께 작업했다. 포르테 디 콰트로는 뮤지컬 배우 고훈정, 테너 김현수, 베이스 손태진, 가수 이벼리로 구성된 4인조다. <br/>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85.txt

제목: 릭 핸슨  
날짜: 2017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0050724003  
ID: 01101101.20170320050724003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기억할 오늘] 3.21<br/><br/>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포트 알버니(Port Alberni) 출신의 릭 핸슨(Richard “Rick” Hansen, 1957~)이 1985년 3월 21일 휠체어 세계일주 ‘Man in Motion World Tour’를 시작했다. 밴쿠버 오크리지 쇼핑몰을 출발한 그는 만 26개월 동안 4대륙 34개국 4만여km를 가로지른 뒤 87년 5월 22일 밴쿠버 BC플레이스 스타디움에 도착했다. 출발할 무렵엔 큰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여정이 이어지면서 세계 언론이 그를 주목했고, 투어를 끝낼 무렵 그는 국제적인 장애인 활동가가 돼있었다.<br/>핸슨은 15살이던 72년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 어려서부터 온갖 운동을 즐겨 중학교 시절 5개 종목에서 ‘올스타 어워즈’를 탔다고 한다. 그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고교를 졸업했고, 장애인으로선 처음으로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체육학과에 진학했다. 당연히 운동도 계속했다. 휠체어 배구와 농구, 휠체어 마라톤. 1980년과 84년 하계 장애인올림픽에 캐나다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땄고, 국제 휠체어마라톤에서도 3차례 우승하기도 했다.<br/><br/>지역 고교에서 배구와 농구 코치로 일하던 그를 자극한 것은, 1980년 골육종으로 잃은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차고 캐나다 횡단한 테리 폭스(Terry Fox, 1958~1981)의 ‘희망의 마라톤’이었다. 핸슨보다 1년 늦게 태어나 5년 늦은 77년에 장애인이 된 폭스는 의족 마라톤이라는 누구도 엄두내지 못한 멋진 일을 해내며 암과 장애에 맞섰다.<br/>핸슨이 휠체어 세계일주에 나선 것은 28세 때였고, 2,600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듬해인 88년 릭 핸슨 재단을 설립, 장애인 재활 및 삶의 질 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장애인 이동권 개선 캠페인과 교육, 차별 철폐 소비자 운동 등에 앞장섰고, 국제 비영리 장애인재활지원단체 ‘ICORD’의 중추로 참여했다. 프레이저 강 연어와 철갑상어 보호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87년 결혼한 아내(Amanda Reid)와 세 딸을 두었다.<br/>2013년 한 지역 언론이 그가 재단에서 고액 연봉(more than $400,000)을 받아왔고, 사적 기부로 생색을 내고는 같은 금액의 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들추며 그의 ‘위선’을 꼬집기도 했지만, 그건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함께 드러낸 기사였다. <br/>최윤필 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86.txt

제목: 녹차 추출물, 대장선종 예방 효과  
날짜: 2017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0050701003  
ID: 01101101.20170320050701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녹차 추출물이 대장선종 예방에 효과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br/> 대장선종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돼 장 안쪽으로 돌출돼 있는 상태로, 시간이 경과되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제거해야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장선종 진료환자는 13만명에 달한다.<br/> 이동호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은 내시경적 대장 용종절제술을 시행한 176명 환자 중 최종 임상시험을 완료한 143명의 임상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br/> 12개월간 진행된 연구결과, 매일 0.9g 녹차 추출물을 섭취한 복용군의 선종 발병률(72명 중 17명)은 23.6%로, 42.3%인 대조군(71명 중 30명)에 비해 18.7% 낮았다.<br/> 이번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아모레퍼시픽바이탈뷰티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는 최근 유럽 임상영양ㆍ대사증후군 공식 학회지인 ‘크리니컬 뉴트리션(Clinical Nutrition)’에 게재됐다. <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87.txt

제목: 대구북구보건소, ‘암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날짜: 2017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20050659001  
ID: 01101101.20170320050659001  
카테고리: 지역>전북  
본문: 대구북구보건소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을 맞아 24일 2~4시 대구 북구 칠성시장 내 NH농협은행 칠성동지점 앞에서 '암 예방 10대 수칙' 등을 홍보하는 주간캠페인을 연다.<br/>대구경북암지원센터 등과 함께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건강검진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국민 암 예방 수칙 실천 지침 등을 안내하고 홍보한다. 또 대장암 검진 채변통과 암예방 리플릿도 나눠준다.<br/>암을 극복한 주인공인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보건소와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암 검진은 물론이고 금연, 절주, 영양관리, 운동 캠페인 등의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br/>윤창식기자 csy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88.txt

제목: 항암주먹에 혼쭐난 골로프킨…23연속KO 행진에 제동  
날짜: 2017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19050536001  
ID: 01101101.20170319050536001  
카테고리: 스포츠>올림픽\_아시안게임  
본문: 현역 미들급 최강자 게나디 골로프킨(35ㆍ카자흐스탄)의 23경기 연속 KO퍼레이드에 마침내 제동이 걸렸다. <br/>골로프킨은 1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세계복싱평의회(WBC)ㆍ세계복싱협회(WBA)ㆍ국제복싱협회(IBF) 미들급 통합 타이틀전에서 골육종 암을 극복한 다니엘 제이콥스(30ㆍ미국)를 12라운드 끝에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115-112, 115-112, 114-113)으로 이겼다. <br/>이로써 18차 방어에 성공한 골로프킨은 37전 전승(33KO) 무패 전적을 이어갔지만 2008년부터 계속된 23경기 연속 KO승 행진은 끊겼다. 골로프킨이 KO가 아닌 판정으로 승리한 것은 2008년 6월 이후 8년 9개월 만이다. <br/>92%에 달하는 KO승률을 자랑할 정도로 골로프킨의 트레이드 마크는 화끈한 주먹세례다. 하지만 이날 ‘항암 주먹’ 제이콥스를 만나서는 고전했다. WBA 챔피언 제이콥스는 이날 경기 전까지 32승(29KO) 1패를 기록 중이었다. 5년전 골육종을 이겨낸 기적의 복서 제이콥스는 초반 열세를 보였으나 후반에는 위협적인 펀치를 잇달아 날렸다. 하지만 4라운드에 다운을 빼앗긴 것이 뼈아팠다. 제이콥스는 앞선 경기까지 단 두 차례만 다운을 허용했다. 경기 후 컴퓨박스 기록 집계에 따르면 골로프킨은 615차례 펀치를 날려 231번(38%) 적중시킨 반면 제이콥스는 541회 펀치 중 175번(32%)의 유효타를 날렸다.<br/>공격형 인파이터의 대결답게 화끈하게 주먹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초반에 둘은 탐색전에 집중했다. 골로프킨은 왼손 잽으로 기선을 잡았고, 점점 압박 강도를 높였다. 그리고 4라운드에서 왼손에 이은 오른손 펀치를 제이콥스의 안면에 적중시키며 다운을 빼앗았다. 이 다운으로 골로프킨이 쉽게 승리하는 듯 했지만 제이콥스는 5라운드부터 오소독스(오른손)에서 사우스포(왼손)로 번갈아 자세를 잡는 변칙 복싱으로 흐름을 가져왔다. 제이콥스는 골로프킨이 움직임을 잘 잡아내지 못하자 연타 공격으로 점수를 쌓았다. 골로프킨은 후반 라운드까지 제이콥스에게 끌려가며 주먹을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초반에 쌓아놓은 점수를 끝까지 지켜 판정승으로 웃었다. <br/>골로프킨은 한국계 복서로 잘 알려졌다. 외할아버지가 고려인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여성과 결혼해 딸 엘리자베스 박을 낳았고, 엘리자베스는 카자흐스탄 화학연구소에서 러시아인 남편과 슬하에 골로프킨 등 네 명의 아들을 출산했다. 골로프킨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라이트미들급 금메달, 2003년 방콕 세계선수권 미들급 금메달,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미들급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6년 5월 프로로 데뷔한 골로프킨은 승승장구하며 무패복서로 거듭났다.<br/>골로프킨은 경기 후 “<span class='quot0'>제이콥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복서로 존경한다</span>”라고 말했지만 제이콥스는 “<span class='quot0'>나는 내가 최소 2라운드에 걸쳐서 이겼다고 생각한다</span>”라며 판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미 CBS스포츠는 114-114로 무승부로 점수를 매겼다.<br/>김지섭기자 oni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89.txt

제목: [기고] 암, 이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짜: 2017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19050513002  
ID: 01101101.2017031905051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무엇일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암을 떠올릴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국민걱정질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13.6%의 국민이 암을 가장 걱정되는 질병으로 답했다고 한다. <br/>정부는 암 예방과 암 치료, 그리고 생존자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1995년부터 10년 주기로 ‘암 정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암 예방에 대한 인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벌써 10년째를 맞는다.<br/>그간 암 정복을 위해 정부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5대 암(위암ㆍ대장암ㆍ간암ㆍ유방암ㆍ자궁경부암)에 대한 국가 암검진 사업 시행, 저소득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 및 확산 등이 바로 그것이다.<br/>이런 암 관리 정책은 암 환자의 감소와 생존율의 증가라는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졌다. 2014년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암 발생률이 289.1명으로 2012년 323.3명에 비해 10% 이상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2010~2014)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한 생존률)은 70.3%로 10년 전인 2001~2005년(53.9%)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br/>그러나 여전히 매년 20만명 이상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도 연간 7만여건에 달해 암에 대한 보다 체계적 예방ㆍ관리와 전주기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br/>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 이러한 문제인식을 담아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암 관리 정책이 조기검진과 치료에 집중했다면, 제3차 계획은 치료 후 생존자와 말기암 환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도 주목한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br/>늘어나는 암 생존자에 대한 의료적,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 암센터를 기반으로 통합지지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전달체계도 정비해 작년부터 진행한 시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원형)이지만 앞으로는 의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이뤄진 호스피스 팀이 가정(가정형)이나 일반 병동(자문형)에 입원한 암 환자를 방문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br/>기존 암 예방 및 검진정책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30갑년(하루 평균 1갑 이상을 30년 간 흡연했음을 의미)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가 암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br/>암에 대한 연구도 보다 체계화하여 암 관련 임상 및 연구자료 등을 종합한 암종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3대 전이암(폐암ㆍ위암ㆍ대장암) 환자 1만명의 유전체 자료를 확보하고, 정밀의료를 활용한 항암임상시험도 실시하여 새로운 암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br/>아울러 작년 9월 한미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암 정복을 위한 3국간 협력을 다짐하는 등 암 정복을 위한 국제협력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의 암 관련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여 암 연구 및 치료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br/>“<span class='quot0'>암의 3분의 1은 발생 전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화가 가능하다.</span>” 세계보건기구(WHO)는 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제 암은 무섭고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간단한 운동을 하며 술과 담배를 피하는 등의 암 예방 건강수칙을 지킨다면,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가 곧 펼쳐질 것이라고 믿는다.<br/>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언론사: 한국일보-3-490.txt

제목: 무패가도 골로프킨 ‘항암 주먹’ 제이콥스 만났다  
날짜: 2017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17050612001  
ID: 01101101.20170317050612001  
카테고리: 스포츠>스포츠일반  
본문: 미들급 역대 최강의 복서로 평가 받는 게나디 골로프킨(35ㆍ카자흐스탄)이 타이틀 방어를 위해 링에 오른다.<br/>골로프킨은 1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세계복싱평의회(WBC)ㆍ세계복싱협회(WBA)ㆍ국제복싱협회(IBF) 미들급 통합타이틀전에서 ‘기적의 복서’ 다니엘 제이콥스(30ㆍ미국)와 맞붙는다. 골로프킨은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복서다. 프로 통산 전적은 36전 36승(33KO)이다. 이중 23경기 연속 KO승을 거둘 만큼 ‘돌주먹’을 자랑한다. 23경기 중 18경기는 3라운드 안에 KO로 마무리했다. 무패행진과 함께 91.7%의 경이적인 KO율이다. <br/>골로프킨은 한국계 복서로도 잘 알려졌다. 외할아버지가 고려인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여성과 결혼해 딸 엘리자베스 박을 낳았고, 엘리자베스는 카자흐스탄 화학연구소에서 러시아인 남편과 슬하에 골로프킨 등 네 명의 아들을 출산했다. <br/>쌍둥이 동생과 함께 8세 때 복싱을 시작한 골로프킨은 2002년 한국 땅을 처음 밟아 부산아시안게임 라이트미들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2003년 방콕 세계선수권 미들급 금메달,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미들급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6년 5월 프로로 데뷔한 골로프킨은 승승장구하며 거의 모든 복싱 기구의 미들급 타이틀을 거머쥐었다.<br/><br/><br/>미들급의 제왕이 된 골로프킨은 이번에 상대를 제대로 만났다. 상대는 33전 32승(29KO) 1패의 미들급 랭킹 2위 제이콥스다. 제이콥스는 골육종을 이겨낸 ‘기적의 사나이’로 불린다. 2011년 골육종(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진단을 받아 “복싱은커녕 걷지도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2012년 10월 암을 극복하고 링 위로 돌아왔다. 당시 조쉬 루터란과 복귀전에서 1라운드 KO승으로 건재함을 알린 뒤 2014년 8월 WBA 정규 미들급 세계 챔피언을 획득했다. 그리고 지난해 네 차례 방어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br/>이들의 대결은 공격형 인파이터의 격돌이라서 불꽃 튀는 주먹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r/>김지섭기자 oni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91.txt

제목: 성과 높은 국가암검진, 대상자 절반은 외면  
날짜: 2017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17050851002  
ID: 01101101.20170317050851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효과 불신해 비지정기관서 받고<br/>저소득층은 치료비 때문에 부담<br/><br/>2015년 한 해 3만명 암 발견<br/>“질 높이고 비급여 항목 줄여야<br/><br/>자영업자 남성 A(49)씨는 지난해 3월 위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겪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기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암 검진을 받기로 했다. A씨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일반 검진 대신 국가 암 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 위암 초기 진단을 받은 A씨는 그 해 4월 같은 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조기에 발견한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A씨는 수술비와 입원비 등 전체 치료비 약 1,800만원 중 400만원만 자비로 부담하면 됐다. <br/>도입 18년차인 국가 암 검진이 암의 조기 발견에 적잖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대상자 중 실제 검진을 받는 비율(수검률)은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한 불신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게 과제라는 지적이다. <br/>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국가 암 검진에서 암 또는 암 의심으로 진단 받은 환자는 ▦위암 1만6,715명 ▦대장암 4,760명 ▦간암 2,352명 ▦유방암 4,772명 ▦자궁경부암 587명 등 총 2만9,186명이었다. 그 해 전체 국가 암 검진 수검자 수는 974만9,039명이었는데 이중 3만명 가까이가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것이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 간암은 40세 이상 남녀 중 특정 간질환 환자,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등이다.<br/>대상자라면 누구나 국가 암 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6,348곳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데 비 지정기관의 암 검진보다 비용이 훨씬 싸다. 올해 기준으로 건보 가입자 중 소득 상위 50%는 국가 암 검진 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 비율이 10%다. 5개 암 검진을 동시에 다 받는다고 해도 본인 부담비율은 약 2만5,000원에 불과하다. 특히 건보 가입자 중 소득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암 검진은 프로그램 별로 1회 비용이 100만~150만원에 달한다. <br/>이렇게 괜찮은 조건에도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중 실제 검진을 받는 비율(수검률)은 지난해 49.3%에 머물렀다. 매년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친다.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으면 본인 손해인데,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 국립암센터 조사 결과 검진을 받지 않는 이들 5명 중 2명 정도는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비 지정기관에서 암 검진을 받고, 나머지 3명은 국가 암 검진 제도를 모르거나 알고도 외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br/>전문가들은 국가 암 검진의 질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보장성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열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아직 국가 암 검진의 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검진 전문 인력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검진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전문가들과 협력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거엔 국가 암 검진에서 음성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암으로 확진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고, 어려운 의학 용어가 들어간 검진 결과만 우편으로 배달되다 보니 ‘고생해서 검진 받아 봐야 소용이 없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br/>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암 치료에는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아 치료비 부담 탓에 검진 자체를 피하는 저소득층이 아직도 많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을 줄여가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수검률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92.txt

제목: 불길 속 노인 구한 니말씨 외국인 첫 ‘LG 의인상’  
날짜: 201703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15050911002  
ID: 01101101.20170315050911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불길에 갇힌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니말(39ㆍ사진)씨가 ‘LG 의인상’을 받았다. LG가 이웃을 위해 용기를 낸 이들을 기리기 위해 2015년 의인상을 제정한 이후 첫 외국인 수상자다.<br/>LG복지재단은 지난달 10일 경북 군위군의 주택 화재 현장에서 치솟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해낸 니말씨에게 의인상과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br/>어머니 암 치료비 마련을 위해 5년째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니말씨는 불길이 거세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구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얼굴과 폐 등에 화상을 입어 3주간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니말씨는 “평소 따뜻하게 보살펴 준 마을 어른들이 고마워 용기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br/>LG복지재단은 지난 11일 서울 용문동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에서 일가족을 구조한 용산소방서 소속 김성수(43)소방장과 최길수(34)소방사에게도 같은 상을 수여했다. 이들은 3층에서 가족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방화복을 입은 몸으로 불길을 막았다. 최씨는 허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김씨도 얼굴과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br/><br/>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93.txt

제목: “검찰 수사권 분리ㆍ공수처 신설”… 대선주자들, 개혁 전면전 선포  
날짜: 201703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15050922002  
ID: 01101101.20170315050922002  
카테고리: 정치>행정\_자치  
본문: 문재인ㆍ안철수 등 한목소리<br/>안희정 ‘검찰 분권화’ 제안<br/>이재명 “검사장 직선제를”<br/>구 여권 주자도 “개혁 공감” <br/><br/><br/><br/>차기 대선주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기관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가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부채질하는 셈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정권 초기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br/>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검찰개혁의 첫 단계로 무소불위의 원천인 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 분리와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원 등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span class='quot0'>국가를 좀먹는 암 덩어리들을 송두리째 도려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막을 수 없다</span>”면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신설을 검찰 개혁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검사장 중심의 검찰 분권화까지 제안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예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처럼 각 지방 검사장을 주민투표로 뽑자는 것인데 이 시장은 “<span class='quot1'>현재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만 유권자가 뽑은 검사장은 국민의 눈치를 볼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구 여권 대선주자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수사권 분리를 둘러싸고는 다소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제3의 조직으로 ‘수사청’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span class='quot2'>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경찰 조직이 대안이 될 수 없다</span>”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는 원론적으로 찬성이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두 주자 모두 공수처 도입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br/>국정원 역시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야권에서 벼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 및 수사기능은 전면 폐지하고 대북 및 해외ㆍ국제 범죄를 전담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안 지사도 “<span class='quot3'>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대북정보, 해외정보 수집에 집중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겠다</span>”고 발을 맞췄다. 국정원의 정치 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한 이 시장은 차기 정부에서 해외정보 업무를 제외한 모든 국정원 기능과 조직을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다. <br/>대선주자들이 권력기관 개혁을 앞다퉈 내걸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차기 정권이 권력기관 개편에만 몰두한다면 오히려 정국이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력기관 개혁에 관련한 대다수 사안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보수 진영이 부정적인 대목도 걸림돌이다. 앞서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은 9차례나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조차 가지 못한 채 폐기된 경험에 비춰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br/>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94.txt

제목: “제 남편과 결혼하실래요?” 공개구혼 암 투병 美 작가 하늘나라로  
날짜: 2017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14050809001  
ID: 01101101.20170314050809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을 남편을 걱정, 신문 칼럼을 통해 남편의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찾았던 미국의 유명 동화작가 에이미 크라우즈 로즌솔(51)이 끝내 숨을 거뒀다.<br/>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로즌솔이 난소암 투병 끝에 이날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남편의 새 동반자에 대한 공개 구혼 글로 세상에 감동을 준 지 10일 만이다.<br/>2015년 9월 난소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던 로즌솔은 지난 3일 뉴욕타임스(NYT)에 26년을 함께 한 로맨티스트 남편에게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새로운 동반자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남편과 결혼하실 분을 찾습니다(You May Want to marry My Husband)’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5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수많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다.<br/>시카고 출신인 로즌솔은 광고 업계에서 일하다 전업 작가가 됐다. 이후 꾸준히 집필 활동을 하면서 ‘유니 더 유니콘’, ‘덕! 래빗!’ 등 베스트셀러를 포함, 30권 이상의 동화책과 자서전을 남겼다. 집필 활동 외에도 지식강연 테트(TED)에 출연하거나 미국 공영라디오방송인 NPR에서 해설을 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쳐 왔다. <br/>생전 베풀었던 선행(善行)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로즌솔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나무에 달러 지폐를 매달아 둔다거나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돈을 놓아 두는 등 작은 선행을 몸소 실천해 왔다. 그는 2010년 시카고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거나 선행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평소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br/>구단비 인턴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95.txt

제목: [태블릿+] 반복되는 혈액부족, ‘페린젝트’ 가 대안  
날짜: 2017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13050745001  
ID: 01101101.2017031305074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겨울ㆍ여름방학 때만 되면 혈액이 부족해진다. 최근에는 폐기되는 혈액까지 늘어 지난해에만 8만 명이 헌혈한 혈액을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 폐기됐다. 폐기혈액이 늘면서 혈액부족은 더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헌혈 독려에 그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원하다.<br/>이런 가운데 수혈 대체요법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 중국 등에서는 수혈 감소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지난 5년간 수혈을 40% 가량 줄였고, 중국도 일찌감치 수혈 감소정책으로 바꿨다.<br/>이는 혈액수급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수혈 부작용도 줄이기 위해서다. 수혈은 다른 혈액세포가 섞이는 과정을 거치기에 장기이식과 다를 게 없다. 또 혈액 보관 과정에서 적혈구가 변형되기에 수혈 부작용이 의외로 많다.<br/>국내 병원은 응급수단인 수혈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본부의 수혈 가이드라인은 수술 후 헤모글로빈 농도가 7g/dL 이하로 권장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br/>병원 내 혈액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용량 정맥철분주사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수혈을 줄이는 방법으로 간염, 에이즈 감염과 각종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 또, 암을 비롯해 인공관절, 제왕절개, 심뇌혈관질환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수술 후 회복이 빨라질 수 있어 치료비도 줄일 수 있다.<br/>대표적인 고용량 정맥철분주사제가 JW중외제약의 ‘페린젝트’다. 이 주사제는 1,000㎎의 고용량 철분을 15분 만에 신속히 몸에 투여해 수혈을 줄이는 데다 간편하다는 게 장점이다. 기존 정맥철분주사제는 고용량 투여가 어려워 병원을 여러 번 가야 했고, 1회 투여할 때 40분 이상 걸린다.<br/>고용량 정맥철분주사제는 적혈구 구성성분인 철분을 정맥을 통해 넣어 핏속 적혈구 용적률(헤마토크리트)과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농도를 늘리는 제제다.<br/>수술하기 전에 고용량 정맥철분주사제를 투여해 헤모글로빈 농도를 적절히 유지해 불필요한 수혈을 줄이고, 수술한 뒤 투여해 헤모글로빈 농도를 신속히 개선할 수 있다. 실제로 대장절제수술을 받기 전에 고용량 정맥철분주사제를 맞은 환자는 9.9%가 수혈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38.7%가 수혈을 받았다. 수혈 환자의 70%정도가 대체효과를 거둔 것이다.<br/>미국 덴버에서 열린 ‘2016년 미국수면의학회(AASM)’에서 효과ㆍ안전성이 입증된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철분주사요법이 소개됐다. 조용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신경과 교수의 임상연구 결과다. 조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함께 2014년부터 2년간 하지불안증후군 환자 32에게 고용량 정맥철분주사제 ‘페린젝트 1,000㎎’를 1회 투여한 결과, 위약을 투여한 32명보다 6주차부터 증상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페린젝트를 맞은 환자 가운데 3분의 1은 30주 동안 추가 치료약물이 없어도 효과가 유지됐다. 무수혈 치료는 미국 등 20여 나라에서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는 30개 병원에서 쓰이고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496.txt

제목: 고온에 약한 암세포 파괴... 혈액암 외 모든 암에 적용  
날짜: 2017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13050743001  
ID: 01101101.2017031305074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 세계 사망 원인 2위가 암이다(세계보건기구). 암환자 6명 가운데 1명이 목숨을 잃는다. 암을 이기려는 연구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치료법이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주목 받는 것이 ‘고주파온열암 치료법’이다. <br/><br/>Q. 고주파온열암 치료는.<br/>“암세포는 고온에 취약해 42도의 열만으로도 저절로 죽는다. 이를 이용한 치료법이 바로 고주파온열암치료다. 38.5~42.5도의 열을 가해 암세포의 세포막을 파괴해 없앤다. 우리 몸에 13.56MHz의 고주파 전류를 흘리면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등이 많은 곳으로 흐른다. 정상세포는 이런 이온 농도가 매우 낮지만 암세포는 이온 농도가 매우 높아 전류가 암세포로 집중적으로 몰린다. 그러면 암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외액을 따라 고주파가 흐르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연히 괴사하게 된다.”<br/><br/>Q. 치료법은 안전한가.<br/>“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세포분열 속도가 빠르다. 먹는 항암제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 세포분열이 빠른 암세포를 찾아내 죽인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세포분열 속도가 빠른 정상세포도 있는데 이도 같이 죽이는 게 문제다. 항암 치료를 할 때 머리털이 빠지고 구강점막 위점막 대장점막이 헐며 골수세포가 죽어 백혈구 생성을 못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치료법은 이런 부작용이 없다. 고주파전류 덕분에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죽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시행되는 암치료법 중에 가장 부작용 걱정이 적고 안전하며 효과적이다.”<br/><br/>Q. 어떤 환자에게 적용하나.<br/>“원칙적으로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고형암 치료에 사용될 수 있고 뇌종양 치료에도 활용된다. 하지만 고주파를 이용하기에 심장박동기를 넣은 환자나 인공관절 같이 큰 금속 물질을 몸에 넣은 환자, 골수이식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 임산부에게서는 치료할 수 없다.”<br/><br/>Q. 몇 번 치료하면 되나.<br/>“한 번 치료할 때 60분 정도 걸리며, 주 2~3회 시행한다. 사람마다 혈류속도가 다르고 항암 약물치료를 병행할 때는 치료 주기가 달라 치료 횟수와 걸리는 시간이 바뀔 수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양대식 고대 구로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3-497.txt

제목: [카드뉴스] ‘넘나 사랑스러운’ 기린의 모든 것  
날짜: 2017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13050610002  
ID: 01101101.20170313050610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긴 목과 두 개의 뿔, 특유의 얼룩 무늬가 특징인 기린. <br/>현존하는 육상 동물 중 가장 큰 키로도 잘 알려진 기린은 사실 신체 구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기린은 사실 고혈압을 평생 조심해야 하는 환자이기도 하고, 또 목소리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기린의 숨겨진 매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br/><br/>기획·디자인= 백종호 디자이너<br/>도움말=최종욱 광주 우치동물원 수의사<br/><br/><br/><br/><br/>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br/>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br/>관이 향기로운 너는<br/>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br/>노천명 시인 - 사슴 中<br/><br/>노천명 시인은 기린을 몰랐나 보다.<br/>육상에서 가장 큰 동물 기린.<br/>기린에 대해 알아보자!<br/>기린은 암 수 모두 뿔이 있다.<br/>기린의 뿔은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신께서 암 수 모두에게 일부러 왕관을 씌워준 것처럼 단순하면서도 우아하며 부드러운 가죽으로 둘러 싸여 있지.<br/>기린은 고혈압 환자.<br/>기린은 선천적으로 고혈압 환자라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지. 그래서 화내면 안돼!<br/>기린은 목소리가 없다.<br/>심지어 태어나는 순간조차 울지 않지. 하지만 큰 귀로 듣는 건 잘함.<br/><br/>기린의 앞발 차기는 강력하다.<br/>그 발차기에 제대로 걸리면 아무리 사자라도 치명상을 입지.<br/><br/>기린은 네발 달린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수영을 못한다.<br/>아마도 긴 목 때문이 아닐까?<br/><br/>좌우지간 기린은 사랑스럽다.<br/><br/><br/>☞ 카드뉴스 더 보기 : 고아 코뿔소와 길고양이의 우정

언론사: 한국일보-3-498.txt

제목: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작가 로버트 제임스 월러 별세  
날짜: 2017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12050520001  
ID: 01101101.20170312050520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중년 로맨스를 그린 세계적 베스트셀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쓴 로버트 제임스 월러가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자택에서 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br/>AP통신에 따르면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마을에서 한적한 삶을 살고 있던 주부 프란체스카 존슨과 촬영차 마을을 찾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 로버트 킨케이드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렸다. <br/>작품은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았지만, 1992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후 최근까지 전 세계 40개국어로 번역돼 1,200만부 이상 판매됐다. 월러는 “운전을 하며 매디슨 카운티를 지나다가 그 다리를 사진으로 찍었다. 집에 온 후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나에게 일어나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한바 있다.<br/>무명이던 월러는 이 소설로 백만장자가 됐으며, 아이오와 주의 매디슨 카운티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 1995년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메릴 스트리프 주연의 영화로 제작됐으며, 뮤지컬로는 2014년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돼 큰 인기를 누렸다.<br/><br/>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499.txt

제목: 흡연 여성, 비흡연 여성보다 혈액 속 독성 물질 3배 더 많아  
날짜: 2017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10050635002  
ID: 01101101.20170310050635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보다 혈액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도가 최대 3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내분비계장애물질로도 불리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은 다이옥신,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디디티(DDT), 과불화화합물(PFCs) 등의 독성물질 26종을 총칭한다. 이들 유해물질은 동식물에 축적돼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출산장애, 암 등을 일으킨다.<br/>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한국 암예방 연구에 참여한 21∼73세의 건강한 성인 401명(남 232명, 여 169명)을 흡연자(190명)와 비흡연자(211명)로 나눠 혈청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연구는 식약처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국제학술지 '역학저널'(Journal of Epidemiology) 최근호에 발표됐다.<br/>연구팀은 조사 대상자의 혈액을 채취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속하는 폴리염화바이페닐(PCBs)과 DDT 등의 유기염소계 살충제(OCPs) 잔류농도를 측정했다. 이 중에서도 PCBs는 변압기, 절삭유, 절연유 등 다양한 산업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물질로,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세계 각국에서 취급이 금지된 물질이다. <br/>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흡연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간 상관관계가 컸다. 여성의 경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폴리염화바이페닐(PCB 156, PCB 167, PCB 180) 농도가 최소 2.7배에서 최대 3.5까지 높았다. 남성에서도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견줘 다이옥신류로 분류되는 PCB 157의 농도가 2.3배에 달했지만, 다른 성분들은 여성의 위험도에 미치지 않았다.<br/>폴리염화바이페닐 성분뿐만 아니라 디디티 등의 유기염소계 살충제 농도도 여성의 경우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의 3.2배에 달했다. 이런 성별 차이를 두고 연구팀은 “여성이 남성보다 체내 대사능력이 떨어져 독성물질을 체외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해외에서는 이런 이유로 흡연하는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br/>전문가들은 담배를 피울 때 담배 자체로서도 유해물질 축적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담배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대기 중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함께 흡입돼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br/>연구팀은 “체내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쌓이면 그만큼 건강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법적 규제를 통해 이들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한국인의 경우도 흡연자의 체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도가 높다는 게 확인된 만큼 향후 위해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r/>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00.txt

제목: [내 고장 의회] 경북도의회, 저출산 대책 등 조례안 잇따라 발의  
날짜: 2017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08050933001  
ID: 01101101.20170308050933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경북도의회가 16∼30일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잇따라 내놓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br/>이태식(구미) 의원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지사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홍보에 대한 사업 추진근거도 마련했다.<br/>황이주(울진)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경북도 암 센터에서 암 예방 및 조기검진, 암환자 및 보호자 등 교육사업,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암 예방지도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대 암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암 예방 및 암 관리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br/>이영식(안동) 의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민?관 자원을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운용되도록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br/>이 의원은 산불에 대한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진화능력 향상 등을 위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냈다. <br/>박정현(고령) 의원은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위원회 구성과 회의, 공익신고센터 설치, 보상금 포상금 지급 등을 규정했다.<br/>정영길(성주) 의원이 발의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원연합회의 책무와 사업대상을 명시하고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의 근거를 마련, 지역문화사업의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하도록 했다.<br/>도기욱(예천) 의원은 사회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냈다. <br/>김창규(칠곡) 의원은 도내 초등학생의 물놀이 위기 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규정 미비점을 보완한 ‘경북도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br/>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br/><br/>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01.txt

제목: [애니꿀팁] ‘반려동물 암 늘고 있다’ 혹시 우리 개도?  
날짜: 2017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08050904003  
ID: 01101101.20170308050904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 달 10살난 하얀 풍산개가 주인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최근 1주일 간격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잠시 동안 쓰러졌다가, 다시 괜찮아지기를 두 차례 반복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기 때문이다.<br/>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을 가누지 못한 증상은 경련이다. 경련을 유발하는 질병은 다양하지만 다른 증상이 전혀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짧은 경련이란 점을 감안하면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우선 일반 신체검사,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예상대로 검사상 어디에도 이상 수치 및 소견은 없었다. 확진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 하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짧은 경련 증상은 MRI 촬영 직전, 다시 한번 나타났다. MRI 검사를 끝내고 환자는 마취에서 원활히 잘 회복됐지만 검사 결과는 뇌종양이었다. 불행히도 뇌종양 중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악성도가 높은 종양이었다. 뇌에 생긴 종양으로 인해 주위 뇌 조직에 부종이 생기고 뇌압이 상승해서 경련 증상이 발생한 것이었다.<br/>환자는 뇌압을 떨어뜨리는 감압 처치를 받고 내복약 처방을 받아서 다시 먼 곳의 집으로 귀가했다. 현재 항암제와 항경련제 등을 먹고 있는데 다행히 2주 동안 이상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암 덩어리가 어떻게 변덕을 부릴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br/>요즘 우리나라 성인 사망률 원인 1위가 암이라는 통계도 있지만, 우리나라 반려동물도 노령화와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흔히 발생하는 암은 유선암, 전립선암, 림프종(lymphoma), 혈관육종(Hemangiosarcoma), 비만세포종(Mast cell tumor), 흑색종(Melanima), 골육종(Osteosarcoma), 악성 조직구종(Malignant Histocytosis) 등이다. <br/>평소 반려동물에게 ▦식욕감퇴 ▦체중감소 ▦낫지 않는 상처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 ▦먹거나 삼키는 것을 힘들어함 ▦체력감소 ▦운동을 꺼림 ▦지속적으로 다리를 절거나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함 ▦힘들게 숨을 쉼 ▦배변 배뇨를 힘들어함 ▦지속적으로 자라는 혹 등의 증상이 보이면 암을 의심해봐야 한다.<br/>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적 제거,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면역요법 등이 있고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완화치료, 통증 컨트롤, 영양관리 등과 같은 보존치료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br/>최근 한 바이오 회사와 공동으로 면역증강세포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많은 연구 과제가 남아있지만 좋은 암 치료제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br/>암 환자의 식이 상엔 충분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다른 영양분이 공급돼야 한다. 탄수화물은 암세포가 직접 이용하는 영양분이므로 암에 걸린 개에게 탄수화물만 급여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 보고가 있지만, 근거는 부족하다.<br/>반대로 지방은 환자의 이용률은 높고 암세포의 이용률은 낮은 에너지원이다. 일부 불포화지방산(오메가-3)은 암 치료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br/>단백질의 경우, 대부분의 암 환자가 아미노산 부족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소화율이 높은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이 유용하다.<br/>암 대부분은 환자에게서 증상을 발견하고 나서 진단을 한 이후에는 완치가 어렵다. 하지만 매년 정기 종합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완치도 가능하다. 7세 이상 반려동물은 매년 1회, 10세 이상 반려동물은 6개월 마다 종합 검진이 필요하다. 또한, 중성화 수술은 유선암, 전립선암, 자궁암, 난소암 등의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므로, 어렸을 때 해 주는 게 좋다. <br/><br/><br/>문재봉 수의사(이리온 동물병원 대표원장)<br/><br/><br/>▶ 동그람이 페이스북 바로가기<br/><br/>▶ 동그람이 카카오채널 바로가기

언론사: 한국일보-3-502.txt

제목: “남편의 새 부인 구합니다”… 시한부 女작가 ‘공개 구혼’  
날짜: 2017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07050848003  
ID: 01101101.20170307050848003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난소암 말기 투병 중인 미국의 여성 작가가 혼자 남게 될 남편을 위해 ‘공개구혼’에 나섰다.<br/>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시카고 출신 아동도서 작가 에이미 크라우즈 로즌솔(51ㆍ사진 왼쪽))은 지난 5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칼럼 코너인 ‘모던 러브’에 ‘제 남편과 결혼할래요’(You May Want to Marry My Husband)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br/>로즌솔은 글에서 26년간 행복한 결혼생활 후 갑자기 시작된 암 투병을 비롯해 남편인 제이슨 로즌솔(사진 오른쪽)을 향한 애정과 고마움, 이별의 아쉬움을 털어놨다.<br/>그는 먼저 “5주째 음식섭취를 하지 못한데다 진통제 모르핀의 영향으로 종종 의식이 흐릿해진다"며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사력을 다해 글을 쓴다”고 밝혔다. 이어 “막내딸이 대학에 진학하고 남편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던 2015년 9월 맹장염 증상으로 응급실에 갔다가 난소암 선고를 받았다”며 “적어도 26년은 남편과 함께 더 살 줄 알았다”고 아쉬워했다.<br/>본격적인 남편 소개에 들어간 로즌솔은 “키 178cm에 몸무게 73kg, 반백의 머리에 헤이즐 색 눈동자를 가졌다”며 남편의 겉모습부터 소개했다. 특히 “20대인 두 아들이 아빠 옷을 종종 빌려 입을 정도로 세련된 멋쟁이”라며 “퇴근길에 직접 장을 봐서 저녁을 만들어주는 로맨티스트에 집안 곳곳을 스스로 손보고 고치는 자상함을 갖췄다”며 좋은 남편임을 강조했다. <br/>로즌솔은 끝으로 “남편과 잘 어울릴 사람이 이 글을 읽고 남편에 대해 알게 돼 또 다른 러브스토리가 시작되길 소망한다”며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위해 칼럼 아랫면을 공백으로 남겨둔다고 덧붙였다.<br/><br/>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03.txt

제목: 기장군 “원전은 되고 연구로는 안되나”  
날짜: 2017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07050841004  
ID: 01101101.20170307050841004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오규석 군수 서울서 1인 시위…“방사선 의ㆍ과학 산단 좌초”<br/>원안위 “관련법에 따라 신청서류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br/><br/>“<span class='quot0'>원전은 되고 연구로는 왜 안 됩니까.</span>” <br/>미래창조과학부가 전국 공모를 거쳐 추진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사업’과 관련, 사업이 장기 지연되자 공모에 선정된 부산 기장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br/>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앞에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허가 촉구’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br/>오 군수는 이 자리에서 “<span class='quot1'>0.2ｇ(ｇ중력가속도)로 내진 설계 된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버젓이 가동하면서 0.3g(지진 규모 7.0)로 더 안전하게 내진 설계 된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은 왜 중단시키냐</span>”며 원안위를 비판했다.<br/>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암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대량 생산하고 중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에 활용되는 소형 연구설비를 말한다. <br/>미래창조과학부는 2010년 7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을 공모했다. 9개 지자체가 치열히 경쟁한 끝에 2010년 7월 30일 기장군이 사업자로 선정돼 비발전 분야를 선도할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사업비 3,512억원)에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을 준비해왔다. <br/>하지만 연구로 허가권을 가진 원안위가 지난해 경주지진(규모 5.8)이 발생한 뒤 활성단층 안전성 심사를 강화하면서 사업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사업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4년 건설허가 신청을 거쳐 애초 올해 3월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원안위의 허가가 늦어져 사업이 2년 정도 늦어졌다고 기장군 측은 주장했다.<br/>기장군은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원전과 건설의 목적과 규모가 다르다”며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안전하게 운영 중인 검증된 원자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열 출력은 발전용의 0.3%에 불과하고, 내진 설계도 신형 원전 기준인 0.3g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지진해일 피해를 입지 않게 고리원전보다 8배 이상 높은 해발 80ｍ 지점에 건설예정부지도 정했다. <br/>오 군수가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연구로 건설허가가 장기 지연돼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오 군수는 “<span class='quot1'>연구로 건설허가가 안 되면 2,500여억원이 투입된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기다리는 의료ㆍ바이오 기업과 파워 반도체 관련 30여개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고,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파워 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span>”고 우려했다.<br/>오 군수는 “<span class='quot1'>원안위가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을 왜 중단시켜 놓고 있는지 명백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이 안 된다면 0.2ｇ로 내진 설계 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 <br/>이에 대해 원안위 측은 “<span class='quot2'>경주지진 발생 후 안전성 심사 강화를 위해 관련법(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9조 2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어서 허가처리 기간(24개월 이내)이 적용되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04.txt

제목: 우리 지역 맛집 - ‘일월정’  
날짜: 2017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07050730001  
ID: 01101101.20170307050730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span class='quot0'>새까만 삼계탕 드셔보셨나요?</span>”<br/>“처음엔 새까만 삼계탕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한번 맛보고 나면 단골이 되지요.”<br/>대구 달성군 비슬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일월정’(전주연ㆍ56)은 새까만 삼계탕으로 유명하다. 전 대표가 음식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 개발한 ‘흑마늘을 이용한 삼계탕’, 일명 독계탕이다. 2011년 3월에 특허 등록을 마쳤다.<br/>독계탕은 삼계탕의 핵심인 인삼을 빼고 흑마늘을 넣어 만든 음식이다. 국내산 토종 육쪽마늘로 만든 흑마늘과, 육종용, 천궁, 황기, 구지뽕, 구기자, 엄나무, 대추를 소뼈, 닭뼈와 함께 가마솥에 3시간 가량 달인다. 다시 가마솥에 토종촌닭을 1시간 삶아 건져 살코기를 잘게 찢어 내고 완성된 육수를 뚝배기에 담고 찹쌀, 무 껍데기, 흑인자 등을 넣고 끓인다.<br/>전 대표의 음식 솜씨는 어머니에게 대물림된 실력이다. 친정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였다. 어머니에게 음식을 배워 어려서부터 솜씨가 남다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br/>식당을 운영한지는 33년, 독계탕을 내놓기 전에는 전통 한정식 집을 운영했다. 이때도 직접 재배한 각종 양념을 썼다. 거기에 전 대표의 손맛이 더해져 입소문이 났고 2011년에는 달성군 맛 집에 지정되기도 했다. <br/>흑마늘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가까운 사람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 여파가 전 대표의 식당에까지 미쳤다.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었다. 식당 매출도 고만고만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평소 염두에 두고 있는 ‘전혀 새로운 메뉴’ 개발에 들어갔다. <br/>독계탕 개발을 끝낸 후 손님들에게 “<span class='quot1'>대한민국 대표 건강 음식으로 만들겠다</span>”는 포부를 숨기지 않는다. 건강식답게 중장년층이 많이 찾는다. 주문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개중에는 환자가 적지 않다. 전라도에 산다는 모 암 환자는 “다른 음식은 목구멍에서 턱턱 걸리는데 독계탕은 소화가 된다”면서 “좋은 음식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왔다. 전 대표는 “흑마늘의 효능 같다”고 말했다. <br/>“<span class='quot0'>흑마늘이 일반 마늘과 비교해도 흡수율이 2배나 높고 폴리페놀 함량도 10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픈 분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span>”<br/>단체 손님도 늘었다. 대구테크노폴리스단지에 입주한 업체 등에서 많이 찾는다. 포장 판매도 점차 늘고 있다. 500g, 1Kg 제품을 각각 5천 원과 1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전국에서 주문이 오고 있다. <br/>맛과 영양을 더욱 강화해나갈 생각이다. 2층에 연구실을 두고 본격적으로 흑마늘 분말 가루에 야채 등을 가미해 유아용 이유식, 편의점 도시락 등으로 개발 중이다. 2018년부터 한정식을 모두 정리하고 ‘독계탕’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br/>전 대표는 “<span class='quot2'>엄선된 재료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가장 큰 행복</span>”이라며 “<span class='quot2'>특허 받은 독계탕의 맛을 대대로 전해 대한민국 대표 음식 중의 하나로 만들고 싶다</span>”고 말했다.<br/><br/>윤창식기자 csy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05.txt

제목: [나는 외과의사다] “유방암 진단ㆍ치료ㆍ재활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날짜: 2017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06050821002  
ID: 01101101.20170306050821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송병주 부천성모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교수, “<span class='quot0'>환자 살릴 기회 한번 뿐이란 마음으로 치료 전념</span>”<br/><br/> 이순(耳順)을 앞둔 나이에 직장 옮기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 특히 외과의사에게는 더더욱 모험일 수 밖에 없다. 새로 옮긴 병원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칫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br/> 지난해 12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부천성모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송병주(57) 유방갑상선외과 교수가 그랬다. “명의가 왔다”고 부천성모병원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지만, 의료계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유방암센터장, 암병원 진료부장, PI(Performance Improvement)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그의 자리바꿈은 그만큼 파격적이었다.<br/><br/>“<span class='quot1'>환자를 불편하지 않게 세심히 챙기려고 노력</span>”<br/> “출퇴근 거리가 좀 길어졌을 뿐 달라진 건 없어요. 부천성모병원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의사인생에서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병원장님을 비롯한 병원식구들이 ‘새내기’ 대하듯 잘해줘 감사할 따름입니다.”<br/>송 교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활기가 넘쳤다. 수술방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식구들은 그를 ‘3S(SexyㆍSensitivityㆍSmart) 교수’로 부른다. 그는 “<span class='quot1'>늘 환자입장에서 판단하고,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세심히 챙기려는 건 맞지만 섹시하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span>”며 손사래를 쳤다. 이직 두 달 만에 병원식구들에게 인정 받으니 생기가 넘칠 수밖에 없었다.<br/> 사실 송 교수가 자리를 옮긴 이유는 내년 6월에 문을 여는 ‘여성센터’ 때문이다. 새 병동 2층에 들어 설 여성센터는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암과 함께 갱년기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ㆍ신체적 무력감과 우울증 등의 진단과 치료, 재활 등을 제공된다. <br/> 부천성모병원 여성센터를 국내 최고 센터로 만들 수 있는 적임자로 송 교수가 낙점된 것이다. 송 교수는 “<span class='quot2'>부담이 크지만 지금까지 여성환자를 치료한 경험과 노하우를 여성센터 건립에 쏟아 부을 것</span>”이라고 했다.<br/> 화제를 돌려 ‘본업’인 유방암에 대해 질문하자 진지해졌다. 송 교수는 “<span class='quot2'>미국과 유럽에서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유방암 환자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40~50대 환자가 많은 게 특징</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유방암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여성이 소고기, 돼지고기 등 고기 섭취가 늘고, 운동이 부족해 비만인구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2'>비만해지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돼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span>”고 덧붙였다.<br/> 유방암은 참 고약한 암이다.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병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유방암은 수술만 하면 완치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유방암은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수술 전 협진 못지않게 수술 후 협진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야 유방암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br/><br/>“<span class='quot1'>환자 살릴 기회는 한번뿐이라는 생각으로 수술</span>”<br/> 부천성모병원은 송 교수 영입 후 유방암 수술 후 협진체계를 완벽히 구축했다. 수술 후 심혈관질환은 순환기내과가 맡고, 임파선 비대로 인한 통증은 재활의학과와 협진해 해결한다. 유방암 수술 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우울ㆍ불안장애 등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한다. 송 교수는 “<span class='quot2'>유방암을 치료하려면 외과의사는 수술뿐 아니라 수술 후 환자치료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뿐만 아니다. 과거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으려면 입원해야 했지만 외래에서 항암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술 후 입원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span class='quot2'>수술 후 2~3일 내 환자를 퇴원시키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환자가 항암치료를 외래에서 받으면서 예후는 물론 환자 삶의 질까지 좋아졌다</span>”고 말했다.<br/> 송 교수는 ‘칼잡이’로 불리는 전형적인 외과의사와는 다르다. “<span class='quot1'>수술만 잘하면 된다</span>”는 외과의사 특유의 고집보다 다른 과 전문의들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외과의사도 <span class='quot1'>수술만 잘하면 된다</span>는 생각에서 벗어나 조직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br/>송 교수에겐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외과의사로서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전공의 시절, ‘외과의사에게 사람을 살릴 기회는 한번 뿐’이라는 은사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술방에 들어갈 때마다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수술에 임합니다.”<br/> ‘가장 좋은 선(善)은 물과 같다’는 노자의 ‘상선약수(上善若水)’가 송 교수의 좌우명이다. 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른 이와 다투지 않고, 자신을 방해하는 요소도 포용한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 물처럼 강인한 외과의사를 만났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506.txt

제목: KB금융, 1인 가구 특화 일코노미 금융 패키지 출시  
날짜: 2017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06050623001  
ID: 01101101.20170306050623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은행ㆍ카드ㆍ보험ㆍ증권 등 계열사 총동원<br/>1인 가구 소비ㆍ건강ㆍ저축ㆍ투자 챙긴다<br/><br/>KB금융지주는 금융권 최초로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인 ‘KB 일(1)코노미 청춘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br/> 패키지는 KB금융의 5개 핵심 계열사가 참여한 6가지 상품으로 구성, ▦고객의 소비 ▦건강 ▦주거안정 ▦저축 ▦투자까지 1인 가구의 생활스타일에에 맞춰 설계됐다. <br/> 우선 KB국민은행은 1인 가구에게 필요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 폰 적용 적금인 ‘KB 1코노미 스마트 적금’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둔 ‘KB 1코노미 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한다. 적금에 가입할 경우 여행자보험, 생활안심보험 등을 제공하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인 가구에 금리 0.1%포인트를 할인해 준다. <br/> KB국민카드는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최적화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KB국민 청춘대로 1코노미 카드’를 내놓았다. 편의점 이용 시 20%, 음식ㆍ택시ㆍ공과금ㆍ인터넷쇼핑몰ㆍ이동통신 등 이용할 경우 5%를 적립해준다. <br/> KB손해보험은 암, 뇌ㆍ심장질환에 대한 걱정이 높다는 20~30대 1인 가구 대상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무)KB 1코노미 암보장 건강보험’을 출시했고, KB증권과 KB자산운용은 각각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인 ‘KB 1코노미 ELS/ELB’와 ‘KB 1코노미 주식형 펀드’를 각각 선보인다. <br/> KB금융 관계자는 “<span class='quot0'>1인 가구는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다른 생활 형태와 수요를 가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패키지를 시작으로 1인 가구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1인 가구 고객을 위한 대표 금융회사로 자리매김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 상품 출시에 맞춰 판매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고객 이벤트 ‘나를 위해 준비해, 봄(春)’을 진행하며, 이벤트 경품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상품인 유럽여행 상품권, 위니아 쁘띠 소형 김치 냉장고 등을 총 717명에게 제공한다. <br/> 한편 상품명에 포함된 ‘일코노미(1코노미)’는 김난도 교수 등의 저서인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 ‘1인’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를 합성한 신조어다. <br/>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07.txt

제목: 아스피린  
날짜: 2017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05050442001  
ID: 01101101.2017030505044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기억할 오늘] 3.6<br/>사전에 따르면 부작용(副作用)은 “어떤 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통제되지 않는 작용은 두려움의 원인이 되고 실제로 원치 않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작용은, 약 포장지에 쓰여 있듯이, 경계의 대상이다. 부작용을 부(否)작용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까닭도 단어가 지니는 부정적(否定的) 뉘앙스 때문일 것이다. <br/>하지만 부작용도 ‘작용’이고, 새로운 가능성이다. 남성 성기능 보조제 비아그라(Viagra)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비아그라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Pfizer)가 협심증(狹心症, 심장 근육에 흘러 드는 혈액이 이런저런 이상 때문에 줄어들어 유발되는 질병) 치료제로 개발하다 성기를 발기시키는 부작용을 발견, 연구 방향을 선회한 끝에 탄생했다.<br/>아스피린의 가치도 부작용 덕에 점증해왔다고 할 만하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문헌에까지 기원이 닿아있는 아스피린의 원료는 버드나무 추출물이다. 아스피린(Aspirin, 아세트산의 ‘A’와 버드나무 학명 ‘Spiraea’의 합성어)의 강장ㆍ진통 효과는 역한 맛 외에도 위장 장애 등 부작용 때문에 민간 요법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될 뿐 대중화하지 못하다가 1890년 독일 바이엘사의 23세 청년 펠릭스 호프만(Felix Hoffmann, 1868~1946)이 살리실산을 아세틸화해 먹기 편하고 위 점막 자극을 줄인 뒤부터 대중화했다. 그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였던 아버지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연구에 열을 올렸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바이엘사는 1899년 3월 6일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의 특허를 등록했다. 1914년, 초기의 가루 약을 알약 형태로 교체, 복용을 간편하게 하고 복용량을 표준화함으로써 더욱 대중화했다.<br/>과학자들은 1970년대 아스피린의 대표적 부작용인 위장 장애와 출혈 등 항혈액응고 현상의 원인이 주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의 혈소판 응집 차단 기능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부작용은 80년대 심근경색 및 일과성 뇌허혈 발작 재발방지 효능으로 재발견됐고, 아스피린은 어엿한 심혈관질환 예방의약품이 됐다. 근년에는 아스피린의 피부 염증 치료효과, 치매 및 암 예방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부작용이 개척해가는 길이 그렇게 넓다. <br/>최윤필 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508.txt

제목: ‘사극 전문’ 배우 민욱, 두경부암으로 별세  
날짜: 2017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02050713003  
ID: 01101101.20170302050713003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드라마 ‘형사 25시’와 ‘용의 눈물’ 등으로 유명한 배우 민욱이 암 투병 끝에 지난 1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70세.<br/>고인은 2015년 두경부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고인은 1968년 연극으로 연기를 시작해 다음해 KBS 8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드라마 ‘매천야록’ ‘형사 25시’ ‘용의 눈물’ ‘태조왕건’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싱글파파는 연애중’ 등에 출연해 묵직한 연기를 보여줬다. 2010년 KBS2 ‘결혼해주세요’ 이후 작품 활동이 뜸했으나 토크쇼에 출연하며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br/>유족으로는 부인 박정옥씨와 아들 경국씨 등 1남3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은 4일 오전 7시 40분. <br/>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09.txt

제목: 골수성백혈병 만성→급성 악화 원인, 14년 만에 최초로 규명  
날짜: 2017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302050615001  
ID: 01101101.2017030205061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김동욱ㆍ김홍태ㆍ명경재 교수팀<br/>발병 5~6년 항암제 내성 문제<br/>코블1 유전자의 상관관계 밝혀<br/><br/>만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 후 5~6년 후부터 급속히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고 병세가 악화하는 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14년의 연구 끝에 밝혀냈다. <br/>김동욱(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ㆍ김홍태(성균관대 생명과학과)ㆍ명경재(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교수팀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이 급성기로 전환하는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유전자 ‘코블1(Cobll1)’을 찾았다고 2일 밝혔다.<br/>만성골수성백혈병은 ‘필라델피아 염색체’를 지닌 조혈모세포의 클론(cloneㆍ세포 집단)에 이상이 생겨 골수 내 비정상적인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해 발생한다. 소아ㆍ청소년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성인형’ 백혈병이라 불린다. 유병률은 인구 10만명당 1,2명 정도다.<br/> 이 질환은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진단 초기에는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고 표적항암제도 잘 듣지만, 발병 후 5~6년이 지나면 표적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1년 이내 사망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암세포가 무한 증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했지만 결정적인 유전자를 찾지 못했다.<br/>김동욱 교수팀은 이 문제에 14년간 매달렸다. 한국연구재단의 한국백혈병은행에 장기 보관된 90명 이상의 백혈병 검체에 대한 차세대 유전자 분석(시퀸싱기술)과 인간 유전자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열대어인 제브라 피쉬(Zebra Fish) 실험으로 코블1 유전자와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br/>연구팀은 인체 내에서 코블1 유전자가 증가하면 글리벡,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슈펙트, 포나티닙 등 표적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증세가 악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r/>연구팀은 또 급성기 백혈병으로 질환이 악화돼도 코블1 유전자 발현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표적항암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규명했다. 코블1 유전자가 백혈병 진행과 예후를 판단하는 지표인 동시에 이를 억제하는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지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r/>김동욱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코블1 유전자는 위암, 폐암, 유방암 등 고형암에서도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됐다</span>”며 “백혈병은 물론 각종 암 치료를 위해 후속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br/>이번 연구성과는 과학학술지 네이처 자매지로 혈액암 분야 권위지인 ‘류케미아(Leukemia)’ 인터넷 판에 지난달 발표됐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10.txt

제목: [인사] 감사원 외  
날짜: 2017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8050919001  
ID: 01101101.201702280509190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전보 임용제청]▦공직감찰본부장 이익형 ▦기획조정실장 손창동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승진 임명제청]▦감사교육원장 심호<br/>◆국방부 [과장급 전보]▦전력자원관리관실 군수품수명주기관리장 문희영 ▦감사관실 국방민원상담센터장 서기관 정현호<br/>◆통일부 [과장급 전보]▦장관정책보좌관 김창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 배윤수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장 김종우 ▦교류협력국 개발지원협력과장 김훈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소봉석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배충남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여상기 ▦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장 이혜옥 ▦6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장 김명상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팀장 신재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훈련팀장 이종희 ▦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운영과장 이경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선운영과장 우계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장 유재윤<br/>◆환경부 [과장급 전보]▦환경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장 이영석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장이재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정영대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최동호<br/>◆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박신철 [국장급 전보]▦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방태진 [과장급 전보]▦어업정책과장 윤분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태석 ▦해양보전과장 장묘인 ▦수산자원정책과장 조일환<br/>◆국민안전처 [서기관 승진]▦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실 오장석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박상래 ▦재난관리실 재난경감과 성기선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 서기관 김춘식 [기술서기관 승진]▦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 박용욱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총괄과 배상원 ▦비상대비정책국 비상대비자원과 최기영 <br/>◆통계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통계교육원장 임병권 [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송성헌 ▦통계정책과장 서운주 ▦통계조정과장 서경숙 ▦통계서비스기획과장 류제정 ▦경제총조사과장 이명호 ▦소득통계개발과장 김대유 ▦농어업통계과장 홍병석 ▦농어업동향과장 김진 ▦조사기획과장 김대호 ▦지역통계총괄과장 박진우 ▦교육기획과장 최정수 ▦경인청 사회조사과장 조경호 ▦경인청 서울사무소장 하봉채 ▦동북청 조사지원과장 유상종 ▦동북청 지역통계과장 유영호 ▦동북청 경제조사과장 윤종호 ▦동북청 사회조사과장 원정연 ▦동북청 농어업조사과장 최인범 ▦동북청 춘천사무소장 김응하 ▦동북청 안동사무소장 유상길 ▦호남청 조사지원과장 임철규 ▦호남청 지역통계과장 송금영 ▦호남청 농어업조사과장 박순찬 ▦호남청 전주사무소장 김원태 ▦호남청 제주사무소장 홍성희 ▦동남청 조사지원과장 유호준<br/>◆문화재청 [3급 승진]▦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장 박한규 ▦경복궁관리소장 우경준 ▦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장 조운연 [4급 승진]▦기획재정담당관실 장철호 ▦정책총괄과 김동대 ▦보존정책과 김한옥 ▦활용정책과 여성희 ▦궁능문화재과 이정연 [과장급 전보]▦대변인 박희웅 ▦정보화담당관 김동하 ▦발굴제도과장 곽수철 ▦천연기념물과장 김종승 ▦활용정책과장 이상걸 ▦근대문화재과장 안형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이정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이선준 ▦창덕궁관리소장 이문갑 ▦덕수궁관리소장 오성환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김병기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장 이상준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 임승경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장 박대남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 임종덕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이종훈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장 이규훈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이동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장 김용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 문동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장 유건상<br/>◆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 신재희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장 이광호<br/>◆중소기업청 [서기관 승진]▦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지원과 김길상 ▦경영판로국 해외시장과 진수웅<br/>◆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반상권 [과장급]▦행정법무담당관 장대호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천지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김성욱<br/>◆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감사부장 김선봉 ▦환경소재분석본부 전자현미경연구부장 권희석 ▦부산센터장 진종성 ▦대구센터장 이상걸 ▦광주센터장 서영우 ▦춘천센터장 권승해 ▦행정부장 홍석권<br/>◆한국해양수산개발원 [승진]▦선임연구위원 정명생 홍현표 옥영수 ▦연구위원 박광서 박수진 장원근 장홍석 김태일 하태영 ▦부연구위원 김경신 김봉태 이호춘 ▦전문연구원 김세원 신수환 이지은 박성화 윤재웅 안영균 ▦책임행정원 임영균 ▦선임행정원 유주영 [임명ㆍ전보]▦수산업관측센터 연구감리위원 옥영수 ▦수산연구본부 연구감리위원 홍현표 ▦감사실장 정흥교 ▦수산업관측센터장 김대영 ▦수산정책연구실장 장홍석 ▦인재개발실장 이제영 ▦재무회계실장 임영균 ▦행정지원실장 오성휘<br/>◆한국과학창의재단 [승진]▦종합·원격교육연수원장 연경남 ▦창조경제문화확산실장 허정회 [전보]▦창조경제문화기획실장 박성균 ▦소프트웨어교육실 황태주 ▦과학문화기획실장 김형진 ▦창의융합기획실장 허경호 ▦기획예산실장 박세만<br/>◆한국광해관리공단 [1급 승진]▦지역진흥실장 최재익 ▦영남지사 광해사업팀장 임영철 [2급 승진]▦정보관리팀장 김정아 ▦총무팀장 강대문 ▦사업기획팀장 정영국 ▦지반광미사업팀장 심재천 [전보]▦기획조정처장 현정석 ▦경영지원처장 김봉섭 ▦사업기획처장 이상창 ▦석연탄지원처장 홍인기 ▦광해기술원장 조정구 ▦기술연구센터장 이상환 ▦글로벌협력센터장 김태혁 ▦분석센터장 심연식 ▦기술협력기획팀장 이진수 ▦경인지사 사업관리팀장 안소영 ▦호남지사 사업관리팀장 김성수<br/>◆국립암센터 [연구소]▦이행성연구부장 김용연 ▦융합기술연구부장 이상진 ▦임상의학연구부장 김호진 ▦암생물학연구부장 이창헌 ▦암역학예방연구부장 최일주 ▦암중개연구과장 및 유세포분석실장 공선영 ▦생체표지자연구과장 직무대리 서호경 ▦비교생명의학연구과장 직무대리 윤경실 ▦분자영상연구과장 및 동물분자영상실장 김석기 ▦면역치료연구과장 및 현미경영상실장 박은정 ▦혁신의료기술연구과장 손대경 ▦입자치료연구과장 김상수 ▦정밀의료연구과장 장희진 ▦신표적탐색연구과장 직무대리 김선신 ▦호발암연구과장 류근원 ▦희귀난치암연구과장 직무대리 최성원 ▦암발생전이연구과장 직무대리 김경태 ▦암미세환경연구과장 직무대리 배영기 ▦암역학연구과장 김미경 ▦바이오메트릭스연구과장 직무대리 및 의학통계분석실장 주정남 ▦암환자헬스케어연구과장 직무대리 정소연 ▦임상유전체분석실장 홍동완 [국가암관리사업본부]▦암생존자지원과장 직무대리 양형국<br/>◆동국대 [파견]▦의료원 일산행정처장 김재선 [전보]▦남산학사 겸 고양학사관장 허광도 ▦미래캠퍼스개발추진본부 중후문일대개발추진단장 신기훈<br/>◆한성대 ▦기획처장 윤경준 ▦총무처장 조자연 ▦상상력인재학부 학장 서은경 ▦국방과학대학원장 구형회 ▦행정대학원장 전주상 ▦IPP사업단장 및 교육혁신원장(교무처장 겸임) 조세홍 ▦벤처창업지원센터장 및 산학협력단 부단장 김상현 ▦미래경영연구원장 홍용식 ▦창업지원단장 홍정완 ▦국제교류원장 및 언어교육센터장 김승천 ▦IPP사업단 부단장 장명희<br/>◆부산대 ▦생활환경대학장 김희화 ▦예술대학장 박은화 ▦의학전문대학원장 이준우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조봉혜<br/>◆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장 윤재영<br/>◆북한대학원대학교 ▦대외부총장 양무진<br/>◆수원대 ▦부총장 박진우 ▦부총장 겸 미래전략실장 홍석우 ▦제2창학위원장 이남식 ▦총장실자문위원 유세준 조기준 ▦대학원장 박문수 ▦행정대학원장 오영균 ▦경영대학원장 이상규 ▦교육대학원장 고영란 ▦공학대학원장 유종훈 ▦호텔관광대학원장 우경진 ▦미술대학원장 문인수 ▦음악대학원장 김화숙 ▦사회복지대학원장 차승은 ▦고용서비스대학원장 이상규 ▦스포츠과학대학원장 이종영 ▦기획실장 우창훈 ▦교무입학처장 임진옥 ▦대외협력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임교빈 ▦취업정보처장 고승철 ▦국제협력처장 최광수 ▦연구처장 이찬 ▦비서실장 박태덕 ▦평가실장 윤종걸 ▦홍보실장 이문행 ▦감사실장 조기준 ▦법무실장 송현웅 ▦학생지원처장 이성근 ▦교무부처장 최형석 ▦입학부처장 차은정 ▦취업정보처부처장 김병용 ▦학생지원처부처장 주정선 ▦국제협력처부처장 정양운 ▦기획차장 주명진 권경남 ▦홍보차장 이의정 ▦비서차장 박가경 ▦교양대학장 김중신 ▦인문사회대학장 오영균 ▦경상대학장 최준봉 ▦공과대학장 유종훈 ▦IT대학장 장성태 ▦건강과학대학장 임경숙 ▦미술대학장 문인수 ▦음악대학장 김화숙 ▦융합문화예술대학장 김석범 ▦국제대학장 김옥순 ▦창업지원단장 임선홍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양윤기 ▦그린카에너지활용부품센터장 고용서 ▦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임경숙 ▦3D융합계측지원센터장 강동헌<br/>◆MBC ▦부사장 백종문 ▦기획본부장 최기화 ▦편성제작본부장 김도인 ▦드라마본부장 이주환 ▦경영본부장 이은우 ▦방송인프라본부장 김성근 ▦미디어사업본부장 윤동열 ▦보도본부장 오정환 ▦예능본부장 이흥우<br/>◆스포츠조선 ▦편집국 모바일팀장 김성원 ▦편집국 편집팀장 양명우 ▦사업팀장 최재성 <br/>◆메트라이프생명 [승진]▦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 송영록 ▦ 법무 및 대외협력 담당(전무) 백채은<br/>◆동부증권 ▦SP팀장 조규태 ▦ FAS2팀장 김대용 ▦ 캐피털 금융팀장 안종철 ▦프로덕트 센터장 이명기

언론사: 한국일보-3-511.txt

제목: 업체 돈받고 허위 홍보글 블로거 52명 첫 고발  
날짜: 2017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8050839002  
ID: 01101101.20170228050839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건강기능식품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과대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개인 블로그 운영자 5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식품당국이 업체가 아닌 블로그 운영자를 허위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6~17일 상습적으로 허위 광고를 일삼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집중 점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판매업체 2곳)과 제조정지 2개월(제조업체 3곳)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br/> ‘뉴트리코어’ ‘프로스랩 맘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해온 이들 업체는 합성원료를 썼으면서도 천연원료를 쓴 것처럼 ‘100% 천연원료 비타민’ ‘무(無)화학첨가물’ 등의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특히 식약처는 이들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올린 52명도 적발해 업체 5곳과 함께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들은 블로그에 이들 제품이 천연원료를 썼다고 주장하면서 ‘화학첨가물이 든 제품을 섭취하면 암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등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허위 글을 올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금품이 오갔다는 진술이 확보돼 소비자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고발했다</span>”고 말했다. 위반업체와 허위 과대광고 제품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12.txt

제목: 임상 적용할 정도의 노화 연구는 ‘全無’  
날짜: 2017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8050937001  
ID: 01101101.2017022805093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실용화 먼 가설 검증단계 불과…소식 등 건강생활습관 유지가 우선<br/><br/> 노화를 방지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 흥분한다. 한정된 수명을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다.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의학자들은 노화와 관련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br/>TXNIP 유전자, 크로토 유전자, 니코틴산 모노뉴클레오티드(NMN), 텔로미어(telomere)… 현재까지 연구를 통해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혀진 물질이다. 하지만 아직 가설에 불과해 임상시험을 하려고 해도 수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손영배 아주대병원 유전학클리닉 교수는 “<span class='quot0'>노화 연구 중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아직 가설을 검증하는 초기단계</span>”라고 말했다.<br/><br/>텔로미어 짧아지면, 세포분열 못해 노화돼<br/>노화문제를 해결할 유력후보로 ‘텔로미어’가 꼽힌다. 텔로미어는 그리스어로 ‘끝과 부분’이라는 뜻이다. 세포의 염색체 말단부위가 풀리지 않게 양 끝을 감싼 단백질 성분의 핵산서열을 지칭한다. 운동화 끈 마지막에 달려 있는 매듭 같은 존재로 염색체가 온전히 복제되도록 돕는다.<br/>텔로미어는 세포분열이 반복되면 짧아진다. 텔로미어가 세포분열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아지면 복제를 중단한다. 세포분열이 중단되면 세포는 죽게 된다. 세포노화의 시작이다. 김명신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연구결과 태아에서 분리된 세포는 100회, 노인의 세포는 20~30회 분열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세포분열 횟수가 줄면 세포가 죽어 노화가 진행된다</span>”고 말했다.<br/>이 같은 텔로미어가 세포노화와 관련 있다는 ‘텔로미어설(說)’의 이론적 근거는 확립됐다. 텔로미어를 만드는 효소인 텔로머라이제를 발견한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와 조스택 교수, 텔로머라이제 역할을 규명한 캐럴 그라이더 교수가 이 이론으로 2009년 노벨의학상을 받았기 때문이다.<br/>2015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쌍둥이의 텔로미어를 비교연구한 것도 텔로미어설과 관계 있다. 쌍둥이 동생인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40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생활하고 지구로 돌아왔다. NASA는 스콧의 귀환 후 그와 지구에서 생활하던 쌍둥이 형 마크의 텔로미어를 비교해 무중력 생활을 한 스콧의 텔로미어가 길어졌다고 발표했다. NASA는 “<span class='quot2'>소콧의 텔로미어가 얼마 뒤 원래 길이로 다시 짧아졌지만 우주생활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게 됐다</span>”고 했다.<br/><br/>고혈압ㆍ당뇨병 환자 텔로미어 짧아<br/>텔로미어는 노화뿐 아니라 건강의 ‘바로미터’다. 세계적인 의학저널인 란셋(Lancet)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대사증후군, 당뇨병 환자의 텔로미어는 정상인보다 짧았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경도인지장애, 치매 환자의 텔로미어가 정상인보다 짧다</span>”며 “<span class='quot1'>심혈관질환자는 물론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이의 텔로미어도 짧다</span>”고 말했다. <br/>텔로미어가 노화와 수명을 결정하는 물질로 밝혀졌지만 문제도 있다. 줄기세포와 체세포는 세포분열을 반복하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만, 암세포는 격렬히 세포분열해도 짧아지지 않는다. 박상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span class='quot3'>텔로미어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동물실험 결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임상에 활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스페인 국립암연구소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쥐의 온 몸에 텔로미어를 과(過)발현한 결과, 수명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쥐에게 암세포가 많이 발생했다.<br/><br/>소식 등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가 노화 늦춰<br/> 노화는 새로운 유전자가 출현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유전자 때문에 생긴다는 게 현재까지 연구결과다. 박 석좌교수는 “<span class='quot3'>소아조로증인 프로제리아(Progeria)도 상염색체 내 유전자 돌연변이로 생긴다</span>”며 “<span class='quot3'>노화는 기존 유전자 문제 때문이어서 ‘유전자 가위’ 등 기존 유전자를 회복하는 연구로 선회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따라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가 노화방지의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이덕철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소식(小食) 등 식습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운동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에 기대하기보다 인류가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한 방법을 실천하는 게 좋다</span>”고 말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513.txt

제목: 저탄수화물ㆍ고지방 다이어트, 남성 대장암 위험 높여  
날짜: 2017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7050918003  
ID: 01101101.20170227050918003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저탄수화물ㆍ고지방 다이어트’가 남성에게 대장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삽겹살이나 버터를 주로 섭취해 ‘삼겹살 다이어트’로 불린다.<br/> 김영선(소화기내과)ㆍ오승원(가정의학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팀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2,604명(남성 1,752명ㆍ여성 852명)을 대상으로 포화지방 섭취량과 대장 선종 발생률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 대장 선종은 '대장암의 씨앗'으로 불릴 정도로 향후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대장 용종 조직이다.<br/>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메디신'(Medicine) 최근호에 실렸다.<br/>연구진은 먼저 포화지방 섭취량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성별에 따라 구분해 5그룹으로 나눴다. 이후 통계적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포화지방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남성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하는 남성 그룹보다 대장 선종 발생률이 1.7배 높았다.<br/>이번 연구에서 여성은 포화지방 섭취량에 따른 대장 선종 발생률이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br/>오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유행하는 고지방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 효과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어도 무턱대고 지방 섭취를 늘리다간 대장암ㆍ심혈관질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포화지방이 전반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514.txt

제목: [헬스 파일]  
날짜: 2017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7050917002  
ID: 01101101.2017022705091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김치 유산균, 체중 감량 임상 시작<br/>임수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은 올 연말까지 체질량지수(BMI) 25㎏/㎡이상인 비만인 120명에게 김치 유래 유산균(락토바실러스 사케이)의 체중감량 효과를 임상 시험한다. 이 유산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원재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균종이다. 이 균의 8주간 동물실험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체중과 체지방이 줄어 임상성공이 유력하다. 다른 유산균(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등)을 비만인에게 투여한 결과, 5%정도 체중이 줄었다는 연구는 나왔다. 하지만 체중감소 효과가 남성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투여기간이 짧아 장기간 투여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br/>연세암병원, 폐암 강좌 개최<br/>연세암병원ㆍ(사)대한암협회는 3월 9일 오후 1시30분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폐암 그리고 치유의 ‘숨’’이란 주제로 공개 건강강좌를 연다. 개그우먼 이성미와 함께하는 힐링 CCM 콘서트도 준비돼 있다. 강좌는 폐암의 수술적 치료(흉부외과 이진구 교수), 폐암의 방사선 치료(방사선종양학과 조재호 교수), 폐암환자의 영양과 식사(영양팀 송승은 영양사), 폐암의 최신 치료 A-Z(종양내과 조병철 교수) 등으로 진행된다. (02)2228-8170<br/>광동제약, 뿌리는 흉터치료제 내놔<br/>광동제약은 뿌리는 흉터 치료제 '광동 더마터치 울트라 스프레이'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존 겔(Gel) 형태의 '더마터치 울트라'를 뿌릴 수 있는 스프레이형으로 바꾼 흉터 치료제다. 뿌리는 제품이어서 제왕절개, 화상, 창상 등으로 생긴 크고 넓은 흉터에 사용하기 편리하다. 회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특히 여성은 흉터 부위에 뿌린 제품이 건조된 후에는 메이크업도 가능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span>”고 했다.<br/><br/>고대구로병원, 감마나이프센터 열어<br/>고대 구로병원은 최근 서울 서남부 의료기관 최초로 감마나이프센터를 열었다. 감마나이프센터는 뇌종양이나 뇌전이암, 뇌동정맥기형, 약물난치성 삼차신경통, 뇌전증, 수전증 등 뇌신경질환 치료에 뇌신경센터ㆍ암병원의 유기적 협진 체계를 구축해 수술ㆍ비수술 치료에 나선다.<br/>종근당, 생약 성분 변비약 ‘생유’<br/>종근당은 생약 성분 변비약 ‘생유’를 내놨다. 대황과 감초가 주 성분으로 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변비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대황은 장 연동운동을 촉진해 원활한 배변을 돕고 감초는 복통과 설사 완화에 좋다. 회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생약 성분으로 만들어 부작용을 개선한 ‘생유’가 변비 환자의 우려와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span>”이라고 했다.

언론사: 한국일보-3-515.txt

제목: [고대 구로병원과 함께하는 건강 Tip] 폐암  
날짜: 2017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7050915003  
ID: 01101101.20170227050915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폐암은 남성에게는 3위, 여성에게는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다. 하지만 폐암은 다른 암처럼 전조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다. 기침, 흉통, 호흡 곤란, 목소리 변화 등 폐암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다. 이 같은 이상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수술하기 어려워 사망률도 아주 높다.<br/><br/>Q. 폐암은.<br/>“최근 흡연, 가족력, 대기 오염 등으로 폐암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중년 남성에게서 흔히 발병한다. 하지만 위암처럼 전조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 폐암 환자의 85%가 수술이 불가능한 3, 4기에야 병원을 찾는다. 증상으로는 기침, 호흡 곤란, 체중 감소, 흉통, 목소리 변화 등이다. 이런 증상만으론 조기 발견이 어렵다. 평소 금연을 실천하고 정기 건강검진 등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br/><br/>Q. 어떻게 치료하나.<br/>“폐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전에 진단하면 종양을 포함한 폐 조직을 수술로 완벽히 없앨 수 있다. 수술로 암을 잘라냈을 때 생존율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는 수술이 가장 바람직하다. 초기 폐암은 흉강경을 이용한 제한적 폐절제 수술을 하면 합병증과 폐 기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심한 심장질환이나 폐 질환을 앓거나 몸 상태가 수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해졌다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br/><br/>Q. 흉강경 폐암수술이란.<br/>“옆구리에 작은 구멍 1개만 내어 흉강경을 넣고 암을 제거하는 최신 수술법이다. 초기 폐암에만 시행할 수 있다. 기존 수술처럼 길게 가슴을 잘라낼 필요가 없어 출혈이나 감염 등의 부작용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또한 흉터 걱정이 없으며 통증이 작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 내시경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병변을 확인하면서 수술하기에 정확도가 매우 높다. 국제적으로도 안전성이 입증됐다. <br/>우리 병원은 최근 도입한 차세대 내시경인 ‘형광 영상 흉강경(PINPOINT)’로 국내 최초로 수술 중 실시간으로 림프절 탐색하고, 폐절제면을 형광 영상으로 직접 확인했다. 수술 정확도도 끌어 올리고 폐암 조직과 정상 조직을 형광 영상으로 구분해 안전도도 높였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김현구 고대 구로병원 흉부외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3-516.txt

제목: 갈 곳 잃은 아이들 8명 돌본 경찰관 안타까운 퇴임  
날짜: 2017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7050904001  
ID: 01101101.2017022705090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광주 북부경찰서 김종혁 경위 암투병 명퇴<br/><br/><br/>“선행이 아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못 해준 것이 항상 미안했다”<br/>27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지난 10년 동안 결손가정 자녀와 고아 등 8명의 여아를 돌보는 선행을 펼친 김종혁(57)경위가 암 투병 때문에 명예퇴임식을 가져 주위 동료들로부터 안타까움과 걱정 등으로 숙연했다.<br/> 지난해 말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김 경위가 정년을 2년 앞두고 경찰일선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28년 형사생활을 마치면서 자신의 선행도 알려져 화제다. <br/>그가 갈 곳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다. 사연이 안타까운 한 여자아이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한 것이 벌써 8명이 됐다. 첫 아이가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모두 여자였다. 초등 3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까지였던 이들이 어느덧 성장해 두 명은 대학생이 됐다. 지난해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3살 여아가 김 경위의 집으로 와 웃음을 주는 막내로 성장하고 있다. <br/>항상 형사계 일선에서 활동했던 김 경위가 결손가정 자녀와 고아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돌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게 10년이 지났다. 혹시나 이들의 사연이 외부로 알려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사실까지도 숨기며 키웠다.<br/>이들의 큰 후원자는 아내와 남매였다. 사춘기를 겪는 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몫도 가족과 함께여서 가능했다. 그런 김 경위에게도 시련이 다가왔다. 지난해 말 건강검진 결과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아 위 3분의 2와 쓸개, 십이지장 등 장기를 도려내야 했다. <br/>현장에서 생활하는 형사가 2년여 남은 정년퇴직 기한을 끝까지 채우고 싶었지만, 수시로 병원 치료를 다녀야 하고 식이요법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동료 경찰관에게 피해를 줄까 봐 명예퇴직을 결심했다. 이날 김 경위는 자비를 털어 마련한 수건에‘그동안 고마웠습니다’는 문구를 새겨 동료들에게 돌렸다. <br/>김 경위는 “막상 퇴직하니 그 동안 힘든 일과 불만은 사라지고 경찰조직의 고마움만 남는다”며 “경찰시절 힘들 때 집으로 돌아가면 자식들이 마냥 반겨줘서 정말 행복했었다”고 말했다.<br/>이어 그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니 그동안 수술하면서 소홀했던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모든 것을 바칠 예정”이라며 “아이들이 홀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기 위해 새로운 일거리도 찾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br/>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17.txt

제목: 축구ㆍ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서울시, 올해 92개 더 늘린다  
날짜: 2017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7050840001  
ID: 01101101.20170227050840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2015년 문을 연 서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인공암벽장(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주말이면 암벽등반 동호인들로 붐비는 이곳은 월평균 1,000명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잡았다. 서울 최대 규모의 인공암벽장으로 경사가 완만한 초급 코스부터 중급ㆍ고급까지 갖춰져 있어 일반 시민부터 전문 선수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실내에도 암벽이 설치돼 있어 날씨,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br/>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인 노원구의 육사야구장도 사회인야구 동호인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육군사관학교와 노원구가 사용협약을 맺어 육사 내 유휴부지에 9,800㎡ 규모로 만든 야구장이다. 지난 11일 문을 연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동안 벌써 52개팀 500여명이 이용했다. 추운 날씨에다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던 것이다.<br/> 서울시는 이처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994억원을 들여 25개 종목, 215개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24만7,000여㎡ 규모로, 축구장 23개 크기다. 시는 올해도 357억원을 투입해 17개 종목에 걸쳐 92개 생활체육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2018년까지 총 261개 시설을 신설하는 ‘체육시설 확충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br/>올해 새로 조성되는 시설은 신내차량기지 야구장·축구장, 중랑천변 국유지 국궁장·테니스장·농구장, 도림유수지 실내배드민턴장·인공암벽장, 안양천변 국유지 야구장·파크골프장, 고척돔 풋살장 등이다. 하천변 국유지나 유휴부지 등 공간을 발굴하고, 민간과 손잡아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br/> 안준호 시 관광체육국장은 “<span class='quot0'>체육시설 확충은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와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생활을 통한 미래 복지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br/>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18.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오일킹 SK롯데카드 外  
날짜: 2017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7050820001  
ID: 01101101.20170227050820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롯데카드 ‘오일킹 SK롯데카드’ 출시<br/>롯데카드는 SK주유소에서 리터당 최대 300원, 월 4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오일킹 SK롯데카드’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전월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리터당 150원, 100만원 이상이면 리터당 200원, 150만원 이상이면 리터당 300원을 할인해 준다. 월 할인한도는 각각 1만 5,000원, 2만5,000원, 4만원이다. 롯데카드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SK주유소에서 3만원 이상 결제시 5,000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1만원, 해외겸용(Master) 1만5,000원이다. <br/>?<br/>NH농협생명 ‘환급 받는 NH건강보험’ 출시<br/>NH농협생명은 주요 질병 보장과 건강관리 자금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무)환급받는NH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30대~50대 소득기에는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소득이 없는 노후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설정한 기간 동안 매월 돌려받으면서 보장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암보장형과 암은 물론 뇌출혈ㆍ급성심근경색증ㆍ말기간질환ㆍ말기신부전증까지 보장하는 종합보장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도 즉시 받거나, 5년 또는 10년 거치 후 받을 수 있다. 가입 나이는 0세부터 70세까지다.<br/><br/>AIA생명 ‘THE 좋은 프레스티지 변액연금보험II’ 출시<br/>AIA생명은 균형 잡힌 관리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무)THE 좋은 프레스티지 변액연금보험II’를 출시했다.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26종의 국내외 펀드 중 최대 7개까지 골라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연 최대 12회까지 수수료 없이 펀드를 교체할 수 있다. 채권형 펀드 의무편입 비율 요건이 없어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연금, 상속연금, 희망 기간에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실적연금형 등 4가지 옵션이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3-519.txt

제목: 건강보험 진료비 사상 첫 60조 돌파…고령화ㆍ보장강화 영향  
날짜: 2017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7050812001  
ID: 01101101.20170227050812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고령화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br/>27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를 분석해 만든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표했다.<br/>두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심사 진료비는 64조6,623억원으로 2015년(58조170억원)보다 11.45% 증가했다. 건보 심사 진료비가 60조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심사 진료비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한 해 만에 10%가 훌쩍 넘는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br/>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의 보장성 확대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으로 건보 보장성이 높아진 것 등이 꼽힌다. 지난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9,369억원으로 2015년보다 1조9,870억원 증가했고,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 역시 5,912억원 증가한 3조1,857억원을 기록했다.<br/>고령화 역시 진료비 증가를 견인했다. 고연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는 지난해 24조9,896억원으로 2015년보다 12.5%(2조7,715억원)이나 증가 했다. <br/>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건보가 적용되는 인구 수는 645만명으로 전체 적용 인구의 12.7%를 기록했다. 전체 적용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10.2%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의 월 평균 진료비는 32만8,599원으로 전년 대비 3만2,840원 증가했다. <br/>이른바 ‘빅5’병원(서울아산ㆍ서울대ㆍ삼성서울ㆍ신촌세브란스 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인기가 여전하다는 사실도 이번 통계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빅5 병원에 지급한 급여비는 3조8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2.8%나 증가했다. 이는 약국을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된 급여비의 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20.txt

제목: 게르마늄 가루가 포함된 특수 실리콘 처리 제품으로 시장 선도  
날짜: 2017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7050745001  
ID: 01101101.20170227050745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최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 ‘기적의 원소’ 등으로 불리는 게르마늄 관련 제품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br/><br/>그런 가운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 국가에 수출되며 품질력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있다. 바로 게르마늄 전문기업 (주)루첼라(대표 하방)가 그 주인공이다.<br/><br/>루첼라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고객의 신뢰와 제품의 품질을 신념으로 전 제품에 적용되는 게르마늄을 원산지를 속이지 않는 정직함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br/><br/>특히 루첼라는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게르마늄 가루가 포함된 특수 실리콘으로 처리된 제품들로 개발한 대표 브랜드인 ‘세루아(SALUA)’를 통해 헬스 웨이스트, 암 쉐이퍼, 아이패치, 기능성 스타킹 등을 국내는 물론 중국과 대만, 홍콩 등에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br/><br/>헬스 웨이스트는 허리 라인을 살려주는 기능성 제품으로 평상시는 물론 운동할 때도 편안한 움직임이 가능하고 통증완화, 피로회복은 물론 피부미용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이며 암 셰이퍼 역시 평상시는 물론 운동할 때 착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으로 팔 라인을 살려주는 것은 물론 게르마늄의 강점인 통증환화, 피로회복 등에 도움을 준다.<br/><br/>아이패치는 게르마늄 도트 처리된 기능성 수면 안대로 학업에 지친 수험생들과 휴식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제품이며 기능성 스타킹은 입체적인 봉제와 강한 압박으로 날씬한 다리 라인을 만들어주고 짱짱한 밴드로 흘러내림과 처짐을 방지해 아랫배를 탄력 있게 잡아주는 기능을 한다.<br/><br/>이들 제품은 게르마늄의 고유 특성과 함께 원산지를 속이지 않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화, 신라, 두타 면세점 등에 입점 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수출도 최근 탄력을 받고 있다. <br/><br/>이와 관련 루첼라 하방 대표는 “<span class='quot0'>게르마늄은 반도체 성질을 갖고 있는 금속으로 세포의 전류 흐름을 조절하고 음이온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산소의 효율적인 활용을 돕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바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당사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노력해 왔으며 이를 실현하는 최적의 소재를 게루마늄에서 찾았다</span>”고 전했다.<br/><br/>최지흥 뷰티한국 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언론사: 한국일보-3-521.txt

제목: 보험사 고객건강관리서비스 의료 민영화 논란  
날짜: 2017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7050525002  
ID: 01101101.2017022705052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첨단 건강관리프로그램 속속 도입<br/>고령화에 대비해 지급보험금 줄이고, 새 수익원 발굴<br/>의료법 상 영리목적이라면 위법<br/><br/><br/><br/>태아 보험에 가입한 임신부 박모(30)씨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매주 태아의 건강상태를 진단 받는다. 박씨가 착용하고 있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태아 심장박동 수와 박씨의 건강상태(혈압, 체질량지수) 등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에 기록된다. 이 앱으로 병원의 원격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고, 진료예약도 가능하다. 임신기간 중 필요한 운동방법, 맞춤형 식단, 출산용품 정보 등도 제공된다. 출산이 임박하면 차량대기서비스나 전문간호사 파견도 신청할 수 있다. 제휴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병원비는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br/>국내 보험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의 미래상이다. 그 동안 보험사의 고객건강관리서비스는 위법 소지가 커 우량고객 병원진료ㆍ검진예약 대행, 고령자 대상 간병상담,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제공됐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서비스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관련 의료시장이 2014년 3조원에서 2020년 14조원으로, 연평균 12.5%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br/>실제로 AIA생명은 이달 초 고객이 신체정보(나이, 신장, 몸무게 등)와 생활습관(운동강도, 식습관, 흡연상태 등) 등을 앱에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건강나이를 알려주고, 운동방법이나 식습관 개선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를 실행하면 보험사는 고객에게 음료할인권이나 보험료 할인 혜택 등도 제공한다. 라이나생명은 작년부터 암 보험 가입자에게 유전체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도 온라인 보험 가입자에게 1보당 1포인트씩 적립해주고, 15만 포인트당 1달에 2,000원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보험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 강화에 나선 것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span class='quot0'>노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커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고객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득</span>”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관리서비스가 포함된 보험상품을 내 놓을 수도 있고, 요양병원이나 건강관리업체를 자회사로 운영해 미래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배경이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무료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다 수요가 늘어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한 새 상품을 내놓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그러나 비의료기관인 보험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의료법상 비의료기관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영리목적이라면 위법의 소지가 크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2'>보험사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를 하자는 얘기</span>”라며 “<span class='quot2'>국민건강관리는 공공보험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를 민간보험사에 떠맡으면 결국 보험사 배만 불려주게 될 것</span>”이라고 반대했다.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도 “<span class='quot3'>질병에 대한 처방이나 진단 행위를 할 수 없는 보험사가 폭넓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자칫 잠재적 질병을 보유한 환자를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민간 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22.txt

제목: 회원 가입란엔 기혼, 미혼 뿐... 미완성품 취급에 부들부들  
날짜: 2017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5050628002  
ID: 01101101.20170225050628002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1<br/>생계, 살림 무게 혼자 감당해도<br/>“혼자 쓰니 좋겠네” 가볍게 봐<br/>명절마다 기혼자 근무 떠맡기도<br/><br/>#2<br/>정부 정책에선 투명인간 신세<br/>청약통장 10년 가입해도 후순위<br/>“비혼자 무시하고 정책 설계 땐<br/> 새 형태의 사회적 차별될 수도”<br/><br/><br/><br/>그들의 뇌리에 비혼은 없었다<br/>연애 중이지만 결혼은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회사원 이준석(30ㆍ가명)씨는 “<span class='quot0'>세상에 널린 광고, 포스터, 전광판에 ‘아빠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왜 이리도 많은지, 볼 때마다 솔직히 불편하다</span>”고 했다. 재취업을 응원할 때부터 고속도로에서 안전운전을 독려할 때까지. 부성과 모성에 기댄 슬로건은 쓰임새도 여러 가지다. “불경기로 온갖 전망이 불투명하고, 집값은 널뛰는데, 서로 짐이 될 이유가 있나 싶어 비혼을 고려 중이거든요. 그런데 고생스러운 삶의 짐을 진 누군가는 당연히 아빠, 엄마일 것이라고 전제하는 광고를 볼 때마다 ‘저런 건 언제 변하나’ 싶어 화도 나요. 명절에 고속도로 운전은 아빠만 하나요?”<br/>엄마, 아빠라고 다 ‘비혼 차별’에서 비껴가는 것도 아니다. 이혼, 사별을 한 싱글이나 처음부터 결혼 없이 아이를 키우는 이들도 각종 설문조사나 기입란을 적어내려 갈 때마다 ‘비혼 자리는 없다’는 배제를 절감한다. 싱글대디인 이병철(51) 차별없는가정을위한시민연합 대표는 “<span class='quot1'>은행, 카드사에서 상담하거나 어딘가 개인정보를 기입할 때마다 기혼을 택하면 ‘사모님 성함’과 결혼기념일을 써내야 하고, 그게 곤란해 미혼을 택하면 자녀정보를 넣을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한다</span>”고 했다. ‘비혼’란을 별도로 둬 필요한 정보는 정교하게 묻거나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 경우 아예 따져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방송인 이다도시 역시 지난해 12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다. 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 신청을 하던 중 ‘미혼’에 체크하는 순간 자녀 정보 기입란이 자동으로 사라져 버렸던 경험을 돌이키며 “<span class='quot2'>이 나라에서는 아이가 있으면 미혼일 수 없다는 뜻 아니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span>”고 말했다. <br/>정책ㆍ상규도 ‘표준결혼’ 우선 <br/>비혼을 ‘저출산의 원흉’으로 지목하거나, 결혼만을 독려하는 각종 정책 방향도 자괴감을 안기는 한 요소다. 빈곤 탓에 결혼을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표준과 목표를 혼인장려에만 두고 있다는 것. 한 30대 비혼 회사원은 “<span class='quot0'>주택청약통장 가입이 10년이 넘었는데 청약에 성공해 본 적이 없고 행복주택에 기대를 걸었지만 물량도 적더라</span>”며 “<span class='quot0'>부양가족에 가점을 줄 수밖에 없다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이라도 보완됐으면 좋겠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저출산 대책으로 혼외출산을 환대하거나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을 더 적극 고민할 수 있는데도, 손쉽게 비혼만 비난할 땐 억울하다</span>”고 비판했다.<br/>사회정책의 표준은 오랫동안 혼인한 2인 이상 가구였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span class='quot3'>만혼, 비혼, 이혼, 별거 등으로 혼인형태가 다양화하고, 1인가구가 표준 형태가 된 상황에서도 정책표준이 혼인 상태의 2인 이상 가구에만 맞춰져 있는 것은 비현실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3'>경제적 요인 탓에 1인 가구로 지내고 있는 사람을 주택공급에서조차 탈락시키는 상황</span>”이라고 지적했다. “<span class='quot4'>사회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려 탈빈곤을 유도하고, 주택 순위를 놓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span>”는 게 그의 제언이다.<br/>표준 가족을 대전제로 보는 것은 병원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술동의서의 경우 배우자나 혈족만 서명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관이 적잖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5'>혼자 살거나, 친구랑 사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삶이 느는데도, 전통적 방식의 가정이 없으면 같이 사는 사람이 암 수술을 받아도 동의서를 쓸 수 없고, 갑자기 한 쪽이 죽어도 재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span>”고 비판했다. “<span class='quot4'>비혼과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인정하고, 가족의 개념을 바꿔야 할 때</span>”라는 것이다.<br/>홍보회사 임원 강지윤(43ㆍ가명)씨도 싱글임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으로 “<span class='quot6'>몸이 아파 한 밤 중 혼자 찾은 응급실에서 계속 ‘보호자는 어디 계시냐’고 재촉했을 때</span>”를 꼽았다. “싱글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일에 대신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야근과 집안일이 밀려도 혼자 해내고, 몸이 아파도 혼자 꿋꿋이 병원에 가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삶을 꾸리는데, 정작 세상에서는 모자란 존재로 규정되는 것 같아 속상해요.”<br/><br/>비혼의 삶도 투쟁이자 현실이다<br/>무조건 삶이 한가하고 느슨할 것이라고 여기거나, 양보를 강권하는 태도 역시 비혼을 곤혹스럽게 한다. 회사원 박현준(39ㆍ가명)씨는 최근 수년 째 비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당직근무를 도맡았다. “네가 기혼자들을 배려해줘야 하지 않냐는 분위기에 떠밀렸어요. 그런 결론이 나는 데 하도 익숙해 지다 보니 이제는 명절이 돌아오면 으레 내가 하겠거니 싶기까지 해요.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벌을 받는 기분이랄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br/>설사 한가하다 할지라도 그 좋다는 결혼을, 양육의 행복과 기쁨씩이나 유예하면서 확보한 시간이다. 그런 시간을 당직 서는 데 쓰라는 요구가 달가울 리 없다. 그도 애 낳아서 키우면 행복할 거라는 건 사무치게 알고 있다. 매일 격무에 시달리고, 틈틈이 “이 사람 아니면 안되겠다” 싶은 연인과 연애 중인 데다, 어머니를 부양하는 데 온 힘을 쏟는다. 그런데도 공휴일은 양보해야 하고 “(버는 걸) 혼자 써서 좋겠다”, “육아 걱정 없으니 편하겠다”는, 말 그대로 한가한 소리를 들어야 할 때마다 그 역시 속으로만 외친다 “비혼이라고 다 명절엔 바닥 긁고, 버는걸 다 지 입으로만 넣는 건 아닙니다!” <br/>홀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는 비혼 김정연(38ㆍ가명)씨는 “혼자 참석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내야 하는 ‘싱글 차지(single charge)’가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고 울적해했다. “<span class='quot4'>혼자 신청하면 돈을 더 내야 하는 패키지 여행부터 2인분은 1만6,000원인데 1인분은 만원인 식당 메뉴까지 솔로로 사는 것 자체가 페널티 비용을 요구 받는다</span>”는 것이다. “혼밥이 유행이라지만 1인분은 주문도 못하는 메뉴가 많고, 거기에 가격까지 더 비싸니 혼자 식당에 갈 때마다 타박 받는 기분이에요. 다들 속 편한 줄 아는데 싱글들은 곳곳에서 금전적 차별까지 받고 있다고요.”<br/><br/><br/>문제 있는 건 아니냐고?<br/>비혼을 미완의 상태로 보고 결혼이라는 매듭을 지어야 할 풀린 실타래 취급하는 것은 가장 고전적 푸대접이다. 대기업 연구원인 강진현(42ㆍ가명)씨는 “<span class='quot7'>무슨 하자 있는 건 아니지?</span>”, “<span class='quot7'>능력 없이 눈만 높아서 그렇다</span>”, “그러다 외롭게 늙는다”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듣는 데 지쳤다. 회사원 박현준(39)씨는 “<span class='quot8'>몸이 안 좋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적 미성숙아라는 모욕적 시선을 매일 대하는 데 지쳐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까지 한다</span>”고 토로한다.<br/>싱글맘인 자유기고가 한현정(48ㆍ가명)씨는 “비혼 상태인 게 무슨 결함인 양 걸핏하면 주변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처한 사람을 언급하며 ‘둘이 만나보라’는 말들을 쉽게 한다”고 꼬집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밤 늦게 술 마시다 뭐 하냐며 나오라는 전화를 몇 번씩이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싱글이라는 이유로 이런 무례를 당해야 하나요?” <br/>영미권에서는 이런 차별을 싱글리즘(singlism), 결혼지상주의(matrimania)라고 규정한다. 결혼 그 자체가 훌륭하다는 도덕적 잣대를 동원해 비혼을 차별하는 태도를 말한다. 사회심리학자이자 싱글리즘 연구자인 벨라 드 파울로는 “교황이나 그의 추종자가 된 게 아니라면, 싱글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은 절대 없다. 그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결혼상태여야 한다”며 “이런 근거 없는 차별은 인종주의, 성차별만큼이나 폭력적”이라고 지적한다. <br/>이병철 차별없는가정을위한시민연합 대표는 “<span class='quot1'>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비혼을 향해 가는데도 온 사회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 혼자겠지, 결혼을 못했겠지, 이혼했겠지, 헤어졌겠지’라는 편견으로 이들을 예외취급 한다면 그거야말로 비정상사회 아니겠냐</span>”며 “<span class='quot1'>사소하다고 논외로 밀어뒀던 차별적 인식, 상규, 정책 등을 나부터라도 하나씩 돌이켜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span>”이라고 제언했다.<br/>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span class='quot9'>보편적 삶의 하나가 되고 있는 비혼자를 무시하고 정책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차별이 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9'>결혼 자체를 사치처럼 느끼는 비혼 등이 배제되지 않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br/>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23.txt

제목: 오른팔 없는 6세 골퍼, PGA 프로와 어프로치 대결  
날짜: 2017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3050815002  
ID: 01101101.20170223050815002  
카테고리: 스포츠>야구>메이저리그  
본문: 오른팔이 없는 미국의 6세 어린이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프로와 어프로치 대결을 벌였다. 미국의 골프 전문매체 골프닷컴은 23일(한국시간) 혼다 클래식이 열리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골프장에서 ‘원 암 챌린지’ 이벤트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50ｍ 앞에서 어프로치샷을 날려 핀에 공을 가깝게 붙인 쪽이 승리하는 대결이었다. 오른팔이 없이 태어나 3세부터 왼손으로만 골프를 치는 토미 모리시와 PGA 투어 선수들의 대결 형식으로 진행됐다. 물론 선수들도 모리시처럼 한 손으로만 골프채를 휘둘러야 했다. 이벤트의 승자는 모리시였다. 28-6으로 이겼다. 모리시는 한 손으로 골프를 치는 골프 신동으로 3세 때부터 화제가 된 어린이다. 생후 13개월부터 아버지와 함께 골프 전문 채널을 시청했다는 모리시는 부모로부터 받은 플라스틱 골프채와 공으로 스윙 연습을 했다. <br/><br/>양희영, LPGA 혼다 타일랜드 첫날 공동선두 <br/><br/>양희영(28)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를 상쾌하게 시작했다. 양희영은 23일 태국 빳따야의 샴 골프장(파72)에서 열린 LPGA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 1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2015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양희영은 세계랭킹 2위 에리야 쭈타누깐(태국)과 함께 공동선두에 올랐다. 전반 9개 홀에서 버디 4개를 낚으면서 선두권에 이름을 올린 양희영은 10번홀(파5)에서 보기를 범하면서 주춤했다. 그러나 양희영은 11번홀(파4)에서 버디로 만회한 뒤 17번홀(파4)과 18번홀(파5)에서 연속으로 버디를 잡으면서 선두 자리에 뛰어올랐다. 세계랭킹 8위 김세영은 선두 그룹에 1타 뒤진 공동 3위에 올랐다. 8개월 만에 LPGA에 복귀한 '골프여제' 박인비(29)는 이븐파 72타로 공동 36위에 올랐다.<br/><br/>다저스“류현진 시범경기 등판 일정 미정”<br/><br/>류현진(30ㆍLA다저스)이 연일 재기를 향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구단은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미국 스포츠전문 채널 ESPN은 23일(한국시간) “<span class='quot0'>불펜투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다저스는 류현진을 천천히 준비시킬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다저스의 시범경기는 26일 시작하지만 류현진의 등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span>”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류현진의 복귀 과정에 있어 하나의 조건이다”는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말을 곁들였다. 캘리포니아주 지역 신문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는 “로버츠 감독이 ‘류현진은 스프링캠프 후반 경기에 등판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며 “재활 과정에 따라 류현진의 첫 실전 등판은 마이너리그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LA타임스는 최근 류현진의 불펜투구와 라이브피칭을 지켜본 구단 관계자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류현진이 다저스 경기에 등판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재기 준비 상황을 알렸다.<br/><br/>오승환, 26일 마이애미와 첫 시범경기 예정<br/><br/>‘끝판왕’ 오승환(35)이 소속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올 시즌 첫 시범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오는 26일(한국시간)로 예정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시범경기에 대한 마이크 매서니 감독의 마운드 운용 계획을 23일 전했다. 플로리다에서 스프링캠프를 지휘하고 있는 매서니 감독은 “<span class='quot1'>루크 위버가 선발 등판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존 갠트와 오스틴 곰버도 마운드에 오르고 마무리 오승환도 아마 공을 던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 오승환은 다음 달에 열리는 야구 국가대항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도 발탁된 상태다. 그는 마이애미와 시범경기에 등판한 뒤 27일 오후 늦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28일부터 대표팀 훈련에 합류할 계획이다.<br/><br/>대한체육회, 24일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워크숍<br/><br/>대한체육회가 2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ㆍ도 체육회, 시ㆍ도 교육청 장학사, 학교 운동부 지도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학교체육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용식 가톨릭관동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가 ‘체육특기자 합리적 운영 방안’ 대해 주제발표를 하면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과 최저학력제 이행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택천 방산고 수석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추진 방안에 관한 분임토론을 진행한다. 체육회는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언론사: 한국일보-3-524.txt

제목: 팝가수 리한나, 美하버드대 '2017 인도주의 상' 수상  
날짜: 2017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3050753001  
ID: 01101101.20170223050753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리한나가 자선 기부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하버드대로부터 ‘2017년 인도주의 상’을 받는다. 2005년 데뷔한 리한나는 2억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했고, 그래미상을 8번이나 받은 세계적인 팝스타다.<br/>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베이도스 출신인 리한나(29)는 오는 28일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열리는 인도주의상 시상식에 직접 참석한다.<br/>앨런 카운터 하버드대 재단이사장은 “<span class='quot0'>리한나는 바베이도스 퀸 엘리자베스 병원에 유방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첨단 암연구 및 핵의학센터를 지었다</span>”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리한나는 미국 내 카리브해 출신 유학생들을 위해 조부의 이름을 따 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개발도상국 출신 여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을 써왔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br/>하버드대 기념교회(Memorial Church)를 이끈 피터 곰스 목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하버드대 인도주의상은 세계 평화를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한 인물들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역대 수상자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 미국 팝가수 라이오넬 리치 등이다.<br/><br/>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25.txt

제목: 드라마처럼 떠난 그들, 빈 자리는 영원히  
날짜: 2017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3050746002  
ID: 01101101.20170223050746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지난 19일 오후, 부고가 날아들었다. 원로 배우 김지영. “아, 그 분… 아프셨구나…”영정 속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누군가 죽음은 육체의 숨이 다하는 순간이 아니라, 망자의 빈 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이라고 했다. 배우로 기억되는 이들의 죽음이 더디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 아닐까. 아직 채워지지 않는, 오래 채워지지 않을 빈 자리들이 남아 있다. <br/><br/><br/><br/>‘억척 같은 인생’ 김지영<br/>원로 배우 김지영이 2월 19일 별세했다. 향년 79세．2년 전 폐암 선고를 받은 사실은 부고가 나기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방영된 JTBC 드라마‘판타스틱’이 마지막 작품. “니는 천 년을 살 관상이다. 삼시세끼 잘 먹고 건강 잘 챙기라”. 암환자인 여주인공을 손주며느리로 인정하고 용기를 주는 시할머니 역할이었다. 거짓말 같은 해피엔딩이었는데 드라마와 현실은 달랐다. <br/>남편과 사별한 뒤 1986년 그는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마리아 막달레나. 2006년 가톨릭 ‘서울주보’에 실린 그의 신앙고백은 고단했던 삶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다. 밖으로만 돌던 남편이 중병에 걸려 돌아오고 13년 넘게 병수발을 들었다. 자식을 키우고 약값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욕심이 나도 의상 구입비가 없어 좋은 배역은 일부러 마다했다.?매번 하찮은 역할이었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br/>그렇게 쌓은 세월이 팔도 사투리를 가장 잘 소화해내는 배우를 만들었다. 경상도 할머니로, 전라도 어머니로, 그의 연기는 언제나 숨쉬듯 편안했다. 2005년엔 드라마 ‘장밋빛 인생’으로 KBS?연기대상 여자조연상을 받았다. 연극무대까지 헤아리면 연기를 시작한 지 52년 만에 받은 첫 상이었다. 그는 투병 중에도 연기를 놓지 않았다. 두 달 전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고도 촬영장에 복귀할 준비를 했다고 한다. <br/><br/><br/>그리운 공주 김자옥<br/>“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마도 마지막 긴 여행이었을 tvN‘꽃보다 누나’에서 후배 이미연에 건넨 다정한 말 한마디. 환하고 따뜻한 미소의 김자옥은 2014년 대장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환갑을 조금 넘긴 나이였고 아들의 결혼식을 몇 달 앞둔 초겨울이었다. <br/>아버지 김상화 시인은 ‘콩알만 한 우리 자옥이/쪼그마한 내 딸 자옥이/바람이 불면 어쩌나/굴다가 구르다가 다칠라/자옥이 가는 길에 아픔이 없어라/사뿐사뿐 꿈을 밟고 가거라’며 셋째 딸의 행복을 빌었지만 순탄치만은 않은 인생이었다. 이혼과 재혼, 남편의 사업실패…. 아역배우서 시작해 비련의 여인으로, 푼수 끼 넘치는 공주로, 우아한 사모님으로 쉼 없이 현장을 누볐다.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가 보여준 중년연기자의 신산한 삶이 겹쳐지는 그림이었다. “<span class='quot0'>여름에는 더위에 살이 무르는 데도 겨울에는 살바람에 살이 트는 데도, 아주 우리가 화면 속에서 웃으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거져 돈 버는 줄 아나 봐</span>”. 극중 윤여정의 독설에도 생글 웃어넘기고 마는 그의 모습은 연기인지 실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br/><br/>(☞ [DB에서 온 그대] '꽃누나' 김자옥을 보내며)<br/><br/><br/><br/>카리스마 여운계<br/>배우 이영애는 2015년 한류 공로상을 받으며 “<span class='quot1'>대장금에 함께 출연했던 여운계 선생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span>”고 말했다. 2009년 세상을 떠난 그를 잊지 않은 모습이었다.“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라는 어린 장금의 유명한 대사는 정상궁 마마로 분한 여운계의 엄하고도 자상한 카리스마에 힘 입은 것이기도 했다. <br/>“<span class='quot0'>아줌마 소리를 듣기 전에 할머니 소리부터 들었다</span>”는 그는 20대부터 노역들을 주로 연기했다.?그의 이름을 들으면 집안의 정신적 지주인 노마님이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는 이유다.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개성적인 연기를 선보였던 그는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2007년 신장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1년 반 만에 암세포가 폐로 전이됐다. 수술날짜까지 잡았지만 촬영 중 걸린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 손 쓸 새도 없었다. 가족들은 연기 재개를 말리지 못한 걸 자책했다. 하지만 “배우 여운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끝까지 연기하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해주면 좋겠다. 나는 죽을 각오로 무대에서 연기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이라는 연기를 하고 싶다”던 그의 말을 곱씹으면 시간을 돌려도 그를 말리진 못했을 것 같다. <br/>박선영 기자 philo94@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26.txt

제목: 교보생명, 보장은 UP, 보험료는 DOWN 'CI보험'  
날짜: 2017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3050623001  
ID: 01101101.2017022305062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저금리 저성장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교보생명의 ‘교보프리미어CI보험’은 보장을 늘리면서도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를 대폭 낮춘 신개념 CI보험이다.<br/>교보프리미어CI보험은 사망 보장은 물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한 질병(CI, Critical Illness)과 중증치매 등 장기간병(LTC, Long Term Care)상태를 평생 보장한다.<br/>이 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주계약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CI와 연관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보장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br/>먼저 중증세균성수막염,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등 4가지 질환을 새롭게 CI에 추가했다. 또한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갑상선암 중 예후가 안 좋은 일부 암에 대해 중대한 갑상선암으로 분류해 보장범위에 포함시켰다.<br/><br/>기존 CI보험의 보장공백을 최소화시키는 소액보장도 확대했다. 뇌출혈, 뇌경색증처럼 CI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질환이나 CI와 연관성이 높은 중증질환 9종도 질환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br/>CI 발생 시 선지급률도 8 0%(기본형)와 100%(보장강화형)로 확대하여 넉넉한 치료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장강화형의 경우 100% 선지급 후 사망 시에는 가입금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br/>이처럼 보장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오히려 큰 폭으로 내렸다.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을 미리 확정된 예정이율로 보증해 주지 않는 대신 공시이율로 적립해 보험료를 10~ 20%가량 낮췄다. 해지환급금이 기존 방식보다 다소 적어질 수 있지만 생명보험 본연의 기능인 보장혜택에 초점을 맞춰 저렴한 보험료로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br/>지속적인 저금리로 예정이율이 인하되고 각종 보증비용 부담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br/>교보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큰 질병에 대한 보장니즈가 높아 CI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보험료가 비싸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사: 한국일보-3-527.txt

제목: 여성 가장의 빈곤탈출 위해 희망가게 창업 도와  
날짜: 2017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3050729001  
ID: 01101101.20170223050729001  
카테고리: 경제>취업\_창업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1945년 창립 이래, 인류 공헌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br/>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 활동은 창업자와 CEO가 지속적인 관심과 모범을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등 자연스럽게 기업문화로 정착되었으며, 나아가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다음과 같다.<br/>2008년부터 시작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2016년까지 총 11,078명 여성 암환우 및 4,033명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함으로써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br/><br/>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희망가게’는 여성 창업가를 꿈꾸는 여성가장의 창업을 도와 자활과 자립을 통한 빈곤탈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 Credit)’ 사업이다. 음식점, 미장원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지원해 모자가정이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힘쓰는 희망가게는 2004년 1호점 개점 이후 현재까지 300개점(2017년 2월 기준)이 문을 열었다. 올해는 3월 10일까지 1차 ‘희망가게’ 창업주를 공모한다.

언론사: 한국일보-3-528.txt

제목: 울주세계산악영화제로 ‘문화도시’ 탈바꿈  
날짜: 2017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2050702001  
ID: 01101101.20170222050702001  
카테고리: 지역>울산  
본문: 재정력 1위ㆍ행정서비스 4위 토대<br/>체육센터 만들어 체력 증진 돕고<br/>자녀교육 전문가 강의 수시 개최<br/><br/>“<span class='quot0'>저 산은 내게 우지마라 우지마라 하고~~.</span>”<br/>지난해 9월30일 저녁 영남알프스 기슭인 울산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 야외상영관. 이날 울주군이 개최한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모인 3,000여명의 관객이 후끈한 열기를 뿜어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가수 양희은의 축하공연,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등정한 ‘산악계의 살아있는 전설’ 라인홀트 메스너의 그린카펫 행사 등이 이어져 환호를 자아냈다.<br/>닷새간 이어진 영화제에는 총 5만4,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1개국 78편의 영화가 상영돼 106억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거뒀다. 울주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 계기였음은 물론이다. 전국 군 단위에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한 곳은 울주군이 유일하다. 가지산 간월산 신불산 등 1,000m급 산 9개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영남알프스를 품고 있는 지리적 조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울주군은 2010년부터 이탈리아 트렌토영화제, 캐나다 밴프영화제와 교류하며 ‘밴프 월드투어 울주상영회’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을 여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7년 만에 문화도시 울주의 ‘옥동자’를 탄생시킨 것이다. 올해 제2회 영화제를 준비 중인 울주군은 예산을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세계산악문화상도 제정키로 했다.<br/>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요람인 복합웰컴센터 인공암벽장과 알프스시네마(영화관)는 늘 주민들로 붐빈다. 센터 측은 지난해 산악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밤에 무료 상영한다.<br/>17일 저녁 8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국민체육센터 3층 헬스장에는 주민 30여명이 비지땀을 흘리며 운동에 열중하고 있었다.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160㎡ 규모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박모(45)씨는 “시설이 쾌적한데다 군민은 20% 할인된 월 2만원에 이용할 수 있어 대만족”이라고 했다. 작년 말 141억원을 들여 개관한 이 센터는 하루 1,200명 넘는 이용객이 찾는다. 울주군은 이 곳에서 자녀교육에 따뜻한 멘토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는 ‘울주3040 부모공감 콘서트’도 수시로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br/>지난해 9월 76억원을 들여 개관한 울주군 육아지원종합센터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 종일 붐빈다. 맘카페, 놀이실, 체험실, 도서ㆍ장난감 대여실 등은 기능별로 하루 평균 100~200명이 찾는다. 민선영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의 자문과 직원교육을 토대로 영유아 상담역량을 높였더니 호응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span>”고 소개했다.<br/>울주군은 탄탄한 재정력(1위)과 행정서비스(4위)를 토대로 82개 농어촌(군 단위) 지역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올랐다. 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의 선전과 함께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분양, 청량율리도시개발사업 시설용지 매각 등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끌어올린 동력이었다.<br/>울주=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29.txt

제목: “공기 속 살인자, 라돈… 초과 검출돼도 집값 떨어진다며 쉬쉬”  
날짜: 2017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2050701003  
ID: 01101101.20170222050701003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토양 등에 있는 암 유발 방사성물질<br/>주택 10곳 중 1곳 기준치 넘어<br/>사유재산인 주택에 제재 힘들어<br/>“재앙은 멀지 않은 곳에 있어<br/> 환기ㆍ균열 보강 등 모두가 노력을”<br/><br/><br/><br/>몇 년 전 한 지방의 주택가에 라돈 농도 측정을 하러 간 조승연(58) 연세대 자연방사능 환경보건센터장은 놀란 마음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집집마다 국내 권고기준치인 공기 1 ㎥당 148㏃(베크렐ㆍ방사능의 단위)을 훌쩍 초과한 라돈 농도 때문이 아니었다. “<span class='quot0'>집값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span>”던 주민들의 원성에 조 센터장은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한 주민은 조 센터장에게 “<span class='quot1'>한창 이 지역에 개발 분위기가 좋은데 제발 언론에 발설하지 말아달라</span>”고 부탁까지 했다. 라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대로 측정해 감소시키는 게 급선무란 그의 설명도 ‘집값’과 ‘땅값’이란 명분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br/>조 센터장은 2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2'>어린 아이들이 수 백 명씩 생활하는 학교의 교사들마저 라돈이 검출됐다고 경고하고 나면 ‘학교 이미지가 우려된다’는 걱정부터 내세운다</span>”며 하소연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환경공학부 교수로도 재직중인 그는 국내 유일한 라돈 연구가다. <br/>‘소리 없는 죽음의 가스’라고 불리는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흡연에 이어 폐암의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토양, 지하수,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이 자연방사능은 주로 건물 벽이나 바닥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2015년 148㏃/㎥의 라돈 농도가 지속되는 실내공간에 평생 거주할 경우 한해 2,000명 가까운 폐암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까지 나왔지만 무색무취한 가스인 탓에 국민적 관심은 그 위해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br/>더구나 피해는 대부분 환기가 잘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전국의 주택 10곳 중 1곳이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순으로 농도가 높았다. 그 해 폐암으로 사망한 서울도시철도 직원 두 명도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한 지하철 배수 펌프장과 터널에서 장시간 근무한 경우였다. 조 센터장은 “<span class='quot2'>토양에 가까운 반 지하 주택 거주자나 집에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다</span>”고 경고했다. <br/>정부도 지난해 12월 기존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던 기준치 외에, 주택에 200㏃/㎥의 권고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초과해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기준치를 초과해도 사유재산인 주택을 정부가 일일이 규제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라는 게 조 센터장의 설명이다. <br/>무엇보다 개인의 라돈 저감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손 쉬운 대책인 환기부터 바닥이나 벽 등에 갈라진 틈은 없는 지 확인한 뒤 보강재로 막는 것도 방법이다. 건물 밑이나 토양에 라돈 배출관을 설치해 라돈이 실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 그는 “<span class='quot2'>자연방사능이 지구 상에서 없어질 수 없는 이상 그 위험성을 파악한 개인이나 단체가 쉬운 대책부터 이행해 나가는 게 가장 시급하다</span>”고 강조했다.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라돈의 위험성을 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 온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이 돼서야 종합관리 대책을 내놓는 등 한참 뒤처진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감 대책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br/>최근 그가 속한 연세대 자연방사능 환경보건센터는 2월 22일을 ‘라돈의 날’로 지정했다. 이를 기념해 22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라돈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및 ‘라돈 SNS홍보단’ 발족식 등 행사를 연다. 날짜는 라돈의 질량수(원자핵을 이루는 핵자의 총수)인 ‘222’에서 따왔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라돈의 위험성에 대한 강연자로 나서는 조 센터장은 거듭 강조했다. “다른 오염물질처럼 라돈은 누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죠. 재앙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br/>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30.txt

제목: “새 아빠랑 살고 싶어요” 다문화가정 준이의 소망  
날짜: 2017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1050653002  
ID: 01101101.20170221050653002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한국인 아빠와 이혼한 엄마<br/>2년전부터 갑상선ㆍ자궁암 투병<br/>중국인 새아빠 도움 절실한데<br/>정부선 거주비자 안 내줘<br/><br/>법무부ㆍ영사관에 편지로 호소<br/><br/>“엄마가 많이 아파요. 옆에 아빠가 있어야 하는데, 아빠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아빠가 돈을 벌지 않으면 엄마는 죽습니다.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br/>20일 오후 인천 율목동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이주민지원센터). 이제 여덟 살을 갓 넘긴 이준이양이 사무실 한 쪽에 마련된 책상 앞에 앉아 B4 크기의 노트를 폈다. “법무장관님, 심양 영사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이입니다.” 이 양은 삐뚤삐뚤하지만 한 자 한 자 정성 들여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편지 노트는 금세 이 양의 사연과 소망으로 가득 찼다.<br/>이 양은 중국인 어머니 부추우제이(付秋杰·50)씨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2009년 태어났다. 세 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 다섯 살 되는 해부터 중국에서 온 새 아버지 류하이보(劉海波·44)씨와 함께 자랐다.<br/>가족의 행복은 2015년 어머니 부씨가 암에 걸리면서 산산조각 났다. 2년간 자궁암 및 갑상선암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눈과 유방까지 원인 모를 혹이 생기면서 병세는 악화하기만 했다.<br/>지난해 5월에는 비자 문제로 잠시 중국으로 돌아갔던 아버지 류씨가 한국으로 돌아올 길이 막혀 버렸다. 한국 거주비자(F-2)가 불허된 것. 설상가상이었다. 관광비자를 받아 가족 곁을 지키고 있지만, 비자 기간이 끝나면서 수술비와 당장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할 가장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부씨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가족이 없어 지난해 6월 갑상선 암 수술을 다섯 달이나 미뤄야 한 적도 있었다.<br/>이 양은 “제발 새 아빠가 엄마 병 치료도 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지금 학교도 가기 싫은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혼을 내신다”면서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저는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요”라고 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빠가 꼭 돌아오게 해 주세요. 그래야 엄마가 수술받고 세 식구가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양의 편지는 이주민지원센터를 통해 법무부와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에 전달될 예정이다.<br/>하지만 ‘이 양의 소원’은 쉽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씨의 거주비자 신청이 17일 거절됐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 고시에 의하면 중국에서 거주비자 신청이 거절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신청권이 없다”며 중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연소득 2,200만원 이상(법무부 고시)이라 이들의 소득수준을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 영주권자인 부씨의 소득은 정부지원금 월 70만원이 전부다. 목수일을 하는 류씨 소득도 변변치가 않다.<br/>이주민지원센터장인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화정책학 교수는 “이 양은 지난 10월에도 법무부 등에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 등은 이 양의 처지가 법무부고시에서 인정되는 ‘급박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br/><br/>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31.txt

제목: 건강보험 당기흑자 2019년 '끝'… "2020년 3조원 적자"  
날짜: 2017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1050509001  
ID: 01101101.20170221050509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건강보험재정이 최근 몇 년간 이어가던 당기흑자 행진을 멈추고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며 2020년에는 적자규모가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br/>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1년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br/>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0년 1조2,994억원 적자에서 2011년 6,008억원 흑자로 전환하고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등으로 흑자규모가 커지다가 2014년 4조5,869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br/> 하지만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지출이 급격히 늘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 폭이 줄었다. <br/>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연평균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을 새로 투입하면서 올해 당기흑자도 6,676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2018년에는 4,777억원으로 더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br/> 이후 2019년에는 당기수지가 1조1,898억원 적자로 돌아서고서 2020년에는 2조8,459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br/> 당기수지가 급감하면서 2016년 현재 20조656억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은 2017년 20조7,332억원, 2018년 21조2,109억원으로 늘다가 2019년 20조211원에 이어 2020년에는 17조1,752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산했다.<br/> 건보공단과 노조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규정이 예정대로 올해 12월말 만료돼 정부지원이 끊기면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늘면서 장기적인 건보재정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며,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32.txt

제목: “불필요한 갑상선암 수술 70%나 돼”… “진단 철저히 하되 과잉수술 말아야”  
날짜: 2017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1050723002  
ID: 01101101.2017022105072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세계 평균의 10배 넘는 갑상선암 수술 줄여야<br/><br/>우리나라는 유래없는 기형적인 갑상선암 증가로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갑상선암 과잉 진단ㆍ치료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갑상선암 환자수는 2011년 약 4만 명으로 10만 명당 81명꼴이었는데,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암 가운데 갑상선암이 가장 많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br/>대한갑상선학회(이사장 김원배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완화된 ‘새 갑상선암 진료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에서는 과잉 진단ㆍ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한 갑상선센터 전문의는 “<span class='quot0'>아직 새 갑상선암 진료 권고안이 알려지지 않아 병원에서 1㎝ 미만의 갑상선 결절(혹)을 수술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70%나 된다</span>”고 했다. 신상원 고대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아직도 갑상선암 진단이 어처구니없이 많은 상황이어서 갑상선암 수술을 더 줄여야 한다</span>”고 했다.<br/><br/>“<span class='quot2'>1㎝ 이상 갑상선암만 수술해야</span>”<br/> 대한갑상선학회는 지난해 11월 ‘2016년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 진료 권고안은 ‘초음파 검사로 확인된 갑상선 결절이 지름 1㎝이상일 때 세침흡인세포검사(FNAC)를 한다. 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되면 수술하라’는 게 골자다.<br/> 다만, 결절이 0.5~1㎝이라도 필요하다면(즉시 수술해야 하는 진행암 의심 소견이 있거나, 임상적 위험인자, 환자 선호도ㆍ상태 등) 세침흡인세포검사를 하고, 암으로 진단되면 수술을 하거나 6개월~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하라’고 했다. 또한, ‘수술하더라도 갑상선 한쪽 옆만 제거하는 갑상선 반(半)절제술을 선호하고, 림프절 전이암은 예방적인 림프절 절제를 피하고 절제 범위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br/>2010년에 마련된 기존 진료 권고안은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 결절이 0.5㎝ 이상이라면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추가로 하고, 암으로 진단되면 갑상선 양쪽 엽(葉ㆍ좌엽, 우엽)을 모두 잘라내라(갑상선 전(全)절제술)는 내용이었다. 새 진료 권고안은 갑상선암 과잉 진단ㆍ치료 논란이 거세지자 0.5~1㎝인 작은 갑상선암(갑상선미세유두암)의 경우 전이됐거나 주변으로 침범하지 않았다면 작은 갑상선암은 수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찰(surveillance)하라는 쪽으로 완화한 것이다.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97%정도가 비교적 천천히 자라고 치료가 잘되는 ‘거북이암’인 갑상선 유두암이기 때문이다. 유두암으로 명명된 것은 암세포가 볼록볼록하게 배열돼 마치 젖꼭지처럼 생겼기 때문이다.<br/>2015년 미국갑상선학회 진료 권고안 안내서를 낸 하정훈 땡큐서울이비인후과 원장(전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 “<span class='quot3'>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는 기준을 0.5㎝에서 1㎝로 상향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span>”이라며 “<span class='quot3'>물론 1㎝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더 좋은 기준이 마련될 것</span>”이라고 했다. 하 원장은 “<span class='quot4'>작은 갑상선암(갑상선미세유두암)은 대부분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만 방치하면 자칫 림프절로 심각히 전이되거나(림프절 전이암) 치료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밖에 살지 못하는 갑상선미분화암(역형성암)으로 변질돼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건강검진으로 발견한 작은 갑상선암은 수술을 급히 결정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게 바람직하다</span>”고 했다.<br/> <br/>“<span class='quot2'>수술은 되도록 절반만 잘라야</span>”<br/> 1㎝ 미만의 작은 갑상선암(갑상선미세유두암)이 커지거나 전이되면 수술해야 한다. 갑상선미세유두암 환자 100명당 2~8명 정도가 암이 커져 수술하게 된다. 5명 정도는 목 림프절에 전이가 생기는데 이때는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br/> 수술은 크게 3가지다. 갑상선 양쪽 엽을 모두 제거하는 갑상선 전절제술(전절제)과 갑상선 엽 한쪽만 없애는 갑상선 엽절제술(갑상선 반절제술, 혹은 반절제), 매우 드물지만 협부에만 국한된 작은 결절이 있다면 협부만 제거하는 갑상선 협부절제술 등이다. 수술은 대개 2박3일 일정으로 한다.<br/> 갑상선을 절반 가량 없애는 반절제 수술을 시행하면 남아 있는 갑상선이 대부분 제 기능을 하게 마련이다. 반절제 수술 후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20%정도였고, 갑상선호르몬제를 꼭 먹어야 하는 환자는 10%정도에 불과했다. 하 원장은 “<span class='quot4'>1㎝ 미만의 작은 갑상선암을 진단ㆍ수술하는 것에 논란이 있지만 수술한다면 반절제 수술을 권한다</span>”며 “<span class='quot4'>재발률이 낮고, 재발 후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늦지 않기 때문</span>”이라고 했다. 2015년 미국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에는 1㎝ 이내 갑상선 결절은 검사를 권하지 않지만, 수술한다면 반드시 반절제 수술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br/>반절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 같은 추가 치료를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면 된다. 심각한 상태가 아니므로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소홀했던 건강을 돌아 보고 관리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br/>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됐거나 주변으로 침범해 암이 악화된 환자는 여전히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대부분 갑상선 전절제술과 함께 림프절 절제술을 하게 된다. 이때는 수술 후 갑상선호르몬제(씬지로이드)를 먹어야 한다. 부족해진 갑상선호르몬을 보충하고,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br/>갑상선암 수술 후 재발 위험이 큰 수술 환자에게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한다. 방사선이 나오도록 조작된 요오드를 캡슐에 넣고 먹는 치료다. 갑상선 절제술 후 남아 있는 갑상선 조직ㆍ미세잔존암ㆍ전이암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br/>갑상선암 수술을 하면 목 부위 불편감이나 목소리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수술 후 목ㆍ어깨ㆍ팔 부위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하면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목소리가 변했다면 이비인후과에서 후두내시경으로 성대 신경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음성치료, 성대주입술 등을 빨리 시행하면 회복에 도움 된다. <br/>갑상선암 수술 후 임신과 모유 수유도 가능하다. 최준영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수술 받고, 갑상선호르몬을 먹을 때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 받을 때에도 치료 1년 후에는 임신, 출산, 모유 수유를 모두 할 수 있다”며 “다만 임신 중에는 갑상선호르몬 필요량이 증가하므로 갑상선기능검사 후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br/><요오드가 많은 음식><br/> <자료: ‘갑상선암 두려움 없이 맞서기’(와이비스 발행)>

언론사: 한국일보-3-533.txt

제목: [메디컬 인사이드] “대장암 4기라도 새로운 치료법으로 나을 수 있어요”  
날짜: 2017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1050723001  
ID: 01101101.2017022105072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하이펙’ 치료 100례 달성하는 백승혁 교수<br/><br/>“대장암이 복강으로 전이된 4기라면 수술을 포기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기존 치료법으로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했던 4기 대장암도 새로운 기법으로 3분의 1 가량 치료할 수 있습니다.”<br/> 백승혁 강남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4기암을 ‘말기암’으로 여겨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가 많은 것이 안타깝다</span>”며 이렇게 강조했다.<br/> 최근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해 수술 등으로 완치하는 사람이 늘었다. 하지만 조기 발견하지 못하면 장기나 혈액, 임파선 등으로 전이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전이된 4기암은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br/>그런데 백 교수가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하이펙(HIPECㆍ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치료’가 큰 효과를 나타내면서 4기 대장암 환자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하이펙 치료법은 대장암 덩어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면서 고온(42도 정도) 가열한 항암제를 뱃속에 넣어 암세포를 직접 죽인다. 24일로 하이펙 치료 100례를 달성하는 백 교수를 만났다.<br/><br/>-대장암 현황을 설명하자면.<br/> “대장암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272명(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암(302명), 유방암(285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다른 암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장암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어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지 않는 한 쉽게 발견되지 않지요. <br/> 대장암 환자의 36.3%가 전이되지 않은 1~2기로 5년 생존율(완치로 봄)이 93.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전이가 잘된다는 점입니다. 림프 등 국소 부위로 퍼진 3기 대장암 환자는 40.2%나 되고, 5년 생존율도 60~70%로 떨어집니다. 혈액을 타고 간이나 폐, 척추로 퍼지는 원격 전이(처음 발생한 암세포가 멀리 퍼지는 것)된 4기 대장암 환자는 14.6%이지만 5년 생존율은 0%에 가까울 정도로 치명적이지요.<br/> 우리나라도 젊은 대장암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30, 40대 젊은 사람은 건강 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대장암을 뒤늦게 발견하는 일이 잦다 보니 암이 크게 퍼진 4기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죠. 안타까운 일이죠.”<br/><br/>-하이펙 치료법은.<br/>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대 워싱턴암센터에서 연수할 때 폴 슈거베이커 종양외과 교수에게서 이 치료법을 배웠죠. 30년 넘게 이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는 슈거베이커 교수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4기 복막 전이 대장암 환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겼죠. <br/>하이펙 치료법은 생존이 거의 어려운 복막 전이 4기 대장암 환자를 30% 가량 살리는 혁명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죠. 간단히 말하면 배를 가르고 암 부위를 제거한 뒤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환자 복강에 42도로 가열한 항암제(마이토마이신)를 90분 정도 직접 뿌려주는 치료법이죠. 암세포가 일반세포보다 열에 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온열요법과 전통적 항암제 치료법을 수술과 접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온열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고, 항암제 치료농도를 30배 가량 올린 상태에서 암세포에 직접 투입하기에 치료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난소암에 쓰이는 항암제(파클라탁셀)의 1,000배 정도 효과를 내죠. 미국의 하이펙 치료 사례를 보면 4기 대장암에서 일반 항암제 치료만 했을 때보다 5년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br/>다만 하이펙 치료는 처음 발생한 부위의 암세포와 전이된 암세포를 제거해야 하므로 수술이 매우 복잡하고 보통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다른 수술보다 4배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뜨거운 온열 항암 치료가 병행되므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높죠. 따라서 하이펙 치료는 고도로 특화되고 숙련된 의사와 치료팀의 팀워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하이펙 치료를 1주일에 2건 정도 밖에 하지 못합니다. 특히 보험적용이 되지 못해 많은 병원에서 이 치료법을 받을 수 없는 점도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나눔과 배려’의 세브란스 정신으로 이 치료를 하고 있죠. <br/>덧붙이자면, 하이펙 치료법을 쓰면 대장암 일종으로 충수돌기에서 생기는 ‘복막 가성점액종(위점액종)’을 100%가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영화배우 오드리 햅번이 이 병으로 사망했지요. 참고로 2014년 7월 제가 처음으로 이 치료를 한 50대 4기 대장암 환자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br/><br/>-4기 대장암이라도 수술하는 게 좋은가.<br/> “아직 최종적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숙련된 외과의가 부작용 없는 수술을 했다면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14년 ‘외과 연보(Annals of Surgery)’에 발표된 ‘3만7,793명의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원발암 절제의 역할‘ 논문이 대표적이죠. 전이성 대장암 환자 가운데 원발암을 절제한 2만3,004명과, 그렇지 않은 1만4,789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원발암을 잘라낸 환자의 생존율이 높았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2015년 '외과종양학저널(Journal of Surgical Oncology)'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4기암도 수술한 뒤 항암치료를 받으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생존기간이 평균 4개월 정도 늘었습니다. 4기 대장암은 수술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깨고 수술이 치료에 도움될 수도 있죠.”<br/><br/>-대장암 예방법이라면.<br/> “대장 질환은 초기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대장내시경을 하지 않는 한 쉽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소 대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름진 음식과 붉은 색 고기, 과음. 흡연 등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등을 많이 먹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지요.”<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534.txt

제목: 충남대병원 세종의원 진료과목 확대  
날짜: 20170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0050626002  
ID: 01101101.2017022005062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충남대병원이 운영난 등을 이유로 대폭 축소했던 세종의원의 진료시스템을 확대해 잃어버린 신뢰 회복에 나선다.<br/> 20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현재 가정의학과 1명만 상주하며 진료하고 있는 세종의원 규모를 소아청소년과와 일반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5개 과로 확대 운영한다.<br/> 충남대병원은 10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는 대전 문화동 충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속히 이송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충남대병원은 이를 통해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 응급의료 공백 해소에 일부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br/> 세종의원의 기능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운영비는 10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충남대병원이 5억5,000만원, 세종시가 4억5,000만원을 부담키로 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의 개원 시기가 당초 2018년 상반기에서 2019년 하반기로 늦춰진 만큼 최소 2년 정도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충남대병원은 1-4생활권(도담동) 의료시설부지(3만5,261㎡)에 연면적 7만4,000㎡, 지하 3층~지상 11층, 5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이 곳에선 암ㆍ여성의학센터 등 9개 특성화센터가 운영되고, 내ㆍ외과계와 특수계 등 12개 부문의 진료가 이뤄질 계획이다.<br/> 수준 높은 의료에 목 말라 있는 시민들은 세종의원의 확대 운영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3년 전 세종시 신도심에 둥지를 튼 이모(41)씨는 “<span class='quot0'>처음 왔을 때보다 병원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이왕이면 일반 병원보다는 충남대병원의 의사들이 진료를 더 잘 할 것 아니냐</span>”고 말했다.<br/><br/><br/> 하지만 갑자기 진료과목이 대폭 줄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세종의원을 지켜봤던 시민들은 미심쩍은 마음을 떨칠 수 없다. 세종의원은 야간 응급진료까지 하는 시스템을 갖춰 2013년 3월 개원했다. 한 때 최대 15개 과목으로 진료하다가 적자 가중과 서비스 불만 등으로 최근 2년 새에 가정의학과 하나만 남긴 채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br/> 세종의원이 5개 진료과목만으로 기본적인 응급의료 수요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다소 냉소적인 시선도 있다. 박모(52)씨는 “야간에 갈 만한 곳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결국 대전이나 청주까지 가야 하는 건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br/>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그 동안 유능한 진료진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어 애를 먹었다”며 “일단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전까지 중부권 대표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판단에 규모 확대를 결정지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br/>글ㆍ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35.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신한카드 Noon’ 外  
날짜: 20170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20050604002  
ID: 01101101.20170220050604002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신한카드, 정오를 행복하게 해주는 ‘Noon’ 출시<br/>신한카드는 직장인의 점심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신한카드 Noon’을 출시했다. 이 카드는 오전 11시~오후 2시에 일반 대중음식점, 뷔페, 패스트푸드 등 요식업종에서 사용하면 20%(2,000원 한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업종에서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체 금액이 5만원 이상이고 전원 실적이 50만원을 넘으면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월 3,000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UPI와 Master 등 2가지 브랜드로 발급되며 연회비는 8,000원으로 동일하다.<br/><br/>우리은행, 대학생 특화 ‘위비 꿀청춘 패키지’ 출시<br/>우리은행은 신학기를 맞아 대학생 고객을 위한 ‘위비 꿀청춘 패키지’를 출시했다. 자유입출식 통장인 위비 꿀청춘 통장과 체크카드로 구성돼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8~30세 개인이다. 입출식 통장은 가입만 해도 27만원 상당의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고객 중 선착순 10만명에게 취업정보사이트 인크루트 1만원 상품권, YBMㆍ문정아중국어 강의 할인권, 하나투어 해외여행 100만원 이상 결제시 3만원 할인권 등을 제공한다. 체크카드는 토익 응시료 10% 할인, 휴대폰 요금 매월 3,000원 할인, CU편의점 5% 할인 혜택 등이 있다.<br/><br/>AIA생명, 간편심사로 가입 ‘2대 질병보험’ 출시<br/>AIA생명이 간편심사 상품인 '무배당 꼭 필요한 2대질병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45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10년 만기 갱신형(최대 100세보장) 상품으로, 주계약 가입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의무부가특약인 ‘(무)꼭 필요한 뇌출혈특약(갱신형)’을 통해 뇌출혈 진단시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로 보장한다. 또 간편심사 상품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3가지 질문 통과 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ㆍ수술ㆍ추가(재)검사 필요 소견 여부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 여부 ▦5년 이내 암 진단 또는 치료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언론사: 한국일보-3-536.txt

제목: 제주에 ‘존엄하게 죽을 권리’ 선물한 푸른 눈의 신부님  
날짜: 2017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19050439001  
ID: 01101101.20170219050439001  
카테고리: 지역>제주  
본문: 60여년간 제주민에 헌신한<br/> 아일랜드 출신 임피제 신부<br/>‘성이시돌 호스피스 병원’ 후원 <br/> 임종 앞둔 가난한 이웃 관심 호소<br/><br/><br/>‘푸른 눈의 신부’라 불리는 임피제 신부(본명 패트릭 J. 맥그린치ㆍ89). 그는 1954년 청년 시절에 이역만리 떨어진 아일랜드에서 제주로 건너 와 지금까지 평생을 제주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왔다.<br/>임 신부가 처음 제주에 도착할 당시 제주사람들은 한국 전쟁과 4ㆍ3사건 등으로 인해 극심한 가난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목축업이 발달한 아일랜드 출신의 그는 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끼를 밴 어미 돼지 한 마리를 인천에서 구입해 제주 한림까지 가져왔고, 어미 돼지가 낳은 새끼 돼지들을 아이들에게 한 마리씩 나눠 줬다. 그리고 분양한 돼지가 커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다시 한 마리를 반환하게 했다. 이게 성이시돌목장의 시초가 됐다. 임 신부에게 ‘돼지 신부’라는 애칭도 이 때 붙여졌다.<br/>그는 성이시돌목장에 돼지를 비롯해 양과 소, 말까지 사육하면서 한국 최대의 목장으로 키우는 등 제주 근대 목축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목장에서 생산된 양털을 이용해 옷을 짜는 한림수직을 설립해 1,300명의 젊은 여성들을 고용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또 제주에서 처음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해 저리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등 제주사람들의 가난 해결에 집중해 온 제주 근대화의 선구자다. 또 그는 병원, 양로원, 요양원, 유치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해 가난하고 소외 받은 이들을 돌봐 왔다.<br/>이처럼 60여년간 제주사람들을 위해 헌신해 온 임 신부는 현재 90세를 목전에 둔 백발 노인으로 지팡이 없인 걷기도 힘들어질 만큼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머리 속에는 여전히 제주사람들뿐이다.<br/> <br/><br/>지난 18일 임피제 신부 기념사업회가 제주시 김만덕기념관 강당에서 마련한 ‘성이시돌 호스피스(Hospice) 병원 후원 및 임피제 신부 평전 발간 기념식’에 참석한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호스피스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br/>임 신부는 “일반 병원은 의사, 간호사가 질병을 고치는 목적이라면 호스피스는 불치병이나 암 같은 큰 병으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제일 불쌍한 환자들을 위한 공간”이라며 “호스피스 병원은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 세상을 편히 떠날 수 있게 도와준다. 입원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도 돕는 곳으로, 제주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임 신부는 현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제주사회에서 남은 새로운 가난의 형태를 ‘죽음’이라고 말한다. 그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사람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로 호스피스 병원을 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br/>임 신부는 1970년 4월 성이시돌 의원을 개원해 제주 서부권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왔다. 그러다가 2002년 3월 호스피스 중심의 성이시돌 복지의원으로 재개원했고, 2007년에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로 이전했다. 성이시돌 복지의원은 10개 병실과 20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한 방도 따로 마련돼 있다. 병원은 현재 2,000여명 후원자들의 소액 기부와 기업 기부 중심으로 마련된 운영비를 기본으로 사료공장 및 종마사업을 운영하는 이시돌농촌사업개발협회가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br/>임 신부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호스피스 병원이 후원 회원제로 운영된다”며 “성이시돌 복지의원도 후원 회원들이 있지만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br/>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37.txt

제목: 용인시 슬레이트 지붕ㆍ벽 철거하면 300만원 지원  
날짜: 2017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17050440001  
ID: 01101101.20170217050440001  
카테고리: 지역>경기  
본문: 70가구 대상… 다음달 10일까지 접수<br/><br/>경기 용인시는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을 철거하는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보조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유주의 소득, 건물노후화 등을 따져 70가구를 선정한다. 희망자가 많으면 30가구를 예비로 더 뽑아 사업 포기 등에 대비한다.<br/>시는 지난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모두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br/>용인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 건축자재</span>”라며“<span class='quot0'>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span>”고 말했다.<br/><br/>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38.txt

제목: “‘오이고추 먹어 4개월 만에 40㎏ 감량’ 종편 방송 오류”  
날짜: 2017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16050619001  
ID: 01101101.201702160506190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김순미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span class='quot0'>종편 식생활 프로그램, 1편당 1.2회 잘못된 내용</span>”<br/>종합편성채널(종편)에서 방송한 식생활 프로그램 가운데 잘못됐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1편당 평균 1.2회였다고 드러났다. 가장 흔한 것은 시청자가 식품을 약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었다.<br/>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김순미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2015년 5∼9월 종편 건강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식생활 관련 3개 채널(8개 프로그램)의 방송분 82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br/>이 연구결과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종합편성채널 식생활관련 프로그램의 식품영양정보 분석-전문가 출연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실렸다.<br/>연구팀이 모니터링한 82편 중 부적절한 정보로 분류된 내용은 모두 95회였다. 방송 프로그램 1편당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평균 1.2회 포함된 셈이다. 이 중 가장 많이 방송된 것은 시청자가 식품을 약으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체 82편의 방송 분 중 24회(29.3%)였다.<br/> 방송에 체험자를 등장시켜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정 식품을 먹고 회복됐다’는 내용이 여기 속한다.<br/>연구팀은 ‘말벌주를 1주일 먹고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 ‘공복에 오이고추를 먹어 4개월 만에 40㎏을 감량했다’ 등의 방송 내용을 예로 들었다. 잘 통제된 상태에서 실험한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 경험에 의존한 정보를 방송에서 내보내는 것은 ‘과학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자막처리를 하더라도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br/>두 번째로 흔한 부적절한 방송 내용은 내용 오류(21회, 25.6%)였다. 내용 오류는 전문가 출연자 중 식품영양 비전문가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연구팀은 “과거 영양이 결핍된 시대에 보양식이라 할 수 있었던 육개장을 ‘노화ㆍ암 예방에 탁월한 음식’이라고 소개하거나 ‘간장에 채소가 더해진 음식인 장아찌는 건강에 으뜸인 식품’으로 언급한 것”을 대표적인 내용 오류 사례였다.<br/>세 번째로 잦은 부적절한 방송 내용은 정보의 균형 결여로 20회(24.4%)의 방송분에서 언급됐다. 연구팀은 콩류에 속하는 렌틸콩의 영양성분을 곡류인 백미와 비교함으로써 쌀의 영양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것처럼 비춰지게 한 방송 내용을 정보의 균형성 결여의 단적인 예다.<br/>네 번째로 부적절한 방송 내용은 식품의 생리활성 기능을 과장한 경우(16회, 19.5%)였다. 연구팀은 ‘칼슘이 풍부한 전복은 특히 시신경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방송 내용이 대표적이다.<br/>다섯 번째로 부적절한 내용은 방송 내용이나 자막 처리 시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경우(14회, 17.1%)였다. 연구팀은 “멸치가 국민 대표 밑반찬이란 주제로 방송하면서 ‘멸치를 반찬으로 먹으면 칼슘 흡수를 떨어뜨리므로 반찬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내용”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 국민의 장 건강 상태는 사망 직전’이란 내용 등은 많은 시청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심어준 사례”라고 예시했다.<br/>한편 연구팀은 모니터링을 실시한 8개의 방송 프로그램 중 부적절한 내용이 가장 적게 지적된 프로그램은 JTBC의 ‘프로그램 F’(1편당 평균 0.3회)였다고 밝혔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539.txt

제목: 가습기살균제 원료 특허 등록, 아무도 막지 않았다  
날짜: 2017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15050606002  
ID: 01101101.20170215050606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독ㆍ금지 물질 활용 특허 출원 20년간 2만건<br/>특허청, 유해ㆍ위해성 심사 안해… 등록 거절 극소수<br/>정유섭 의원 “<span class='quot0'>유해 물질 특허 심사 강화해야</span>”<br/><br/><br/>유해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암 유발 물질 등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ㆍ금지물질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활용한 특허 출원이 최근 20년간 2만3,69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br/>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입수한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15일 공개하며 “<span class='quot1'>특허청이 특허 출원 심사 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ㆍ위해성 여부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span>”고 주장했다.<br/>정 의원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ㆍ위해성이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유독ㆍ허가ㆍ제한ㆍ금지ㆍ사고 대비 물질 등으로 구분했다. 또 물질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저장ㆍ운반ㆍ사용 등을 단계별로 제한한다.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해 제조ㆍ판매 때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고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은 금지물질로 지정해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외에는 사용을 금지했다.<br/>특허청도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유독ㆍ금지물질을 활용한 제품 관련 특허 출원 심사 때 유해ㆍ위해성 여부를 조사해 특허 등록을 거절해야 한다.<br/>하지만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특허 등록이 거절된 사례는 최근 20년간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0건 중에 식품 분야가 24건, 생명공학 분야가 6건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거절은 1건도 없었다.<br/>실제 염료를 만드는데 쓰는 벤지딘은 췌장암과 방광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2006년 2월 환경부가 금지물질로 지정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2006년 10월 두산이 2년 전 특허 출원한 벤지딘 화합물 제조방법의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 음료 용기 제조 등에 쓰는 화합물 제조방법이었으나 위해성 여부는 심사하지 않았다.<br/>폴리염화비페닐(PCBs)은 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정부가 2006년 금지물질로 지정한 데 이어 2015년까지 국내에서 없애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10년 스마트폰 터치패널 관련 특허를 출원하며 폴리염화비페닐을 전기절연유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으나 특허 출원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았다.<br/>발암물질로 농약, 제초제에 들어가는 니트로펜은 2006년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 공급사로 유명한 다우케미칼의 자회사인 다우아그로사이엔씨는 최근까지 니트로펜과 관련한 특허를 국내에서 다수 출원했다.<br/>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유해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와 관련한 특허 출원도 1,207건에 달했다. 이중 약 절반(569건)은 등록 결정까지 됐다.<br/>정 의원은 “<span class='quot0'>특허 출원인이 출원 신청 때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특허 심사 때는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적정성 여부를 묻도록 강제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특허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40.txt

제목: 살 빼기, 언제나 좋을까? ‘비만의 역설’…과체중이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도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14050727001  
ID: 01101101.20170214050727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마른 몸은 위험하다’. 광고 문구다. 실제로 마른 사람보다 적당히 뚱뚱한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비만의 역설(obesity paradox)’이 학계에서 뜨거운 감자다.<br/> 과체중인 사람이 빼빼 마른 사람보다 사망위험이 낮다는 조사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다. 과체중인 사람이 암 수술 후 사망률이 낮고, 뇌졸중에 걸려도 회복력이 빠르며, 심부전에도 더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비만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근육인데 근육 많은 과체중인 사람이 빼빼 마른 사람보다 건강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span>”이라고 했다. 하지만 비만을 측정하는 기준, 즉 체질량지수(BMI)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br/><br/>살찌면 오히려 건강하다?<br/> 보통 비만 기준으로 BMI가 쓰인다. BMI는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정상 체중(18.5~22.9), 과체중(23~24.9), 비만(25~29.9), 고도 비만(30 이상), 저체중(18.5 미만)으로 구분한다.<br/> 살찐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건강에 좋다는 ‘비만 패러독스’는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 간간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결과가 슬슬 나왔다. 성기철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교수팀은 2002~2013년 건강검진을 받은 16만2,194명을 대상으로 BMI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저체중인 사람의 전체 사망률이 정상체중인 사람보다 53% 늘었고,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 사망률은 정상체중보다 23% 줄었다고 했다. 이 결과는 암, 심혈관질환과 같은 질병에 의한 사망률에서도 마찬가지였다.<br/> 심장병 환자가 과체중이거나 가벼운 비만이라면 저체중보다 예후(병 치료 뒤 경과)가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노정현 인제대 일산백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대한비만학회지 최근호에 기고한 리뷰 논문에서 “<span class='quot1'>심혈관 환자의 비만 지표(BMI-체지방-허리둘레-중심비만 등)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예후가 더 좋았다</span>”고 했다.<br/>몸이 적당히 비만하면 심부전을 앓아도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2만8,209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선 정상 체중 심부전 환자보다 과체중-비만인 심부전 환자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각각 19%, 40% 낮았다. 하지만 고도 비만(BMI 40 이상)이면서 심부전인 사람에겐 비만 패러독스가 나타나지 않았고 예후가 오히려 나빴다.<br/> 위암에 걸려도 과체중인 사람이 저체중이거나 정상체중인 사람보다 생존율이 더 높았다. 박재명ㆍ송교영ㆍ이한희 서울성모병원 교수팀이 위를 잘라낸 위암 환자 1,905명의 몸무게와 수술결과를 비교해보니 저체중 위암 환자 5년 생존율은 69.1%, 정상체중은 74.2%, 과체중은 84.7%였다. 송 위장관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위암 환자는 수술 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므로 BMI가 높으면 생존율도 높아지는 것을 추정된다</span>”고 했다.<br/>65세 이상 고령인은 살찔수록 뇌졸중이 나타나도 회복력도 빨랐다. 김연희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팀이 국내 9개 대학병원에서 2012 1월~2014년 10월 급성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 받은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57명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 환자에서 고도비만그룹(37명)이 비만그룹(326명)이나 과체중그룹(316명), 정상그룹(391명), 저체중그룹(62명)보다 일상생활 능력이 빨리 회복했다.<br/>마른 사람이 탄산음료를 마시면 비만인 사람보다 잇몸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한다. 서울성모병원ㆍ고대구로병원이 20, 30대 5,500여 명의 비만도에 따라 탄산음료 섭취빈도와 구강상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마른 사람이 탄산음료를 1주일에 2차례 이상 마시면 잇몸병 위험이 52% 증가한 반면, 비만인 사람은 잇몸병 위험이 줄었다. 박준범 서울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뚱뚱한 사람이 맷집이 좋은 것처럼 탄산음료 같은 것이 입 안에 들어왔을 때 세균이나 치주염 등에 더 잘 저항하는 것 같다</span>”고 했다.<br/><br/>좋은 영양상태 때문? 엄격한 비만 기준 탓?<br/>아직 비만의 역설에 대한 메커니즘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가설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비만이 수명을 줄인다는 것이 대세인 셈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지난해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Lancet)’에 밝힌 45년에 걸쳐 32개국 239개 연구의 1,060만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ㆍ유럽에서 발생한 조기 사망의 각각 5건 중 1건과 7건 중 1건이 과체중으로 유발됐다. 연구팀은 “평균적으로 과체중인 사람과 중등도 비만인 사람은 기대 수명을 각각 1년, 3년 정도 줄고, 뚱뚱한 남성은 특히 더 위험하다”고 했다.<br/> 하지만 비만의 역설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뚱뚱한 사람이 영양상태가 더 좋아 병에 걸려도 더 잘 견디기 때문에 비만의 역설은 아직 가설에 불과하지만 크게 틀리지 않는다</span>”고 했다. 사망률이 높은 암, 폐결핵 등 소모성 질환(에너지를 많이 쓰는 질환)에 걸리면 체중이 줄어드는데 이 때문에 통계적으로 과체중인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이다.<br/>우리나라 비만 기준이 낮아 실제로 정상인 사람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진단되면서 생긴 착시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국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향적인 대규모 연구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BMI 구간이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ㆍ태평양 기준으로 과체중에 해당되는 BMI 22.5~25.0이라는 사실을 들어 비만 기준(BMI 25 이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의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키도 서구와 비슷하게 커져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아시아ㆍ태평양 비만 기준(BMI 25 이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만 기준 정도(BMI 27.5 이상, 미국 비만 기준은 BMI 30 이상)로 높여야 한다” 주장했다. <br/>조정진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최근 일본검진학회에서 제시한 비만 기준(BMI 남자 27.7, 여자 26.1 이상)처럼 연구를 통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유순집 대한비만학회 이사장(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도 “BMI라는 숫자 하나로만 비만 진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비만 기준에 복부비만 등의 수치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br/> 황희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비만건강학회 총무이사)는 “최근 연구결과 추이를 볼 때 ‘근육 없는 저체중보다 근육 많은 과체중이 낫다’는 게 결론”이라며 “근육이 많으면 잘 넘어지지 않아 낙상을 당하지 않고, 혈당 조절에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541.txt

제목: [헬스 파일]  
날짜: 2017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13050708002  
ID: 01101101.20170213050708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당뇨병학회, 인슐린 치료 수기 공모전<br/>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치료 인식 개선을 위해 3월 6일까지 인슐린을 치료한 적 있는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당뇨병 극복 인슐린 치료 수기 공모전’을 연다. 주제는 ‘인슐린 치료를 받으면서 겪었던 당뇨병 환자 및 가족의 사연’이다. ▦인슐린을 통한 혈당?조절성공사례 ▦인슐린 치료 후 삶의 변화와 긍정적 체험 등 당뇨병 환자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면?된다. 참가신청서와 함께 응모작을 3월 6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참가신청서와 제출양식은 병원 안내데스크나 학회 홈페이지(www.diabetes.or.kr)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br/><br/>GSK, 발트렉스정 직접 판매<br/>GSK는 대상포진치료제 '발트렉스정'을 직접 판매한다. 발트렉스(성분명 Valaciclovir HCl)는 대상포진, 초발ㆍ재발성 성기포진 감염증, 성기포진 감염증 재발 억제, 안전한 성생활을 병행하면 억제요법으로 성기포진 전염 감소, 콩팥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 구순포진, 면역기능 정상인 2~18세 어린이ㆍ청소년 수두 등 7가지 적응증이 있다. 특히 발트렉스는 구순포진에는 하루(1회 2,000㎎, 1일 2회), 대상포진에는 일주일(1회 1,00㎎, 1일 3회)만 먹으면 된다.<br/><br/>서울대 어린이병원, 모야모야병 강좌<br/>서울대 어린이병원은 15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 모야모야병 강좌를 연다. 강좌는 채종희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어린이 모야모야병’, 김승기 소아청소년 신경외과 교수의 ‘어린이의 수술적 치료’, 김정은 신경외과 교수의 ‘어른의 수술적 치료’가 이어진다. (02)2072-3444<br/><br/>서울성모병원, 만성콩팥병 강좌<br/>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는 15일 오후 2시 ‘만성콩팥병 조기관리하세요’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강좌는 김용수 신장내과 교수의 ‘만성콩팥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김영주 간호사의 ‘만성콩팥병 환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김희영 영양사의 ‘저단백식이’와 질의응답순이다.<br/><br/>김안과병원, 노안ㆍ시력교정술 강좌<br/>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은 16일 오후 3시30분 김안과병원 명곡홀(망막병원 7층)에서 ‘노안과 시력교정술’을 주제로 해피eye 눈 건강 강좌를 연다. 강좌는 라식센터 센터장 정재림 안과 교수가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이다.<br/><br/>강동경희대병원, 내시경뇌종양클리닉<br/>강동경희대병원은 뇌종양 수술 시 머리를 열지 않고 내시경 수술법으로 제거하는 강점을 내세워?‘내시경뇌종양클리닉’을 개설했다. 신경외과,?내분비내과,?이비인후과 교수 간 다학제 진료를 통해 환자 맞춤형 세밀한 치료계획을 수립,?진단부터 수술ㆍ퇴원까지?10일 내 원스톱 진료를 제공한다. 평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02)440-7170?<br/><br/>이대목동병원, 뇌전증 강좌<br/>이대목동병원은 16일 오후 1시30분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뇌전증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강좌를 연다. 강좌에서는 ▦뇌전증의 진실과 오해(이향운 신경과 교수) ▦소아 뇌전증의 진단과 치료(조안나 소아청소년과 교수) ▦뇌전증의 최신 수술적 치료(서의교 신경외과 교수) 등이 진행된다. (02)2650-5953<br/><br/>이시형 박사 ‘암’ 극복 특별강연<br/>이시형 힐리언스 선마을 촌장이 ‘암을 이기는 생활습관과 마음가짐’을 주제로 2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웅제약 본사 베어홀에서 특별 강연한다. 강연에서는 힐리언스 선마을 임상영양사, 운동처방사, 명상ㆍ요가 전문강사들이 항암, 면역력 강화 식단과 명상ㆍ요가 등 암 극복에 도움 되는 방법을 소개한다. 선착순 200명. 1588-9983

언론사: 한국일보-3-542.txt

제목: [태블릿+] 자궁경부암 90% 예방하는 백신, '가다실9'  
날짜: 2017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13050707002  
ID: 01101101.2017021305070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자궁경부암으로 국내에서 매년 3,600여 환자가 새로 생기고, 하루 2~3명이 목숨을 잃는다. 세계적으로 여성 암 가운데 두 번째로 흔하다. 주로 50대 여성이 걸렸지만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해 20, 30대 여성에게 발생한 암 중 각각 12%, 15%나 됐다(2015년 통계청 사망원인). 국내에서는 1999년에 이미 자궁경부암을 국가 5대 암 검진항목으로 지정해 검진비를 지원해왔다. 지난 해 6월부터 만 12세 여아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한 뒤 지금까지 23만 명이 예방 접종했다.<br/>자궁경부암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의 지속적인 감염으로 발병한다. HPV는 성관계를 통해 주로 감염된다. 자궁경부암 외에도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생식기사마귀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암 가운데 유일하게 HPV가 원인으로 밝혀져 2006년에 최초 암백신으로 MSD의 가다실(HPV 6, 11, 16, 18형)이 개발됐다. <br/>지난 해 출시된 MSD의 가다실9은 자궁경부암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가다실9은 가다실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HPV를 막는 혈청형 9가지(HPV 6, 11, 16, 18, 31, 33, 45, 52, 58형)를 포함하고 있다. 가다실9에 새로 추가된 혈청형 5가지(HPV 31, 33, 45, 52, 58형)는 임상연구를 통해 자궁경부, 질, 외음부 질환에 97.4%의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다. 가다실9의 혈청형 수는 같은 백신 가운데 종류가 가장 많으며 HPV 바이러스와 관련한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br/>특히, 다른 나라보다 국내 여성이 가장 많이 감염되는 HPV 52, 58형 관련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또, 가다실과 함께 가다실9은 남성도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다. HPV로 남성에게 발생하는 항문암과 생식기사마귀 예방도 가능하다.<br/>가다실9은 만 9~26세 남녀 모두 접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 9~14세 어린이ㆍ청소년에게 2회 접종만으로 충분한 면역효과를 준다. 전에는 전체 연령에서 3회 접종해야 했다. 하지만, 9~14세의 2회 접종이 16~26세의 3회 접종과 비슷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새로 바뀌었다. 남성 접종 연령도 기존 만 9~15세에서 만 9~26세로 넓혀져 성인 남성까지 HPV로 인한 질환을 막을 수 있게 됐다.<br/>드발 고살리아 한국MSD 백신 부문 상무는 “<span class='quot0'>가다실9의 적응증 확대로 더 넓은 연령대에서 남녀 모두의 HPV 관련 질병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했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543.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MG손해보험 2030보험 外  
날짜: 2017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13050657002  
ID: 01101101.20170213050657002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MG손해보험 온라인 전용 ‘2030보험’ <br/>MG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2030세대의 니즈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온라인 전용 ‘2030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203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7가지 테마(학업ㆍ직업ㆍ결혼ㆍ뷰티ㆍ레저ㆍ건강ㆍ운전)와 관련된 생활 속 위험을 종합 보장한다 MG손해보험 온라인 채널(#JOY 다이렉트)의 대표상품으로, 카카오톡에서 ‘조이톡’을 친구로 추가하면 보험료 계산과 상담이 가능하며 보험료도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br/><br/>ING생명 ‘무배당 오렌지 케어플러스 변액연금보험’<br/>ING생명은 질병과 장해에도 연금자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 ‘무배당 오렌지 케어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연금을 받기 전 암이나 중대 질병, 고도 장해 진단을 받으면 연금을 해약하지 않고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웰스케어지급금’을 준다. 연금을 받는 중에 암 또는 중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기본생존연금을 10년간 두 배로 지급한다. 5년 이상 납입할 경우 납입 기간에 따라 1~2%의 장기납입보너스가 있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때엔 운용보수 환급액을 추가로 적립해준다.<br/><br/>하나카드 적립율 높은 ‘Hit1’<br/>하나카드는 다양한 가맹점에서 높은 적립률을 자랑하는 ‘Hit1’ 카드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전 가맹점 기본 적립에 더해 특별 적립혜택을 제공한다.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요식업종과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사용한 금액의 2%가 월 최대 1만 ‘하나머니’로 적립된다. 또 주유, 레저, 통신, 대중교통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의 3%를 월 최대 1만 하나머니로 적립해주는 등 사회 생활을 하는 소비자에게 유용하다. 스타벅스ㆍ커피빈에서 4,000원 이상 결제 시 월 1회 4,000원,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에서는 1만원 이상 결제 시 월 1회 5,000원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3만원, 해외겸용 3만2,000원이다.

언론사: 한국일보-3-544.txt

제목: 60억달러 시장 열린다…인보사, 올 여름 허가 기대  
날짜: 2017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13050638001  
ID: 01101101.2017021305063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2년간 국내 제약업계는 유례 없는 부침을 겪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신약 기술 수출로 집중됐던 기대가 개발 중단으로 한 순간에 무너졌다. 업계는 정유년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새로운 신약 기술에 목말라 하고 있다. 세계 첫 동종(同種)세포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시판허가를 앞둔 코오롱생명과학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이다. <br/>지난 8일 서울 가산동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에서 만난 김수정(49) 연구소장은 이를 의식한 듯 “<span class='quot0'>인보사가 기폭제가 돼 우리나라 신약개발 환경이 더 나아질 것으로 확신한다</span>”고 힘주어 말했다. <br/>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보사 허가를 신청한 건 지난해 7월. 심사 기간이 통상 1년 정도인 걸 감안하면 올 여름쯤 허가가 기대된다. 인보사는 독보적이다. 임상시험 결과 퇴행성관절염 부위의 통증을 줄이면서 관절이 망가지는 것도 막았다. 다국적제약사 머크가 비슷한 약을 개발 중이지만, 연골 재생 효과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허가받은 해외 유전자치료제 8개는 모두 특정 암이나 유전병, 희귀병 치료용이다. 김 소장이 “<span class='quot1'>60억달러 규모의 세계 퇴행성관절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span>”고 확신하는 이유다. 현재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는 진통제나 주사가 듣지 않으면 수술 말곤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span class='quot2'>수술을 피하고 싶은 환자들에게 인보사가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김 소장은 내다봤다. <br/>인보사는 구조가 독특하다. 정상 연골세포와 유전정보를 바꾼 연골세포를 섞어 만든다. 유전정보를 건드렸기 때문에 세포만 사용하는 세포치료제와 다르다. 기존 유전자치료제들이 동물세포나 환자 자신의 세포를 활용해 만들어진 반면 인보사는 손가락이 6개로 태어난 사람에게서 수술로 떼어낸 손가락의 연골세포를 채취, 배양해 사용했다. 제조법이 새로운 만큼 개발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 김 소장은 “<span class='quot1'>일반 화학의약품보다 유전자치료제는 임상시험 환자를 관찰해야 하는 기간도 훨씬 길다</span>”고 말했다. 인보사 개발은 그래서 18년이나 걸렸다. 1,1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br/>애지중지 키운 인보사의 가능성을 일본이 알아봤다. 지난해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인보사 기술이 5,000억원 규모로 수출됐다. 단일 국가 기술수출 계약으로 업계 최대 규모다. 이 수출을 이끌어낸 주역이 바로 김 소장이다. 그는 “<span class='quot1'>2년여의 협상 끝에 얻어낸 결실</span>”이라고 회상했다. 협상 기간 내내 양사 간엔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일본 측은 수백가지 질문을 쏟아냈고, 우리 측은 질세라 빼놓지 않고 답변을 보냈다. 그러자 일본은 이례적으로 동물실험 실사를 나왔다. 보통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실사하는 업계의 관례를 깨며 허점을 찾아내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span class='quot2'>자체 모의실사까지 하며 철저히 대비한 덕에 문제 없이 통과했다</span>”고 김 소장은 말했다. <br/>이제 그는 ‘인보사 이후’를 준비한다. 지금의 의료기술이 답을 못 찾은 만성 통증과 암을 유전자 치료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여전히 신약개발은 “10년 동안 도전해도 제자리일 수 있는” 모험이다. 업계 전체가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 김 소장은 “<span class='quot1'>초기 임상시험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절실하다</span>”고 강조했다. 미국엔 아이디어를 주면 임상시험용 약을 대신 생산해주는 기관이 여럿 있다. 덕분에 처음부터 대규모 생산시설을 짓지 않아도 약효를 시험해볼 수 있다. 국내에도 이런 기반이 있다면 신약개발이 훨씬 활발해질 것이다.<br/>김 상무는 이제 고3, 중3이 되는 두 아이의 엄마다. 약도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다. “<span class='quot2'>내 가족에게 쓸 수 있는 약을 만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다</span>”는 생각으로 신약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럼 인보사를 가족에게도 맞힐 수 있냐고 묻자 김 소장은 즉답했다.“자신 있어요.” <br/>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45.txt

제목: 20대 절반 이상이 ‘지방 과다 섭취’  
날짜: 2017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12050443003  
ID: 01101101.20170212050443003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65세 이상은 과소 섭취가 65%<br/><br/>20대의 절반 이상이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들의 지방 섭취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br/>12일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우리 국민의 지방섭취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19~29세 가운데 절반 이상인 52.6%가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적정 섭취 비율과 과소 섭취 비율은 각각 34.1%, 13.3%에 그쳤다. 19세 이상 성인은 3대 영양소(탄수화물ㆍ단백질ㆍ지방) 가운데 지방에서 얻는 에너지의 적정 비율이 15~25%이다. 19~29세의 지방 절대 섭취량은 66.3g으로 지방에서 얻는 에너지 비율이 평균 25.4%에 달했다. <br/>그 다음으로 지방 과다 섭취가 많은 연령대는 30, 40대(30~49세)로 과다 섭취 비율이 35.5%에 달했다. 적정 섭취 비율은 절반 이하(44.0%)였고, 과소 섭취는 20.5%였다. 12~18세 청소년들도 26.4%가 지방을 과다 섭취(과소 섭취는 10.2%)했다.<br/>반면 노년층으로 갈수록 지방 섭취가 적정 수준보다 적었다. 노년층이 지방 함유가 많은 서구적 식습관의 수용이 청년층에 비해 더딘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br/>65세 이상은 지방 과다 섭취 비율이 6.6%에 불과한 반면, 과소 섭취 비율은 65.1%에 달했다. 적정 섭취 비율은 28.3%에 그쳤다. 50~64세도 지방 과소 섭취(42.1%)가 과다 섭취(17.5%)보다 많았다.<br/>질병관리본부는 “<span class='quot0'>지방은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등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심ㆍ뇌혈관계 질환이나 암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젊은 연령의 식습관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방섭취량은 꾸준히 늘 것으로 보여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46.txt

제목: 전례없는 위생의 시대, 공중보건은 왜 더 위태로울까  
날짜: 2017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10050504001  
ID: 01101101.2017021005050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바이러스 대습격<br/>앤드루 니키포룩 지음ㆍ이희수 옮김<br/>알마 발행ㆍ448쪽ㆍ1만8,000원<br/><br/>최근 우리나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발생으로 50일 동안 총 3,000만 마리의 가금이 몰살했다. 계란마저 품귀로 이어져, 이전엔 상상하지도 못했을 ‘계란 프라이’ 사진이 페이스북을 뒤덮기도 했다. 앤드루 니키포룩의 ‘바이러스 대습격’을 읽고 싶어졌다. 이 책은 조류독감, 광우병, 구제역, 사스, 곰팡이, 콜레라, 신종 플루 등 21세기를 위협하는 생물학적 유행병에 관한 논픽션이다. 첨단 과학에 힘입은 전례 없는 위생의 시대에 왜 이런 질병이 창궐하는 걸까? 그의 진단은 쓰고 맵다.<br/><br/>선박 무역ㆍ항공 여행 보편화로<br/>급속히 퍼지는 구제역ㆍAI…<br/>유전적 다양성 없앤 공장 사육<br/>시한폭탄으로 만든 ‘세계화’<br/><br/>“수억 마리 이상의 새를 땅에 묻은 이 엄청난 닭 유행병은 다름 아닌 세계화의 산물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근본적인 원흉은 산업적 방식으로 생산된 싸구려 고기를 탐닉하는 걸신들린 인간의 식욕이라는 말이다. 새들로 빼곡한 공장형 양계 시설, 만연한 조류 밀수, 저질 백신, 식언을 밥 먹듯 하는 각국 정부 등이 모두 둥지를 더럽히는 데 한 몫 했다."<br/>모든 것이 세계화 때문이라니, 좀 식상한 얘기 아닐까? 그렇지 않다. 인간이 매년 먹는 음식과 구매하는 상품의 80%가 선박에 의해 운반되는데, 화물을 싣지 않은 선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용 탱크에 싣는 바닷물인 선박 평형수(ballast water)가 문제의 하나. 30억 내지 50억톤의 선박평형수가 이용되고 버려진다. 이때 매일 7,000종 이상의 해양미생물, 해파리, 식물, 어류, 물벼룩의 서식지가 바뀌는데 이 결과 수상 생태계가 교란된다. 심지어는 콜레라균마저 포함되어 운반된다. <br/>세계화는 항공 여행을 보편화시켰다. 유행병이 번지는 속도 또한 전례없이 빠르며 미처 손쓸 새가 없어 더 치명적이다. 전세계적 양식이 되어버린, 축산 효율화의 극대화인 공장형 사육은 유전적 다양성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이제 축산 자체가 ‘시한 폭탄’이 되어 버렸다.<br/>해결책이 있을까? 저자는 실천 목록을 길게 제시하는데, 줄여서 말하자면 “오만한 무지를 청산하고, 크고 강한 것을 동경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며, 개인적, 지역적 미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br/>인류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롭지만, 공중보건은 여전히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이다. 더구나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이들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저널리스트이자 논픽션 작가인 율라 비스(Eula Biss)는 엄마가 되고 나서 아이를 건강하기 키우기 위해 이런 저런 갈등을 겪는 중에 특히 백신 접종을 고민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br/>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상식과는 다르게 일부 미국 중산층 부모에게는 ‘홍역, 볼거리, 풍진(MMR) 백신’이 자폐증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백신 거부자가 늘고 있다. 신종 독감 백신을 맞힐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어머니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진다. 저자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한다.<br/>면역에 관하여<br/>율라 비스 지음ㆍ김명남 옮김<br/>열린책들 발행ㆍ312쪽ㆍ1만5,000원<br/><br/>“그들은 내가 그 기사에서 안도감을 느꼈던 바로 그 이유, 즉 어떠한 의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 때문에 도리어 그 기사가 모욕적이라고 느꼈다. 언론이 믿음직한 정보원이 못 된다는 것은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 대형 제약 회사들이 의학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내가 다른 어머니들과 나눈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였다.”<br/><br/>신종독감 백신을 맞을까 말까<br/>백신거부가 늘어나는 세태에<br/>“접종은 집단면역을 위한 예금”<br/>차분한 목소리로 설득<br/><br/>과학 문명에 대한 미국 중산층 일부의 불신이라고 해야 할까? 저자는 저널리스트로서 광범위한 자료 섭렵, 전문가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수준의 의학 지식을 체계화하고 이를 근거로 독자를 설득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방식을 내려놓는다.<br/>차분한 목소리로 왜 백신 거부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생각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공감력 있게 파고든다. 이 때 수전 손택의 저서 ‘은유로서의 질병’은 좋은 길잡이가 된다. 질병에 대한 한 시대의 상투적 표현이나 은유에 물들지 않고, 그 사고방식에 저항해야 한다는 손택의 생각도 다섯 살에 결핵으로 아버지를 잃고 자신도 두 번이나 암에 걸렸던 체험에서 나왔다.<br/>비스는 아킬레우스에 관한 그리스 신화, 볼테르의 ‘캉디드’,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등에 나오는 면역을 둘러싼 은유를 탐구하고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 깔려있는 ‘자연은 선’이라는 사고를 비판적으로 되짚는다.<br/>“우리가 백신의 효과를 따질 때 그것이 하나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만 따지지 않고 공동체의 집합적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까지 따진다면, 백신 접종을 면역에 대한 예금으로 상상해도 썩 괜찮을 것이다. 그 은행에 돈을 넣는다는 건 스스로의 면역으로 보호받을 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집단 면역(herd immunity)의 원리이고, 집단 접종이 개인 접종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은 바로 이 집단 면역 덕분이다.”<br/>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고집불통이 아니고서야 친구의 말처럼 나직하면서도 정확한 설명에 설득 당하지 않을 수 없다.<br/><과학책 읽는 보통 사람들> 운영자

언론사: 한국일보-3-547.txt

제목: [대한민국 프런티어 대상] 씨스타  
날짜: 2017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09065732001  
ID: 01101101.20170209065732001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씨스타(대표 한장호, www.healthfood-seastar.com)는 청정해역 완도의 생산공장에서 품질이 우수한 원초들을 직접 제조, 포장, 유통까지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br/>씨스타의 제품들은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상품의 가치가 높아 제품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으며, 자사에서 첨단 금속검출기로 선별해 엄선된 제품만을 출하시키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br/>대표 제품인 ‘건강차 2종세트’(해피해 미역귀 현미차, 다시마 고대미차)는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다량 함유된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 다시마에 유기농 현미, 땅의 선물 고대미, 도라지, 울금, 박하를 분쇄한 뒤 인체에 무해한 삼각티백으로 만들어 음용이 간편하다. <br/>‘미역귀 현미차’는 완도산 미역귀, 유기농 현미, 장흥산 표고버섯, 감초 자소엽을 배합해 구수한 맛을 살리고 비린맛을 최소화했다. 미역귀는 미역의 생식기관으로서 미역귀에서 나오는 점액질에는 암을 예방해주는 성분인 후코이단과 알긴산이 다량 함유돼 있다. <br/>이밖에도 씨스타는 해조류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제조부터 포장, 성분검사까지 엄선해 만든 해조류 3종환 ‘FUN 장 환 세트’, 천연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다시마 분말을 이용해 피부 세포 생성과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가리비 다시마 천연비누’ 등이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3-548.txt

제목: 세균으로 암 제거한다  
날짜: 2017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09050850002  
ID: 01101101.20170209050850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다양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작용 심한 항암제를 쓰기보다 몸의 면역기능을 강화시켜 암을 이겨내도록 만드는 최신 면역치료 기술과도 일맥상통해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br/>전남대 의대 연구진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과 비브리오균을 유전공학 기술로 개량해 암에 걸린 실험용 쥐에 주입한 결과 암 조직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중개의학’ 9일자에 발표했다. 연구를 주도한 민정준 핵의학교실 교수는 “<span class='quot0'>독특한 형태의 신개념 암 면역치료 기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br/>연구진은 독성을 100만배 약화시킨 살모넬라균을 비브리오균의 체내에 들어 있는 면역조절 물질(플라젤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전자를 재구성했다. 그리고 이를 대장암에 걸린 실험용 쥐 20마리에 주입하고 120일 동안 관찰했다. 그 결과 11마리에선 대장암은 물론 다른 조직으로 전이된 암까지 거의 제거됐고 이후 재발이나 추가 전이도 없었다. 나머지 9마리에선 암이 일정 크기 이상 자라지 않았다. <br/>살모넬라균은 대개 정상 조직보다 암 조직을 더 좋아한다. 연구진의 현미경 관찰에 따르면 실험 쥐에 주입된 살모넬라균이 암 조직을 찾아가자 주변으로 면역세포가 몰려들었다. 살모넬라균이 플라젤린을 분비하며 신호를 보내자 면역세포들은 암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원래 암 조직은 자신을 제거하러 온 면역세포를 포섭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암이 퍼지면 면역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민 교수는 “<span class='quot1'>살모넬라균이 내놓은 플라젤린이 암의 이 능력을 무력화시킨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세균으로 암을 치료하려는 시도는 120여년 전부터 있었다. 1890년대 후반 미국의 한 의사가 세균에 감염된 뒤 암이 나은 환자를 발견하고 그 세균을 치료제로 만들어 썼다. 이후 항암제와 방사선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균 치료제’는 점점 잊혀졌다. 그러나 현대적 치료법 역시 암 정복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최근 과학자들이 세균 치료제로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결핵균으로 방광암을 치료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했고, 이 외에도 6종의 세균이 암 치료용으로 연구되고 있다. 민 교수는 “<span class='quot1'>유전공학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세균을 만들어 암 치료를 시도한 연구는 처음</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대형 동물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계속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br/>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49.txt

제목: 김명미 TBC 앵커의 ‘나의 아버지’  
날짜: 2017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07050752001  
ID: 01101101.20170207050752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나는 1학기 수시로 대학에 진학했다. 나는 2000년대 초반이라 지역 고교에서는 아직 정시에 매달릴 때였고 수시는 대부분 관심 밖이었다. 나는 담임선생님에게 수시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했고 선생님도 내 뜻을 흔쾌히 받아주셨다. 낯선 길에 과감히 뛰어들었고, 나는 보기 좋게 성공했다.<br/>내가 수시에 그토록 매달렸던 것은 정시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였다. 하루라도 빨리 입시라는 짐을 벗어버리고 싶었다. 입시만으로도 힘든 시기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까지 겹치는 바람에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가 얹혀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학교를, 그리고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br/>- 프라이팬에서 탈출해 불길로<br/>나는 수능 100일을 앞두고 자유를 얻었다. 대학에 입학한다고 모든 것이 풀린다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뜻밖의 방향으로 진행됐다. 친구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br/>“<span class='quot0'>쟤 아빠가 한양대에 잔디 깔아줬대.</span>”<br/>“기부를 몇 억쯤 했다던데.”<br/>다들 예민한 때라 아무에게도 “그게 아냐”라고 말할 수 없었다. 심지어는 동네 어른들도 “부자 3대는 간다는데, 병원이 망하긴 했어도 딴 주머니를 챙겨놨겠지”하고 수군댔다. 아무도, 우리 집안의 진짜 사정을 몰랐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br/>아버지는 한때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한의병원을 운영했다. 한의사가 10명, 직원만 해도 100명에 가까웠다. 단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울에서 연예인이 내려와 다이어트를 했다.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왔다. 90년대 초반에서 IMF 직전까지, 말 그대로 황금기였다.<br/>그 굳건해 보이던 탑을 무너뜨린 건 IMF였다. 병원을 확장하면서 대출을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금융위기로 아버지는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 주머니에 한 푼도 남지 않았다.<br/>“엄마, 이게 뭐야?”<br/>하루는 소파 뒤에 뭐가 붙어있었다. 붉은 색이었다.<br/>“암 것도 아냐.”<br/>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소파를 벽에 바짝 붙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것이 ‘빨간 딱지’라는 것을 눈치 챘다. 내심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난 것이었다. 나 역시 “어딘가에 돈을 숨겨놨겠지”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말의 기대마저 와르르 무너졌다. 그때부터 가슴에 체증이 생겼다.<br/>초등학교 때부터 늘 부유하게 살아온 나였다. 겨우 살던 집 한 채 건졌다는 말을 못 믿을 만도 했다. 내가 매점에 들어서면 일순 침묵이 감돌았다. 양 우리에 늑대 한 마리가 불쑥 쳐들어오면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었다. 답답한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서 수시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막상 성공하고 나니까 뜨거운 프라이팬에서 탈출해 불길로 뛰어든 거나 다름없었다. <br/>- 빨간딱지를 숨긴 어머니<br/>가장 힘들었던 건 당연히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힘들어 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언제나 당당하고 옳은 길이라고 판단하면 거침없이 돌진하는 스타일이었다. 아마도 결혼한 후 처음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br/>아버지의 성격 혹은 삶의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바로 어머니와의 결혼이었다. 아버지는 약대를 졸업하던 해에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작전을 짰다고 하는 편이 옳겠다. 그 내용이 당돌하면서도 재밌다. <br/>아버지는 약사보다는 한의사가 비전이 좋은 것 같아 한의대로 진학할 계획을 짰다. 본인이 공부를 할 동안 집안 경제를 책임여줄 여자를 찾았다. 그러기에는 약사가 최고였다. 거기다 맏사위가 되고 싶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11남매 중 8번째였다. 형제가 너무 많이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으셨던 것이다. 이왕이면 장인이 공직자에다 조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셨으면 하는 바람까지 항목에 넣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뒤 대구 시내 약사 명부를 가져와 적당한 사람을 골랐다. 추려진 여자가 모두 12명, 아버지는 한 명씩 찾아 다녔다. 첫 번째 약국을 방문해서였다.<br/>“<span class='quot0'>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남자가 하나 있는데, 만나보실래요?</span>”<br/>아버지는 자양강장제 한잔을 마신 뒤 말을 걸었다. 약사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퇴근 후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남자가 바로 나”라고 밝힌 뒤 이렇게 말했다.<br/>“저하고 결혼해주시겠습니까?”<br/>그 여자 분은 집에 가서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다. 처음 만난 남자가 프러포즈를 했다”고 말했는데, 뜻밖에 부모님이 관심을 보였다. 부모님이 “그 남자 한번 보자.”고 했고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 뜻밖에 결실을 맺었다. 그 여자 약사분이 내 어머니가 됐다.<br/>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아버지는 한의대를 졸업했다. 졸업식에 참가해서 사진을 찍은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br/><br/><br/>아버지는 의지와 신념이 확고한 만큼 교육도 엄하게 하셨다. 오빠와 나, 둘 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비교적 내가 더 힘들었다. 오빠는 아버지와 한번 목표를 두고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으로 엇나갈 일이 전혀 없었고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순수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산타클로스를 믿었다. 언젠가 손톱 옆에 피부가 부스러기처럼 일어나서 보여줬더니 오빠는 “너 엄마 말 안 들었구나!”하고 말했다. 어머니가 “엄마 말 안 들으면 부스러기 생긴다”고 하시는 걸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나보다 네 살이나 많은 오빠가!<br/>오빠는 화가 나면 피아노 연주로 화를 삭힐 만큼 착한 학생이었다. 나에게 큰소리를 낸 적도 없었고 늘 부모님에게 순종적이었다. 생각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재수를 하고 싶어 했지만 집안 형편을 걱정해 결국 포기했다. 원래 길로 돌아오기까지 9년이 걸렸다. 몇 해 뒤부터 다시 입시를 준비해 수능을 두 번 더 보고 의학대학원을 준비해 결국 입학에 성공한 것이었다.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위인전의 주인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br/>나 역시 초중고 시절 오빠만큼이나 학교와 도서관, 집밖에 모르고 살았다. 대학을 한양대로 진학해 대구 탈출에 성공했지만 아버지의 불호령이 무서워서 나이트 한번 못 갔다. 그때 친오빠가 서울에 같이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곁길로 새면 당장 보고가 올라갔다. <br/>한번은 찢어진 청바지를 산 적이 있었다. 찢어졌다고는 하지만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흉내만 낸 청바지였다. 아버지는 청바지를 보시더니 “거지들이나 입는 옷”이라면서 당장 환불하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몰래 짐가방에 넣어주신 덕에 대학 교정에서 입고 다닐 수 있었다.<br/>대학교 2학년 때는 댄스 동아리에 들어갔다. 물론 아버지에게 모두 말씀을 드렸다. 너무 답답하다고, 뭔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간곡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긴 하셨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주셨다. 지금까지도 시스타 댄스까지는 능숙하게 출 수 있다. 대학시절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다.<br/>- 아나운서 아카데미의 모범생<br/>집안이 힘들었던 만큼 무슨 일이든 각오가 남달랐다. 어느덧 학교에서 선배보다 후배가 더 많아질 즈음 나도 어김없이 취업 걱정에 빠져들었다. 영어 동아리에서 우연히 학교 선배를 만났다. 방송 쪽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대학생 리포터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의했다.<br/>나는 초등학교 시절 방송반을 했었다. 전공은 실내건축이었지만 방송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선배를 따라 얼마쯤 리포터로 활동하다가 ‘정식으로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학원비 주세요”하고 부탁했다. 어머니의 약국 수입 대부분이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쓰였을 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기였지만, 나는 애써 당당한 척했다. 어머니가 마른 오징어 짜듯 지갑을 열어 돈을 내주신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했다.<br/>수업은 일주일에 이틀 이었지만 나는 매일 나가서 연습을 했다. 절박했기 때문이었다. <br/>“걱정하지마. 넌 열심히 하잖아!”<br/>아카데미 과정에서 절반쯤 지나자 강사들이 나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면 강사들은 ‘네가 안 되면 누가 되겠니’하는 말로 나를 위로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운 위로였고 격려였다.<br/>그렇게 4학년을 꼬박 아카데미에 투자하고 나니 졸업이 코앞이었다.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무수히 원서를 쓰고 시험을 쳤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위로라면 1차 통과에서 2차 통과, 2차에서 3차 통과로 통과하는 차수가 높아졌다는 것뿐이었다.<br/>“되실 거예요. 우리 미용실에서 메이크업 받은 분은 다 돼요. 바로 지난번 시험에서도 그랬어요.”<br/>울산ubc에 시험을 봤을 때였다. 작은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원장이 자기 미용실이 “<span class='quot1'>로또 명당처럼 아나운서 합격 명당 미용실</span>”이라며 자랑을 했다. 급한 대로 가까운 미용실로 갔던 터라 그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자신감이 상승해서였을까 나는 실수 없이 테스트를 끝냈고 얼마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어머니와 얼싸안고 방방 뛰었던 추억이 생생하다.<br/>- 갑작스런 아버지의 암 수술<br/>그 사이 집안에는 또 한번의 풍파가 지나갔다.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 처음 암이 찾아온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 나는 그때 오빠와 대학교 봄 축제에 놀러 갔었다. 술을 못 마셨기 때문에 조신하게 공연만 보고 있었다. <br/>해가 뉘엿해진 무렵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수신 버튼을 누르는데 평소답지 않게 목소리가 무거웠다. <br/>“아빠 암 수술했다.”<br/>‘아빠가 암이란다’가 아니고 이미 암 수술을 했다는 것이었다. 피에 소변이 나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암일 수도 있다.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했더니 아버지는 “검사할 필요 없고 내일 바로 수술합시다”고 했다는 거였다. <br/>그렇게 며칠 사이에 후닥닥 수술을 했던 것이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연락할 틈도 없었다. 어머니는 “아무튼 수술 잘 끝났다”하고 안심을 시키셨지만, 나는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놀라기도 했지만 갑자기 아버지의 나이가 느껴졌다. 늦은 나이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였다.<br/>5년쯤 뒤에 다시 암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어머니가 “아버지 폐에 뭐가 있다는데, 암이 전이된 걸 수도 있단다”하고 말씀하셨다. 내과교수들은 모두 암이 재발한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를 수술했던 의사만 “전이가 아니다”고 했다. 일주일 넘게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악성종양이 아니었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온 가족이 호흡을 멈춘 채 일주일을 지낸 기분이었다. <br/>“<span class='quot0'>내 생각엔 말야, 네 아빠가 잘 망한 것 같아.</span>”<br/>암의 그늘이 걷힌 후 어머니가 내게 하셨던 말씀이었다.<br/>“우리가 지금도 부자로 살고 있었으면 어쩌면 네 아버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br/>어머니의 말대로 금전적으로 풍요로웠다면 건강을 잃었을까. 그런 경우는 자주 본 것이 사실이다. 어머니의 말 덕분에 미열처럼 가슴 언저리를 맴돌던 지난 아픈 기억들이 씻겨나가는 듯했다.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가슴을 활짝 열고 맑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키는 기분이 들었다. <br/>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했고, 집안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다. 옛날만큼의 부는 아니지만, 조금씩 회복을 해나갔다. 빚도 갚고 한의원도 예전의 명성을 회복해갔다. 어머니의 말대로 더 큰 일 대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br/><br/><br/>- 세상에, 아버지가 설거지를!<br/>아버지가 완전히 신용을 회복한 것은 내가 결혼할 무렵이었다. 스물일곱 되던 해, 아버지는 갑자기 “스물여덟이 되기 전에 결혼하라”고 하셨다. “<span class='quot0'>딸이 스물여덟이 되도록 시집 안 가는 건 죽어도 못 보겠다</span>”고 못을 박았다. 나는 웃었다. 아직 한창 일 할 나이라고 생각했고, 결혼은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겼던 까닭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선을 보러 나갔다.<br/>첫 선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처음에는 선뜻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훤칠하고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외모가 부담스러웠다. 처음 보고 와서 어머니가 “어떻더냐?”고 묻는 질문에 “잘 생겨서 부담스럽다”고 대답했다.<br/>남편이 적극성을 보였다. 남편은 그때 강원도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내가 근무하는 울산으로 자주 찾아왔다. 그렇게 인연이 이어졌다. <br/>시간이 흐르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우선 남편의 동생이 의학전문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오빠는 당시 의대를 다니고 있었다. 첫 번째 공통점이었다. 두 번째는 어머니와 시어머니 모두 약사였다. 게다가 여고 선후배 사이였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쁨 섞인 비명을 내질렀다. 시아버지는 산부인과 의사였다. 이런저런 공통점 결혼이 갑자기 급행열차를 탔다. <br/>내가 결혼을 하고 난 뒤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무엇보다 아버지 병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20년 만에, 드디어, 온전히 회복을 한 셈이다.<br/>그 사이 나는 직장을 옮겼다. 울산은 아무래도 타지였고,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다. 마침 TBC에 자리가 났고 무사히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결혼을 시작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br/>무엇보다 바뀐 건 아버지였다. 외손자가 태어난 뒤로 ‘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하는 생각을 종종 할 정도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에겐 늘 엄한 아버지였지만, 외손자에게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게 혹독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사셨지만, 핏줄 앞에선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br/>가장 파격적인 소식은 어머니에게 들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늦게 전화를 걸어와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다.<br/>“오늘 아빠가 설거지를 하셨단다. 내일 저녁에는 달 대신 해가 뜨겠다.”<br/>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br/>“엄마, 아버지한테 앞으로 설거지 하시려거든 가족들한테 우황청심환 한 알씩 돌린 다음에 하라고 하세요. 지금 가슴이 마구 뛰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br/>그때부터 내게는 아버지가 ‘두 얼굴의 사나이’로 보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 역시 ‘두 얼굴의 여자’인 것 같다.<br/><br/>- ‘두 얼굴’의 김명미 <br/>2016년 9월, 경주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 대구를 비롯해 전국으로 곧장 파장을 일으킨 자연재해. 바로 지진이었다. 나는 지진이 일어나던 바로 그 시간에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세트에서 찌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순간적으로 몇 가지 생각이 스쳤다. 미사일 공격, 대형 폭발 사고, 지진. 하지만 사실을 확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단 준비한 뉴스를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br/>방송이 나간 후 나는 ‘지진 아나운서’라는 별칭을 얻었다. SNS에　‘멋있다’, ‘존경스럽다’, ‘감동 이상의 전율을 느꼈다’ 같은 댓글이 달렸다. 방송 당시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이혁동 앵커를 비롯해 카메라, 오디오, 기술, 음향 감독은 물론이고 자막을 맡은 인턴까지 누구 하나 자리를 이탈한 사람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나 혼자 칭찬을 받는 것 같아 쑥스러운 생각도 든다.<br/>무엇보다 내가 대학 시절 댄스 동아리를 했고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만 들으면 눈물샘이 폭발하는 ‘소녀 감성’이란 걸 누가 알까. 그 부분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울 정도다.<br/>나는 두 가지 다를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다. 아버지가 가진 꼿꼿한 원칙주의와 어머니의 감성이 모두 내 안에 있다. 아버지 역시 엄격하고 과감한 성격에 어머니의 온화한 성품이 깃든 것 같다. - 가족은 닮는다고 하니까. <br/>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내 남은 삶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원칙을 지킬 땐 지키고, 정서적으로 반응해야 한 곳에서는 한없는 정으로 다가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다.<br/>내 삶을 온전히 지켜주신 부모님처럼 나 역시 남편과 아이에게 정서적인 울타리가 되어주어야겠단 생각을 하게 된다. 남편에는 늘 고마운 마음이다. 주부로서 방송인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는 나를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면서 부모님 못지않게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남편에게 무슨 말로 고마운 마음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br/>더불어 부모님의 노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리고 싶다. 그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과 지혜, 그리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주신 부모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br/><br/><br/><br/>김광원기자 jang750107@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50.txt

제목: 비인두암 완치 대학생 장주희 씨 “병상에서 발견한 작은 행복들”  
날짜: 2017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07050751001  
ID: 01101101.2017020705075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숭늉 한 모금이라도 맛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4달 동안 미각을 잃어버렸거든요.”<br/>장주희(22ㆍ경북대학교 자율전공학)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10월에 비인두암 선고를 받았다. 식도 윗부분에 악성종양이 생겼다. 처음에는 암인 줄도 모르고 병을 키웠다. 아프기는커녕 체력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았기 때문이었다.<br/>“1학년 때 미국에 교환학생을 다녀왔어요.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니 살이 쪄서 귀국한 후 하루에 두 번씩 운동을 했어요. 그 덕에 체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목이 조금씩 부었는데, 살이 쪄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했죠. 열심히 운동하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어요.”<br/>- 머그컵 들 힘도 없던 치료기<br/>목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지 다섯 달이 지나서야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암 선고가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학교를 그만두고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에 ‘이제 학교 안 가도 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병원에서 실컷 놀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다.<br/>“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말도 마음에 들었죠. 사실은 수술을 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한 부위였던 것인데, 전 그걸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뭘 몰랐던 거죠.”<br/>환상은 얼마 안 가 깨졌다. 방사선 치료는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었다.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머그컵을 들 힘도 없었다. 면역력이 약화된 까닭에 병원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하루 종일 병실과 복도를 맴돌았다. 짜증이 늘었다.<br/>“엄마한테 투정을 많이 부렸어요. 병실에서 엄마가 밥을 먹고 있으면 나가서 먹으라고 소리를 쳤죠. 모든 게 시비 거리였어요.”<br/>일상의 자잘한 일들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다.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매점을 가거나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사먹던 일까지, 모든 게 그리웠다. 무엇보다 맛을 못 느끼는 것이 괴로웠다.<br/>- 웃는 간호사 얼굴에서 큰 용기 얻어<br/>힘든 나날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났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간호사였다. <br/>“병실이 너무 답답해서 복도를 맴돌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간호사 언니가 웃으면서 다가와 반갑게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물어줬어요. 그때의 말 한 마디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br/>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병문안을 와준 친구들도 잊을 수 없었다. 집중 치료를 받을 땐 그마저도 허용이 되지 않아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병문안을 온 친구들 이름을 한 명도 잊지 않고 있다. 치료도 치료지만 그렇게 마음 써 준 이들 덕분에 용기와 힘을 낼 수 있었다. <br/>“치료가 끝나고 나서 뛸 듯이 기뻤어요. 아직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병원을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일 년쯤 뒤에 수능을 봤는데, 수능 끝났을 때도 그만큼 기쁘지는 않더라고요.”<br/>병을 털고 난 뒤에도 걱정은 있었다. 부모님이 병원비를 비밀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알 순 없었지만, 장씨가 치료하던 중에도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 만큼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다. 대학 등록금이 고민이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왔다. 소아암협회였다.<br/>“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소아암협회가 있다는 이야길 듣고 전화를 걸었더니 흔쾌히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아줄을 잡은 기분이었어요.” <br/>- 희망 나누어주는 사람 되고 싶어<br/>대학에 입학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이제 체력을 거의 회복했다. 죽을 뻔한 경험이었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기분’ 같은 큰 심경의 변화는 없었다. 그저 “예전과 똑같지는 않은 정도”라고 했다. 사소한 몇 가지가 달라졌다.<br/>“우선 밥을 맛있게 먹어요. 음식 투정을 거의 안 하죠. 음식 맛을 느끼며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니까요. 학교 밥은 조금 지겹지만, 다른 건 뭐든 잘 먹어요, 호호!”<br/>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병을 앓기 전과 다른 점이다. <br/>“퇴원 후에 슈퍼에 갈 때마다 함께 따라와서 짐을 들어준 초등학교 동창생과, 늘 안부를 묻던 간호사 언니, 병문안을 왔던 친구들, 친절하게 웃어주던 의사 선생님을 잊을 수 없어요. 작은 배려들이 힘든 이에게 얼마나 큰일인지 절절하게 깨달았어요.”<br/>또래에 비해 삶의 목표도 또렷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적이 없지만 어렴풋이나마 어떤 생을 꾸려갈지는 깊이 생각해봤다. <br/>“거창한 꿈은 아니에요. 그저 힘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같은 직업요. 제가 받은 작은 촛불 같은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행복은 파랑새처럼 늘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에 깃들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희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과 행복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br/>김광원기자 jang750107@hankookilbo.com 이민재 인턴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551.txt

제목: ‘40, 50대의 저승사자’ 간암, BㆍC형 간염이 주범  
날짜: 2017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07050732001  
ID: 01101101.2017020705073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연 2회 간암 검진 가능”…2월 2일을 ‘간암의 날’ 제정<br/>/그림 1 간암고위험군 사람은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 태아 단백검사 등 2가지 방법으로 매년 2회씩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대한간암학회는 2월 2일을 간암의 날로 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br/> <br/>암은 보통 지름이 1㎝만 돼도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간암은 10㎝나 돼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 대부분 말기에 발견된다.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이렇다 보니 전체 암 사망률 2위(폐암이 1위)나 된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40~50대의 암 사망 원인 1위다(통계청, 2015년 사망원인 통계). 영ㆍ유아 시절 예방백신 국가예방접종 혜택을 받지 못한 탓도 있다. 간암 환자 1인당 치료비는 평균 6,700만원으로 췌장암에 이어 2위다.<br/>대한간암학회(회장 성진실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화 교수)는 이처럼 늘고 있는 간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월 2일을 간암의 날로 새로 정했다. 간의 날(10월 20일), 세계 간염의 날(7월 28일)에 이어 3번째 마련된 간 관련 날이다. <br/><br/>BㆍC형 간염에 따른 간경화, ‘간암의 주범’<br/>간암은 매년 1만6,000명에게 발병(전체 암 발병자의 7.5%로 암 발생률 4위)하고, 암 환자 1인당 질병 부담도 췌장암에 이어 2위나 된다. 간암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이 2조4,552억 원으로 추산된다. 간암 환자의 60% 이상이 완치하기 어려운 3기 이후 발견되기 때문이다.<br/>간암은 대부분 간경화 환자에게 나타난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 간암 위험에 걸릴 가능성은 연간 0.1% 미만이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백신 접종과 건강한 생활습관만 유지하면 간암을 예방할 수 있다. 대한간암학회와 국립암센터가 제시한 ‘2014년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간염에 걸리지 않게 백신 접종과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는 바이러스증식을 억제하면 된다.<br/>간경화는 정상 간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섬유조직이 들어차 간이 재생 불가능하게 돼 버린 상태다. 간경화는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과도한 음주,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이 주 원인이다. 대한간학회의 조사결과, 국내 간암 환자의 70%가 만성 B형 간염을, 10~15% 정도는 만성 C형 간염과 관련돼 있다.<br/>간경화 원인이 BㆍC형 간염에 대한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먹는 약이 도입됐고, 건강보험 급여정책 덕분에 간경화 예방과 악화 방지가 어렵지 않게 됐다. 또한 간경화 합병증인 정맥률 출혈, 복수 및 복막염, 신부전의 예방과 치료법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br/>따라서 간경화 환자의 사망위험은 최근 15년 새 65%나 줄었다. 간암 환자의 기대 수명은 8년이나 늘어났다. 하지만 간경화 환자의 간암 발생위험은 줄지 않아 개인당 2~10%로 여전히 높다.<br/><br/>“<span class='quot0'>MRI검사, 간암 조기 검진율 86%로 높여</span>”<br/>간암은 1기 때 발견하면 생존율이 52%에 이르지만 2기(36%)ㆍ3기(15%)ㆍ4기(6%)로 진행되면 생존율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간암 조기 검진 수검률은 33.6%(2013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위암(73.6%), 대장암(55.6%)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다. 또한 성인 대부분은 간염 등 간검사를 하지 않아, 스스로 간암 고위험군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게다가 간암은 4개월 만에 종양이 2배나 커지는 등 전파속도가 빠르다. 특히 암이 전이됐다면 5년 생존율은 2.8%로 급격히 떨어진다.<br/> 간암 감시 검사는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 태아 단백검사로 이뤄진다.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대상자는 상반기 1회ㆍ하반기 1회씩 6개월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2가지 검사(간 초음파검사ㆍ혈청 알파 태아 단백검사)를 받을 수 있다.<br/>성진실 대한간암학회 회장은 “<span class='quot1'>간암은 초기 진단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span>”며 “연 2회씩 2가지 방법으로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2월 2일을 간암의 날로 정했다"고 했다.<br/>그런데 최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간암 조기 발견율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ㆍ영상의학과 공동연구팀은 간암 발생위험이 연간 5% 이상인 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간세포 특이 조영증강제를 사용해 MRI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했을 때, 간암 조기 발견 확률이 86%로 기존 초음파 검사(27.9%)보다 3배나 높았다. 특히 환자의 97.7%가 조기 간암으로, 74.4%는 극조기(0기) 간암으로 진단돼 대부분 완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br/>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MRI 검사가 초음파 검사보다 영상의 질이 훨씬 우수하고, 간세포 특이 조영증강제를 사용하면 MRI 검사의 진단 정확도를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또한 “MRI 검사비가 비교적 비싸지만 방사선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반복 검사해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덧붙였다.<br/><br/>“병기 맞는 최적 치료법 선택을”<br/>간암의 조기 진단이 간암을 완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간암 인식은 아직 낮아 대부분 뒤늦게 발견돼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나 간 이식 등의 치료는 30% 정도 환자에게만 시행되는 실정이다.<br/>간암이 초기라면 간절제술, 고주파시술, 에탄올주입술 등으로 악화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히 악화됐다면 경동맥화학색전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등으로 치료한다. 경동맥화학색전술은 중기 간암 환자에게 권고되는 표준 치료법이지만 환자상태에 따라 치료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황달을 포함한 비대성 간경화를 동반하거나 종양이 광범위하면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반복 시행하면 치료율이 낮아지고 암 재발ㆍ전이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간 기능이 손상될 수 있어 환자상태, 반응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택해야 한다.<br/> 임형준 고대안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암 치료는 암 크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간 기능과 전신 상태까지 고려해 치료해야 한다”며 “간암은 다른 암과 달리 절제가 최선이 아니다”라고 했다. <br/>김형준 대한간암학회 홍보이사(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국내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많이 시행하는데 이때는 환자 간 상태나 과거 색전술 반응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존 치료법으로 효과 없다면 표적치료제 등 다른 치료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br/><br/><br/><간암 치료법>

언론사: 한국일보-3-552.txt

제목: "5,000례 넘게 간이식 수술.. 성공률도 97% 넘어"  
날짜: 2017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07050732002  
ID: 01101101.20170207050732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말기 간질환을 치료하려면 뇌사자나 살아 있는 사람의 간을 떼내 붙여주는 간이식 수술이 최선이다. 간이식 수술은 ‘이식의 꽃’으로 불린다. 간 내부 혈관구조가 아주 복잡해 수술이 매우 어렵고, 수술시간도 10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br/>우리 간이식 수술은 미국 등 이식 선진국보다 늦었지만 이제 미국에서 배우러 올 정도로 술기(術技)가 뛰어나다. 국내에서 간이식 수술을 시작한지 3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1만례를 넘어섰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6월 간이식 5,000례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세워 ‘간이식 메카’로 자리잡았다. <br/>황신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장(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를 만나 간이식에 대해 들었다. ‘생체 간이식 수술 권위자’인 황 교수는 “<span class='quot0'>장기 기증 확산으로 뇌사자 장기기증도 100만 명당 11명 수준으로 늘면서 생체 간이식보다 덜 위험한 뇌사자 간이식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span>”고 했다.<br/><br/>-간이식 수술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고, 주의할 점은.<br/>“간은 기능을 70%정도 잃어도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로 불리죠. 몸이 붓고, 황달이 생겼다면 이미 간 기능이 70% 이상 상실해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기 간질환에 간이식 수술을 하게 되죠.<br/>성인의 경우 간경변증, 급성간부전, 간암일 때 간이식을 하게 됩니다.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1년을 살지 못하는 심한 간경화나 독성물질이나 간염바이러스로 간이 급격히 망가져 1~2주 안에 목숨을 잃을 급성간부전, 달리 치료할 수 없는 간세포암일 때 이식수술을 하게 됩니다.<br/>어린이의 경우 선천성 담도폐쇄증, 급성간부전증, 태어날 때부터 간 대사효소 부족으로 간에 해로운 물질이 쌓이는 대사성 간기능 저하 등이라면 수술을 합니다. 최근 간이식 대상 환자 폭이 크게 넓어졌죠. 전에는 급격한 간 기능 악화로 간성혼수와 신부전이 생겼을 때에는 수술해도 성공률이 낮았는데 요즘엔 감염 등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다면 수술하면 대부분 생존하죠.<br/>또한 65세 이상 고령인 수술의 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간이식 수술 시간이 오래 걸려 이를 견딜 만큼 심장과 폐기능이 좋아야 하죠. 간암이 크게 악화됐다면 재발 위험이 높기에 이식할 수 없고, 다른 암이 간에 전이됐거나, 간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됐어도 수술이 불가능하죠.” <br/><br/>-간이식 때 기증자 안전이 중요한데…<br/>“간이식에서 가장 주목 받는 주제가 생체 간이식 수술이죠. 뇌사자 장기 기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잘 맞은 수술이죠. 우리 병원에서 이식간의 혈관을 완전하게 재건하는 방법을 개발해 적용하고부터 70%였던 수술 성공률이 97%로 획기적으로 높아졌죠. 또한 생체 간이식은 건강한 기증자의 간을 잘라내야 하기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공여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죠.<br/>우리 간이식팀은 생체 간이식 수술 세계 1위를 달성했고, 간 기증자 가운데 사망했거나 중증 합병증에 걸린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복잡한 수술인 생체 간이식 수술에서 우리 병원은 세계 최고의 축적된 실력과 경험으로 합병증을 줄이고 있죠.”<br/><br/>-혈액형이 달라도 기증할 수 있나.<br/>“간이식 수술 한계를 뛰어넘은 사건이 바로 혈액형 부적합 이식입니다. 간을 기증하고 이식 받는 사람의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수술이 가능하게 됐죠. ABO 혈액형 부적합 이식수술은 기존 ABO 혈액형 적합 이식수술과 달리 환자에게 이식하기 전 항체형성억제제(리툭시맙)를 투여하고, 혈장교환술을 하죠. 이전에는 혈액형이 맞지 않아 이식 받지 못했던 말기 간경화나 간암 환자 413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찾아준 거죠.<br/>특히 우리 병원의 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 성공률과 환자 생존율이 95%로 이 수술을 먼저 시행했던 일본의 유수 센터보다 성적이 월등히 앞섭니다.”<br/><br/>-간이식팀을 소개하자면.<br/>“장기이식센터는 8개 이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마취과 의사와 이식전문간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진료팀을 꾸렸죠. 이 가운데 간이식팀은 이승규 석좌교수를 비롯해 18명의 의료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br/>1999년 시행된 변형우엽 생체간이식과 2000년의 2:1 생체 간이식, 2003년 교환 간이식 등을 세계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ABO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수술도 세계에서도 압도적이죠. 이를 통해 70%에 머물렀던 간이식 수술 성공률을 95%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장기이식 선진국인 미국의 간이식 생존율보다 훨씬 높죠. <br/>이에 따라 우리 병원의 수술은 아시아권은 물론 미국ㆍ유럽 등 의료 선진국의 국제 표준치료 프로토콜이 됐죠. 1955년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에 선진의술을 알려준 미국 미네소타대학병원이 지난해 말 우리 병원에게 간이식 기술 전수와 줄기세포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스승’인 미네소타대학병원 의료진이 ‘제자’였던 우리 병원 간이식팀에게 생체 간이식 기술을 배우게 된 거죠. 이밖에 매년 40여 나라에서 400~500명의 의료진이 우리 병원에서 의술을 배우고 있습니다.”<br/><br/>-간 질환 환자에게 당부할 말은.<br/>“아직 많은 사람이 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대한간학회가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AㆍBㆍC형 간염의 차이를 몰랐죠. 간염 이름은 알지만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죠. B형 간염은 간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며, C형 간염은 한번 감염되면 70~80%가 만성간염으로 악화하고 이 중 30~40%가 간경변증, 간암이 된다는 사실을요. <br/>사실 간을 건강히 유지하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과음하지 말고 정기 검진을 받고, 의사 충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데도 폭음하거나 간을 혹사해 90%가 넘게 간경화로 이어집니다. 바이러스가 있어도 조심스럽게 관리하면 간을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553.txt

제목: 당국 ‘이중 심사 장벽’에 막힌 결핵 신약  
날짜: 2017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07050726002  
ID: 01101101.2017020705072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6개월치 3000만원 비싼 약값에 <br/> 전문의 심의위서 처방 사전 심사<br/> 건보 적용 결정권 가진 심평원 <br/> 심의위 승인 74건 중 10건 불허<br/>“결핵 퇴치 의지 있나” 비판<br/><br/>10년 넘게 결핵을 앓아온 30대 여성 A씨는 결국 ‘마지막 희망’을 접어야 했다. 기존 약들이 듣지 않아 치료 방법이 없던 A씨의 마지막 희망은 최근 출시된 결핵 신약이었다. 이 약을 쓰려면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치의는 신약을 쓰지 않으면 A씨가 결핵을 퍼뜨릴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처방 승인을 요청했다. 전문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러나 의약품 심사당국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불승인을 통보했다. 주치의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 많은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몇 달 뒤 다시 오라”고 다독여 A씨를 돌려보냈다. “<span class='quot0'>환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가까운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은 상존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결핵을 퇴치하겠다는 정부가 중증 환자 치료에 너무 소극적</span>”이라고 주치의는 답답해했다.<br/>6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40년 만에 개발된 결핵 신약의 혜택이 당국의 높은 심사장벽 때문에 환자들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례적인 이중심사 제도까지 도입된 탓에 신약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때 약을 못 쓰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br/>신약을 무력화하는 주요 요인은 지난해 9월 도입된 사전심사제다. 결핵 신약이 처방된 후 뒤늦게 건강보험이 자꾸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결핵 신약은 약 300건 처방됐다. 그러나 그 중 30여건의 보험이 삭감됐다. 의료진이 제시한 처방 필요성에 대해 심사당국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신약의 6개월치 약값은 약 3,000만원. 보험이 삭감되면 환자가 약값을 부담하지 않는 이상 병원은 비싼 약을 처방하길 꺼릴 수밖에 없다. 이에 전문의로 구성된 사전심사 심의위원회가 개별 처방에 대해 일일이 보험 적용이 합당한지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br/>그런데 A씨 사례처럼 위원회의 결정을 심사당국이 뒤집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지난달까지 위원회가 보험 필요성을 인정한 74건 가운데 10건이 불승인됐다. 이들에겐 다른 치료법이 없다. 의료계에선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와 전문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데 대해 우려가 크다. 한 결핵 분야 전문의는 “<span class='quot1'>서류 준비와 검토 절차 때문에 보험 승인까지 길게는 2주~한 달을 기다리기도 했다</span>”고 토로했다. 그 사이 환자는 부작용이 심한 다른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br/>사전심사제의 한계를 인지한 정부는 결핵 신약의 보험 기준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9일 열린다. 하지만 기준이 나와도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신약이라 임상자료가 많지 않은 만큼 보험 심사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br/>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결핵 퇴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태선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암 같은 다른 질환에 비해 중증 결핵 환자는 현저히 적다</span>”며 “<span class='quot2'>결핵 근절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중증 환자 치료</span>”라고 강조했다. 강형석 국립마산병원 흉부내과 과장도 “<span class='quot3'>보험재정 논리에서 벗어나 시급한 처방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결핵 발생국 1위 자리를 20년째 지키고 있다. 정부는 이 오명을 벗기 위해 2015년 “<span class='quot4'>결핵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span>”고 약속한 바 있다. <br/>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54.txt

제목: 암세포만 환히 밝히는 MRI 조영제 등장 기대  
날짜: 2017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07050725001  
ID: 01101101.2017020705072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자기공명영상(MRI) 장치로 인체를 촬영할 때 암세포처럼 병든 세포만 골라 보여주는 신개념 조영 기술이 개발됐다. <br/>기초과학연구원(IBS) 소속 나노의학연구단은 병든 세포를 주위보다 최대 10배 밝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원리를 규명해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즈’ 7일자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MRI 영상에서 마치 램프처럼 암 조직을 밝힐 수 있다는 의미로 연구단은 이 기술에 ‘나노 MRI 램프’라는 이름을 붙였다. <br/>연구단은 나노미터(1㎚=10억분의 1m) 크기의 자성을 띠는 입자와 상자성(常磁性) 물질을 이용해 이 원리를 구현했다. 상자성 물질은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만 자성을 띠는 물질로, MRI 신호를 증폭해 조영 효과를 낼 수 있다. 가돌리늄 같은 희토류나 철, 망간 등이 상자성 물질에 속한다. 연구단은 나노 입자와 상자성 물질 간 거리가 7㎚ 이상이 되면 강한 MRI 신호가 나타나고, 7㎚ 미만이 되면 MRI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br/>연구단은 나노 입자와 상자성 물질을 암 관련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는 생체물질로 연결했다. 그리고 암에 걸린 쥐의 몸에 이를 주입한 다음 MRI 촬영을 했다. 그 결과 암 조직에서만 MRI 신호가 나타나며 주위보다 10배 가량 밝게 보였다. 생체물질이 암 단백질을 인식해 끊어지는 바람에 나노 입자와 상자성 물질 간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br/>천 단장은 “<span class='quot0'>현재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MRI 조영제는 병든 조직과 주변 조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데 비해 나노 MRI 램프는 문제가 있는 조직만 골라 밝혀준다</span>”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영상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천 단장은 “<span class='quot0'>나노 MRI 램프의 생체물질을 바꿔주면 다양한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분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관찰하고 확인하는 영상진단의 신개념을 제시한 기술</span>”이라고 덧붙였다. <br/>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55.txt

제목: 날 학대한 엄마가 암… 용서해 드려야 하나요?  
날짜: 2017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06050558001  
ID: 01101101.20170206050558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엄마한테 맞은 기억뿐이네요. 학교 시험 성적이 별로라고 때리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낮잠 자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때리고… 엄마한테 맞는 게 너무 겁나서 성적표를 조작하기도 했어요. <br/>엄마는 감정 조절을 잘 못했어요. 평소엔 무서울 정도로 차갑다가도 화가 나면 그야말로 폭발했어요. 큰딸인 저한테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 한 것 같아요.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착한 엄마인 척 했어요. 가증스러웠어요. 아빠는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건설 일을 하느라 집을 자주 비웠고, 집에 돌아와도 엄마가 저를 때리는 걸 모르는 체 했어요. <br/>제일 아픈 상처는 제가 동생의 따귀를 때린 일이에요. 저와 동생이 싸울 때마다 엄마는 화가 풀릴 때까지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따귀를 때리라고 했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동생을 힘껏 때렸어요. 동생도 저를 때렸고요. 두렵고 비참한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br/>대학에 들어가 자취를 하면서 집을 나왔어요. 대학원도 다녔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시 엄마랑 살기 싫어서요. 스물 세 살에 만난 남자친구와 서둘러 결혼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엄마를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엄마가 결혼에 반대하면서 온갖 독설을 퍼부은 것도 아픔으로 남았어요. 엄마는 남편이 가난하다고 아직도 싫어해요. <br/>그런 엄마가 많이 아파요. 지난해 췌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엄마는 항암 치료의 고통이 두렵다면서 집에 연탄불을 피워 자살하려 하기도 했어요.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어릴 때 나를 그렇게 많이 때린 걸 사과하라고 요구했어요. 엄마가 죽기 전에 꼭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엄마는 자살 시도 직전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암에 걸린 게 저 때문이라고 욕하기도 하고, 엄마를 돌보는 아빠와 동생을 지독하게 괴롭혀요. 제가 찾아가는 걸 반기지도 않아요. <br/>엄마를 용서하자는 마음과 그럴 수 없다는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혼란스러워요. 엄마를 용서하고 제 안의 상처 받은 어린 아이를 낫게 해주고 싶다가도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르면 엄마가 또 다시 미워져요. 엄마를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br/>더 큰 걱정은 제가 엄마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8개월 밖에 안 된 아이에게 수시로 버럭 소리를 지르곤 해요. 저도 모르게 아이를 때리다가 남편이 말려서 정신을 차린 적도 있어요. 저의 트라우마가 아이에게 이어지고 아이가 저처럼 엄마를 싫어하면 어쩌죠?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제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대인관계도 고민이에요. 친하게 지내다가도 조금만 저한테 섭섭하게 하면 사람들을 칼 같이 끊어내는 버릇이 있어요. 이런 제 성격이 실망스러워요. <br/>(김미영씨, 30세, 전업주부)<br/><br/><br/> “나를 낳아준 사람, 세상에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나를 보호해줄 사람. 바로 엄마지요. 미영씨에겐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내 엄마라는 사실은 엄청난 고통과 절망이었을 겁니다. 어린 미영씨가 정말 잘못해서 엄마가 심하게 혼내고 때린 것도 아닐 거예요. 엄마를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br/>엄마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영씨 마음이 누그러지려면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크고 작은 주머니들을 갖고 있어요. 학습 능력 주머니, 운동신경 주머니, 감정 조절 주머니… 주머니 크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미영씨 엄마는 감정 주머니가 유난히 작은 사람입니다. 엄마에게 닥치는 온갖 감정들은 주머니에 담겨 소화되지 못하고 이내 흘러 넘칩니다. 엄마는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누군가에게 마구 난장질을 하는 것으로 해소하려 했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함부로 대해도 안전한 약자, 바로 미영씨가 타깃이 된 거예요. 동생보다는 큰딸인 미영씨가 만만했겠지요.<br/>미영씨 엄마는 자신이 남에게 주는 10 만큼의 상처보다 자신이 받는 1 만큼의 상처가 훨씬 크고 아프게 느껴지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또 부정적 감정들을 가래 뱉듯 강하게 표출하고 토해낸 걸 직접 자극적으로 확인해야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아이를 때리는 촉감을 느끼고, 아파하며 우는 아이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대로 악을 쓰고 물건을 집어 던져야 화가 풀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편한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극단적 수위와 방법으로 터뜨리거나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응징해야만 후련해진다고 여기는 거지요.<br/><br/><br/>미영씨 엄마는 자기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살 시도 전에 미안하다고 한 건 미영씨 말처럼 진심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죽음이 닥쳐 오니 뭔가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가 자기 밖에 모르는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 엄마가 이제 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엄마의 감정 주머니는 가뜩이나 작은데 요즘은 건강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미영씨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을 거예요. <br/>엄마가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를 깨우쳐 주고 사과를 하게 해야만 미영씨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매달리면 엄마가 끝내 기대를 저버리고 떠날 경우에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엄마를 이제 와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엄마를 이해하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가 준 상처들은 영영 아물지 못할 지도 몰라요. 세상에는 엄마처럼 미성숙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하필 그런 사람이 내 엄마였다는 걸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br/>마음 아프더라도 엄마와 미영씨를 분리하세요. 엄마에게 억지로 과하게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미영씨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정도로만, 기본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다만 엄마에게 미영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건 의심하지 말았으면 해요. <br/><br/><br/>감정 조절 능력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미영씨처럼 자랄 때의 환경 탓에 감정 주머니가 커지지 못하고 정서가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도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해서 항상 감정을 돌보고 살피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걸 모르기에 끝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미영씨는 엄마와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엄마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미영씨 인생은 엄마와 분명 다를 겁니다. 아이의 삶도 미영씨와 다를 거고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br/>아이는 수도 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이가 단번에 뭔가를 배우고 달라질 수는 없어요. 인내심을 갖고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끈질기게 가르쳐 줘야 해요. 아이의 나쁜 행동을 고쳐 주고 싶으면 단호하게 하되 미영씨 엄마처럼 공포와 두려움을 개입시켜선 안돼요. 미영씨는 아이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미영씨 같은 아픔을 겪게 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돼주는 것으로 엄마에게 받은 상처를 씻고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미영씨 자신이에요.<br/><br/><br/>부모, 특히 엄마는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믿어 주고 즐겁게 해주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미영씨의 창은 달랐지요.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언제라도 감정적으로 공격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한 행동을 해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엄마에게 인정 받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절 당하는 것에도 취약합니다. 사람들이 미영씨를 공격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지요. <br/>미영씨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와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서운하게 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미운 사람에게 차를 한 잔 사주고, 화를 내는 사람에게 웃어주세요. 자신과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을 수긍하는 연습을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상처가 조금씩 나을 거예요.” <br/>정리=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56.txt

제목: ‘레포츠 월드’ 성남스포츠센터 4월 개장  
날짜: 2017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201050647001  
ID: 01101101.20170201050647001  
카테고리: 지역>경기  
본문: 790억 투입… 3만3,000㎡ 규모<br/>인공암벽 등 20여가지 시설<br/><br/><br/><br/>인공암벽과 스킨스쿠버 등 20여가지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경기 성남에 문을 연다.<br/>경기 성남시는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부지 안에 건립 중인 성남종합스포츠센터를 4월1일 개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12년 12월 시작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를 4년 만에 마무리, 지난해 12월29일 준공 검사를 마쳤다.<br/>사업비는 시비 542억 원과 도비 150억 원, 국비 100억 원 등 모두 792억 원이 투입됐다. 센터는 지하 3층∼지상 7층에 전체면적 3만3,471㎡ 규모로 10레인(길이 50ｍ) 수영장을 비롯해 라켓볼장과 헬스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을 갖췄다. 스킨스쿠버ㆍ다이빙ㆍ싱크로나이즈 스위밍 등이 가능한 다목적 풀, 배드민턴ㆍ농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요가ㆍ댄스ㆍ에어로빅장 등으로 활용할 다목적실도 있다. 또 문화교실, 국민체력인증센터, 성남시직장운동부 숙소와 선수 지원시설이 들어섰다.<br/>시설 운영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 <br/>성남시는 시설별 시험 운전과 강습 프로그램 강사 채용 등 준비작업을 3월까지 끝낼 예정이다.<br/><br/>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57.txt

제목: ‘건강한 기름’ 올리브유도 잘못 쓰면 독 된다  
날짜: 201701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31050617001  
ID: 01101101.20170131050617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식물성 지방 맹신 금물… 발연점 따라 적재적소에 <br/>“<span class='quot0'>재래식으로 짠 참기름ㆍ들기름이 몸에 좋아</span>”<br/><br/>이번 설 명절에도 누구나 한 번쯤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을 내는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기름은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다. 특히 한국인에게 기름 사랑은 남달라 요리에 하루 한 번 이상 기름을 사용한다는 사람이 60%나 된다고 한다.<br/>최근 웰니스 바람으로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지방이 유행이다. 하지만 옥수수 기름과 해바라기씨유, 참기름, 들기름 등 식물성 지방도 잘못 쓰면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 건강한 기름의 대명사인 올리브유도 튀김용으로 잘못 썼다간 발암물질로 변한다. 기름을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인 발연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발연점에 따라 기름의 좋은 성분이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br/><br/>“<span class='quot0'>옥수수기름ㆍ해바라기씨유 발암 물질 유발</span>”<br/>지방은 그 자체로 칼로리가 높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무게 당 4㎉의 에너지를 내지만 지방은 9㎉를 발생한다. 같은 양을 먹어도 2배 더 축적돼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또 많이 섭취하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대사증후군과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 지방간 등의 위험을 높이고 발암물질도 만든다.<br/>이처럼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혔던 기름이 복권됐다. 장수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의 주 재료인 올리브유가 부각되고, 최근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열풍까지 불면서다. 특히 ‘건강한 지방’인 식물성 지방의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br/>‘건강한’ 지방이라는 식물성 지방은 상온에서는 불포화지방산이지만 열을 장시간 가하면 독성 물질인 트랜스지방으로 변한다. WHO는 트랜스지방의 하루 섭취량을 2.2g을 넘기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 강재헌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산화된 기름을 자꾸 섭취하면 뇌혈관이 막혀 신경전달능력이 떨어지고 치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span>”고 했다.<br/>최근 옥수수 기름과 해바라기씨유 등 식물성 기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틴 그루트벨드 영국 드몽포르대 생화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옥수수 기름이나 해바라기씨유 등 식물성 기름을 고온 가열하면 ‘알데히드’라는 발암 물질을 만든다</span>”고 했다. 그는 그러나 “<span class='quot2'>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등으로 조리했을 때에는 유해물질 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span>”고 덧붙였다.<br/><br/>“<span class='quot0'>지방 섭취 하루 섭취 열량의 15~20%만</span>”<br/>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은 200도 가까운 온도에서 조리하는데, 이때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생긴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아미노산 일종인 아스파라긴과 포도당이 결합해 만들어진다. 감자튀김이나 팝콘 등 전분 함량이 높은 식품일수록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이 생긴다. 과다 섭취하면 신경계 이상을 일으킨다.<br/>벤조피렌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추정 물질이면서 발암 가능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인체 발암 물질’로, 우리나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인체 발암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벤조피렌에 단기간 많이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고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면역이 떨어진다. 장기간 노출되면 암도 발병한다. 특히 참깨나 들깨를 가열하는 시간이 오래되거나 온도가 높을수록 벤조피렌이 잘 생긴다. 그래서 지방 섭취를 하루 섭취 칼로리의 15~20%로 제한하고 있다.<br/><br/>“<span class='quot0'>재래식으로 짠 참기름ㆍ들기름 좋아</span>”<br/> 다양한 기름을 적재적소에 쓰는 게 기름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요령이다. 튀김 요리를 하려면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써야 한다. 튀김할 때 기름 온도가 보통 180~220도이므로 적어도 발연점이 200도가 넘는 식용유를 골라야 발암 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br/>이수정 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발연점이 높은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발연점 220도 이상)는 튀길 때 사용하거나 고기전, 생선전을 부칠 때 많이 쓰고, 발연점이 낮은 올리브유(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발연점 170~200도)은 무침용이나 가벼운 조리용으로 쓰면 된다</span>”고 했다. 다만 올리브유 가운데 퓨어올리브유는 튀김용으로 써도 좋다.<br/>식용유를 고를 때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둘 다 불포화지방이지만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으면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ㆍ항노화 작용을 해 비율이 높으면 좋다.<br/>하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옥수수기름 등은 오메가3가 거의 없고 오메가6가 대부분이다. 대두유와 카놀라유는 그나마 오메가3가 10% 정도 함유돼 있다. 오메가3가 압도적으로 많은 기름은 들기름(60% 정도)이다. 올리브유, 땅콩유, 아보카도유 등은 오메가3와 오메가6 둘 다 적은 반면 다른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오메가9 지방산(올레인산)이 풍부하다. 김영미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은 “<span class='quot4'>시판 식용유의 대부분이 오메가6 비율이 크게 높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4'>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은 1대 1이며 이상적</span>”이라고 했다.<br/>좀 더 건강한 기름을 먹고 싶으면 재래식으로 짠 참기름과 들기름이 좋다. 재래식으로 짠 기름에는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E가 풍부하다. 다만 참깨나 들깨를 볶아 압축해 만드는 참기름과 들기름은 볶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생길 수 있다. <br/>또한 들기름의 유통기한이 아주 짧아 개봉 후 2~3개월 이내 모두 소비해야 한다. 기름은 산소를 만나 산패(酸敗)되면서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 질 수 있으므로 보관도 중요하다. 기름통은 잘 밀봉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고온과 고열은 산패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냉장 보관해야 한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br/><br/><요리할 때 유해물질 줄이는 방법><br/><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언론사: 한국일보-3-558.txt

제목: ‘빛’으로 암 치료할 날 눈 앞…광역학으로 췌장암ㆍ담도암 치료  
날짜: 20170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30050604002  
ID: 01101101.2017013005060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인체에서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장기가 간 담낭 담도 췌장이다. 그래서 이들 장기에 질환이 발생하면 수술하기 까다롭다. 환자도 65세 이상 고령인이 다수여서 수술 후에도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췌장암은 발병 후 1년 내 사망률이 74%, 5년 내 사망률이 94%에 달한다.<br/> 향후 2, 3년 내 ‘광역학 치료(photodynamic therapy)’가 예후(豫後)가 좋지 않은 췌장암, 국소 진행성 담도암 등 치료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br/> 박도현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은 2세대 광(光)과민제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2, 3년 내 췌장암은 물론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담도암을 치료하는데 광역학 치료가 사용될 것</span>”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2015년 세계 최초로 2세대 광과민제를 이용해 초음파 내시경 광역학 치료를 시도한 예비연구 결과를 ‘내시경(Endoscopy)’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광역학 치료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br/> 광역학 치료는 일반세포를 손상하지 않고 암세포만 죽여 수술로는 치료하기 힘든 암환자 치료에 효과적이다.<br/> 광역학 치료의 핵심은 ‘광과민제’다. 빛에 반응하는 광과민제를 체 내 투입해 몸 속에 있는 암세포가 광과민제를 흡수해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암세포는 일반세포와 시간차를 두고 광과민제를 흡수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암세포가 광과민제를 흡수하면 특정 파장의 빛을 쪼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광역학 치료원리</span>”라고 설명했다. <br/> 광역학 치료는 일반세포를 손상하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 죽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1세대 광과민제를 사용하면 광과민제가 암세포에 달라붙는데 최대 72시간이 걸리고, 치료 후에도 4주간 햇빛을 차단해야 하는 단점 때문에 국내에서는 일부 대학병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br/>하지만 최근 개발된 2세대 광과민제는 체내 투여 후 3시간 내 광과민제가 암세포에 달라붙고, 차광시간도 2일에 불과해 암 치료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br/> 서수홍 고대안암병원 피부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광역학 치료는 피부과에서 사용됐지만 암치료 등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기술이 발전되면 광원장치를 몸에 부착해 지속적으로 빛 에너지를 가해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현재 국내에서 2세대 광과민제를 활용해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광역학 치료의 안전ㆍ유효성 입증, 의료기기 국산화 등이 이뤄지면 암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span>”이라고 말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559.txt

제목: UNIST, 혈액 속 암세포 분리기술 개발  
날짜: 20170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25050751001  
ID: 01101101.2017012505075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조윤경 교수팀ㆍ부산대병원 공동 연구<br/>전이암 조기 진단, 맞춤형 암 치료 기대<br/>UNIST(울산과학기술원)가 혈액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 전이암의 조기 진단은 물론 환자맞춤형 암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br/>UNIST는 생명과학부 조윤경 교수 연구팀이 암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혈관 내를 순환하는 종양세포(CTC)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br/>CTC는 암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핏속에서 떠다니는 종양세포로, 이들이 다른 조직에 부착하면 전이암이 발생하게 된다.<br/>이 세포를 미리 찾아내면 전이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만, 혈액 1㎖ 속 CTC는 수십 개 미만으로 매우 적어 검출하기 어렵다. 같은 양의 혈액 속에 적혈구는 수십억 개, 백혈구는 수백만 개 존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br/>이에 조 교수팀은 ‘FAST(Fluid Assisted Separation Technology)’ 기술을 랩온어디스크(Lab -on-a-disc)에 적용해 혈액에서 1분 내에 CTC를 95% 이상의 효율로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랩온어디스크에 마이크로 필터를 장착시켜 크기 차이로 세포를 분리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br/>기존 CTC 검출은 혈액에 복잡한 전처리 과정을 해야 하고, 비싼 시료도 필요했으며 CTC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하는 방식은 정확도에서 한계가 있었다. 필터로 CTC를 걸러내는 기술도 있었지만 필터가 자주 막혀 분리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br/>연구진은 이 기술을 이용해 142명의 다양한 암환자와 50명의 정상인의 혈액 검사를 진행해 CTC 검출 성능을 검증했다. 특히 폐암환자의 혈액에서 분리한 CTC에서 조직검사 때와 동일한 유전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다.<br/>조윤경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소형 장비를 활용하고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조직 검사가 아닌 채혈만으로 암세포를 검출할 수 있어 향후 전이암의 조기 진단이나 항암치료 효과의 모니터링 등 암의 진단과 치료에 유용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부산대병원(PNUH)의 박도윤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미국화학회가 발행하는 분석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분석화학(Analytical Chemistry)’ 최신호 표지에 게재됐으며, 국내 벤처기업 ㈜클리노믹스에 기술이 이전돼 사업화됐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60.txt

제목: 맛 없다는 환자식, 이제 옛말…일반식, 일품요리ㆍ고급식까지  
날짜: 2017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24050725001  
ID: 01101101.2017012405072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할랄식ㆍ러시아식ㆍ태국식 등 외국인 환자 입맛에도 맞춰<br/><br/>“<span class='quot0'>환자식을 먹느라 정말 힘들었어요.</span>” 수술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군대 짬밥처럼 맛이 없다는 뜻이다. <br/>환자식은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상태에 맞게 제공된다. 그래서 일반 음식처럼 짜고 맵고 단 음식이 아니어서 맛이 없다고 느끼게 마련이다. 하지만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면서 환자식도 이에 맞춰 ‘변신’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맞는 식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었다.<br/>환자식은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나뉜다. 일반식은 식사제한이 필요 없는 환자에게 제공된다. 밥 국 육류 채소로 구성된 ‘1식 4찬’이 기본이다. 하지만 최근 환자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윤소윤 서울아산병원 영양팀장은 “<span class='quot1'>아침식사에 밥 대신 빵을 먹는 환자가 많아졌다</span>”며 “<span class='quot1'>점심에는 일품요리가 포함된 식사가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br/><br/>고급식까지 등장… 치료식, 환자 맞춤식으로 전환<br/> 과거 단체급식 수준에 불과했던 일반식은 환자 입맛에 따른 ‘맞춤식사’로 바뀌고 있다. 조영연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장은 “<span class='quot2'>연령, 성별, 환자상태에 따라 맞춤식사가 제공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입원 환자의 30~40%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식단을 조정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추가 비용을 내도 값비싼 재료를 사용한 ‘고급식’을 선택하는 환자도 있다. 스테이크 갈비찜 비빔밥 생선요리 등 다양한 메뉴가 환자에게 제공된다. 윤 팀장은 “<span class='quot1'>고급식은 전담 조리사가 요리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제주산 갈치 등 고가의 재료를 사용한 음식이 환자들에게 인기</span>”라고 말했다.<br/>치료식도 진화하고 있다. 암환자, 만성질환자 등 질환 종류와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식사가 제공된다. 암 환자의 경우 콩, 두부와 함께 고기 대신 등 푸른 생선 등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 식단을 꾸민다. 윤 팀장은 “<span class='quot1'>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저염 소스를 개발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등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천편일률적이었던 당뇨식도 환자 입맛을 최대한 맞춰 제공하고 있다. 홍여진 고대안산병원 영양사는 “당뇨식이라 해도 샐러드, 잡곡밥 등 환자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다”며 “치료식 환자들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치료에 문제가 생기므로 매일매일 환자 상태를 점검해 식사를 드린다”고 말했다.<br/> 강남세브란스병원처럼 수술 환자에게 곤충식을 내놓는 병원도 있다. 밥과 국 중심 환자식은 섭취 부피에 비해 열량과 단백질 섭취가 떨어져, 부피가 작지만 고단백질인 곤충식이 대안이 되고 있다. 곤충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식용으로 권장하는 갈색거저리 애벌레로 만든 ‘고소애(고소한 애벌레)’다. 김형미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은 “<span class='quot3'>곤충식은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환자식으로 안성맞춤</span>”이라고 했다.<br/><br/>“외국환자 입맛 잡아라”… 호텔서비스 벤치마킹도<br/> 외국인 환자에게 제공되는 환자식도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2011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보건청과 환자 송출계약을 체결한 서울성모병원은 이슬람 환자를 위해 ‘할랄식’ 메뉴를 개발해 월 500식 이상 제공하고 있다. 이지선 성모병원 영양팀장은 “<span class='quot4'>외국인 환자 담당 영양사가 주기적으로 환자를 방문해 영양 상담하는 등 환자 의견을 식단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호텔 ‘룸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병원도 있다. 서울삼성병원은 치료ㆍ수술 등으로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한 외국인 환자가 식사를 요구하면 병실로 40분 내 식사를 제공하는 ‘원-콜 밀 서비스(On-Call Meal Service)’를 하고 있다. 조 팀장은 “<span class='quot2'>아랍식 서양식 러시아식 몽골식 태국식 등 국가별 식단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 입맛에 맞는 식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메인 메뉴 21종, 사이드메뉴 12종 등 총 74개 메뉴를 자체 개발해 식단을 꾸렸다. 윤 팀장은 “<span class='quot1'>메뉴 개발을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연수교육을 받았다</span>”고 말했다.<br/> 환자식은 환자 상태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식과 함께 질환 별로 세분화된 식단이 제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팀장은 “<span class='quot1'>암, 만성질환, 희귀질환 등 질환에 따른 개별식단이 제공되면 환자치료에 도움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span class='quot2'>환자식은 치료 일환으로 맛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span>”라며 “<span class='quot2'>각종 암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를 위한 다양한 식단이 계속 개발될 것</span>”이라고 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br/><br/>[변화하는 환자식]

언론사: 한국일보-3-561.txt

제목: “한국인이 잘 걸리는 5대 암 맞춤 치료제 개발”  
날짜: 2017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23050710001  
ID: 01101101.2017012305071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첨단 의료를 달린다] <중>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br/><br/>고령화로 만성질환 관리와 환자 삶의 질을 고려한 치료가 더욱 중요해졌다. 마침 올해 의학 키워드는 ‘정밀의료’다. 유전정보,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자 정보를 토대로 각자 몸에 꼭 맞는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다. 100세 시대를 맞아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는 정밀의료를 알아본다. <편집자주><br/><br/>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가장 많은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2011년 개원한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 특성에 꼭 맞는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실현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에게 ‘한국형 정밀의료’ 개발과정을 들어보았다.<br/><br/>-먼저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을 소개한다면.<br/> “3개 연구소와 8개 센터를 이뤄진 우리 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민간이 주도한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지요.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산ㆍ학ㆍ연 연구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 캠퍼스 내에서 기초-중개-임상 연구가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연구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미국 다나-파버 암센터, 미네소타대 줄기세포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현대중공업 등 20여 국내ㆍ외 연구소와 기업 등을 우리 연구원에 입주시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죠.<br/>이런 노력의 결과로 포항공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에서 선정하는 ‘2016 국내 바이오 분야 연구성과 및 뉴스’ 의과학 부문 톱 5개 부문 중 3개 연구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욱 방사선종양학과 교수팀(‘새로운 유전자가위 기술로 생쥐 유전자 편집 성공’), 권미나 융합의학과 교수팀(‘장내 바이러스의 크론병 억제’ 발견’), 이창환 의생명과학교실 교수팀(‘폐암 조기 진단 가능한 새로운 폐암 유발 단백질 발견’) 등이 그 주인공이지요.”<br/><br/>-현재 진행 중인 ‘정밀의료’ 주제는.<br/> “‘개인 차(individual variations)’를 고려한 진단과 치료가 정밀의료의 핵심이죠. 개인마다 다른 유전자와 신체 특성, 생활습관을 반영한 치료가 궁극적인 목표죠. 우리 연구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유전체와 신약 연구, 세포치료 연구,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연구 개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연구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죠.”<br/><br/>-유전체와 신약 연구는 진행 상황은.<br/>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기능과 활성조절 메커니즘을 밝혀 암 진단 바이오마커와 표적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 암을 효과적을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서울아산병원 맞춤암치료센터와 함께 차세대 시퀀싱(NGSㆍNext-generation sequencing) 유전체 분석기술을 진료현장에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오가노이드’(3차원으로 특수 배양한 암세포로 일종의 인공 장기)를 제작해 항암 효과를 시험하고 있죠. 환자 별로 치료효과가 높은 항암제를 꼭 집어 선택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정밀치료가 가능해진 거죠. 우선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5대 암(간암 위암 대장암 폐암 췌장암)의 오가노이드 바이오뱅크를 구축해 한국인 암환자에게 안성맞춤 치료를 할 것입니다.”<br/><br/>-세포치료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br/> “줄기세포와 항암면역세포 치료를 위해 미국 미네소타대 줄기세포센터, 오리건보건과학대 미탈리포프 박사팀과 공동 연구하고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유전자편집세포 등 세포 치료와 함께 미토콘드리아유전병 치료를 위한 세 부모 아기 연구 분야에 매진하고 있죠.”<br/><br/>-환자 맞춤형 의료기기도 개발한다는데.<br/> “수술하기 전 시뮬레이터에서 실제 수술할 때 절제하는 부위를 알려주는 수술용 가이드를 이미 개발했습니다. 또한, 환자 몸 속에 이식할 수 있는 임플란트 형식의 맞춤형 의료기기도 개발에 나서고 있죠. 최근 각광 받고 있는 3D프린팅 분야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3D프린팅 기술은 다양한 3차원 형상의 다품종으로 소량 제작하는 게 장점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이미 유방보형물과 유방암 환자를 위한 맞춤형 수술 가이드를 만들어 임상에 적용하고 있죠. 맞춤형 수술 가이드가 만들어져 유방암 수술을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게 됐고 재발도 줄일 뿐만 아니라 유방을 불필요하게 크게 잘라내지 않아도 되게 됐죠.”<br/><br/>-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연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br/> “서울아산병원에는 하루 외래환자 1만2,000여명이 찾고, 매년 6만 명 넘게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에게 맞춘 건강 솔루션을 제시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도움 주는 ‘의료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만들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에서 폐암을 진단하는 프로그램, 뇌전증(간질) 발생 지점을 예측하는 생체지표를 찾는 프로그램, 유방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으로 암 재발가능성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등입니다. 인공지능(AI)도 무척 중요한 분야입니다. 산업부와 민간에서 100억 원을 지원받아 AI형 의료영상 관리와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X선, CT, MRI 등 의료 영상은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비정형 데이터라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의료영상이 AI와 융합하면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562.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 하는 건강Tip] 갑상선암 수술 후 생활리듬 회복 중요  
날짜: 2017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23050708001  
ID: 01101101.2017012305070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이다. 1년에 4만 명이 생겨 발생률 세계 1위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만 받으면 생존율은 상당히 높아진다. 재발 위험도 있어 치료 후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br/><br/>Q. 갑상선암 진단법은? <br/>“갑상선 결절이 발견되면 우선 갑상선 기능과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한다. 악성이 의심되면 세침흡인검사를 한다. 조직검사 결과와 결절 크기에 따라 수술, 세침흡인검사 반복 혹은 초음파 추적검사 등이 권고된다.” <br/><br/>Q. 수술법은?<br/>“크게 경부 절개수술, 내시경수술, 로봇수술로 나뉜다. 점차 로봇수술과 내시경수술이 느는 추세다. 로봇수술은 유륜과 겨드랑이(바바 수술), 겨드랑이와 귀 뒤쪽 등을 절개해 로봇팔을 넣고 갑상선을 잘라낸다. 기존 일반 내시경수술 장점인 '목에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과 함께 15배 확대된 3차원 시야로 신경과 부갑상선을 정교히 보존해 합병증을 줄인다. 로봇수술은 미용적 장점 외에도 종양학적으로 절개수술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br/><br/>Q. 수술 후 치료기간은?<br/>“3박4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 퇴원 후 1~2주 후 병원을 찾아 상처를 확인하고 병기와 추가 치료 설명을 듣게 된다.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수술하기에 수술 후 목과 어깨가 아플 수 있다. 가벼운 목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수술 후 성대나 식도 등 내부 장기 유착을 막으려면 수술 1주일 뒤 목운동하면 좋다.” <br/><br/>Q. 스트레스 관리는?<br/>“일부 환자는 수술 후 피곤을 호소한다. 또 집중력과 끈기가 없어지고, 화를 참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갱년기 여성이 증세가 더 심하다.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로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하다.” <br/><br/>Q. 수술 합병증은? <br/>“출혈, 감염 등이 생길 수 있다. 입원했을 때 치료할 수 있다. 목소리 변화, 저칼슘혈증 등이 생길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므로 합병증으로 오래 고통 받는 환자는 극히 드물다.” <br/><br/>Q. 수술 후 임신과 모유 수유할 수 있나? <br/>“수술 받고, 갑상선호르몬을 먹을 때나 방사성요오드 치료 받을 때에도 치료 1년 후에는 임신, 출산,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 다만 임신 중에는 갑상선호르몬 필요량이 증가하므로 갑상선기능검사 후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 안순현(이비인후과)ㆍ최준영(외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3-563.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우리은행, 위비뱅크 '위비 꾹 적금' 출시 外  
날짜: 2017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23050701001  
ID: 01101101.20170123050701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우리은행, 위비뱅크 '위비 꾹 적금' 출시<br/>우리은행은 새해맞이 다짐을 등록하고 실천하면 ‘꾹’ 버튼 한 번으로 즉시 입금이 가능한 ‘위비 꾹 적금’을 출시했다. 금연ㆍ운동ㆍ다이어트 등 나의 다짐을 선택한 고객들이 '꾹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위비뱅크 '꾹 입금' 버튼 터치 한 번으로 로그인이나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없이 바로 적립이 가능하다. 나의 다짐은 푸쉬(Push) 알림으로도 전송되며, 다짐성공을 터치하면 1만원, 실패를 터치하면 5,000원이 적금으로 이체돼 다짐실천을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금액은 월 최대 30만원, 기간은 6개월 또는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br/><br/>KB국민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모바일 신청 서비스 확대<br/>KB국민은행이 'KB i-STAR 모기지론' 아파트담보대출 신청 채널을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확대했다. 아파트담보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은 KB스타뱅킹을 통해 365일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대출 가능금액과 금리를 바로 확인하고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 최고한도는 5억원이고 대출금리는 영업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보다 0.1%포인트 낮다. 23일 기준 최저 금리는 연 3.10%다. KB국민은행은 향후 다세대주택 등 대출대상 주택을 확대할 예정이다.<br/><br/>미래에셋생명, 15년 후 갱신 ‘간편하게 생활보장보험’ 판매<br/>미래에셋생명은 중장년층 유병력자에게도 사망보장은 물론 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등 3대 질병을 보장하는 ‘간편하게 생활보장보험’을 판매 개시했다. 이 상품은 최근 3개월 내 의사의 재진단ㆍ검사 소견이 없거나, 2년 내 입원 또는 수술 기록이 없고, 5년 내 암 진단및 입원ㆍ수술 경험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 가입이 불가능했던 고혈압, 당뇨 등 유병자들의 가입도 쉬워졌다. 이 상품은 계약 후 15년이 지나면 5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되며, 40~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3-564.txt

제목: 투싼ㆍ스포티지, 알 수 없는 쏠림 현상 ‘밝혀진 원인’  
날짜: 2017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19090623003  
ID: 01101101.20170119090623003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현대기아자동차의 대표적 콤팩트 SUV 모델 투싼과 스포티지에서 주행 중 발생하던 이유를 알 수 없던 소음과 제동 시 한쪽 쏠림 현상의 원인이 밝혀졌다. <br/><br/>19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투싼(프로젝트명 TL)과 기아차 스포티지(프로젝트명 QL)에서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 암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br/><br/>대상 차량은 2015년 3월 3일부터 지난해 7월 25일 사이 제작된 투싼 8만 8,514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27일 사이 제작된 스포티지 6만 1,662대로 총 15만 176대에 이른다. <br/><br/>이번 리콜은 국내에 앞서 중국 일부 언론을 통해 결함 내용이 밝혀져 국내와 중국에서 대상 차종 모두가 리콜 될 예정이다. 지난달 중국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 법제일보(法制日報)는 “<span class='quot0'>현대차가 중국 내 판매된 신형 투싼 9만 6094대를 리콜 할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2월 13일부터 실시 할 것</span>”이라고 구체적 시기를 보도했다. <br/><br/>이들 매체는 이번 리콜의 구체적 원인으로 트레일링 암의 부식을 지적하며 일정 강도의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부품에서 균열이 발생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br/><br/>업계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제작 된 지 1년도 안된 부품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원가절감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다</span>”라고 말했다. <br/><br/>한편 이번 국토부 리콜에는 현대, 기아, 토요타, 벤츠, BMW, 볼보 등 50개 차종 15만 5,071대가 포함됐다. <br/><br/>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65.txt

제목: 소설가 정미경씨 별세  
날짜: 20170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18050740002  
ID: 01101101.20170118050740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소설가 정미경씨가 18일 오전 4시 경기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57세. 암으로 투병 중이던 고인은 최근 병세가 악화, 급성폐렴에 따른 합병증으로 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고인은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폭설’이, 2001년 문예지 ‘세계의 문학’ 소설 부문에 ‘비소 여인’이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대사회의 속물성, 중산층의 불안 등을 일상 서사에서 섬세하게 녹여내는 작품을 주로 발표해왔다. 2002년 소설 ‘장및빛 인생’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2006년 ‘밤이여, 나뉘어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 소설집 ‘나의 피투성이 연인’, 장편소설 ‘장밋빛 인생’, ‘이상한 슬픔의 원더랜드’가 있다. <br/>유족으로는 남편인 김병종 서울대 동양화과 교수와 아들 지훈(서원대 겸임교수), 지용(조각가)씨가 있다. 빈소는 성심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0일 오전 8시. 장지는 미정. (031)386-2345<br/>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66.txt

제목: [애니칼럼]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동물들과 소통하기  
날짜: 20170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18050714002  
ID: 01101101.20170118050714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들과 내면의 교감을 통해 소통을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동물심리분석가 또는 통역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br/>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국내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수년 전 SBS TV의 프로그램 ‘동물농장’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하이디’가 소개되면서부터다. 그가 일종의 자폐증에 걸려있는 개뿐 아니라 고양이, 말과 소통을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밝음의 세계로 이끌어내는 모습은 감동을 자아냈다. 또 다른 프로프로그램에선 국내의 한 애니멀커뮤니케이터가 냉혈동물인 도마뱀과 소통을 하고 심지어 사진만 보고도 죽은 개하고 교감을 나누는 장면이 나왔다. <br/>솔직히 필자는 아직 애니멀커뮤니케이터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다. 하지만 정말 사진만 보고 죽은 개와 교감을 나누거나 자폐증에 걸린 동물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꼭 도전해보고 싶다.<br/><br/><br/>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동물병원이나 동물구조센터에 직원으로 꼭 있어야 할 존재다. 그들을 통해 아픈 동물이 오면 어딘가 아픈지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동물병원에서 대부분의 오진은 바로 환자와의 소통부재에서 오기 때문이다. 동물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가 체해서 뒹구는 데도 머리이상으로 간주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특히 몸 속의 암 같은 경우는 우연하게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고통 속에 방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반려동물들은 늘 관찰 하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조기에 아프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축이나 야생동물들의 경우는 쓰러지지 않는 한 아픈 동물을 가려내기는 무척 어렵다. <br/>반려동물이라면 투정이라도 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적의를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야생동물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연결해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특히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는 진정한 애니멀커뮤니케이터가 있다면, 절실히 필요하다.<br/><br/><br/>어떻게 보면 동물을 사랑하고 키우는 사람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애니멀커뮤니케이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돌고래나 코끼리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조련사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늘 놀라움에 사로잡힌다. 훈련의 힘이라지만 동물은 물리적으로 안 되는 심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br/>‘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출간됐듯이 동물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알아들을 정도로 둘 간의 진정한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개를 꼼짝 못하게 하는 개장수들의 능력 역시 나쁜 쪽이긴 하지만 분명 애니멀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다. 그들도 나름대로 견습 과정이 있었는지 참 궁금하다.<br/><br/><br/>우리 동물원에도 자칭 애니멀커뮤니케이터들이 있다. 대개 들어 온지 1년 미만의 신참 직원들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동물원에는 동물들을 길들이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침팬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먹는 걸 좋아한다는 걸 몇 번 경험으로 대번에 터득했다. 그래서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우선 철창 사이로 손부터 내민다. 당연히 뭘 달라는 의미이다. 그걸 처음 본 사람들은 신기해서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한다. 또한 ‘판치’라고 정해진 이름이 있어 이름을 부르면 의례히 뭘 주는 걸 알고 어슬렁거리며 나온다. 신참들은 몇 번 이렇게 길들여진 침팬지와의 소통을 경험하면 바로 고무된다. 그리고 지인들이 찾아오면 침팬지를 불러내고, 손을 내밀게 하고, 먹을 걸 받아먹게 한다. 지인들은 살짝 놀란다. 침팬지뿐만 아니라 길들여진 아기 호랑이들도 “아흥”하면 다가와 콧등으로 손을 부빈다. 코끼리는 ‘아!’하면 입을 짝 벌린다. 기린이 나무 가지 들고 ‘린’하고 부르면 다가와 고개를 쑥 내민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드디어 완전히 감동에 젖어 “우와! 정말 부르면 다 되네요! 멋져요! 부러워요!” 하게 된다. <br/>이는 한쪽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동물간 상호 교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랫동안 동물과의 교감을 해온 고참들은 신기해 하는 신참들을 보면 옆에서 조용히 씩 웃고 지나갈 뿐이다.<br/><br/><br/>최종욱 수의사(광주 우치동물원 진료팀장,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저자)<br/><br/><br/>▶ 동그람이 페이스북 바로가기<br/><br/>▶ 동그람이 카카오채널 바로가기

언론사: 한국일보-3-567.txt

제목: [임종진의 삶이 있는 풍경] 엄마와 이별하는 시간  
날짜: 2017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17050708001  
ID: 01101101.20170117050708001  
카테고리: 문화>미술\_건축  
본문: 열흘 전, 엄마를 여의었다.<br/>오래도록 곁에 머물기 원하는 가족의 소망을 뒤로 한 채 여든넷이 되는 새해 첫 일주일을 생의 마지막 주간으로 삼아 고이 떠나셨다. 허나 아직 믿을 수가 없다. 두 눈으로 당신의 끝 숨을 보고 경황없이 상을 치른 뒤 기어이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는데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지금도 “밥 먹어야지” 하시며 불쑥 밥상을 들이미실 것만 같다. 차라리 깨어야 할 헛된 꿈속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머니라는 존칭보다는 늘 ‘엄마’라 부르며 지천명이 된 지금껏 당신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살아왔다. 엄마도 그리 불러주는 걸 한결 좋아하셨다. 이제 그 치맛자락도, 당신의 따사로운 체취도 다시 느낄 수 없는 이 현실이 무척이나 야속하고 원망스럽다. 그러나 무엇을 해도 후회될 일 또한 온통 머리를 쥐고 흔드는 걸 보니, 역시나 불효자를 면키 어려운 자식으로서 지난 무심함 들에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br/>며칠 전 무심코 자동차 트렁크를 열었다가 울컥 눈물을 쏟을 뻔했다.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엄마의 신발 때문이었다. 지난해 초가을 경 집을 나오셨다가 병 진단 후 바로 입원하셔야만 했던 엄마는 10월 중순 어느 날 일시적으로 퇴원하셨다. 그때 내 차에 신발을 포함한 당신의 짐들을 넣어두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병원을 나서면서 들뜬 기분을 감추지 않으셨던 엄마는 당일 저녁에 뇌졸중이 오면서 급히 119 구급차를 타고 재입원을 하셔야 했다. 그날 이후 엄마의 신발을 차 트렁크에서 내놓을 수 없었다. 다시 그 신발을 신겨드릴 날이 오기를 바랐다. 내 가슴에 품듯 내어놓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었다. 결국 엄마는 그 신발을 더 이상 신지 못하셨다. 엄마와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은 그렇게 다가왔다.<br/>지난 해 가을, 엄마 온몸에 퍼진 암 덩어리와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온 동맥박리, 뇌졸중 등 여러 합병증을 확인한 순간부터 이제 눈앞에 펼쳐질 상황을 인정해야만 했다.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승의 연이 다 했음을 거부할 도리가 없었다. 생명연장을 위한 무리한 의료행위는 엄마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 의미가 없었다. 우리가 할 최선의 방편으로 가족들 모두 수다스러울 정도로 많은 얘기를 건넸다. 너무 애쓰셨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끝없이 속삭이는 시간도 뒤를 이었다. 그와 더불어 나는 한없이 엄마의 눈빛과 온몸을 살폈다. 점점 흐릿해지는 눈동자를 보며 여전히 자식의 얼굴을 봐 주시니 슬픔보다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웃으려 애를 썼다. 퉁퉁 부은 손과 발등, 창백한 살갗에 눈을 두기보다는 여전히 유지되는 체온에 기뻐하며 매만지기를 반복했다. 아직 살아 숨 쉬고 계시다는 것에, 엄마의 온기가 남아 있음에 늘 감사해 했고 울컥거리는 심정의 일부나마 누를 수 있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던 그 시간 동안 나의 카메라에는 엄마의 모습들이 귀하게 담겼다. 당신의 온몸을 살피며 만지는 그 시간들은 나의 이별의식이었고 엄마의 존재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제례의 과정이었다. 사진을 찍는 시간이 아닌 엄마와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br/>이제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아침저녁으로 생전에 좋아하셨던 숭늉과 보리차를 번갈아 올려드리며 사진 속 엄마의 뺨을 두어 번 매만진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 속 엄마의 표정은 한없이 자애롭고 평온하기만 하다. 평생 우리 남매들을 향해 주셨던 그 표정 그대로다. 병상을 지키던 지난 3개월의 틈새에서 아직 헤매고는 있지만, 당분간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 엄마와의 아름다웠던 지난 기억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보려 한다. 엄마와 이별을 준비했던 시간은 당신의 삶이 내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웠음을 증명하는 여정이기도 했던 탓이다. 무에 그리 서둘러 가셨느냐고 부질없이 들던 생각의 한 조각 정도는 이제 걷어내고 싶다. 엄마와 마주하는 또 다른 시간이다.<br/>임종진 달팽이사진골방대표

언론사: 한국일보-3-568.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KB국민카드, 마일리지 적립되는 프리미엄 카드 外  
날짜: 2017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16050718001  
ID: 01101101.20170116050718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KB국민카드, 마일리지 적립되는 프리미엄 카드<br/>KB국민카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프리미엄 카드 ‘베브 파이브 카드’를 출시했다. 스카이패스형을 발급 받으면 월~목요일에는 1,500원당 1.2마일, 금~일요일에는 1.5마일씩 적립된다. 특히 주말에 호텔이나 골프장ㆍ면세점 등에서 사용하면 1,500원당 3마일이 적립된다. 포인트형은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주중은 이용금액의 1.2%, 금요일과 주말은 1.5%가 포인트로 적립된다<br/><br/>NH농협생명, 생활비 받는 NH암보험<br/>농협생명은 주요 암 진단 후 생존시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최대 5년간 지급하는 ‘생활비받는 NH암보험’을 출시했다. 유방암이나 남녀생식기 관련 암 진단시 1,500만원을 지급한다.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진단시 최초 1회에 한해 400만원의 진단보험금을 제공한다.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60세까지다. 15년 단위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br/><br/>우리은행, 희망배닭 예금ㆍ적금<br/>우리은행은 정유년 닭의 해를 기념해 국내 1위 음식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제휴하여 ‘희망배닭 예금ㆍ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한 1년제 온라인 전용상품이다. 정기예금은 1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정기적금은 월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우리카드가 함께 진행하는 ‘희망배닭치킨 이벤트’를 통해 2월 28일까지 가입하면 선착순 2만명에게 치킨할인쿠폰 1만원권을 제공한다.

언론사: 한국일보-3-569.txt

제목: 행복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인공암벽장  
날짜: 2017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16050707003  
ID: 01101101.20170116050707003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앞으로 건립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에 실내 인공암벽장과 스쿼시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br/> 행복청은 현재 설계 중인 2-1생활권(다정동) 복컴에 130㎡ 규모(2개 층)의 실내 인공암벽장과 220㎡ 크기의 스쿼시장(2명) 조성 계획을 반영했다. 행복도시 복컴에는 배드민턴과 탁구, 농구,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이 구비돼 있지만 인공암벽장과 스쿼시장이 들어서는 것은 다정동 복컴이 처음이다.<br/> 행복청은 앞으로 복컴 내 스피닝과 필라테스, 요가 등 소수 동호인을 위한 취미 활동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br/> 행복도시에는 오는 2030년까지 총 22곳에 복컴이 건립되며 현재 7곳은 준공됐고, 7곳은 공사 중이다.<br/> 행복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다양한 장르의 취미활동이 가능토록 복컴의 기능을 강화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70.txt

제목: 에이즈로 내몰린 이들에게 집을 주고 가족을 주다  
날짜: 2017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14050611001  
ID: 01101101.20170114050611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가만한 당신] 지나 콰트로키<br/><br/>1969년 6월 뉴욕 그리니치빌리지 게이클럽 ‘스톤월 인’에서 경찰의 가혹행위에 분노한 게이들은 ‘폭동’으로 힘을 얻고, 또 일주일 뒤 ‘게이 권력(Gay Power)’의 깃발을 내 들었다. 그리고 이듬해 뉴욕과 로스엔젤레스에서 사실상 최초의 LGBT 프라이드 행진을 시작했다. 그들이 ‘게이 권력’으로 쟁취하려던 건 간섭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며 살 자유였다. 그 아름다운 권력은, 다시 말해 사랑은, 몇몇 대도시의 옹색한 공간에서 시작돼 80년대 초까지 더디지만 꾸준히 영역을 넓혀갔다.<br/> 그들의 사랑은 다수자들이 보기에 급진적이고 과격한 면이 있었다. 성행위의 대상과 방식만 그런 게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히피들의 그것과는 또 다른, 제도적ㆍ부르주아적 사랑과 결혼을 조롱하며 가족ㆍ가정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던 이들이 있었고, 또 적지도 않았다. 게이 작가 마이클 커닝햄의 초기작 ‘세상 끝의 사랑 A Home at the End of the World’에는 그 무렵 그들의 생각 일부를 드러낸 구절이 나온다. <br/>“우리 부모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사랑은 우리 부모들에게 집을 사면서 대출받은 돈을 갚고 집수리를 하며 사는 인생을 가져다 주었고, 보잘것없는 직장에서 일을 하며(…) 슈퍼마켓의 형광등이 켜진 진열대 사이를 돌아다니는 인생을 가져다 주었다.<br/> 우리는 다른 사랑을 원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우리가 지닌 인간적 연약함을 잘 알고 그것을 용서해 주면서도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존심을 작게 축소시켜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다. 그런 사랑이 가능할 것 같았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겁에 질리지 않는다면, 자극적인 도전과 따스함을 함께 갖춘 사랑이 나타날 것 같았다. (…)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섹스를 했다. 우리는 흥청대는 새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김승욱 옮김, 생각의 나무, 291~292쪽)<br/><br/><br/><br/> “흥청대는 새 시대”가 막 열리는가 싶던 그 무렵, 1981년 7월 3일 뉴욕타임스에는 ‘Rare Cancer Seen in 41 Homosexuals’라는 제목의 그리 길지도 않은 기사 한 꼭지가 실렸다. 암과 유사하지만 발병 후 급속하게 병증이 악화하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동성애자 41명의 신종 질병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 “<span class='quot0'>원인도 전염 메커니즘도 알 수 없지만, 증상으로는 피부에 반점이 생기며…</span>” 어쩌고 하는 그 기사는 뉴욕의 피부 종양학자 앨빈 프리드먼 키언(Alvin Friedman- Kien)의 말을 인용 “<span class='quot0'>아직 동성애자 커뮤니티 바깥이나 여성들에게서는 발병했다는 보고가 없다</span>”며 감염 예방의 최선책을 넌지시 암시했다. <br/>하지만 ‘카포시 육종 Kaposi’s Sarcoma’, 혹은 ‘게이 암 gay cancer’이라 불리던 그 병에 걸린 이는 그 해에만 뉴욕 162명, 캘리포니아까지 포함하면 270명에 달했고, 그 중 약 절반인 121명(뉴욕 74명)이 해를 넘기지 못했다. 그건 쓰나미의 첫 파도일 뿐이었다. AIDS 합병증으로 숨진 이는 이듬해 853명으로 늘어났고, 83년에는 1,292명, 84년에는 3,665명…. 80년대 AIDS 공포가 그렇게 시작됐다. <br/><br/> 국가는 우왕좌왕했고, 공동체는 패닉에 빠져들었다. 사회는 히스테리로 위축돼갔고, 게이 커뮤니티는 괴질의 온상인 양 배척당했다. 게이커뮤니티도 움츠러들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화 중 등장하는 ‘누구 소식 들었어?’같은 말은 대부분 부고로 이어졌고, 각자는 풍문 속 이름과 자신의 옛 연애사를 따져보며 불안해하곤 했다. 잡지 ‘Poz’의 발행인 신 스트러브(Sean Strub)는 83년 5월 친구들과 저녁을 먹다가, 마주 앉은 친구의 왼쪽 귀볼 뒤에 자줏빛 반점을 발견하고는 전전긍긍했던 일을 소개했다. 검진을 받고 왔다는 친구에게 “의사가 그 반점도 봤어?”라고 묻자 화들짝 놀라 화장실로 달려갔다가 사색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매거진 ‘New York’2014.5.29) 그 친구의 근황은 알려진 바 없지만, 스트러브는 85년 HIV감염 진단을 받았다.<br/><br/><br/><br/>미국질병예방센터(CDC)가 음식물이나 물 공기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HIV가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표한 건 비교적 이른 83년 9월이었다. 2년 뒤인 85년 9월, 혈우병을 앓던 인디애나 주 10대 소년 라이언 화이트(Ryan White)가 혈액제제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진 뒤 등교를 거부 당했다. 그 해 뉴욕 시에서는 거꾸로, 에이즈 진단을 받은 한 아이의 학교 재학생 1,100명 가운데 944명이 등교를 거부하는 일이 빚어졌다. 그들은 ‘Time’의 제목처럼 ‘새로운 불가촉민 The New Untouchables’이었다. 직장에서 쫓겨났고, 가족들로부터 외면 당했고, 연인에게 버림받기도 했다. 미국 장의사협회조차 83년 6월 회원들에게 에이즈 희생자의 시신 장의서비스를 거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br/><br/>동성애자(그리고 감염자)들은, 질병과 공포와 차별, 삼중의 싸움을 벌이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질병 연구 및 정보 공개와 예방 교육ㆍ홍보를 촉구했고, 지자체를 상대로 감염자 치료와 보호를 요구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스스로 나서 해내야 했다. 유력한 HIV 감염자 인권단체로 선구적 게이 인권운동가 레리 크레이머(Larry Kramer) 등이 조직한 ‘GMHC(Gay Men’s Health Crisis)’가 82년 1월 출범했다. 하루하루 속절없이 친구들을 잃어가던 그들은 “모든 게, 모든 게, 너무 적고, 너무 늦다. 우리의 침묵이 서로를 살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말했다.(nymag.com) 그들은 모금운동을 벌였고, 질병 정보와 예방책 등을 조사해 게이 커뮤니티에 알렸다. <br/><br/><br/>당시 뉴욕 시장이던 에드 코치(Ed Koch)가 게이 커뮤니티 대표자들과 첫 공식 미팅을 가진 건 83년 4월이었지만, 뉴욕 시의 초기 AIDS 대응은 참담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책으로도 출간된 2002년의 다큐멘터리 ‘How to Survive a Plague’의 제작자 데이비드 프랜스(David France)는 2013년 코치 별세 직후 ‘New York’에 기고한 글에서조차 고인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숱한 동성애자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그는 범부처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연락관을 지명했지만 아무런 권한도 자원도 배정하지 않았다. 84년 코치의 뉴욕시가 에이즈 대책에 들인 예산은 2만4,500달러에 불과했다.(…) 휴대폰도 인터넷도 드문 시절이었다. 뉴욕타임스도 ‘게이’라는 단어를 쓰길 꺼려했고, 게이 커뮤니티 신문 판매량은 고작 6,000부에 그치던 때였다. 코치는 (물론 바이러스를 멈출 수는 없었겠지만) 리더십을 보여줄 수는 있었다.” 프랜스는 “병원 스태프들조차 에이즈 환자 접촉을 꺼려 음식 쟁반을 병실 바깥에서 밀어 넣고, 붕대나 침대 시트 교체를 거부하는 간호사도 있었다.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같은 이야기들. 나는 그 실상을 기자회견에서 코치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버럭 화를 내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고만 말했다.” 하원의원 출신 3선 뉴욕시장(1978~89 재임) 코치는, 본인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내내 ‘클로짓 게이’라는 의심을 받던 독신 정치인이었다. <br/><br/><br/><br/>그렇게 세상이 온통 문은 닫아 걸던 그 시기, 병들어 길바닥에 쫓겨난 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준 이들이 있었다. 83년 뉴욕에서 출범한 ‘AIDS 자원센터(AIDS Resource Center)’였다. 봉사자들은 미드 마이너 베일리 경(Mead Miner Bailey) 경 등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 86년 첼시와 그리니치 빌리지에 몇 채의 아파트를 임대, 에이즈 홈리스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간호하며 먹을 것을 챙겨주기 시작했다. 미국 최초의 에이즈 환자 집단거주시설 ‘베일리 하우스 Bailey House(초기 명칭은 Bailey- Holt House)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들은 에이즈 환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특효약보다 더 시급한 것이 거처라 여겼다. 한창 임상실험 중이던 AZT(아지도티미딘) 등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우선 환자들이 버틸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구구절절 사연이 많지만 어쨌건, 그들 덕에 수많은 감염자들이 그 ‘눈먼 자들의 시대’를 버텨, 이제 에이즈가 의학적 사형선고가 아닌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하나로 맞서볼 만하게 돼온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다. <br/>베일리하우스의 CEO를 맡아 만 25년을 이끌어온 지나 콰트로키(Regina ‘Gina’ Quattrochi)가 지난 해 12월 13일 별세했다. 향년 63세.<br/><br/><br/>그는 1953년 4월 22일 뉴욕 퀸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뉴욕주 대법원 관료였고, 어머니는 주부였다. 그는 가톨릭학교를 거쳐 75년 올버니 뉴욕주립대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78년 올버니 로스쿨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한 로펌에서 기업 노동법 변호사로 일하다 80년대 들어 뉴욕주 뇌성마비협회와 간호사협회 법률자문 변호사로 일했다. 그가 베일리하우스의 이사가 된 건 86년이었다. 그의 사생활(성 지향 포함)은 거의 알려진 바 없지만 그도 여러 명의 친구를 에이즈로 잃었고, 그러면서 에이즈 환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91년 베일리하우스의 대표(CEO)가 됐다. 에이즈나 동성애자와 엮이기조차 꺼려했던 코치 재임기의 뉴욕시와 뉴욕주, 보건 당국과 연구기관과 거대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또 차별과 편견의 사회까지 상대로 싸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며, 예산을 타내고, 기부금을 모금하는 게 그의 역할이었다. 2008년 5월 올버니 로스쿨 매거진 ‘Issue’인터뷰에서 그는 “나는 법률가로서 어지간한 건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조직 특히 에이즈환자를 보살피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완전히 초보였다. 나는 바닥서부터 배우며 그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br/>완전 초보였던 그가 CEO가 된 데는 그의 ‘전투력’이 주효했을 듯하다. 그는 어려서부터 익힌 가라데로 45세에 검은띠를 딴 유단자였다. “<span class='quot0'>난타전(full contact fighting) 취향의 인파이터</span>”라고 자신을 소개할 만큼 저돌적이었던 그는 힘든 시기의 조직으로선 듬직한 전위였을 것이다. “민첩성과 기술보다 힘과 지구력으로 승부를 거는 편이었다. 시민운동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때로는 외교적인 접근이 더 나을 때도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베일리하우스는 명사들이 기증한 물품을 팔아 기금을 모으고, 앤더스 쿠퍼(Anderson Cooper) 쏘스턴 카예(Thorsten Kaye) 등 유명인과의 점심 식사권 등을 경매로 판매하기도 했다. 취임 초기 연 예산 350만 달러였던 베일리하우스는 2016년 말 현재 1,800만 달러 규모로 커졌고, 약 1,800명의 감염자 및 발병자 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br/>2008년 인터뷰에서 그는 처음 CEO가 되던 때를 환기하며 “<span class='quot1'> 당시 나는 17년 뒤인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을 줄 몰랐다</span>”고 말했다. “이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전투 양상이 바뀌었고 정치적 환경이 달라졌지만, 에이즈는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여러 지역과 지구에서 여전히 난폭하게 전염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01년 ‘Philanthropynewsdigest’ 인터뷰에서 에이즈 문제가 미국 보건 지상과제라 여기는 이의 비율이 1995년 44%에서 2000년 26%로 감소한 것을 두고 “그 함의는 무척 실망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우리의 모금에도, 공공정책 면에서도, 에이즈 예방과 치료에도 재앙이다. HIV는 여전히 방심할 수 없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바이러스다”라고 말했다. 물론 그 무렵의 에이즈는 80년대와 판이했다. 96년 유엔 에이즈 프로그램이 가동됐고, FDA의 승인을 받은 가정용 진단키트가 발매됐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HIV 감염자의 에이즈 발병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br/><br/><br/><br/>콰트로키가 강조하려던 건 에이즈 대응력의 성 인종 지역 격차였다. 흑인, 특히 여성과 빈곤층 감염자들의 열악한 상황에까지 사회가 둔감해지는 것을 그는 경계했다. 2011년 본격화한 ’30 For 30 캠페인’ 즉, HIV감염 여성과 트랜스젠더들의 발병 예방 및 치료 격차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의 주도자 중 한 명도 그였다. ‘30 For 30’은 에이즈 공포가 시작된 지 30년이 됐고, 여성 환자 비율이 약 30%인 점에 착안해 붙인 이름. 그 가운데 약 80%가 흑인과 라틴계다. 콰트로키는 저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고, 전문가들과 함께 잠비아 등 남아프리카와 쿠바 등지를 돌며 예방ㆍ치료 정보 등을 홍보했다.<br/><br/>2014년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020년까지 HIV 감염자를 연간 750명 이내로 줄이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콰트로키의 합류를 청했다. 콰트로키가 다발성골수종(multiful myeloma, 혈액암의 일종) 진단을 받은 게 그 무렵이었다. 2년여 간 투병하면서도 그는 뉴욕주의 일과 베일리하우스 CEO직을 놓지 않았다. 숨질 때까지 그에겐 “그 일이 여전히 중요”했을 것이다. GMHC의 에이즈 운동가 레리 크레이머는 “이 특별한 사람을 잃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가련해지게 됐다. 그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싸운, 가장 고결한 영웅이었다”고 기렸다. 최윤필 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571.txt

제목: 암, 루게릭병 환자 국민연금 지급 시기 앞당긴다  
날짜: 2017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13050514002  
ID: 01101101.20170113050514002  
카테고리: 사회>장애인  
본문: 암, 백혈병, 시력장애, 루게릭병 등으로 중증장애가 생긴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최대 1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초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3월 1일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br/>개정안에 따르면 혈액ㆍ조혈기 질환(백혈병 혈우병 악성빈혈 등), 근육신경병에 따른 사지마비(루게릭병 등), 시력장애 3종의 질환을 앓아 1급 장애가 발생한 경우 현행 규정보다 6개월 또는 1년 앞당겨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는 이들 질병에 따른 장애 발생시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뒤 연금 청구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1급 장애에 한해 사지마비는 초진일로부터 1년, 나머지 질환들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br/>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 내 1급 장애가 확정돼야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6개월 이후라도 1급 장애 판정을 받으면 등급에 맞게 인상된 연금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뒤늦게 1급 장애 판정을 받으면 다른 등급(2~4등급)과 마찬가지로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을 기다려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 보다 일찍 연금을 지급,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span>”라고 설명했다.<br/>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72.txt

제목: 안신애 “변화를 갈구하는 목마름이 일본 진출 동기”  
날짜: 2017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12050713003  
ID: 01101101.20170112050713003  
카테고리: 스포츠>스포츠일반  
본문: “일본 진출이요?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단타자라서 내몰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br/>안신애(27ㆍ문영그룹)는 ‘미녀 골퍼’ ‘필드의 패션 모델’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표 스타다. 그런 그녀가 지난해 돌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시드 순위전에 도전했다. JLPGA 퀄리파잉스쿨(Q스쿨) 3차전을 1위로 통과했지만 4차전에서 아쉽게 45위에 그치면서 2017 시즌 부분 시드를 획득했다.<br/>국내에서도 많은 팬들을 확보한 안신애가 일본 진출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안신애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br/>안신애는 우선 ‘변화’를 원했다. 8년의 KLPGA 투어 활동 기간 동안 그는 메이저 1승을 포함해 3차례 우승컵을 안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변화를 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안신애는 “꿈의 무대인 미국 무대에 도전해보고 싶지만 아버지가 와병 중이고, 어머니도 한때 유방암을 앓으셨다. 내가 늦둥이 외동딸이라 부모님과 떨어질 수 없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결국 가까운 일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br/>안신애의 아버지 안효중(65)씨는 지난해 초 췌장암이 발견돼 수술 후 건강을 회복 중이다. 안신애는 부모가 모두 암과 투병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됐다. 그는 최근 ‘암 정복 희망 프로젝트’라는 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 안신애는 “<span class='quot0'>그 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다가 아버지의 암 투병을 계기로 결심을 하게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병원측에서 널리 알려야 따라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서…</span>”라며 쑥스러워했다.<br/>그의 또 다른 일본 무대 진출 이유는 한마디로 ‘짤순이의 비애’였다. 최근 들어 KLPGA 대회 코스 전장이 점차 길어지면서 장타자들에게 유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보다는 코스가 짧고 정확도가 요구되는 JLPGA 투어 진출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는 “<span class='quot0'>파3에서 아이언을 잡은 경우가 지난 한해 동안 몇 번 없을 정도로 코스가 길어지고 긴 클럽으로는 볼을 세우기가 힘들 정도로 그린이 딱딱해졌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국내에서는 나처럼 단타자들이 플레이하기 어려운 여건이 됐다</span>”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br/>최근 안신애의 JLPGA 투어 진출에 일본 골프계 반응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풀 시드도 아닌 부분 시드 선수에게는 이례적인 관심이다. 안신애 역시 이 같은 반응에 “의외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잘해야겠다는 동기 부여되는 것 같이 기분이 묘하다”고 미소 지었다.<br/>안신애는 13일 한달간의 일정으로 호주로 전지 훈련을 떠난다. 이후 태국으로 다시 전지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호주 훈련 기간 동안 그는 오랜 기간 자신의 스윙을 봐주던 호주인 코치와 퍼트와 숏게임 연습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KLPGA 투어 상금 순위가 53위로 부진했던 안신애는 “<span class='quot0'>8년간의 투어 활동 기간 동안 이렇게 퍼트가 안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퍼트가 안되면 얼마나 골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훈련 기간 동안 퍼트 연습을 많이 하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br/>국내를 대표하는 스타지만 여전히 실력보다는 외모로만 너무 주목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span class='quot0'>내면도, 외면도 발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운동선수다 보니 안 좋게 보시는 분도 분명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다른 선수들보다 더 좋은 실력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항상 갖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어떤 선수가 되고 싶냐고 묻자 안신애는 “<span class='quot0'>내 마음처럼 되지는 않고 있지만 똑똑하고, 밝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다</span>”는 소망을 나타냈다.<br/>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73.txt

제목: [단독]향 첨가용 담배캡슐서 유해성분 최소 86종 확인  
날짜: 2017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12050730002  
ID: 01101101.20170112050730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본보, 공주대 연구보고서 입수<br/>검출된 성분은 모두 128종<br/>보건공단DB 유해성 조회 결과<br/>에탄올 등 독성 1등급만 25종<br/>유엔 기준으로 100종 넘을 듯<br/>복지부 규제계획 가속도 전망<br/>“<span class='quot0'>연구 추가 진행 뒤 법 개정할 것</span>”<br/><br/><br/>국내 시판 중인 캡슐담배의 캡슐을 이루는 성분 128종 가운데 최소 86종이 인체 유해 성분으로 확인됐다.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우려 속에 급속한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캡슐담배의 캡슐 성분이 완벽하게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br/>11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신호상 공주대 교수팀은 질본 의뢰로 시중 캡슐담배 29종(캡슐 기준 33종) 전체의 캡슐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 캡슐담배는 필터 부분에 향료 성분을 담은 캡슐을 삽입, 흡연 시 터뜨릴 경우 박하향, 과일향 등을 내도록 한 제품이다. 이번 연구는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담배 캡슐 구성 성분을 파악하는 1차 정성분석과 성분 별로 일일이 함유 여부 및 함량을 확인하는 2차 정량분석으로 이뤄졌다. 앞서 동국대 연구팀이 질본 의뢰로 수행한 담배 캡슐 성분 연구(지난해 5월 보고서 제출)가 정성분석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보다 완결성 있는 분석이 이뤄진 것이다.<br/>한국일보가 입수한 공주대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33종 담배 캡슐에 포함된 성분은 총 128종이었다. 기존 동국대 연구팀이 제시한 107종보다 늘어난 수치다. 제품별로는 많으면 65종, 적은 것도 33종의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일부 성분은 고농도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피부ㆍ호흡기 자극,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연구범위를 벗어난다며 캡슐담배 흡연 시 폐해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br/>그러나 본보가 캡슐 성분을 국내 최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조회한 결과, 조회 가능 성분 99종 가운데 86종이 유해 성분으로 분류됐다. 조회되지 않은 29종 중 다수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엔 화학물질분류표시시스템(GHS)에서 유해 성분으로 취급되고 있어 실제 건강에 해로운 성분은 100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캡슐담배를 피울 경우 연초뿐 아니라 캡슐을 통해서도 유해성분이 인체로 흡수되는 것이다. <br/>MSDS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성분도 상당수였다. MSDS는 급성독성, 피부 손상, 안구 손상, 호흡기 고민, 생식 독성, 장기 독성 등 13개 부문으로 나눠 유해성 등급을 제시하는데, 1개 이상 부문에서 가장 해로운 1등급을 받은 성분이 25종에 이르렀다. 특히 리모넨, 멘톨, 초산메틸 등은 모든 캡슐에서 확인됐다. 에탄올, 올레인산메틸에스테르 등 암을 유발하는 물질도 2종 있었다. 검출 성분 대부분은 인공향을 만드는데 주로 쓰이는 물질이지만 메탈데카노산, 베타미르센, 피페로날 등 살충제나 곤충기피제에 쓰이는 성분도 적지 않았다. 신호상 교수는 “<span class='quot1'>향이 담배 냄새를 순화하면서 담배연기를 깊숙이 들여마시게 유도하는 점, 캡슐 성분이 연소되면서 보다 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뀔 수 있는 점 등도 캡슐담배의 유해성을 높이는 요소</span>”라고 지적했다.<br/>캡슐담배의 유해성이 공식 확인되면서 정부의 규제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캡슐담배가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층 흡연인구를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내년 관련 입법을 통해 캡슐담배 제조ㆍ유통을 규제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2009년부터,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부터 향을 넣은 담배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올해 담배 향료물질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이를 근거로 법 개정에 나설 방침</span>”이라고 말했다.<br/><br/>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74.txt

제목: 中 안방보험 본색? 알리안츠, 주인 바뀌자 저축성보험 판매 재개  
날짜: 20170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11050714002  
ID: 01101101.20170111050714002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저축보험 꺼리던 알리안츠생명<br/>2015년 이후 첫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br/>일각선 “건전성 더 나빠질 수도”<br/><br/><br/>독일계 모회사를 두고 있던 알리안츠생명이 최근 중국 안방(安邦)보험에 인수된 지 불과 10여일 만에 그간 꺼려했던 저축성 보험 판매를 재개하며 영업전략 변신을 예고했다. 업계에선 이를 외형확대를 노린 안방보험 특유의 공격본능으로 해석하면서도 한편으론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br/>11일 알리안츠생명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인 ‘(무)알리안츠보너스주는저축보험’을 이날부터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 채널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최저보증이율(금리 변동에 상관없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율)이 2.0%에 달해 최근 다른 회사의 저축성 보험 상품(0.3%~1.0%ㆍ10년납 이상 기준)보다 2~7배 높다. 현재 국내에서 최저보증이율이 2%대인 저축성 보험 상품을 파는 곳은 동양생명 등 한두 곳에 불과하다.<br/>앞서 알리안츠생명은 2015년 9월부터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중단해 왔다. 모회사인 독일 알리안츠그룹이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며 최저보증이율이 없는 변액ㆍ종신보험 등만 취급하도록 했기 때문인데, 중국계(안방보험)로 대주주가 바뀌자 곧장 영업전략을 바꾼 셈이다. 저축성 보험은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가입자를 대거 끌어 모을 수 있어 과거 보험사들의 매출액 확대에 주로 활용됐다.<br/>안방보험은 2015년 10월 인수한 동양생명에도 이런 전략을 그대로 적용한 바 있다. 동양생명은 저축성 보험 집중 판매로 수입 보험료 기준 업계 순위가 8위에서 5위로 뛰어 올랐다. <br/>하지만 한편에선 건전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 부채 규모를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신지급여력(RBC)비율’ 연내 도입이 예고되면서 대다수 생보사는 최근 수년간 저축성 보험 비중을 줄이고 부채가 적게 잡히는 종신ㆍ암 보험 등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작년 6월 기준 200.7%)이 생보사 평균(297.1%)을 밑도는 알리안츠생명이 역주행에 나선 격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안방보험이 대규모 자본확충에 나서지 않으면 건전성이 더 나빠질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75.txt

제목: [삶과 문화] 깃털처럼 가벼운 심장  
날짜: 2017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08050443003  
ID: 01101101.20170108050443003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2016년의 끄트머리에 팔순 넘으신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엘 갔다.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사려니 숲에 들었다. 눈에 보이는 오솔길들이 궁금해 앞장 서 걷는데 엄마는 금세 다리가 아프다고 하신다. 겨울 바다가 반가워 숙소 앞 해변에 나가자고 했다. 호텔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뒤돌아 서신다. 세찬 바람이 무섭고 춥다고 로비에 앉아 기다리시겠단다. 내가 무럭무럭 늙고 있는 동안 우리 엄마 저렇게 힘이 빠지셨구나, 후회가 밀려 들었다. <br/>함께 간 여동생이 물었다. “<span class='quot0'>엄마는 내년에 뭐 하고 싶어?</span>” 엄마는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span class='quot0'>너희들은 뭐라 할 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죽고 싶어…</span>” 아무렇지도 않은 어조였다. 최소한 증손자 볼 때까지는 살아야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해 볼 것 다 해 봤고, 이제 더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는 엄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나도 가끔 너무 오래 살까 봐 걱정이 되곤 하니까. <br/>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는 말 대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엄마. 나는 엄마가 언젠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엄마를 우선순위에서 미뤄 둔다. 짧은 여행 중에도 짜증을 내고 핀잔을 주고 다음에는 둘이서만 오자고 동생과 속닥거린다.<br/>2006년 전파를 탔던 동양생명의 TV-CM은 말기암에 걸린 여성과 그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결혼한 남자가 주인공이었다. 그들이 결혼반지를 사고 삭발을 하고 웨딩 사진을 찍고 환자복을 입은 채 뽀뽀하는 스냅사진이 모여 한 편의 광고가 되었다. 그 사진들 중에는 액자에 검은 리본을 두른 그녀의 영정사진도 있었다. 광고가 나갈 때 이미 그녀는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이다. <br/>(동양생명 TV-CM 카피)<br/>자막)어느 날 찾아 온 말기암 판정,<br/> 그녀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br/> 그녀가 삭발하기 전 날 그도 처음으로 머리를 밀고,<br/>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지만 <br/>결혼반지를 사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br/> 웨딩사진을 찍기 전에 영정사진을 먼저 찍었습니다<br/> 사랑에는 시한부가 없음을 알려준 당신<br/> 고맙습니다<br/> 당신 덕분에 사랑을 알고 갑니다<br/>NA)당신이 천사입니다<br/>자막)사랑의 힘을 믿습니다<br/> 두 분의 숭고한 사랑은 MBC휴먼다큐에 방송된 실제 이야기입니다.<br/>고인이 되신 서영란씨의 삼가 명복을 기원합니다.<br/><br/>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지하세계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다. 죽은 자가 저울 한 쪽에 자신의 과거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 심장을 올려 놓으면 진실의 여신이 정의를 상징하는 깃털 하나를 반대편에 올려 놓고 무게를 잰다. 죄가 많으면 저울이 아래로 기울어저울 아래 있는 아무트라는 괴물에게 심장을 잡아 먹힌다. 심장을 잃은 사람은 영혼이 소멸해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린다. 죄가 없는 사람의 심장은 깃털과 균형을 이루고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신 오시리스에게서 영생을 보장 받는다는 것이다. <br/>죽을 것을 알면서도 결혼하는 지극한 사랑과 죽을 것을 알면서도 받기만 하는 이기적인 나… 아마 나의 심장은 저울 아래로 툭 떨어져버릴 것이다. 새해가 되었다. 한 살 더 먹은 만큼 죽음에 한 살 더 가까워졌다. 새해에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 죽을 때도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시간을 쏟아야겠다. 눈물, 웃음, 위로, 포옹, 촛불, 편지 같은 것들.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장을 가볍게 할 것에게 마음을 줘야지. 주변의 마음 다친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시 엄마 손을 잡고 나들이를 할 것이다.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샘내지 않고 축하하고 옛 친구에게 엽서를 띄우고 낯선 도시로 가는 기차표를 끊을 것이다. <br/>깃털처럼 가벼운 심장! 어떤 명품 매장에서도 살 수 없는 그것을 새해 내 버킷리스트 꼭대기에 올려둔다. <br/><br/>http://www.adic.co.kr/gate/video/show.hjsp?id=W1361570&type=T<br/>(동양생명 TV-CM 링크)<br/>정이숙 카피라이터ㆍ(주)프랜티브 이사

언론사: 한국일보-3-576.txt

제목: [2016 결산 베스트신상품] 메디팹  
날짜: 2017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06050554001  
ID: 01101101.2017010605055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해 1월 창립한 스타트업 메디팹(대표이사 차미선, imedifab.com)이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동물 대체시험에 활용될 수 있는 3차원 세포 배양 시스템인 ‘셀릭스 3D 컬처 시스템(Cellrix 3D Culture System)’을 개발했다. <br/>셀릭스 3D 컬처 시스템은 기존에 통용되는 2차원 세포배양법에 비해 실제 생체조직의 환경과 유사한 3차원 세포배양 환경을 조성해 줄기세포, 암 연구, 조직공학, 세포재생치료 등의 연구 및 동물실험 대체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br/>이 제품은 천연폴리머에 세포를 담지한 후 3차원 형상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3차원 표면에 세포를 배양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체조직에 보다 더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준다. 또한 3차원 형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방법이 사용되지 않아 세포독성 문제를 해결했으며 캐스팅 겔과 몰드 기술 적용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3차원 배양체를 형성할 수 있다.<br/>셀릭스 3D 컬처 시스템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고가의 수입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췄으며 성능　및　사용　편의성이　높아 지난 8월 생물학연구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제품평가에서 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았다.

언론사: 한국일보-3-577.txt

제목: 26개 인종 6000명의 유전체 정보 분석... ‘바이오 구글’ 서막  
날짜: 2017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05050834004  
ID: 01101101.2017010505083400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 맞춤의료 시대 이끌 신테카바이오<br/> 음악파일 2억4000만개 저장 용량<br/> 슈퍼컴 ‘마하’로 통합 플랫폼 구축<br/> 美 이틀 걸릴 분석 4시간 내 가능<br/>“상상도 못할 일” 세계가 깜짝 놀라<br/> <br/>2. 임상시험 없는 신약개발도 눈앞<br/> 클릭 몇 번으로 수천명 시험 대체<br/> 약의 부작용도 현저하게 줄여<br/>‘파킨슨병 신약’ 제약사와 제휴<br/>“<span class='quot0'>빅데이터가 진료ㆍ치료 다 바꿀 것</span>”<br/><br/><br/><br/>지난달 27일 대전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신테카바이오의 유전체 데이터 통합센터. 대전과 청주, 용인, 서울에 분산돼 있는 총 용량 1.4페타바이트(14억메가바이트ㆍ사진이나 음악파일 2억4,000여만개 저장분)의 슈퍼컴퓨터 ‘마하’를 조종하는 이 기업의 심장부다. 30여명의 직원들은 마하를 24시간 가동하며 세계 어느 슈퍼컴퓨터도 아직 해내지 못한 유전체 빅데이터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직원은 “<span class='quot1'>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바이오 구글’이 되는 것</span>”이라고 소개했다.<br/>바이오업계는 올해 유전체 빅데이터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과학자들이 혁명의 최전선에 섰다. 그들은 “병원과 제약사들이 줄 설 날이 머지 않았다”며 미소 짓고 있다. 8년에 걸쳐 비즈니스를 설계한 정종선 신테카바이오 대표는 마하를 바라보며 “<span class='quot2'>올해를 기점으로 제약과 의료 환경이 급격히 달라질 것</span>”이라고 힘을 줬다. <br/>마하에는 26가지 인종 6,000여명의 유전체 데이터가 들어 있다. 유전자는 4가지 화학물질(염기)로 구성되고, 한 사람의 전체 유전자 염기는 30억개에 달한다. 6,000명이면 18조개다. 그런데 염기 배열 순서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변이). 어느 유전자의 어느 염기에 변이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외모나 건강 상태 등에 차이가 생긴다. 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유전자 변이는 300만~1,000만개. 18조개 염기가 제각각 변이를 만들어낸다. 유전자와 단백질, 단백질과 단백질은 긴밀하게 정보도 주고받는다. 과학은 이 중 극히 일부만 파악한 상태다. <br/>바로 여기에 유전체 빅데이터의 특수성이 있다. 숫자나 글자, 그림에 한정된 여느 빅데이터보다 훨씬 방대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바이오업계는 빅데이터의 가능성에 일찌감치 눈떴다. 2000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로 처음 공개된 200기가바이트 용량의 1인 30억개 염기 정보는 ‘맞춤의료’ 시대를 열어줄 노다지로 여겨졌다. 병으로 고통받는 시간이 확 줄고, 자신에게 꼭 맞는 약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이런 특수성 때문에 곧 벽에 부딪혔고, 맞춤의료는 여전히 먼 상황이다. <br/>마하는 유전체 빅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된 바이오 전용 슈퍼컴퓨터다. 신테카바이오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제 공동연구로 확보한 6,000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마하에 넣고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와 유사한 플랫폼을 보유한 기관은 미국 브로드연구소와 중국 베이징유전체연구소뿐이다. 정 대표는 “<span class='quot2'>미국과 중국이 이틀 걸릴 분석을 4시간 안에 할 수 있고, 오차도 5~10배나 적다</span>”고 말했다. <br/>신테카바이오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암유전체협력단(ICGC) 심포지엄에서 마하 플랫폼을 깜짝 공개했다. 정 대표는 “회의장이 술렁거렸다”며 “<span class='quot2'>이름도 생소한 한국의 작은 기업이 미국과 중국을 치고 나갈 거라곤 아무도 상상 못한 것</span>”이라고 회상했다. 참가자들은 마하의 위력에 놀랐다. 지금은 개인별 유전자 정보를 ‘표준’이라 불리는 특정인의 유전체와 단순 비교한다. 그보다 암에 걸릴 위험이 좀 높다거나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라고 알려주는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마하 플랫폼에선 개인 유전자를 6,000명의 유전체, 특히 그 안에 숨은 수많은 변이와 동시에 비교 가능하다. 특정 약물이 들을지 안 들을지 미리 알 수 있고, 어떤 병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br/>마하 플랫폼을 미국 마이클 제이 폭스 재단이 알아봤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배우 폭스가 만든 이 재단은 파킨슨병 환자 600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보내왔다. 이를 근거로 마하 플랫폼은 6,000명의 유전체를 파킨슨병 약에 대한 반응에 따라 60개 그룹으로 나눴다. 이어 파킨슨병 신약을 개발 중인 바이오기업 카이노스메드와 손 잡았다. 신약 후보물질이 60개 그룹에서 각각 어떤 효과나 부작용을 보일지를 예측하는 작업이 요즘 마하가 집중하는 일이다. <br/>작업은 올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성공하면 제약사들은 너도나도 ‘러브콜’을 보낼 것이다. 비싼 임상시험 없이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으로 약의 부작용을 현저히 줄이고 신약개발 성공률도 확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동물 대신 컴퓨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을 허가했다. 마하 플랫폼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김태순 신테카바이오 경영총괄 사장은 “<span class='quot3'>클릭 몇 번으로 수천명 임상시험을 대체하고, 결과도 기존 임상보다 훨씬 정확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빅데이터는 유전체 말고도 단백질, 지질, 영상, 논문 등 수없이 많다. 이들을 마하 플랫폼과 연계하면 ‘바이오 구글’이 가능하다. 시간과 돈을 쏟아부을 필요 없이 원하는 의료정보를 ‘클릭’으로 얻어낼 수 있게 된다. <br/>바이오기업 휴레이는 그래서 신테카바이오와 협업하기로 했다. 강북삼성병원에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휴레이는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나 식단, 복약 상황 등을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으로 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른바 ‘라이프로그’(생활기록)다. 휴레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4'>유전체와 라이프로그 빅데이터가 만나면 맞춤의료를 넘어 ‘정밀의료’ 시대가 열릴 것</span>”이라고 말했다. 개인별 유전자뿐 아니라 생활습관과 환경까지 치밀하게 따져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세계 정밀의료 시장 규모는 지난해 290억달러(약 35조원)에서 연평균 11.2% 증가해 2025년 1,126억달러(13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br/>유전체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자리까지 넘볼 태세다. 제아무리 IBM 인공지능 ‘왓슨’이라도 지금은 진단에 참고만 될 뿐이다. 김 대표는 “<span class='quot5'>유전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의사와 직접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정밀의료 진단과 치료를 하는 시스템도 가능해질 것</span>”이라고 내다봤다. 대전=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78.txt

제목: [브리핑]삼성, 2017년 드림클래스 겨울캠프 개최 外  
날짜: 2017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05050820001  
ID: 01101101.20170105050820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삼성, 드림클래스 겨울캠프 개최<br/>삼성이 5~25일 전국 6개 대학에서 중학생 1,622명, 대학생 555명이 참여하는 ‘2017 드림클래스 겨울캠프’를 연다. 드림클래스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중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이 멘토가 돼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캠프로 삼성이 6년째 진행 중인 사회공헌활동이다.<br/><br/>한화생명, 아침 컵밥 나눠주는 푸드트럭 운영<br/><br/>한화생명은 새해를 맞아 영업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자사 영업현장 60여곳과 100여개의 고객사 영업장을 찾아 푸드트럭에서 따뜻한 컵밥을 나눠주는 ‘불꽃셰프, 아침을 부탁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행사 첫 날인 5일엔 차남규(가운데) 사장이 서울 여의도 63빌딩 본사 앞에서 임직원에게 직접 컵밥을 나눠줬다.<br/><br/>넷플릭스, 웹툰으로 첫 한국 드라마 제작<br/>글로벌 인터넷 동영상 기업 넷플릭스가 천계영 작가의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을 드라마로 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총 12부작으로 제작되는 이 드라마는 2018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0여개국에서 동시에 공개된다. 제작은 ‘미생’, ‘시그널’ 등을 인기 드라마를 기획한 히든시퀀스가 맡는다.<br/><br/>맥도날드, 경북 경주에 기와집 형태 이색 매장 개점<br/> 맥도날드가 6일 경북 경주에 기와집 형태의 맥드라이브 매장인 경주 용강DT점(사진)의 문을 연다. 경주가 신라의 도읍지였던 점을 반영해 전통 한옥 구조로 매장을 꾸몄고, 차를 탄 채 제품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맥드라이브 시스템을 적용했다. <br/><br/>대웅제약 바이오시밀러, 인도네시아 발매 <br/>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 이달 중 빈혈 치료제 ‘에포디온’을 현지 발매한다고 5일 밝혔다. 에포디온은 다국적제약사 얀센의 이프렉스를 복제한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로, 신장 투석 환자와 암 환자의 빈혈 치료에 도움을 주는 주사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출시 후 3년 안에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span>”라고 말했다. <br/><br/>한미약품, 중국 의약품 관리시장 진출 <br/>한미약품의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계열사 제이브이엠을 통해 중국 의약품 관리와 자동 조제 시스템 시장에 진출한다고 5일 밝혔다. 북경한미약품은 제이브이엠이 보유한 전자동 약품관리 시스템과 정제 분류ㆍ포장 시스템을 중국 전역에 공급하게 된다. 현지 공급과 유통은 중국 제약사 시노팜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제이브이엠은 병ㆍ의원과 약국을 포괄하는 의약품 관리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한미약품 계열사로 편입됐다.

언론사: 한국일보-3-579.txt

제목: 코치로 돌아온 정현욱 "선수들 스스로 알맹이가 돼야 한다"  
날짜: 2017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04050600001  
ID: 01101101.20170104050600001  
카테고리: 스포츠>야구  
본문: ▲ 정현욱 삼성 불펜 코치/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br/>[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정현욱(39) 삼성 불펜 코치가 낯선 겨울을 보내고 있다. 예년이라면 새 시즌을 앞두고 한참 몸 만들기에 땀을 쏟았겠지만 올 겨울에는 휴식이 주된 일정이다. 그는 "시간이 남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색해했다.<br/> <br/>동대문상고를 졸업하고 1996년 삼성에 입단한 그는 2000년대 후반 재능을 꽃피웠다.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는 '국민노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전국구 스타로 올라섰고, 2013시즌을 앞두고는 FA(프리 에이전트)로 LG로 이적했다.<br/> <br/>2014년 위암 판정은 그의 야구인생을 흔들어 놨다. 투병 끝에 암을 이겨낸 그는 마운드로 돌아와 2016시즌 17경기 1승3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7.29를 기록했다. "1군에 가보자"는 목표를 바라보고 암과의 싸움을 이겨낸 그는 지난해 11월 은퇴를 선언했다. 선수 생활 내내 '자기관리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최선을 다해 달려왔던 그는 이제 친정팀 삼성에서 지도자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다음은 정현욱 코치와 일문일답.<br/> <br/>-'선수' 신분이 아닌 첫 겨울이다.<br/> <br/>"선수 때면 지금 운동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 이제는 정말 일반인이 됐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금만 해도 다리가 풀린다.(웃음) 정신력도 약해졌는지 예전과 달리 이젠 하기 싫으면 운동도 안 한다. 야구를 시작한 이후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br/> <br/>-편한 겨울이 오랜만이겠다.<br/> <br/>"편하다기보다 예전에는 내 것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팀 내) 투수들이 다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어린이집 원장도 아닌데 선수들에게 전화해 '뭐 하니, 어떻게 지내니' 물어보고 있다. 야구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지만, 나도 선수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마음이 하는 야구도 있더라.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 중이다."<br/> <br/>-선수시절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했다. 지난해는 위암까지 극복하고 돌아왔는데 결국 은퇴 발표를 했다.<br/> <br/>"선배로서 창피하지 말자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 지난 시즌을 시작하면서 '올해가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했다. 주변에서는 '후반기에 더 좋아졌으니 더 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 솔직히 계속 하면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전에는 '1군에 한 번 가보자'는 생각으로 부딪혀가며 준비했지만 더 이상 하면 모든 걸 놔버릴 것 같더라.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았다. 좋은 성적을 낸 건 아니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다. 큰 수술을 하고도 1군에 와서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게 됐으니까."<br/> <br/>-4년 만에 삼성에 돌아왔다.<br/> <br/>"삼성 선수들도 많이 바뀌어 내가 아는 선수가 몇 명 없더라. 아직 단체 훈련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과 친해질 시간도 부족하고 선수들을 파악할 시간이 적어 일부러 선수들에게 전화를 돌리곤 한다."<br/> <br/>-선수로 있을 때와 달리 삼성 투수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br/> <br/>"예전에 삼성은 못해도 4강은 가던 팀이었다. 지금은 주위 평가가 박하다. 하지만 선수들이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스로의 '기대치, 목표, 성적'을 보고 가야 한다. '누가 빠져서 팀이 안 된다'고 하면 남은 사람들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 아닌가. 알맹이가 돼야 한다. '내가 잘 해서 성적 내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목표를 크게 가져야 하고, 처음부터 겁먹기 보다 주축투수가 돼 성적을 내면 된다는 이야기를 선수들에게 많이 해주려고 한다."<br/> <br/>-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나.<br/> <br/>"좋은 사람이 먼저인 것 같다. 이 친구들에게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선수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 아닌가. 아무리 좋은 지도력을 갖고 있어도 선수들에게 믿음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이고. 말 한 마디라도 다정하게 하려 한다. 선수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코치가 돼야 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한다면 노력을 인정해줄 수 있는 코치가 되고 싶다."<br/><br/><br/>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언론사: 한국일보-3-580.txt

제목: 15세 된 우리 아이 보험, 성인용으로 갈아타 볼까  
날짜: 2017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03050726003  
ID: 01101101.20170103050726003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어린이보험과 성인용 통합보험보장 사망보험금ㆍ중증 질환 진단금 등보장내용ㆍ보장금액에서 큰 차이잔병치레 줄어드는 청소년기15세부터 성인보험 가입 가능어린이보험 연금저축으로 전환계약수수료ㆍ사업비 떼지 않아 유리올해 중3이 되는 혜령(15)양 엄마 김모(46)씨는 아이 앞으로 들었던 어린이보험을 최근 일반 통합보험으로 갈아타라는 보험사의 권유를 받았다. 5세부터 매달 6만원씩 내며 그간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받았지만 혜령이가 중학생이 된 이후엔 감기나 장염 등 잔병치레가 줄면서 보험 혜택이 크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는 수학여행이나 영어캠프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커졌다. 김씨는 “<span class='quot0'>따져보니 어린이보험과 성인용 보험의 보장 내용 차이가 커 보험을 바꿀까 고민 중</span>”이라고 말했다.국내에 어린이보험이 대중화된 지 10년 이상 지나면서 어린이보험 가입 대상인 자녀가 성인보험 가입이 가능한 연령인 15세 전후를 맞는 가정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사고와 질병 보장이 뒤섞여 있는 탓에 대부분 무심코 보험료를 내곤 하지만 따져보면 어린이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성인용 통합보험 사이에는 차이가 적지 않다. 또 같은 연금보험이라도 어떻게 납입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훗날 수령액의 차이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에 자녀를 위한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자산투자 못지 않은 재테크라고 지적한다. 15세부턴 성인보험 고려해야현재 보험권에서 판매되는 어린이보험 대부분은 가입 가능 연령이 0~20세 안팎이다. 하지만 15세부터는 성인용 보험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어린이보험을 들고 있는 자녀가 15세 전후를 맞았다면 성인용 통합보험과 반드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사망보험금 보장 여부다. 현행법상 15세 미만은 보험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보험에선 사망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성인보험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암이나 뇌출혈 등 중증질병에 걸리더라도 보장금액이 더 높다. 실제 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의뢰해 15세 청소년이 기존 어린이보험을 유지했을 경우와 통합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를 비교해 봤다. 보장내용, 보험료 등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통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사망보험금(8,000만원)뿐 아니라 암 진단비 등 중증질병에 따른 보장금액이 어린이보험보다 2,000만~3,000만원가량 많았다. 대신 통합보험에는 다발성소아암, 신생아뇌출혈 등에 대한 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월 보험료도 통합보험이 어린이보험보다 다소 저렴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어린이 질병이나 사고가 적어지는 15세 이후에는 보장범위를 조정해 보험금이 높은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span>”고 조언했다. 다만 15세 이전 암이나 백혈병, 중증소아질병에 걸린 적이 있거나 가족병력 등이 있다면 어린이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중증질병에 한번 걸리면 다시 보험에 가입하거나,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엔 보험료 갱신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들도 등장했다. 보장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료가 월 6만~10만원으로 30세 만기 상품(월 4만~8만원)보다 높지만 100세까지 암, 뇌출혈 등 중증 질병을 보장해주는데다 이후 연금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연금저축은 되도록 빨리 가입해야연금저축보험은 흔히 노후 대비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입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돌려 받는 금액이 높아져 최근엔 ‘어린이 연금상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각각 1세와 30세에 10년간 매월 1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60세부터 매달 받는 연금은 각각 32만1,288원과 17만8,483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일찍 가입할수록 장기거치가 가능해 그만큼 보험료 운용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보험개시 기간을 앞당겨 20세부터 학자금 등 교육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미리 연금을 당겨 받거나, 기존 어린이보험에서 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 등 다양한 어린이 전용 연금보험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험개시 기간을 앞당기거나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보험에서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면 신계약수수료와 사업비 등을 떼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고, 보장금액만큼 한번에 목돈을 거치할 수 있어 효과가 커진다. 반면,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금으로 갈아타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이 연금으로 전환돼 손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어린이보험은 대부분 장기간 납부 상품이어서 조기에 환급 받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일 경우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신중하게 따져본 뒤, 적절한 시기에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span>”고 말했다.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81.txt

제목: [분당서울대와 함께 하는 건강 Tip] 폐렴 어떻게 예방하나?  
날짜: 2017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02050718004  
ID: 01101101.20170102050718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폐렴은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4위다(통계청 2015년). 10만 명당 28.9명이 폐렴으로 사망해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65세 이상은 특히 예방ㆍ관리가 중요하다.Q. 폐렴은 어떤 질환인가?“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원인균이 세(細)기관지 이하 부위 폐조직에 감염돼 생기는 염증성 폐질환이다. 폐렴에 걸리면 3억~5억 개의 폐 속 작은 공기 주머니(허파꽈리)에 고름과 체액이 차 숨쉬기가 힘들다. 폐 방어기능이 떨어지면서 화농성 객담과 함께 기침 가래 호흡곤란 흉통이 생긴다. 구토 설사 같은 증상도 생길 수 있고 두통 식욕부진 피로감 근육통 등도 나타난다.”Q. 감기와 다른 점은?“폐렴은 초기에 단순 감기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폐렴은 감기보다 열이 더 나고 오한이 반복적이고 대부분 오래간다. 또한, 콧물 재채기 목아픔보다 기침 가래 객혈 호흡곤란 가슴통증이 더 심하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다른 질환에도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진찰이 필요하다.”Q. 폐렴 원인은?“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리케챠 기생충 결핵균으로 발병한다. 이 가운데 폐렴구균에 의한 세균성 폐렴이 가장 흔하다. 만성질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 특히 감기나 독감 뒤 기관지와 폐점막이 손상될 때 원인균이 폐에 쉽게 침투한다.”Q. 예방법은?“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영양상태 유지, 개인위생관리 등 일반적 방법과 예방주사가 있다. 폐렴균은 입을 통해 들어가므로 구강위생을 청결히 해야 한다. 고령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는 폐렴 위험이 높아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Q. 어떻게 치료하나?“항생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대개 세균 때문에 생기므로 세균을 죽이는 약을 쓴다. 항생제 치료 중 열이 많이 나면 물을 많이 마시거나, 치료 도중 호흡부전에 빠지면 인공호흡기를 쓰는 등 보조 치료를 한다.”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582.txt

제목: “곤충 먹으면 수술 회복에 도움돼요”  
날짜: 2017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02050715004  
ID: 01101101.20170102050715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span class='quot0'>곤충을 먹으면 수술회복에 좋다고요?</span>”곤충 식품으로 제공된 환자식이 열량과 단백질 섭취가 높아 수술 환자 회복에 도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박준성, 김종원, 강정현)와 영양팀(김형미, 김성현)은 수술 후 환자에게 곤충식품을 제공한 결과, 곤충식을 먹은 환자가 기존 환자식을 섭취한 대조군 환자보다 높은 열량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등 회복에 도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연구는 식용 곤충의 환자식 적용 가능성을 살핀 국내 첫 연구라 관심을 끈다.연구팀은 지난해 3~9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위장관 수술 환자 34명(90%가 암 환자)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곤충식품인 ‘고소애’로 만든 환자식(20명)과 기존 환자식(14명)을 8.4∼11.2일간 제공했다.두 그룹의 열량ㆍ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곤충식 환자는 하루 평균 965㎉로 기존 환자식을 섭취군?667㎉보다 300㎉가량 많았다.또, 단백질 섭취량도 곤충식 환자가 평균 38.8g으로, 대조군 환자(24.5g)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지방 섭취량도 각각 27.9g과 12.5g으로 차이가 많았다.수술 후 환자의 체성분을 분석한 결과, 곤충식 효과가 더욱 뚜렷이 확인됐다.곤충식 환자들은 수술 후 체중 손실이 1.0%로 대조군 환자(2.7%)보다 체중손실이 덜 한 걸로 조사됐다.뿐만 아니라 주로 골격과 근육으로 구성된 체지방량(FFMㆍFat free mass)은 곤충식 환자에서 1.4% 늘어난 반면, 대조군 환자에서는 오히려 3.5% 줄었다. 체지방량은 수술 후 합병증, 생존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연구팀은 최근 각종 연구보고에서 밥 국 중심 환자식이 섭취 부피에 비해 열량과 단백질 섭취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해결책으로 부피가 작고 고단백인 곤충식을 대안으로 주목했다.이번 실험에 사용된 곤충식품 갈색거저리는 국내 식용 허가 1호 곤충으로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고 필수아미노산 조성이 좋으며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풍부해 환자식으로 장점이 많다.박준성 강남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 교수는 “수술 환자에게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상처 회복과 면역력 보강, 각종 지방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3-583.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교보생명, 주요질환 보험료 낮춘 상품 출시 外  
날짜: 2017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02050709003  
ID: 01101101.20170102050709003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교보생명, 5대 주요질환 보험료 낮춘 상품 출시교보생명은 사망보장 없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 간ㆍ폐ㆍ신장질환 등 5대 주요질환에 집중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교보 생생플러스 건강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5대 질환을 보장하는 주계약과 생활보장특약(3종), 일반특약(11종)으로 구성돼 고객 연령이나 경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주계약은 5대 질환 발생시 각 질환 별로 진단보험금 1,500만원과 매월 생활자금 50만원을 3년간 받을 수 있다.우리은행, 변동금리형 예금상품 출시우리은행은 민영화 성공을 기념해 주거래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와 유리한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위비 슈퍼 주거래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정기예금과 자유적금으로 구성돼 있다. 정기예금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내, 가입 기간은 6개월과 1년 중 고를 수 있다. 3개월마다 시장금리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코리보를 활용해 금리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자유적금은 고정금리지만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한화생명, 보험료 변동 없는 7대 질병 보장보험 출시한화생명은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 폐 질환, 말기 간 질환, 말기 신부전증, 장기간병 등 7대 질병을 보험료 변동 없이 평생 보장하는 ‘변액유니버설 GI보험’을 출시했다. 또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은 중대질병(CI)이 아닌 일반질병(GI)으로 조건을 완화해 질병의 정도와 관계 없이 보장한다. 최저 가입보험료는 월 5만원이다.

언론사: 한국일보-3-584.txt

제목: ‘올해의 KAIST인 상’에 박희성 교수  
날짜: 2017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02050641001  
ID: 01101101.2017010205064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2016년 올해의 KAIST인 상’ 수상자로 박희성(46) 화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희성 교수는 암과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실험실에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관련 연구 결과는 지난해 9월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올해의 KAIST인 상은 한 해 동안 국내외에서 KAIST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연구 실적이 탁월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2001년 제정됐다.

언론사: 한국일보-3-585.txt

제목: 메트라이프생명, 재진단암도 보장하는 ‘무배당 암엔암보험’ 출시  
날짜: 2017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02050636004  
ID: 01101101.20170102050636004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메트라이프생명은 2일 재진단암을 횟수 제한 없이 2년 주기로 계속 보장해주는 ‘무배당 암엔암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주계약으로 암 진단 시 최대 6,000만원을 보장해 주며 가입자 상황에 맞게 보장기간을 80, 90, 100세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재발률이 높은 암을 집중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특약을 제공한다. 일부 특약은 2년마다 첫 번째 암 이외에 재발암, 전이암, 잔존암과 새로 발생하는 암까지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한다.또 암과 함께 한국인 3대 사망원인 질병인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출혈도 두 번까지 보장한다. 데미언 그린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span class='quot0'>암환자의 2차암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최대 4배나 높은 점에 주목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암 보장 횟수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span>” 며 “<span class='quot0'>앞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한국일보-3-586.txt

제목: 대전시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날짜: 2017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02050630001  
ID: 01101101.20170102050630001  
카테고리: 지역>대전  
본문: 대전시는 새해부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가정 호스피스는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ㆍ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정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전에서는 충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병동호스피스보다 경제적이고 웰다잉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로 수요가 늘고 있다.대전시 가정호스피스 서비스는 충남대병원 가정호스피스 팀에 완화의료전문간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 1명을 시의 비용으로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시는 1억1,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의사와 원목실, 자원봉사회 등은 기존 충남대병원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전시 웰 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가정호스피스 대상 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원이 제한될 경우에는 취약계층 암환자와 말기암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대전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가정 호스피스제를 통해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사업의 성과를 보아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3-587.txt

제목: [데이터 혁명] 데니스 홍 교수는 누구?  
날짜: 2017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101050620001  
ID: 01101101.2017010105062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97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외곽에서 태어나 3세 때 한국으로 와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마쳤다. 이후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 위스콘신대 기계공학과를 거쳐 퍼듀대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버지니아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겸 로봇 공학 연구소장이 됐고 2014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엔젤레스캠퍼스 기계공학과 교수 겸 로봇매커니즘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부친은 우리나라 항공우주학의 태두로,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을 역임한 홍용식 인하대 명예교수다. 미 보잉사의 연구원이었던 홍 명예교수는 74년 국방과학연구소를 돕기 위해 귀국했다. 데니스 홍의 형(존 홍)과 누나(줄리 홍)는 미국 국방연구원과 미 국립보건원 산하 암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